

## 第五篇 朝鮮後期



宣化堂(有形文化財 第1號)

第1章 支配體制의 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第2章 社會構成의 變動과 經濟都市로의 成長

第3章 文化의 새 氣運과 文化都市로의 發展

第4章 外勢의 侵略과 地域民의 抵抗



## 第五篇 朝鮮後期

### 第1章 支配體制的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 第1節 監營의 設置와 行政組織

##### I. 監營의 設置와 邑城의 築修

慶尙道の 監營이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하게 된 것은 宣祖 34년(1601)이었다.<sup>1)</sup> 이에 대하여 《大丘府邑誌》에는

體察使 李德馨이 狀啓하여 本府(大丘府)에 留營하여 (監司로 하여금) 府使를 겸하게 하고 (府에는) 별도로 判官을 설치할 것과 慶山·河陽·花園 등 여러 현을 本府에 割屬시키도록 청하였다.<sup>2)</sup>

고 하였고, 《增補文獻備考》도 선조 34년에 대구부로 감영을 옮겼다고 하였다.<sup>3)</sup> 이 때 설치된 감영의 정확한 위치는 현 대구직할시 중구 포정동 중앙공원 자리가 분명하다. 그리고 감영은 그 사이의 얼마동안의 監營革罷期間을 제하고는 韓日合邦時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존속해 왔었다. 그런데 대구 감영 설치의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宣祖 34년 1월에 吳滂을 大丘府使에 제수하였다는<sup>4)</sup>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때는 아직 대구에 감영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선조 34년 6월 司諫院의 上啓에

1) 이하 감영의 설치와 행정조직에 관한 서술은 다음의 기존 업적을 주로 참고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 1983.

2) 《大丘府邑誌》(《邑誌》慶尙道篇 ①②)所收,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2) 監營條. 이하 인용된 《大丘府邑誌》는 이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3) 《增補文獻備考》 권 17, 〈輿地考〉 5, 郡縣沿革 3, 慶尙道條.

4) 《宣祖實錄》 권 133, 34년 1월 기사조.

大丘府는 영남의 巨邑으로서 變亂을 겪은 후에 蕩敗가 더욱 심하고, 게다가 監司의 駐營하는 바 되어 凡干策應은 오로지 判官에게 있습니다.<sup>5)</sup>

고 한 말에서 이 때는 이미 도호부의 모든 사무가 관관에게 돌아간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감사가 도호부사를 겸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므로 대구에 감영이 설치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시기는 대체로 宣祖 34년 2월에서 5월 사이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경상도 감영이 종래의 尙州·慶州·星州 등 巨邑에 설치되었다가 이 때에 와서 대구에 이치된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실한 것은 제시할 수 없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추측된다.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로는 대구가 壬辰倭亂을 통하여 그 군사적 위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임진왜란 시에 我軍이나 明軍·倭軍을 막론하고 대구에 進駐하였거나 통과한 사례는 빈번하였다.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구의 지리적·군사적 중요성이 별로 크게 인식되지 못하였다.<sup>6)</sup> 그러하던 대구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갑자기 두드러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군사작전상의 중요성이 인정된 데 있었던 것이다.

둘째, 대구부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감영 설치의 이유로 간주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아 대구부는 경상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상도 전체를 통할하는 데 있어서 입지 조건이 가장 이로운 곳이었다. 종래 감영이 설치된 바 있던 慶州나 尙州는 각기 左·右道를 통할하는 감영의 입지로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겠지만, 경상도 전체를 통할하기에는 그 위치가 좌·우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부가 지니고 있었던 구체적인 지형과 지세는 북은 琴湖江과 八公山으로써 漆谷·軍威·永川과 접하고 있었고, 동은 산으로써 慶山과, 남은 八助嶺과 같은 高嶺으로써 清道와, 서는 洛東江으로써 星州·高靈과 접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구는 사방이 강 또는 산으로써 인근 지방과 접하고 있었던 천연의 호조건을 구비한 곳이었다.

5) 《宣祖實錄》 권 138, 34년 6월 계미조.

6) 그것은 전국의 烽燧網이나 驛院 編制에서 알 수 있다. 먼저 봉수망을 보면 大丘府域內的 봉수대는 法伊山·城山·馬川山 등 3개처로서 이중 성산·마천산 봉수대는 主烽 가운데 第2炬(東萊-漢陽)에 속하는 間烽의 일부에 해당하며, 법이산 봉수대도 또한 간봉에 해당하였다. 이로써 볼 때 전국의 봉수망 가운데서 대구가 점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한편 역원 편제를 보더라도 大丘府域內에는 省峴道에 속하는 凡於와 舌化 두 역 밖에 없었고, 더구나 간선은 대구를 피하고 있었다.(本章 第3節 交通·通信의 整備와 大邱 참조)



세째, 대구부 자체내의 물산이 풍부하여 감영의 경비조달에 유리한 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府外 지방의 물산이 대구부로 집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경제적인 면의 이유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구부 자체내를 보면 壽城縣과 河濱縣의 水稻平野는 그 縣域의 규모로 보아서 매우 광활한 것이었으며, 그 곳의 곡물은 南門市場 또는 西門市場에 집결하였을 것이고, 貢納米는 江倉을 통하여 東萊府로 운송되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읍의 물산도 대구로 집결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대구부는 경제적으로도 감영이 설치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移置된 6년후인 선조 40년(1607)경에 下三道 즉 慶尙·全羅·忠清道 監司의 留營이 폐지되었다.<sup>7)</sup> 그러나 감사의 유영이 설사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감사의 留住地는 의연히 존재하여 종래와 같이 軍糧·軍器·布物을 留置·貯藏하였다. 감영이 폐지되어 大丘判官이 大丘府使로 승격되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감영이 존속한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경상도 감사는 이후에 있어서도 대구를 유주지로 하여 계속해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의 유주소를 감영이라 일컫지 않고, 감영의 비용이 대부분 삭감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현종 10년(1669) 6월에 감영의 법을 復設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하였다. 따라서 경상도 감사는 대구부사를 겸하게 되었고 대구에는 따로 判官을 두었다. 그러다가 숙종 3년(1677) 1월 감사의 부사겸임을 해제함에 따라 판관제는 혁파되었으나 동왕 10년(1684) 3월 감사의 부사겸임을 다시 허락하고 별도로 판관을 두게 되었다. 이후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상도 감영은 대구에 계속 두어졌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韓日合邦時까지 지방제도의 변천에 관계없이 대구가 경상도 道治였던 점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었다.

한편 대구에는 石城이 축조되기 이전에 土城이 있었다.<sup>8)</sup> 이 토성은 宣祖 23년(1590)에 善山·軍威·仁同 등 三個 邑民을 징발, 大丘府民과의 협력하에 이듬해 선조 24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토성은 선조 25년(1592) 4월 21일 왜군 가운데 맨먼저 대구에 진주한 고니시(小西行長)軍에 의하여 毀破되었으므로 그 구체적인 규모는 알 길이 없다.

그후 대구읍성의 축조는 보다 시급한 대구 부근의 關防에 해당하는 公山山城과 星山の 禿音山城의 축조에 밀려 거론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대구의 축성문제가 제기된 것은 현종대

7) 《宣祖實錄》 권 208, 40년 2월 정미조.

8) 《大丘府邑誌》 邑先生 尹晁條.

었다. 현종 5년(1664) 왕이 大臣과 備局 諸臣을 熙政堂에서 인견하였을 때 영의정 鄭太和가 上啓한 말 가운데 경상도 감사 李尚眞의 狀啓 내용과 그에 대한 그 자신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바

경상감사 李尚眞의 장계 가운데 이르기를 ‘東萊에서 大丘까지 축성을 하고자 하나 臣(李尚眞)이 곧 갈려 歸京할 것이므로 신임 감사에게 청하여 취임한 뒤에 酌處케 하십시오’라 하였습니다. 臣(鄭太和)의 뜻으로는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마땅히 상진이 올라 오기를 기다려 천천히 논의하여 처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sup>9)</sup>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에 수록된 경상감사 이상진의 장계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래에서 대구에 이르기까지는 城池가 하나도 없어 만약 적의 무리가 육지에 내려서기만 한다면 그 형세는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선 것 같을 것이니 이것이 壬辰·丁酉 兩倭亂시 혹독하게 병화를 입은 까닭입니다.<sup>10)</sup>

라 하여 東萊城·密陽城·慶州城·永川城 등 동래에서 대구에 이르는 위의 여러 성의 축조 필요성을 설명한 다음,

그 다음 대구부는 곧 四通五達의 지역으로서 비록 평지에 있기는 하지만 大關防을 만들만 합니다. 진실로 성벽을 굳게 쌓고 성 주변의 도랑을 깊이 팔 것 같으면 평지라고 해서 어찌 지키지 못하겠습니까?<sup>11)</sup>

라 하였다. 그는 이어서 동래·밀양·경주·영천·대구 등지에 城鎮을 함께 만들고, 聲勢를 서로 의지할 것 같으면 남방의 왜적에 대한 방비는 이에서 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의 제안은 임진왜란시 왜군의 북방진로가 바로 동래에서 위에 말한 지역을 통과한 데서 감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신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시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9) 《顯宗實錄》 권 9, 5년 7월 정유조.

10) 위와 같음.

11) 위와 같음.

그러다가 英祖 12년(1736)에 가서야 大丘邑城의 축조는 당시 慶尙道 觀察使 兼大丘都護府使였던 閔應洙의 건의에 의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英祖實錄》은 좌의정 金在魯의 말을 전하여

경상감사 閔應洙가 대구성의 축조를 청하였는데 그 지형이 비록 성을 지키기는 어려울지라도 울타리의 방벽이 없을 수 없다. 趙顯命 역시 일찍이 대구성 축조의 마땅함을 말한 적이 있었다.<sup>12)</sup>

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영조의 윤허를 얻게 되었다. 大邱直轄市 中區 南山洞 鄉校構內에 현존하고 있는 築城碑에 의하면, 영조 12년(1736) 1월 8일에 採石을 시작하여 4일후인 12일에 開基하였고, 體城은 4월 25일에, 女堞은 6월 6일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축조된 것이 앞서 지적한 石城인데, 과거 毀破된 土城보다는 그 규모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성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때의 석성은 왜란을 통하여 대구의 군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된 훨씬 뒷날에 축조된 것인데다가 대구에 감영이 설치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규모가 확대된 이후의 일이므로 토성의 규모보다 확장되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 석성의 규모에 대하여 위에 든 축성비의 기록과 《大丘府邑誌》 營先生條 및 城池·府城條와 《大丘府事例》<sup>13)</sup>의 記錄間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당시의 실제 기록인 축성비의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기록에 나타난 성의 대체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다.

周圍의 總延長 ; 2,124步(築城碑, 大丘府邑誌 府城條, 營先生條)

2,122步(大丘府事例 城堞條)

城의 높이 ; 22尺(營先生條), 24尺(府城條), 10尺(城堞條),

西南 18尺·東北 17尺(築城碑)

女堞 ; 955(營先生條, 府城條, 城堞條), 819(築城碑)

이 성에는 동서남북의 네 정문이 있었는데 동을 鎭東門, 서를 達西門, 북을 拱北門이라

12) 《英祖實錄》 권 41, 12년 1월 정사조.

13) 이하 이용된 《大丘府事例》는 《韓國地方史資料叢書》 9, 事例篇 2, 麗江出版社, 1987에 수록된 것이다.

하였으며, 특히 남문에는 ‘嶺南第一關’의 扁額이 걸려 있었다. 또한 동서에는 두개의 暗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석성이 6개월 가까운 시일이 걸려 완성되는 동안 축성의 역을 맡았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都差使員	前水使	李守身		
一都廳	前副使	金 巨	二都廳	折衝 趙克亮
策應都廳	前僉使	權順性	東所都廳	嘉善 申 智
西所都廳	前僉使	李 洵	南所都廳	嘉善 李彥命
北所都廳	折衝	白尚輝	東門都廳	折衝 閔興肇
西門都廳	折衝	李惟天	南門都廳	折衝 鄭 理
北門都廳	折衝	李光新	都廳監董	嘉善 李茂實
策應監董	折衝	許 楹	東所監董	閑良 張萬維
西所監董	折衝	金克協	南所監董	嘉善 文在徵
北所監董	閑良	河道文	東門監董	司果 徐產成
西門監董	閑良	李百齡	南門監董	嘉善 洪致雲
北門監董	折衝	尹衡老		
燔瓦監官	同知	洪禹鼎		

축성공사에 동원된 延人員은 78,584인이었는데 이들은 대구 부근의 雜色軍을 위시하여 大丘·漆谷의 烟軍, 咸吉道 六鎭의 東伍軍, 山城의 牙兵, 慶尚道內的 僧軍 등이었다. 영조 12년(1736) 11월에 宣化堂에서 落成宴이 베풀어졌으며, 이듬 해 2월에 ‘嶺南築城碑’를 건립하였다. 현존하는 이 비는 舊觀德亭址에서 舊達城郡廳(大邱直轄市 中區 東城路 二街)부근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鄉校構內를 거쳐 지금은 忘憂公園으로 移置되어 있다.

그 후 130여년이 지난 高宗 7년(1870) 성벽의 대수리가 행하여졌다. 봄에서 가을까지 8·9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수리공사의 총경비는 대체로 70,000錢이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민간의 기부금에 의한 것이었다. 읍성이 영조 12년(1736) 축조된 이래 修城倉을 두고 수시로 부분적인 수리를 하여왔지만 雉堞의 훼손과 門樓의 朽傾이 심하여 전반적인 수리에 착수하였던 것이며, 수성 당시의 국내외 정세의 긴박성도 수성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 수리 내용을 보면 성벽의 상부에 설치된 雉堞은 모두 개축하였으며, 성벽의 일면을 더욱 확장하였고, 종전보다 성벽의 높이를 더하였다. 그리고 동서남북 네 문의 문루를 改建 重修한 외에 성벽 위에 새로 네개의 樓閣을 세웠는데 동의 定海, 서의 籌勝, 남의 宣恩, 북의 望京이 그것이며, 그 사이에 8개소의 砲樓를 설치하였다.

이 수리에 관련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都監董 中軍 趙性駿

西城監董 1人(성명미상)

南城監董 1人(성명 미상)

策應都廳 前五衛將 李會善

東城監董 前五衛將 李運會

北城監董 前司果 朴性淵

축성공사가 완성되자 당시의 경상도 관찰사였던 金世鎬의 撰文에 의한 修城碑가 건립되었다. 이 비는 현 망우공원 내에 축성비와 나란히 현존하고 있는데, 위의 공사내용에 관한 자료는 이 수성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수성비는 이 공사에 동원된 延人員, 그들의 性分, 工役의 始畢時期 등 여러가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공역의 시필 시기에 관해서는 《日省錄》에 약간의 간접 기록이 있어 그 시작을 고종 7년(1870) 3월경으로, 완성을 동년 윤10월경으로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 II. 府域의 變遷

이미 논급된 바와 같이 대구는 世宗 1년(1419) 縣에서 郡으로 승격되었고, 世祖 12년(1466)에는 다시 郡에서 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두 차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太宗 14년(1414) 이래 대구의 屬縣은 解顔·壽城·河濱 등 3縣이었다. 이 3현은 대구도호부의 직할지로서 수령(현령 또는 현감)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壬辰·丁酉 兩倭亂을 겪고 난 宣祖 34년(1601)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이치됨에 따라 감영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慶山縣, 河陽縣 및 星州 소속의 花園縣 등 3현을 대구에 來屬시키게 되었다.

太宗 14년(1414) 당시의 영역에 대하여는 전기편에서 논급된 터이므로 여기서는 새로이 來屬한 3현의 境域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경산현에 대하여 《慶尚道地理志》는 그 四方界域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東은 慶州府 任內인 慈仁縣의 境界 朴洞을 相距하기 12里 160步, 河陽縣의 境界인 多乎道를 相距하기 15里 50步.

南은 淸道郡의 境界인 省乙縣을 相距하기 21里 310步.

西는 大丘 任內인 壽城縣의 境界 垣縣을 相距하기 16里 310步.

北은 大丘 任內인 解顔縣의 境界 訥古介를 相距하기 15里 190步.

위에서 언급된 朴洞은 지금의 慶山郡 押梁面 信川洞으로 추정되며, 多乎道는 慶山郡 押梁面 賢興洞 乾興 부근으로 추정된다. 省乙縣은 淸道郡 華陽面 松金洞의 省峴, 垣縣은 大邱直轄市 壽城區 池山洞 당고개로 추정되며, 訥古介는 대구직할시 동구 安心2洞 栗岩 부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점을 四至로 한 慶山縣의 縣域은 지금의 대구직할시 동구 安心洞, 수성구 孤山洞, 慶山市, 慶山郡 南川面의 전부와 押梁面의 西半部가 될 것 같다.

다음 河陽縣의 境域에 대하여 위의 《慶尚道地理志》는 그 四方界域을

東은 永川郡의 境界인 匙川을 相距하기 4里 248步(永川을 相距하기 4里).

南은 慶山縣의 境界인 乾興을 相距하기 13里 349步(慶山을 相距하기 2里).

西는 大丘 任內인 解顔縣의 境界 草頃을 相距하기 14里 250步(解顔을 相距하기 2里)

北은 新寧兼梨旨縣의 境界인 四巖을 相距하기 2里 321步.

라 기록하였다. 괄호 속의 내용은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으로서 《慶尚道地理志》의 것과 대비하기 위하여 함께 적어 보았다. 匙川은 現 慶山郡 瓦村面 匙川洞, 乾興은 慶山郡 押梁面 賢興洞 乾興, 草頃은 大邱市 東區 坪廣洞 한천의 城嶺, 四巖은 慶山郡 河陽邑 大鶴洞으로 각각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의 敬山郡 하양읍 전부와 珍良面의 北半이 河陽縣域이 될 것 같다.

花園縣의 境域에 대하여 同書는

東은 大丘郡의 境界인 首等件을 相距하기 12里 264步.

南은 玄風縣의 境界인 引峴을 相距하기 16里 55步.

西는 加利縣의 境界인 江林里를 相距하기 13里 5步.

北은 大丘 任內인 河濱縣의 境界 加隱代於支를 相距하기 7里 6步.

라고 하였다. 首等件은 오늘날의 大邱直轄市 達西區 月背洞 上仁 부근, 引峴은 達城郡 玉浦面 金興洞과 同 論工面 本里洞 사이의 설피(雪峴), 江林里는 達城郡 玉浦面 江林洞, 加隱代於支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城西3洞 巴湖 부근 등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花園縣의 境域은 지금의 大邱直轄市 達西區 月背洞, 達城郡 花園邑·玉浦面 등을 포괄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왕 대구의 속현이었던 解顔縣·壽城縣·河濱縣 등 3현에 大丘本府를 합한 것이 오늘날 大邱直轄市 및 達城郡 嘉昌面·河濱面·多斯面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慶山市, 慶山郡 南川面·押梁面(西半)·河陽邑·珍良面(北半) 및 達城郡 花園邑·玉浦面 등을 첨가한 것이 宣祖 34년(1601) 당시의 大丘府域이 되는 것이다.

그 6년 후인 宣祖 40년(1608) 2월 下三道의 監營이 혁파됨에 따라 동년 5월에 慶山·河陽兩縣을 대구에서 분리시켜 하양현을 경산현에 합하여 하나의 독립현으로 삼고, 花園縣은 그대로 대구에 속하게 하였다. 따라서 선조 40년 이후의 大丘府域은 선조 34년 당시에 비하여 慶山·河陽 2縣이 축소된 셈이다. 대구부역이 이렇게 축소된 직접적인 원인은 감영의 폐지에 말미암은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영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할속시킨 3현이 감사의 私莊化하였고, 대구본부만이 그 비용을 전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폐가 列邑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監營 置廢의 한차례 반복을 거쳐 그 復置가 확정된 것은 肅宗 10년(1684) 3월이었다. 대구에 감영이 복치됨과 아울러 星州 소속의 花園 8坊(面)과 密陽 소속의 豐角 4面이 대구부에 이속됨으로써 대구부역은 그만큼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지방을 대구에 할속시킨 것은 역시 감영의 비용을 支辨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 慶山·河陽을 대구에 할속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던 모양이나 그보다는 오히려 화원 8방과 풍각 4면을 할속시키는 것이 용이하였던 모양이다.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화원 8방은 선조 40년 경산·하양이 대구에서 분리될 때 그대로 대구부의 소속으로 남아있었는데 숙종 10년(1684)에 새삼스럽게 할속시켰다는 것은 자못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화원이 대구에서 분리되어 성주에 귀속하였다가 이 때 다시 대구에 來屬한 때문이 아니었는가 짐작된다.

새로 來屬한 豐角 4面은 密陽府 소속의 옛 豐角縣을 말하는 것으로서 《慶尚道地理志》는 그 四方界域을

東은 豆也保 部曲을 相距하기 4里 110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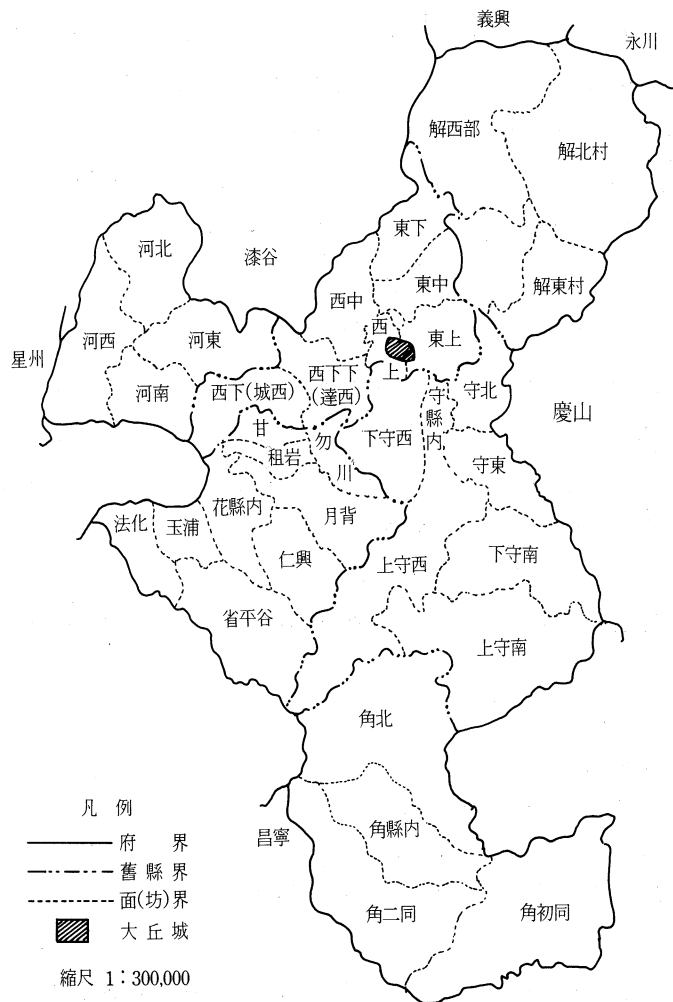
南은 昌寧縣의 境界인 比峴을 相距하기 38里 58步.

西는 昌寧縣의 境界를 相距하기 13里 300步.

北은 大丘 任內인 壽城縣의 境界를 相距하기 18里 340步.

라 기록하였다. 이 사방경계로써 구획되는 지역은 곧 오늘날의 淸道郡 角北面·豐角面·角南面 등 3面に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숙종이후의 대구부는 大丘本府와 舊解顔縣·壽城縣·河濱縣·花園縣·豐角縣 등 5縣 소속의 34面(坊)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大邱直轄市 전역에서 북구 漆谷洞, 동구 安心洞, 수성구 孤山洞을 제외한 영역 및 達城郡의 嘉昌面·河濱面·多斯面·花園邑·玉浦面 등 5個面과 淸道郡의 角北面·豐角面·角南面 등 3個面 도합 8個面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다음의 〈圖 1-1〉과 같다. 이렇게 하여 확정된 대구부역은 그뒤 대구의 지방행정단위 자체의 昇降에도 불구하고 1906년 지방구역의 정리에 의하여 풍각 4면이 청도에 이속될 때까지 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圖 1-1〉 大丘府域(肅宗 10年~高宗 31年) 地圖



高宗 31년(1894) 甲午改革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면에 걸쳐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듬해에는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최고 지방행정단위로서의 道는 폐지되고, 그에 대신하여 전국을 23府로 나누어 관할케하였다. 따라서 1개부의 관할범위는 도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줄어든 셈이었다. 그 23부 가운데 하나였던 大邱府의 관할은 大邱郡 등 23개 군으로서 과거의 경상도에 비하여 그 영역이 많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구군의 관할 구역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었다.

과거 대구도호부가 관할하던 지역이 그대로 대구군역이 되었을 따름이었다. 고종 33년(1896) 府에 대신하여 道制가 복치된 변화가 있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또 그 관할 구역에도 변동은 없었다.

그 10년 후인 光武 10년(1906) 9월 ‘地方區域整理件’에 의하여 대구군 소속의 角北面·角縣內面·角初同面·角二同面 등 4면이 淸道郡에 移去하게 됨으로써 대구군은 종래의 34개 면에서 30개 면으로 줄어 들었다. 그 뒤 1910년 韓日合邦 직후에는 下守西面이 上守西面에 합해짐으로써 면적에는 변동없이 형식상 30개 면에서 29개 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13년 府制의 실시와 더불어 과거의 대구군의 관할 구역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壽城面·嘉昌面·公山面·解顔面·河濱面·多斯面·城北面·達西面·城西面·月背面·花園面·玉浦面 등 12개 면은 새로 생긴 達城郡에 이속되었고, 대구부는 과거의 東上面·西上面 두 면만을 직할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늘날의 大邱直轄市中區 대부분에 七星洞을 포함하는 소규모로 축소된 셈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 III. 大邱의 行政組織

조선후기의 지방행정제도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행정단위에 있어서 변동된 일이 가끔 있었을 따름이었다. 건국초기에 전국을 8도로 구획하여 각도에 觀察使와 都事 각 1인을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관찰사는 1도를 총관하고, 도사는 관찰사의 유일한 양반 속료로서 점차 그 직책이 管下吏員의 監察糾正을 주로 하게 되었다. 각도의 大小邑은 그 취락의 大小, 인구의 多寡, 田結의 廣狹 등에 의거하여 府·大都護府·牧·都護府·郡·縣으로 등급을 정하고 각기 府尹·大都護府使·牧使·都護府使·判官·郡守·縣令·縣監

등 守令을 파견하였다.<sup>14)</sup>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된 이상과 같은 관료들은 모두 양반신분으로서 그 수가 각자의 담당할 행정구역을 관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이에 수령의 행정사무를 돕는 吏屬으로서의 鄉吏·假吏가 있어서 六房 및 各色的의 사무를 담당하였고, 군사 및 경찰사무를 돕는 이속으로서의 軍校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使令 또는 羅將이라 불리던 부류가 있어서 잡무를 담당하였으며, 또 그 밑에 官奴婢가 있어서 고된 잡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대구도호부는 선조 34년(1601) 이후 경상도 관찰사의 감영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대구에는 도 전체를 총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조직과 도호부 자체를 관할하기 위한 행정조직 그리고 대구진관의 군사행정을 위한 조직 등 삼원적인 행정체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즉 監營, 府衙(本官) 및 鎭營이 그것이었다.

監營에는 중앙에서 관찰사, 도사 각 1인이 품관으로서 파견되었고 그 밑에서 행정실무 내지 잡역에 종사하였던 것은 지방의 향리 이하 각 부류였다. 이러한 부류가 어느정도의 규모였는지는 《經國大典》이나 기타 기록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그런데 《磻溪隨錄》에 의하면 柳馨遠이 스스로가 구상한 지방관제의 내용 중에서 종래의 불필요한 冗官을 汰去하고 절실히 필요한 인원만을 각행정단위지역별로 열거한 것을 보면 각도가 필요로 하는 관료 및 이속은 관찰사 및 도사 각 1인, 審藥·檢律 각 1인, 書吏(營吏) 30인, 皂隸 140인, 小史 28인 등으로 잡았다.<sup>15)</sup> 이로써 추찰컨대 그 당시의 실제 인원(품관은 예외였겠지만)은 이보다 훨씬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大丘本府에는 도호부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양반관료로서 都護府使(중 3품) 혹은 判官(중 5품) 1인이 있었다. 이들은 동시에 병존한 것이 아니고 관찰사가 도호부사를 겸임하지 않을 때는 도호부사가, 겸임할 때는 판관이 있어서 府政을 專掌하였던 것은 이미 논급한 바와 같다. 조선후기에 와서 경상도관찰사는 대구도호부사를 겸임한 때가 많았으므로 府政은 대체로 판관에 의하여 專掌되었던 셈이다. 대구의 府政을 담당하였던 조선후기의 府使 및 判官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의 <表 1-1>과 같다.

14) 이하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서술은 다음의 업적을 주로 참고하였다.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1990.

15) 《磻溪隨錄》 권 15, 職官之制 上 外官職條.

〈表 1-1〉

朝鮮後期 大丘府使 및 判官 名單

府使 및 判官			入仕 經路	赴任	離任	備考
府使	鄭經世	安允安	文	1607(宣祖40). 5	1608. 5.	柳成龍 門人
	金允安	李應仁	々	1608(光海卽). 8	1613. 3.	
	曹應仁	許旻立	一	1618. 12.	1619.12.	
	辛義勛	韓明溥	一	1622. 3.	1623.4.	明倫堂 造成
	朴明國	趙賓數	文	1623(仁祖1). 5.	1624. 1.	
	洪思檮	李宓一	一	1628. 7.	1631. 5.	
	金尚履	洪時聘	南	1641. 8.	1644. 1.	尚憲의 弟 前府使 思數의 子 貴의 子
	李益善	朴翰男	々	1644. 9.	1645. 1.	
	成李益	李有兼	武	1648. 10.	1649(孝宗卽)10	
	李緯國	朴徹淀	一	1656. 9.	1657. 9.	1669. 7. 降判官 大運의 從弟
	李崇長	申守綱	一	1668(顯宗9). 8.	1669. 9.	
	沈守宗	李壽應	一	1669. 12.	1671. 12.	
判官	崔權大	朴載紳	南	1677(肅宗3). 2.	1678.	1684. 2. 降判官
	金允一	鄭洙世	文	1679. 1.		
府使	鄭趙朴	李奎徵	一	1682. 7.		
	李李姜	李世持	南			
判官	李趙李	柳正楸	々			
			一			



府使 및 判官	入仕 經路	赴任	離任	備考
具 膺	—	1778. 12.	1780. 3.	
洪 元	—	1780. 4.	1784	
魚 用	—	1784. 2.	1784. 5.	
李 復	—	1784. 5.	1787. 5.	
徐 退	—	1787. 6.	1790. 3.	
李 義	—	1790. 4.	1791. 6.	
沈 公	—	1791. 7.	1792. 윤4.	
李 端	—	1792. 윤4.	1794. 3.	
鄭 昌	—	1794. 4.	1795. 9.	
洪 履	—	1795. 10.	1798. 7.	
洪 景	—	1798. 7.	1800. 12.	
朴 壽	—	1801(純祖1). 1.	1803. 6.	
徐 有	—	1803. 6.	1806. 11.	
鄭 冕	—	1806. 11.		
朴 宗	—	1810. 12.	1814. 1.	
趙 鎮	—	1814. 1.	1814. 7.	
張 翰	—	1814. 7.	1817. 8.	
鄭 是	—	1817. 8.	1820. 12.	
李 章	—	1820. 12.	1822. 6.	
趙 濟	—	1822. 6.	1824. 12.	
趙 鍾	—	1824. 12.	1827. 12.	
尹 滋	—	1827. 12.	1829. 7.	
趙 亨	—	1829. 7.	1831. 12.	

위 표에 등재된 부사나 판관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인물은 정조대 판관 李潁이다. 그는 정조 즉위년(1776)에 부임하여 3년간 재직하였는데 그의 업적은 大丘府治로부터 5리 떨어진 守西面과 東上面을 걸쳐 흐르는 냇가(현 新川)에 제방을 축조했던 사실이다. 이 냇가는 대구분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 유입하는 것으로 유사 이래 이의 흐름에 따라 대구지역의 판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의 범람을 방지하는 것이 역대 수령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였다. 그는 이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私財를 털어 10여 리에 걸쳐 제방을 쌓아 물길을 오늘의 신천으로 흐르게 하여 범람의 피해를 종식시켰다. 대구지역 백성들은 그의 공적을 기려 이 제방을 李侯堰, 또는 李公堤라 하였다.<sup>16)</sup>

그 외 광해군대 부사였던 金允安은 백성을 관대하게 다스리고 권세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16)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八公山》續集, 1991, pp. 603~604. 순조 8년(1808) 백성들이 냇가에 비를 세워 李公堤碑라고 하였는데 그 후 대흥수시에 분실되었다가 최근 신천고속화도로 건설시 지하에서 발견되어 대봉동에 재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않았다. 邑民 중에 당시 권력자 鄭仁弘의 세력을 믿고 閭里에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침탈하는 자가 있었는데 다른 관리들이 꺼리어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을 그는 잡아 다스리고 용서함이 없었다.<sup>17)</sup> 그리고 인조대 부사였던 金尚宓은 선정을 베풀어 명성을 떨쳤는데 성품이 강인하고 떳떳하였으며 매사를 상세히 살펴서 吏屬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고 한다.<sup>18)</sup> 판관 李徵海는 숙종 29년(1703)에 부임하였는데 이듬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진휼을 잘하여 堂上官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sup>19)</sup>

一人의 府使나 判官이 府政을 담당한 유일한 양반관료였고, 그 밑에서 각 부서의 실무에 종사한 것은 향리들이었다. 대구부에 얼마만큼의 향리나 그 이하의 賤類가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經國大典》에 의하면 도호부에는 書員이 26인, 日守(使令 또는 門卒)가 36인, 羅將이 主鎭인 경우 30인, 巨鎭인 경우 20인, 諸鎭의 경우 10인씩 두어졌고 기타 差備軍이 주진 20인, 거진 14인, 제진 4인씩 배치되었다.<sup>20)</sup> 조선후기의 대구는 판관이 節制都尉가 되는 諸鎭이었지만 관찰사가 兵馬節度使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대구는 동시에 주진으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었을 것이므로 吏屬들의 배치가 주진·거진·제진중 어느 것에 해당했는지 의문이다. 후기에 편찬된 《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등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에 하등의 첨삭이 가해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구의 향리 배치 상황은 더욱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게 정확한 자료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大丘府邑誌》에 수록된 대구부의 吏屬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sup>21)</sup>

人吏廳 소속 ; ①126인 ②307인

使令房 소속 ; ①25인 ②78인 ③30인 ④使令 25인, 保 7인

小童房 소속 ; ①39인 ②142인 ③小童 9인, 保 4인

官奴房 소속 ; ①40인 ②81인

敎 房 소속 ; ①妓生 31인 ②妓生 35인

위에서 든 이속들 가운데 어느 것이 대구부 소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중 많은 것을

17) 《嶺南人物考》 권 2, 金允安.

18) 《國朝人物考》 권 37, 金尚宓墓誌銘.

19) 《大丘府邑誌》 邑先生條.

20) 《經國大典》 兵典 外衙前條.

21) 《大丘府邑誌》 公廨條.

감영 소속, 적은 것을 대구부 소속으로 본다면 대구부에는 吏胥(人吏) 126인, 使令(羅將·門卒) 25인, 小童(通引) 39인, 官奴 40인, 妓生 31인 모두 261인이 있었던 셈이다.

한편 대구도호부의 관할구역은 시대에 따라 신축이 있었지만 肅宗 10년(1684) 이후는 고정된 영역을 갖게 되었다. 앞서 논급한 바의 大丘本府와 解顔·壽城·河濱·花園·豐角 등 5縣이 그것이었다. 이들 5현은 大丘都護府使 또는 判官에 의하여 관할된 지역이므로 현이라 하더라도 현령·현감과 같은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대구본부의 행정기구나 조직에 의하여 통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현은 수개의 面으로, 그리고 면은 수개의 里로 세분되어 있었는데 면에는 面任이 里에는 里任이 面里의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面·里任의 칭호는 조선후기에도 차이가 있었다. 面任은 風憲·約正·里正長·都尹·檢督·坊首·社長·勸農·面主人 등으로, 里任은 里正·洞首·尊位·統首·坐上·頭民 등으로도 호칭되었으나 그 역할에는 차이가 없었다.

《戶口總數》와 해당지역 《邑誌》에 나타난 조선후기 대구지역의 面里構成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sup>22)</sup>

〈表 1-2〉 朝鮮後期 大邱地域의 面里構成

地 域	面 名(안은 里數)	面數	里數
大丘都護府	東上(12) 東中(5) 東下(4) 西上(11) 西中(6) 達西(8) 城西(4) [이상 大丘本府] 解西部(11) 解東村(13) 解北村(15) 解西村(10) [이상 舊解顔縣內] 守縣內(3) 守北(7) 守東(7) 上守西(4) 下守西(4) 上守南(10) [이상 舊壽城縣內] 河北(7) 沙東(6) 河西(10) 河南(7) [이상 舊河濱縣內] 花園內(7) 甘勿川(6) 租巖(2) 月背(7) 仁興(5) 玉浦(4) 法化(5) 省平谷(5) [이상 舊花園縣內] 角北(16) 角縣內(8) 角二同(12) 角初同(11) [이상 舊豐角縣內]	33	262
漆谷都護府	東北(4) 西北(8) 下北(5) 八莒(6) 退川(9) 文朱(4) 伊彦(5) 上枝(5) 道村(5) 蘆谷(4) 巴旆(5) 山城(3)	12	63
慶 山 縣	邑內(16, 村1, 部4) 東(12, 洞4) 南(13) 西(14) 北(9)	5	73
河 陽 縣	邑內(10) 磨陽(7) 安心(6) 樂山(7) 中林(5) 尾村(6) 北(4)	7	45

22)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의 영역에는 칠곡군 칠곡읍과 경산군 고산면·안심읍이 각각 북구 칠곡동, 수성구 고산동, 동구 안심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칠곡도호부와 경산현·하양현의 면리구성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조선초 이래 정부에서는 面·里任을 가급적 在鄕品官 내지 有識者를 선임하려 하였다. 이는 향리 대신에 士族으로 하여금 면리 행정을 담당케 함으로써 향리의 농간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수령이 이들 재지사족의 面·里任을 우대하지 않고 행정의 하수인으로 사역하게 되자 사족은 이를 기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향촌의 ‘卑賤之類’가 面·里任에 임용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鄕所를 구성하고 있던 재지사족의 하수인에 불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리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面·里任은 하부행정체계하에서 해당구역내의 戶口를 파악하여 관에 보고하고, 良丁을 軍額에 편성하고, 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말단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또 해당구역내의 水利事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지방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촌락공동체의 유지 운영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끝으로 1981년 7월 대구직할시 승격 당시 편입된 칠곡읍, 고산면, 안심읍은 조선후기에는 각각 칠곡도호부, 경산현, 하양현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sup>23)</sup> 먼저 漆谷은 고려초에는 八菴라 칭해졌는데 고려 현종때 星州에 소속되면서 비로소 칠곡이라고 칭해졌다. 조선초에 인동현에는 현감이 파견되었으며, 약목현은 인동현의 속현으로, 팔거현은 성주목의 속현으로 하였다. 선조 26년(1593)경에는 경상도 감영이 일시 팔거현으로 옮겨지면서 이 지역이 중요시되었으며, 그 결과 선조 37년(1604)에는 都元帥 韓浚謙의 요청에 따라 天生山城이 축조되고 인동현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인조 18년(1640)에 팔거현에 架山山城이 축조되었는데, 산성이 州治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드디어 팔거현을 칠곡도호부로 승격시키고 軍威·義興·河陽·新寧 등 4현을 주관하는 諸鎭으로 삼았다. 칠곡도호부사는 武官 3品으로 임명되어 架山守城將을 겸하였다. 이처럼 좁은 지역에 2개의 도호부가 설치된 것은 이 지역이 경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을 뿐아니라 감영이 있던 대구를 방비할 수 있는 천연적인 요새였기 때문이다.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 개혁으로 23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칠곡군과 인동군으로 개편되어 대구부에 속하였으며, 다음해 13도제가 실시되자 다시 경상북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에는 府郡面 통합에 따라 인동군은 폐지되고 그 관할 구역은 칠곡군으로 편입되었다.

孤山지역은 조선초에는 경산현에 속하였는데, 경산현에는 현령이 파견되었다. 그 후 선조 34년(1601)에 경산현이 대구부에 속하게 되자, 고산은 大丘府 府東面이 되었다가 6년 뒤 경산이

23) 이 때 같이 대구에 편입된 달성군 월배읍·성서읍·공산면은 조선후기에는 대구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위에서 이미 논급되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다시 현으로 독립되자 慶山縣 西面이 되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 때 경산현은 경산군으로 되었고, 1914년에는 하양군·자인군과 신령군의 남면 일부를 병합하여 경산군이 되었다.

安心지역은 河陽縣 소속이었는데, 하양은 고려 현종대 慶州府의 속현으로 편입되었다가 조선 선조 34년(1601)에는 大丘府에 속하게 되었고 6년 뒤 다시 독립된 현으로 존속하였다. 그 후 1914년 하양군 안심면과 경산군 북면이 합하여 경산군 안심면으로 개편되었다.

## 第2節 軍制의 改編과 大邱

### I. 朝鮮後期の 軍制改編

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중앙의 五衛, 지방의 鎭管體制를 중심으로 특수병이나 의무군역자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의 군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모순이 발생하여 서서히 허구화되어 갔다. 이에 16세기 말에는 군사적 기능이 거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초기에는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사체제의 재정비 내지 재편성을 서둘러 난국을 타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우선 備邊司의 권한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동시에 三手兵을 중심으로한 浙江兵法을 도입하여 중앙에는 訓練都監을, 지방에는 東伍軍을 조직하였다.<sup>24)</sup>

왜란이후에도 국내의 정세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仁祖反正, 李适의 亂 등 국내적인 혼란과 丁卯·丙子胡亂 같은 국제적 도전 등이 겹쳐 일어남으로써 군사체제의 재편 강화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국방체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필요에 따라 御營廳, 摠戎廳, 守禦廳, 禁衛營 등이 차례로 설치되어 숙종대에 이르러 五軍營體制가 갖추어졌다.

오군영 중 서울을 직접 방어하던 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삼군문이었다. 이 3군문은 각각 왜란의 극복, 대청관계의 악화로 인한 국방력 강화, 국가재정 악화의 타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들 삼군문은 훈련도감과 같이 給料兵으로 편제되기도 하였고, 또는 어

24) 이하 조선후기의 군제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존 업적을 주로 참고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陸軍本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1977.

車文燮, 《朝鮮時代 軍制研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7.

慶尚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尚北道史》, 1983.

영청과 금위영같이 御軍을 주축으로 하여 戶·保에 의하여 편제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조직 편제 자체는 모두 東伍法에 의하였다.

그리고 수도 외곽의 방어에 주안을 두고 설치된 군영은 총융청과 수어청이었다. 이들 양청의 장은 京官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들의 기본 목적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 외곽의 방어에 치중하는 군영이었다. 이 양청은 屯田 개설, 保의 설정에 그 경제적 기반을 두었으나, 이에 수용된 군들은 주로 畿甸軍 특히 東伍軍이었다.

한편 중앙의 오군영체제 정비와 함께 지방에 있어서는 東伍軍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담 무관인 營將을 파견하고, 또 진관체제의 재정비에 주력하였다. 속오군은 명나라 장수 戚繼光이 지은 병서인 《紀效新書》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임진왜란 중 砲·殺手의 시급한 양성과 이들을 실전에 동원하기 위해 선조 27년(1594)을 전후하여 지방 사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속오군은 良賤이 함께 입속하여 해당지역 진관수령의 지휘하에 조직 편제되고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치 초기에는 지방관의 이해 부족으로 실효를 얻지 못하였다가 2·3년이 지나서야 진관중심의 속오군 조직이 거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편제는 1隊=11人, 3隊=1旗, 3旗=1哨, 5哨=1司, 5司=1營으로 되어 있었고, 1영의 군액은 원칙적으로 2,500인으로 하였으나 지방의 사정에 따라 가감하였다. 지휘관은 隊·旗·哨·司에 각기 隊摠·旗摠·哨官·把摠 등을 두어 영솔케 하고, 習陣·鍊兵의 최고책임자로 營將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도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習陣·鍊兵의 책임자인 營將이 일정한 위계질서가 거의 없어서 속오군 자체가 임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모순과 폐단도 많았다. 먼저 속오군에 대한 대우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고, 또 국가에서 속오군의 다과로서 수령을 상벌하였기 때문에 수령이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속오군이 모두 老弱殘疾로서 충원되는 경우와, 지방관에게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지움으로서 나타나는 폐단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인조 5년(1627)에는 수령중심의 운영에서 비롯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營將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는 속오군의 전문적인 조련을 위해 軍務를 아는 무신을 영장으로 파견함으로써 속오군에 대한 조련권과 행정권을 구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수령들의 반발과 재정적인 뒷받침의 불급 및 능력있는 무신의 결핍 등으로 영장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군비확충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효종대에 와서 영장제는 복치되어 의욕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나 효종의 사망후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후 숙종·영조대를 거치면서 兼營將制度로 환원됨으로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상태로 되돌아 갔다. 이에 따라 속오군의 편성체계도 사실상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속오군은 名存實無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속오군이 위와 같이 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겠고, 또 조선후기 군제 자체가 왕성 중심의 5군영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속오군이 지방군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지방군의 전부는 아니었다. 속오군과 사실상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馬兵·砲手·火砲手·大砲手·別砲手·槍軍·奴三手 등의 잡다한 이름의 군대와 이 외에도 牙兵·標下·親兵·武學·別武士·州鎮軍 등의 많은 지방군이 존재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선후기 지방군의 상황을 대구가 속하였던 경상도 지역에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서 대구지역 이해의 전제로 삼고자 한다. 경상도는 조선왕조의 국방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고려말 이래 빈번한 倭賊의 侵寇가 있어서 경상도는 그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와의 같은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兵馬節度使의 배치상황을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상도에는 여진족의 방비상 중요시 되어 온 함경도와 더불어 3인의 병마절도사가 배치되었다. 이에 비하여 내륙지방으로서 국방상 그 중요성이 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경기·황해·강원·충청 등 4도는 각기 1인의 절도사가 배치된 지역으로서 그것조차도 전담이 아닌 관찰사의 겸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평안도와 전라도는 2인이 배치되었는데 그중 1인은 관찰사가 겸대하였고, 나머지 1인이 전임 병마절도사였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병마절도사의 배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이하의 兵馬官, 더 나아가서는 兵員의 배치에까지 작용하였던 것이다.

먼저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경상도 육군의 진관편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1-3>과 같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상도에는 전기에 비하여 진관의 수가 증가하였다. 左兵使 관할하의 東萊鎮管과 右兵使 소관의 善山鎮管 및 星州鎮管 등 세 진관이 증치된 것이 곧 그것이다. 이 세 진관의 증치는 곧 세개 진관의 거진의 증치를 의미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同僉節制使와 節制都尉 소관의 제진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왔다. 먼저 좌병사 관할의 좌도를 보면 동첨절제사 소관의 제진으로서 順興(安東鎮管), 仁同·漆谷(大丘鎮管) 등 셋과 절제도위 소관의 제진으로서 英陽(安東鎮管), 慈仁(大丘鎮管) 등 둘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慶州(判官) 및 安東(判官)이 없어진 것과 상쇄되며, 신설된 大丘(判官)는 첨절제사 소관의 거진에서 승격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증치는 아니었던 셈이다.

다음 우도의 경우를 보면 동첨절제사 소관의 居昌, 河東(晉州鎮管), 巨濟(金海鎮管)의 3개 제진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선산, 성주가 첨절제사 소관의 거진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증치는

〈表 1-3〉 慶尚道 陸軍 鎭管의 編成<sup>25)</sup>

觀察使	(兵使·水使兼) 監營=大丘		備考
左兵使·虞候	左兵營=蔚山		增置巡營中軍 (正 3品堂上) 1人 增置 後營將 (正3品) 1人
僉節制使 (慶州鎭管) 慶州府尹 (兵馬節制使)	同僉節制使 蔚山 永川 興海	節制都尉  清河 延日 長鬚 彦陽	
(安東鎭管) 安東大都護 府使	寧海 青松 醴泉 榮州 豐基 順興	義城 奉化 眞寶 軍威 比安 禮安 盈德 龍宮 英陽	
(東萊鎭管) 東萊都護府使	梁山	機張	
(大丘鎭管)	密陽 清道 仁同 漆谷	大丘(判官) 慶山 河陽 玄風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慈仁	中營將 1人
右兵使·虞候	右兵營=昌原		
(尚州鎭管) 尚州牧使	金山	開寧 知禮 高靈 聞慶 咸昌	左營將 1人
(晉州鎭管) 晉州牧使	陝川 草溪 咸陽 昆陽 居昌 河東	泗川 南海 三嘉 宜寧 山清 安義 丹城	右營將 1人
(金海鎭管) 金海都護府使	昌原 咸安 巨濟	漆原 鎭海 固城 熊川	別中營將 1人
(善山鎭管) 善山都護府使			
(星州鎭管) 星州都護府使			

하나 뿐이었던 셈이다. 절제도위 소관의 제진으로는 동첨절제사 소관의 제진으로 승격된 것이 셋(거창·하동·거제), 없어진 것이 셋(상주·성주·진주)이었으므로 상쇄되면 제진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급 제진에서 상급 제진에, 혹은 거진으로 승격된

25) 수군은 대구의 군사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므로 생략하였다.

것이 많았고, 또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진관이 증치된 것이 있었으므로 국방태세가 일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후기에 이르러 경상도 지방의 국방력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전국적인 국방력의 증강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양차 왜란을 통하여 왜적의 상륙지역으로서의 경상도의 군사상의 중요성이 더 한층 깊이 인식되었던 탓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진관개편을 통하여 대체로 짐작되는 경상도의 군비증강은 《增補文獻備考》에 의거하여 작성된 〈表 1-4〉의 군액에 의하여 좀더 분명하게 그 윤곽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表 1-4〉 慶尙道の 軍額概況

區 分	觀察使管下	左 道	右 道	計	備 考
觀 察 使	1	—	—	1	以上將官(品官)
節 度 使	—	1	1	2	
中 軍	1	1	1	3	
別 將	5	2	1	8	
千 摠	3	1	2	6	
把 摠	7	4	4	15	
百 摠	6	—	—	6	
哨 官	46	24	31	101	
知 穀 官	4	8	32	44	
旗 牌 官	141	100	38	279	
(別)軍官	82	200	2	284	以上將校(品外) 以下軍摠(軍卒) 1哨=120名
作領軍官	700	—	—	700	
守堞軍官	—	—	938	938	
教 師	—	24	—	24	
別 武 士	962	—	425	1,387	
馬 兵	10哨	3哨	6哨	19哨	
親 兵	6哨	7哨	4哨	17哨	
牙 兵	31哨	—	5哨	36哨	
別 砲 手	—	3哨	2哨	5哨	
別放射手	—	2哨	—	2哨	
標 下 軍	831	310	300	1,441	
輜 重 軍	303	140	—	443	
塘 報 軍	30	—	—	30	
主 鎮 軍	—	—	13哨	13哨	
防軍兼作隊	—	12哨	—	12哨	
守 城 軍	—	548	—	548	
差 備 軍	—	50	—	50	

표에 나타난 경상도의 대체적인 軍額은 18,800인 정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첨절제사 이하 병마관 소관의 병력과 輪次 番上한 御營廳 및 禁衛營 소속의 鄉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모든 軍保는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다.

《萬機要覽》에 의하면 鄉軍과 軍保의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sup>26)</sup> 어영청의 편제는 1營 5部制로서 1隊=13인, 3隊=1旗, 3旗=1哨, 5哨=1司, 5司=1部, 5部=1營의 편성이었다. 따라서 어영청의 경우 125哨의 향군이 6道에 분산되어 있다가 1番 5哨씩 중앙에 번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번차수는 25번으로서 4년에 한 차례씩 번상하여 2개월씩 숙위하였다. 이 6도 향군은 모두 125哨 16,300인으로서 그 중 경상도에는 35哨 4,564인이 있었고, 그에 딸린 軍保는 資保가 6도 전체의 17,475인중 경상도에 4,893인, 官保가 50,175인중 경상도에 17,114인이 있었다.

한편 禁衛營의 경우에는 6道 鄉軍 125哨 15,925인중 경상도에는 30哨 3,822인이었는데, 그 중 2,370인은 卜馬軍이었다. 그에 딸린 資保 17,050인중 경상도에는 4,092인이 있었다. 물론 그중 540인은 卜馬資保, 나머지 3,522인은 正軍資保였다. 官保는 53,380인중 경상도에 14,010인이 있었다.

이상 경상도의 진관편성과 군액에 관하여 몇 개의 단편적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로서는 조선후기에 있어서 경상도에 어느정도의 군비가 되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礪溪隨錄》은 임진왜란 이전의 경상도 군액을 3衛 5,122인, 保 525인, 騎步正兵 9,721인, 保 20,890인, 束伍諸色軍 35,232인, 즉 군사가 50,075인, 보가 71,415인, 모두 121,090인으로 기록하였다.<sup>27)</sup> 수차의 외침을 겪고 난 후기에 가서 경상도의 국방상의 중요성은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므로 그 군액이 전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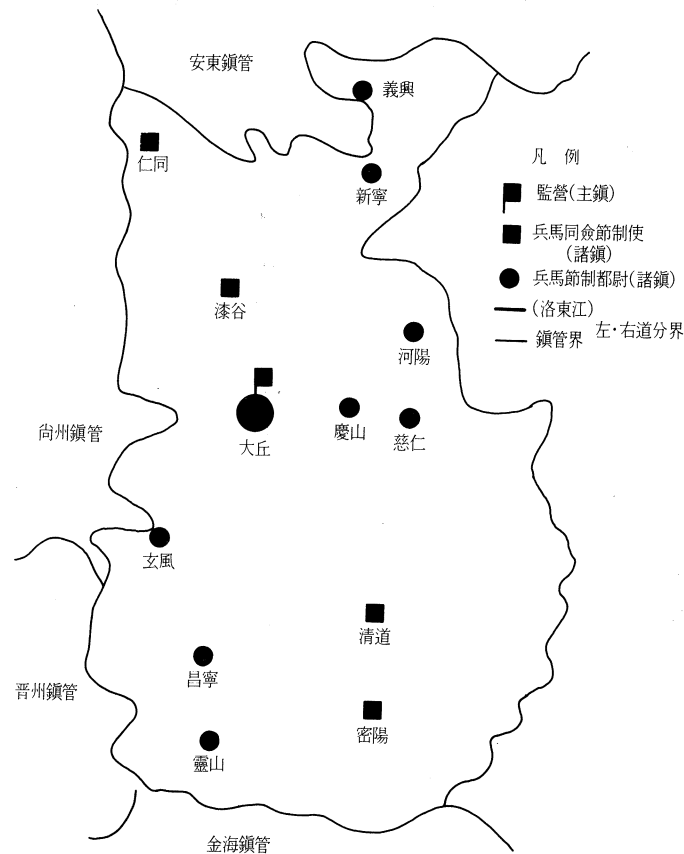
## II. 大邱의 軍事編制와 그 規模

조선전기에 있어서 경상도에는 慶州·安東·大丘·尚州·晉州·金海 등 6개 진관이 있었고, 大丘鎭管에는 密陽·淸道·慶山·河陽·仁同·玄風·義興·新寧·靈山·昌寧 등 10개 읍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편성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우선 도호부사가 첨절제사를 겸하였던 대구는 원래 거진이었던 것이 이 때에 와서는 대구판관이 절제도위를 겸한

26) 《萬機要覽》軍政篇 3, 御營廳 番上條.

27) 《礪溪隨錄》권 21, 兵制 本國古今軍數附.

제진으로 격하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의 격하는 아니었다. 그것은 선조 34년 이후 대구가 경상도 감영의 소재지로서 관찰사의 畱住하는 곳이 되었고 따라서 관찰사는 병마절도사를 겸대케 되었던 것이므로 자연 대구는 主鎭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진에서 제진으로 강격된 조치는 실제로는 거진에서 주진으로 승격한 셈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취하여진 형식상의 편제 변경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구진관 소속의 제진으로서는 同僉節制使 소관의 密陽·淸道·仁同·漆谷 등 4개와 節制都尉 소관의 大丘(判官)·慶山·河陽·玄風·義興·新寧·靈山·昌寧·慈仁 등 9개를 합한 13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동첨절제사 소관의 칠곡은 신설되었고, 인동은 절제도위의 제진에서 상급 제진인 동첨절제사 소관으로 승격된 것이며, 절제도위의 제진으로서는 자인이 신설되었던 셈이다. 대구진관의 이러한 제진편성은 다음의 <表 1-5>와 같고 이를 지도로 나타내면 <圖 1-2>와 같이 될 것이다.



<圖 1-2> 朝鮮後期 大丘鎭管 軍備

〈表 1-5〉 朝鮮後期 大邱地域의 軍額

鎮 管 名	郡 縣 名	軍 額	男 子 數	軍額/男子數(%)
大 丘	大丘府	15,209	24,794	61
	漆谷府	5,485	7,386	74
	慶山縣	3,766	6,470	58
	仁同府	3,409	9,151	37
	清道郡	4,113	15,240	27
	玄風縣	4,474	6,756	66
	慈仁縣	3,723	5,185	72
	河陽縣	1,634	3,962	41
	新寧縣	2,843	9,881	29
	義興縣	4,143	10,005	41

이 대구진관 소속이었던 대구도호부의 군액에 관하여 《大丘府邑誌》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sup>28)</sup>

京案付訓練都監 砲手保	228
御營廳 正軍	152
◇ 資保	99
◇ 官納保	434
禁衛營 正軍	226
◇ 資保	149
◇ 官納保	460
兵曹 騎兵	46
步兵	166
寺奴分防 禁袞直	50
掌樂院 樂生保	4
樂士保	13
校書館 匠人	42
補充隊 餘丁	1
忠翊衛	2
忠贊衛	243

28) 《大丘府邑誌》軍額條. 그런데 都摠과 실제의 총계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읍지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였다.



忠順衛	223
樂工奴保	3
針線奴保	2
選武軍官	291
外案付監營在家作營軍官	
百摠將	1
帶率作營軍官百摠將	2
在家作營軍官	107
在家出使軍官	88
牙兵哨官	8
旗鼓官	2
知穀官	2
帶率出使軍官	90
帶率作營軍官	101
旗牌官	111
都訓導	26
牙兵馬軍	226
牙兵馬軍保	461
牙兵步軍	590
牙兵卜馬軍	54
牙兵卜馬軍保	100
在家作營別將標下軍	20
／    百摠將標下軍	40
／    軍官火兵	70
／    馬丁	70
帶率作營別將標下軍	20
／    百摠將標下軍	20
／    軍官火兵	30
／    出使軍官 馬丁	30
將官廳 隨率	9
火兵	30
牙兵馬軍隨率	55
旗鼓廳 火兵隨率	23

第1章 支配體制的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 旗手	100
◇ 旗手保	68
塘執手	30
巫夫 軍牢 火兵	75
軍牢	50
◇ 保	17
火兵	4
羅將	80
◇ 保	12
弓人	22
矢人	10
硫磺軍	32
需米軍	75
炭軍	9
工庫格軍	6
◇ 助役軍	3
雇馬格軍	11
搗砧軍	40
各色匠人保	4
塘執手火兵	5
旗手火兵	10
都訓導馬丁	5
細樂手火兵	1
水鐵匠	26
沙器匠	6
瓮匠	63
各色匠人	244
各廳下典	226
架山外城守堞作營軍官	
百摠將	2
架山山城 出使軍官	10
◇ 守堞作營軍官	138
◇ 火兵	46

◇ 城丁哨官	15
◇ 火兵	5
◇ 城丁軍	203
◇ 大砲手	6
◇ 保	9
◇ 硫磺軍	39
◇ 募軍	200
◇ 軍器下典	3
監營餘射夫	9
中營標下軍	50
軍牢	30
隨率	8
各廳下典	18
統營屬安骨浦分防水軍	733
◇ 保	367
◇ 射夫	220
◇ 奴良軍	72
助羅鎮分防水軍	469
◇ 保	234
◇ 射夫	252
◇ 奴良軍	126
加德鎮分防水軍	240
◇ 保	119
◇ 奴良軍	41
天城堡分防水軍	97
◇ 保	50
◇ 射夫	225
玉浦鎮分防水軍	33
◇ 保	17
統營 硫磺軍	2
左兵營 ◇	35
烽燧別將	3
烽軍	75

◇ 保	225
大丘鎮討捕軍官	171
◇ 別將	1
◇ 千摠	1
◇ 把摠	1
◇ 知穀官	1
◇ 旗牌官	20
◇ 哨兵(官)	9
◇ 都訓導	5
◇ 保	6
◇ 軍牢	30
◇ 保	4
◇ 各廳下典	15
東伍別隊隨率	236
◇ 保	431
步兵隨率	1,008
◇ 保	1,043
左水營硫磺軍	23
府砧 擺撥步軍 保	45
梧桐砧 ◇	45
本府守堞軍官	1,000
火兵	34
出使軍官	60
別武士	112
◇ 保	98
卜馬軍	10
濟庫募軍	20
四驛驛吏保	34
上納御營保	434
10月 御營廳 納禁楸直	
10月 兵曹納 補充隊餘丁	50
10月 兵曹納 京步兵	82
3月 兵曹納 忠翊衛	2

12月 兵曹納 忠贊衛	243
忠贊衛	233
9月 兵曹納 義僧軍	8
10月 御營廳納 禁衛保	460
別破陣保	1
10月 禁衛營納 刻手保	42
10月 校書館納 咆保	228
10月 訓練都監納 樂工保	13
〃    樂生保	4
〃    樂工奴日用保	3
10月 掌樂院納針線婢美蟾保	2
10月 尚衣院納 寺奴	156
都摠	15,209
(實額數)	(17,305)

위의 표에 나타난 군액이 어느 때의 자료에 의거한 것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大丘府邑誌》의 편찬연대가 대개 순조 33년(1833)경으로 추측되므로 아마 그 근년의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이 읍지보다 편찬연대가 뒤늦은 것으로 여겨지는 《大丘府事例》가 전하는 대구도호부의 軍摠은 다음과 같다.

上番軍	
御營軍	91
禁衛軍	136
計	227
上納軍保	
御營軍保	613
禁衛軍保	644
布    保	293
計	1,550
下納軍保	
水軍保	2,599
步兵保	239

第1章 支配體制의 變化와 行政都市로의 定立

武學保	751
計	3,589
巡營納軍	
牙兵保	259
各邑軍保	105
計	364
中營納軍	
隨 率	8
需米軍	75
馬 丁	18
計	101
硫磺軍	
左水營納	23
府 納	25
統營納	2
計	50
撥 軍	90
烽 軍	300
束伍軍	
馬軍	195
隨率	40
步兵	967
計	1,202
各軍資保	
御營廳	99
禁衛營	149
束 伍	1,439
計	1,687
總 計	9,160

위의 군액은 《大丘府邑誌》의 것과 都摠에 있어서 6,000여인의 차가 생기고 더구나 實額數의 총계는 8,000여인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大丘府邑誌》 편찬 당시보다 후대인 《大丘府事例》 편찬시에 가서 대구의 군액이 대폭 감축되었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大丘府事例》가 편찬된 고종대의 국내의 정세로 보아 오히려 전대보다 군비를 확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의 현격한 차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설사 《大丘府事例》가 《大丘府邑誌》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전자가 중요한 병종과 액수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도총의 액수차만이 아니라 동일병종의 액수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서 어영청 및 금위영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大丘府邑誌)	(大丘府事例)
御營廳	正軍	152인	91인
	資保	99인	99인
	官納保	434인	36인
禁衛營	正軍	226인	136인
	資保	149인	149인
	官納保	460인	460인

이 양자의 대비에서 정군의 수는 감축되었는데, 보의 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大丘府事例》의 편찬 당시 정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나 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구자료를 그대로 습용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군의 액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上揭 두 자료중 어느 하나든가 아니면 둘 모두가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를 둔 杜撰이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의 東伍軍의 習陣과 鍊兵을 책임맡은 營將의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의 〈表 1-6〉과 같다.<sup>29)</sup>

29) 《大丘府邑誌》營將條.

〈表 1-6〉

朝鮮後期 大丘府의 營將

時 期	營 將 名
孝宗代 (1654(효종5) - 1659)	盧錠 李經漢 金時尙 徐尙高
顯宗代(1659 - 1674)	鄭漢驥 韓公信 李昌胄 朴始漢 李慶彬 鄭後諶 李東相 朴就文 崔鳴後 申伉 朴晟
肅宗代(1674 - 1720)	閔涵 羅八紀 李東榮 李尙詮 崔元泰 閔誠重 李世選 李昌胄 李相勛 李禪 韓翼世 權詢 金爾樞 李時宰 張萬益 申益恬 李溶 金翼八 權克升 閔聖濬 李相頊 申命尹 成至重 李厚全 池日賓 李濤 朴世挺 李震華 尹洽 柳重碩 閔濟章 金鼎鳴 安相漢
景宗代(1720 - 1724)	李鐵徵 朴瑞圭 朴慶
英祖代(1724 - 1776)	鄭道徵 全翊聖 申慶弼 崔震一 河沃 尹就履 張斗紹 閔鎮箕 尹慶哲 徐命茂 成德涵 金攄 徐愼修 崔尙衡 鄭崇 李衡身 李始赫 金浣 金應魯 申思儼 張志恒 趙(契) 李潤德 崔鎮海 柳惠基 柳赫 卞至英 朴良燾 金佐國 金天相 李裕遠 李興遠 李德耆 趙國鎮 李奎章 任益昌 李漢鼎 申晰 洪允中 李長玉 尹性淵 金泰淵 李彥培 李元萬 宋迪中
正祖代(1776 - 1800)	韓尙裕 權璫 李球 李徵萬 趙鳳達 李東植 沈趾賢 權煥 安樞 姜膺煥 李恒訥 趙命鎮 李郁延 張重吉 鄭周誠 柳相燁 金鎮九 李壽哲 金處純 趙恩錫
純祖代(1800 - 1834)	蔡顯五 金守淵 黃勉基 李遇 李儒燁 林擎翰 趙嶠 李碩遠 李思秀 李明錫 閔修顯 柳可源 安光貞 金星翼 申義直 權抑 洪奭弼 徐有植 朴耆會 柳信儉 申從鎬 金履昇 權友仁 鄭泰東 李教彬 吳致慶

이제까지 보아온 조선후기의 지방군제와 대구도호부의 군사 편제 내지 규모에서 밝혀진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질 수 있다. 조선전기에 확립된 지방군제로서의 진관체제는 후기에 가서도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졌을 뿐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구에 경상도 감영이 移置된 선조 34년(1601)을 계기로 대구는 자동적으로 兵馬節度使(관찰사의 겸임)가 주재하는 主鎮이 되었다. 전기에 있어 대구진관의 주축인 대구도호부는 巨鎮이었다. 이 거진이 후기에 형식상 諸鎮으로 降格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주진으로 昇格한 이중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주진으로 승격한 대구도호부는 대구진관의 주축으로 존속하였으며,



軍額 및 軍器 등을 포함한 모든 軍備는 전기에 비하여 훨씬 확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었다는 행정적인 사정의 변화, 왜란·호란을 겪은 뒤 변방의 군비확충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었다는 점, 거기다가 호구의 자연 증가에 따른 군역 담당자의 상대적 증가 등 세 가지를 그 이유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의 대구도호부의 군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앞에는 邑誌와 事例가 우선 쉽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만으로써 후기의 군비실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이 양자를 대비해 보면 조선말에 가서 군비는 마치 감축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 진부의 판단은 새로운 자료의 도움이 없는 한 힘들 것 같다.

### 第3節 交通·通信의 整備와 大邱

#### I. 道路와 院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도로가 담당한 역할은 극히 중요하였다.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지방의 물자를 중앙으로 신속하게 집결시키는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적·군사적인 면에서 중앙과 지방을 긴밀·신속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중앙집권을 강화케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의 군주 가운데 이 도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자가 드물었고, 그로 말미암아 도로는 부단히 개선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도로사정의 변화란 그다지 괄목할만한 것은 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회가 지닌 여러가지 제약 때문이었을 것이다.<sup>30)</sup> 조선전기의 도로망에 대하여 《經國大典》은

京城—開城府(現 京畿道 開城)

京城—竹山(現 京畿道 安城郡 二竹面 竹山里)

京城—稷山(現 忠清南道 天安郡 稷山面)

京城—抱川(現 京畿道 抱川郡)

30) 이하 교통과 통신의 정비와 그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존업적을 많이 참조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 1983.

등 近畿地方의 4개 幹線道路를 大路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그리고 中路는

京城－楊根 (現 京畿道 楊平郡 葛山面 楊根里)

竹山－尚州 (現 慶尙北道 尚州郡)

鎭川－星州 (現 慶尙北道 星州郡)

稷山－全州 (現 全羅北道 全州市)

開城－中和 (現 平安南道 中和郡 中和面)

抱川－淮陽 (現 江原道 淮陽郡 淮陽面)

등 6개 도로망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 도로망은 모두 小路였다.

조선후기에 와서도 도로망은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다. 《續大典》에도 전국의 도로를 역시 대·중·소로 구분하였다.<sup>32)</sup> 그러나 그것은 《經國大典》에서처럼 도로의 시발점과 종착역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다만 各道別<sup>33)</sup>로 소속역을 대·중·소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역의 위치를 지도상에 확정할 다음과 같은 등급의 역을 점철하여야 대·중·소의 정확한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大路驛은 경기도에만 12개가 있었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迎華道；良才·樂生·駒興 (京城－龍仁)

延曙道；延曙·碧蹄·馬山·東坡·青郊·狻猊 (京城－開城)

平邱道；綠楊·安奇·梁文 (京城－抱川)

迎華道の 여러 역을 연결하는 대로는 京城에서 龍仁까지, 延曙道の 여러 역은 京城에서 開城府까지, 平邱道の 제역은 京城에서 抱川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넷이었던 대로가 후기에 와서 형식상 셋으로 줄어든 셈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의 京城－竹山, 京城－稷山 등 2개 도로망이 후기의 京城－龍仁의 하나로 통합되어 용인에서는 종로로 죽산, 직산으로 연결된 것이므로 근본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같은 방법으로 中路驛을 연결해 보면

31) 《經國大典》工典 院宇條.

32) 《續大典》兵典 驛路條.

33) 여기서의 道는 行政道나 軍事道가 아닌 交通道로서 察訪(종6품)이 관할하며 몇개 이상의 역을 포함하는 일정의 지역을 의미한다.

京城－楊根  
竹山－尚州  
龍仁－全州  
開城－義州  
抱川－鍾城  
龍仁－永同  
忠州－丹陽

등의 7개 도로망임을 알 수 있다. 전기에 비하여 다소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종로였던 진천, 성주의 도로가 소로로 바뀌어졌고, 대신 충주－단양이 종로로 승격된 것이다.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대·중·소로의 구분 외에 《增補文獻備考》는 전국적으로 가장 긴요한 9大路를 다음과 같이 손꼽고 있다.<sup>34)</sup>

京城－義州  
京城－慶興  
京城－平海  
京城－幽谷－釜山  
京城－幽谷－統營  
京城－參禮－統營  
京城－濟州  
京城－忠清 水營  
京城－江華

위의 9개 대로는 모두 경성에서 국경의 주요 관문이나 군사적 요새지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로망의 역할은 군사적·행정적인 면에서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대구도호부의 도로는 《續大典》규정에 의하면 소로였고, 상계 9개 대로 가운데는 京城－幽谷－釜山の 도로가 府城안을 관통하였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부성안의 도로로서는 가장 간선적인 것이었다.

34) 《增補文獻備考》 권 24, 〈輿地考〉 12, 道里條.

## 이 도로는

京城－龍仁－竹山－鎭川－聞慶－尙州－漆谷

또는

京城－廣州－利川－陰城－忠州－聞慶－尙州－漆谷

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전자는 《續大典》에서 규정한 중로를 통해 대구도호부로 진입하는 도로망이었고, 후자는 《萬機要覽》이 경성에서 경상좌도로 연결되는 도로망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양자 모두가 당시 대구에서 경성으로 통하는 도로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경성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이 도로는 東明院峴에서 칠곡의 牛岩倉을 경유, 琴湖江을 건너 대구에 이르렀고, 거기서 다시 梧桐院을 경유, 八助嶺을 넘어 청도군으로 연결되었다. 이 도로의 대구에로의 진입로는 오늘날의 院垈洞 방면에 있었던 것 같다. 院垈에서 現 達城公園 앞길<sup>35)</sup>을 통하여 西門으로, 거기서 다시 등겨전 골목, 떡전 골목<sup>36)</sup>등을 거쳐 南門에 이르렀던 것인데 남문은 당시 ‘嶺南第一關門’이라 하여 대구의 출입문에 해당하였다. 그 곳에는 鍾樓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鍾路는 그에서 연유하는 명칭으로 여겨진다. 남문에서 다시 오늘날의 半月堂 앞길을 거쳐 現 大邱國民學校 西便 도로로 연결되었던 것 같다. 거기서 大鳳洞·鳳德洞을 경유, 新川을 건너 中洞·上洞·巴洞과 達城郡 嘉昌面을 경유, 八助嶺을 넘었던 것 같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도로는 당시 대구도호부를 통과하는 것으로는 가장 간선이었다. 그밖에 대구부역안에 있었던 도로로는 다음의 몇을 들 수가 있다.

### 1. 大丘府 西門－河東－河北－星州

이 도로는 西門에서 오늘날의 大新洞을 거쳐 達西區 江倉을 경유, 금호강을 건너 達城郡 多斯面, 河濱面을 지나 星州郡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35) 이 길을 당시에는 ‘서울 내길’이라 하였는데 아마 그 길이 京城으로 직통하는 길이었음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院垈란 명칭으로 보아 분명히 그곳에 원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大櫓院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나 읍지 편찬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모양이다. 이 대로원의 명칭은 당시 경성으로 통하는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琴湖津에 교량이 없어 배를 이용하여 도강하였던 데서 나온 것일 것이다.

36) 西門에서 南門에 이르는 도로 주변에는 각종의 私設商店 즉 亂塵이 많았던 것 같다.

## 2. 大丘府 西門－甘勿川－月背－花縣內－玉浦－法化－高靈

이 길은 오늘날의 대신동, 내당동을 경유, 월배동, 달성군 화원읍을 거쳐 옥포면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것은 논공면을 거쳐 고령군에 연결되었다.

## 3. 大丘府 西門－甘勿川－月背－花縣內－玄風

이 길은 오늘날의 달성군 논공면에서 도로 2와 갈리어 달성군 현풍면에 연결되는 도로였을 것이다.

## 4. 大丘府 北門－東中－解北村

이것은 당시 북문에서 오늘날의 대구직할시 북구 山格洞, 伏賢洞, 檢丹洞을 경유, 금호강을 건너 不老洞에서 다음의 도로 5와 합류하여 公山洞에 이르는 도로였다.

## 5. 大丘府 東門－東上－解西村－解北村

이것은 당시의 동문에서 오늘날의 七星洞, 新岩洞을 경유, 불로동에서 도로 4와 합류하여 公山洞에 이르는 도로였다.

## 6. 大丘府 東門－東上－解東村－慶山

이것 역시 동문에서 칠성동, 신암동을 경유한 것은 위의 도로 5와 마찬가지로였다. 도로 5와의 분기점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대구부읍지의 지도에는 도강하기 전에 갈라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그러했는지 지도의 착오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오늘날의 동촌을 경유하여 현 대구직할시 동구 安心洞, 慶山郡 河陽邑을 거쳐 永川郡에 이르는 도로였다.

## 7. 大丘府 南門－下守西－守縣內－守北－慶山

이 길은 오늘날의 대봉동, 봉덕동을 거쳐 中洞橋를 건너고, 거기서 中洞·上洞·池山洞을 경유, 경산군으로 연결된 도로였다. 이 길은 읍지의 지도대로 추정한 노선이다. 그러나 당시 이 길은 지름길이었고, 정로는 남문에서 오늘날의 壽城橋를 건너 凡於驛(現 泛漁洞)을 경유, 지산동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 8. 大丘府 南門—下守西—上守西—角北

이 길은 오늘날의 달성군 嘉昌面 龍溪洞에서 앞서 지척한 대구부의 간선도로와 갈리어 現 嘉昌 水源池를 경유, 亭垈洞에 이르렀고, 거기서 淸道郡 角北面을 거쳐 統營에 이르는 도로였다.

위에서 지척한 8개의 도로는 대구부역을 거쳐 사방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었다. 이외에도 비록 당시의 소략한 지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소로들이 있어 坊과 坊, 里와 里 혹은 소규모의 자연부락을 연결하고 있었을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위에서는 대구부의 내·외부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대구부의 가장 간선이 되는 도로인 경성에서 부산에 이르는 도로도 대·중·소로 가운데 소로에 속하였음은 이미 논급한 바와 같다. 간선도로가 소로인 대구부가 전국 교통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보잘것 없었던 것으로 속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중·소로의 구분 기준 자체가 행정적 또는 군사적인, 특히 군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설정된 것인 데다가 대로와 중로는 극히 몇 개 되지 않는 간선만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러한 속단은 삼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구부를 통과하는 간선이《續大典》이 편찬된 영조조까지는 법제적으로 소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법제적 규정과는 달리《增補文獻備考》가 전국의 9개 緊要道路中の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그 실제적인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도 논급하였듯이 대구가 경상도 감영의 소재지로 된 제요인 가운데 교통면의 편의가 전혀 도외시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더욱 중요한 근거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와 도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橋樑과 津도 역시 중요한 교통의 수단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大丘府邑誌》에 의하면 대구부에는 교량은 達西橋 하나뿐이었다고 한다. 달서 교는 오늘날의 達西川에 가설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정조 19년(1795) 6월에서 21년(1797) 3월까지 경상도 관찰사로서 대구도호부사를 겸하고 있었던 李泰永이 부임 이듬해인 정조 20년(1796)에 捐金으로 石橋를 축조하였다고 한다.

대구부의 津으로는 漆谷府로 통하는 琴湖江上的 琴湖津, 慶山郡으로 통하는 新川上的 檢汀津, 新寧縣으로 통하는 金호강상의 箭灘, 星州牧으로 통하는 落東江上的 新場津 등 넷을 들 수 있다. 이 넷 가운데 가장 중요시된 것은 칠곡으로 통하는 金호진이었다. 그것은 그 길이 바로 경성으로 통하는 도로였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읍지에 의하면, 순조 4년(1804) 1월부터 6년(1806) 1월까지 경상도 관찰사로서 대구도호부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金義淳이 부임 이듬해인 순조 5년(1805) 捐金으로 쌀을 마련하고 이것을 漆谷府에

말겨 매년 이식으로 들어오는 8石 6斗 4升을 금호진에 교량을 가설할 자금으로 비축해 두었다고 하며, 순조 27년(1827) 9월부터 29년(1829) 7월까지 같은 관직에 있었던 鄭基善이 이임년인 29년(1829)에 이식으로 모인 쌀 18石 14斗 4升에 따로 더 보태어 역시 연례대로 이식을 증식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금호진에 교량을 가설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은 그 곳의 교통의 빈번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교량이 가설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읍지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각 도로망에는 곳곳에 院이 산재해 있었다. 원래 院이란 공용의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세종 27년(1445) 7월에는 새로 대·중·소로를 정하고 동시에 각 원에 지급할 院位田의 결수도 그 전대의 것에서 재조정하였다.<sup>37)</sup> 또 《經國大典》에 의하면, 대·중·소로의 원에 각기 5戶, 3戶, 2戶씩을 배정하여 그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 원에 부여된 제반 임무에 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8)</sup> 이에 따르면 대구부의 여러 원은 小路院이었다. 따라서 府域안의 원에 지급된 원위전의 結數는 50卜가 되었을 것이고 종사 戶數는 2戶였을 것이다.

《大丘府邑誌》에 나타난 대구부의 院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sup>39)</sup>

院 名	位 置	備 考
洛 中 院	府南 40里	今無
大 櫓 院	府西 6里	〃
沙 丘 院	府西 10里	〃
觀 方 院	府西 20里	〃
馬 川 院	府西 30里	〃
南 川 院	府西 30里	〃
梧 桐 院	府南 30里	南至清道烏樓站 40里 北至漆谷高平站 50里
朴 谷 院	府西 26里	今無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大丘府邑誌》 편찬 당시인 순조 33년(1833)경에는 대구부역 안의 8개원 가운데 梧桐院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오동원도 과연 당시 현존하고 있

37) 《世宗實錄》 권 109, 27년 7월 을유조. 議政府는 戶曹의 의견을 좇아 大路院에는 1結 50卜, 中路院에는 1結, 小路院에는 50卜씩을 지급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이것은 고려 恭讓王 3년(1391)의 대로원 2結, 중로원 1結 50卜, 소로원 1結보다 각기 50卜씩 줄어든 셈이다.

38) 《經國大典》工典 院宇條.

39) 《大丘府邑誌》驛院條.

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읍지가 유독 오동원에 대하여서만 그 구체적인 위치를 다른 두 곳의 站과 연관하여 밝히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실존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동원이 당시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站과의 里程을 명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종 연간에 제작된 대구부의 지도 상에도 오동원만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견해를 뚜렷하게 뒷받침해 준다.

위의 표에서 또 하나의 의문을 낳는 것은 洛中院과 梧桐院 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곳의 원이 모두 대구부역의 서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보아 온 것처럼 대구부의 간선은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이 차라리 남북에 밀집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읍지의 기록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府西에 편중해 있는 이 여섯 원이 동시에 존재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보아 같은 방향에 4리, 6리, 10리의 간격으로 원을 密設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더구나 馬川院과 南川院은 기록대로 본다면 거의 같은 위치에 병설되어 있었다는 결과가 되므로 아마도 여러 원은 연대상으로는 선후하여 설치되었던 것을 읍지가 병존하였던 것처럼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위의 오동원이 설사 당시 현존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礪溪 柳馨遠이

이른 바 院이란 단지 主人(院主)이 없는 빈 집만 길가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허물어져 없어지는 일이 많다. 그것을 설치한 뜻은 비록 좋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리의 당연함을 잃고 있다.<sup>40)</sup>

고 말한 것을 보면, 유형원이 생존해 있던 당시(인조~현종)에 이미 이러한 상태였으니, 그 이후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官設 院의 이러한 毀廢는 자연 私設 店의 성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店은 站店이라고도 하여 站 즉 역의 인근에 위치하여 도로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사설 요식업과 여인숙을 겸한 것이었다. 이것을 보통 酒幕이라고 속칭하였다. 유형원은 이 站점(점)을 30리 내지 15리마다 하나씩 두되 반드시 읍내나 역내에 두도록 하고 站사는 역사와 연결토록 설치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사설점을 권장하는 방안으로서 그들에게 잡역, 예컨대 柴草를 채취케 한다든가 津丁으로 사역한다든가 하는 따위를 면제하여 줄

40) 《礪溪隨錄》 권 1, 田制 上.



것을 주장하였다.<sup>41)</sup> 왜냐하면 시대의 경과에 따른 도로 여행자의 증가는 官設院의 毀廢에 따른 私設店의 증설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店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교통의 요지나 지방관아의 소재지, 또는 역과 역 사이의 인가가 없는 외딴 곳 등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대구도호부역 안에는 얼마나 많은 店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할 수가 없으나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店이 산재해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 II. 驛·擺撥 및 烽燧

조선왕조에 있어서 郵遞, 通信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驛·擺撥 및 烽燧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의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행정적인 면에서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고 지방의 사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일과, 군사적인 면에서 변방의 軍情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하는 일 따위를 주기능으로 삼았고, 공적인 임무를 띤 관리에게 규정된 한도내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므로 驛制는 곧 국가의 신경조직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왕권의 강화를 위한 필요요건 중의 하나는 역제의 정비와 그 부단한 개선이었다. 역대의 군주가운데 이 역제에 무관심한 군주는 거의 없었고, 치적을 평가받는 군주는 더군다나 이 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쏟은 것을 알 수가 있다.

《續大典》에는 도로 자체보다도 驛을 대·중·소로역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로역은 경기도에만 12개처가 있었고, 중로역은 경기도 7, 충청도 24, 전라도 4, 경상도 5, 강원도 6, 황해도 11, 평안도 13, 함경도 30 등 100개처였으며, 여타는 소로역이었다.<sup>42)</sup> 이 100개처의 중로역 가운데 지역이 타도보다 광활한 경상도에는 겨우 5개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이 5개처에 대구부가 소속되어 있던 省峴道の 역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慶尙右道の 幽谷道에 속한 18역 가운데 5역으로서 聊城·幽谷·德通·洛陽·洛源 등이었다.

대구부에는 위의 省峴道の 13역 가운데 凡於·琴川·舌化·幽山 등 4역이 있었다. 凡於驛은 現 大邱市 壽城區 泛漁洞 부근에 있었다. 琴川驛은 現 達城郡 河濱面 縣內洞 부근에 있었던 것 같다. 舌化驛은 읍지에 의하면 花縣內面 舌化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現 達城郡 花園邑

41) 위와 같음.

42) 《續大典》兵典 驛路條.

舌化洞이 곧 이 지역으로 추정되나 역의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없다. 幽山驛은 읍지에 府南 70리에 있다고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古地圖에 의하면 角北面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現 淸道郡 角北面에 牛山洞이 있음을 보면 이 지역에 유산역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sup>43)</sup>

원래 역은 대개 30리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 반드시 그렇지는 못하였다. 위에 논급한 대구부의 4역도 각기 府東 9里, 府西 30里, 府西南 30里, 府南 70리에 위치함으로써 각역간의 相距가 30리를 모두 넘는 지점에서 大丘-慶山, 大丘-星州, 大丘-玄風·高靈, 大丘-淸道 등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역의 입지에 대하여 柳馨遠은

역은 반드시 도로에 임해 있어야 형편상 좋은 일인데, 오늘날 여러 역은 도로변에 임해 있지 않은 것이 많다. 어떤 것은 3리, 4리나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을 설치한 본래의 의의가 아니다.<sup>44)</sup>

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역의 입지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개의 경우 도로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것이 오늘날과 다른 점이었다. 대구부의 역을 보더라도 凡於驛은 大丘-慶山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現 泛漁洞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대구-경산간의 도로는 오늘날의 鳳德洞·中洞·上洞·池山洞을 경유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나머지 세 역도 古地圖에 의하면 도로와 相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역이 무엇 때문에 원래의 의의와는 달리 도로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게끔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通信機能으로서의 驛制는 擺撥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파발제는 변경지방과의 긴밀한 연락(주로 군사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지만)을 취하기 위하여 선조 30년(1597)에 설치된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역제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았다. 擺撥路는

京城-慕華館-金州-義州; 38站(西撥)

京城-楊州-鐵原-慶興; 64站(北撥)

京城-廣州-忠州-東萊; 34站(南撥)

43) 왜냐하면 ‘우산’과 ‘유산’은 음이相近할 뿐아니라, 오늘날 우산동에는 ‘새말’이니 ‘객실(客室)’이니 하여 당시의 역마와 객사를 추측케 하는 지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44) 《礪溪隨錄》 권 22, 兵制後錄 郵驛條.

등 세 갈래가 있었다. 이 파발로를 연결하는 발참은 騎撥 즉 말(馬)이 수단일 경우에는 25리마다에, 步撥 즉 보행이 수단일 경우에는 30리마다에 둔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참과 참 사이의 거리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위에 든 146개의 撥站이 모두 신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의 역이 임무를 대행하였으리라 믿어진다. 그것은 역제와 파발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서는 역과 참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역이든 참이든 간에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은 말(馬)이었다. 말은 통신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지만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에게 供與하기 위하여도 말은 구비되어 있어야 하였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역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증빙으로서의 馬牌를 가져야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무출장의 관리에게 供與된 馬匹은 다음 <표 1-8>과 같다.<sup>45)</sup>

<表 1-8> 出張官吏에게 供與된 馬匹(1)

品階 또는 任務	上等馬			中等馬			下等馬			總計
	乘	馱	計	乘	馱	計	乘	馱	計	
大君・議政	1	—	1	—	—	—	3	3	6	7
正2品以上	1	—	1	—	—	—	3	2	5	6
從2品	1	—	1	—	—	—	2	2	4	5
3品堂上官	1	—	1	—	—	—	2	1	3	4
6品以上	—	—	—	1	—	1	1	1	2	3
9品以上	—	—	—	1	—	1	—	1	1	2
赴京使・副使	1	—	1	—	—	—	—	2	2	3
書狀官	—	—	—	1	—	1	—	1	1	2
從事官	—	—	—	1	—	1	—	1*	1	2
從人	—	—	—	—	—	—	1	1*	2	2

\*는 2인의 짐을 싣는 데 1필이 지급된 것임.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도로 규정된 給馬는 당시의 형편으로는 여의치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후기에 가면 다음의 <表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마의 공여 항목은 늘어났으나 공여 마필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5) 《經國大典》兵典 驛馬條.

〈表 1-9〉 出張官吏에게 供與된 馬匹(2)<sup>46)</sup>

品階 또는 任務	上等馬			中等馬			下等馬			總計
	乘	馱	計	乘	馱	計	乘	馱	計	
大君・議政以下	1	—	1	—	—	—	2	2	4	5
正2品以上	1	—	1	—	—	—	2	1	3	4
從2品	1	—	1	—	—	—	1	1	2	3
3品堂上官	1	—	1	—	—	—	1	1	2	3
赴京使・副使	1	—	1	—	—	—	—	2	2	3
赴京書狀官	—	—	—	1	—	1	—	1	1	2
赴京從事官	—	—	—	1	—	1	—	1*	1	2
赴京從人	—	—	—	—	—	—	1	—	1	2
御史	1	—	1	—	—	—	1	1	2	3
通信使	1	—	1	—	—	—	—	2	2	3
通信從事官	—	—	—	1	—	1	—	1	1	2
堂上官~6品以上	—	—	—	1	—	1	—	1	1	2
9品以上	—	—	—	1	—	1	—	1	1	2
製述官以下	—	—	—	1	—	1	—	1**	1	2

\* 赴京 從事官의 馱 1匹은 赴京 從人과의 共用임.

\*\* 製述官以下는 2인이 1필을 共用함.

한데, 조선조 말경 대구부의 각 역이 보유하고 있었던 마필의 현황은 다음의 〈表 1-10〉과 같다.

〈表 1-10〉 大邱府 各驛 保有 馬匹<sup>47)</sup>

驛名	大馬	中馬	小馬	計
凡於驛	1	2	10	13
舌化驛	1	2	10	13
琴川驛	—	2	6	8
幽山驛	—	2	8	10
計	2	8	34	44

이러한 정도의 역마로서 당시 과연 법제적인 규정대로 급마할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하물며 규정 이외에도 역으로서 급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하여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續大典》에는

46) 이 표는 《經國大典》의 규정이 《續大典》에 의해 수정되어 조선말까지 준용된 것이다.

47) 《大邱府事例》驛道條.

濫乘者는 職品의 高下를 막론하고 해당 역의 察訪은 곧 바로 狀啓를 올려 보고할 것이며, 參外(參下)의 찰방은 관찰사에 보고하여 마패를 조사하지 않고 마필을 지급한 역은 제 마음대로 공여한 죄목에 의거 논죄할 것<sup>48)</sup>

이라고 규정하였으며, 《大典通編》에는

공적인 이유가 아닌 여행자는 비록 大君, 王子, 大臣이라 할지라도 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하지 말 것<sup>49)</sup>

이라고 규정하였다. 역마의 절대수의 부족은 역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은 물론이고, 지방관아가 공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수준조차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역은 역대로 마필의 조달 즉 立馬에 고충을 느껴야 했고, 地方官衙도 그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다. 그러므로 입마는 당시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원래 국속으로 마필의 증산을 금하여 왔으므로 마필의 절대수는 더욱 부족하였다. 원래 각역은 각도의 목장으로부터 역마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때로는 주인 없는 말, 亂臣으로부터 籍沒한 말 따위를 가지고 보충하기도 하고 수시로 백성들의 말을 징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을 사서 보충하기도 하였다.

백성으로부터 말을 사들일 경우 그 임무를 담당할 各道(行政道가 아닌 交通道)의 吏·兵房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通引, 及唱, 使令에 이르기까지 말의 하자나 기타의 이유로 情錢을 강요함으로써 자심한 민폐를 일삼았던 것이다. 당시의 대구부 凡於驛趾에서 발견된 비석의 立馬時情錢防禁節目은 그러한 악습이 암행어사에 의해 적발되었던 사실과 향후 재범을 경고하는 내용을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의거하여 절목의 형식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역에서도 역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말을 징발하는 등 刷馬를 하였지만, 지방관아도 공무수행상 필요한 마필을 刷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썰마와 썰마한 말이 斃死하였을 경우 대체할 말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刷馬價라 하고, 그 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扶馬價라 하여 이 둘을 扶刷價라 합칭하였다. 이러한 썰마가 내지 부마가가 지방수령이나 관아의 호의적인 연금으로 일부 충당될 경우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48) 《續大典》兵典 驛馬條.

49) 《大典通編》兵典 驛馬條

대개의 경우는 지방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大丘府事例》에 “扶刷價는 지난 것, 새 것 할 것없이 모두 民夫가 마땅히 납부해야 한다”<sup>50)</sup>고 한 것을 보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쇄마는 역마에 대신하여 지방관 및 이속의 공식 출장은 물론이고 중앙관에 대한 공여, 친구 지방관 및 그 가족의 영송 등 여러 방면에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비용의 부담이 지방민에게 돌려졌을 때 그들이 받게 된 고통은 실로 컸으리라 믿어진다.

조선후기 대구부의 쇄마현황과 부쇄가의 조달경위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丘府事例》에 의하면 언제인지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나 巡營軍이 捐金으로 낸 포목 17同으로써 쇄마 30필을 마련하였고, 그뒤 영조 13년(1737) 대구부 판관 李峽 등이 마 18필을 마련함으로써 쇄마는 도합 48필로 늘어났다. 이 48필을 유지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민이 납부한 쇄마가로써는 480斗落을 사서 마1필에 대하여 10斗落씩 지급하여 雇馬庫를 설치하고 나머지 돈으로 매년 이식을 얻어서 부쇄에 지급하였다. 그 재력이 거의 탕진되어 다시 지방민으로부터 부쇄가를 염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정조 7년(1783) 대구부 판관 洪元燮 등이 200兩의 捐金을 내었고, 순조 25년(1825) 鄭秉模가 1,000兩의 연금을 내어 합계 1,200兩을 이식 3할로 하여 현종 12년(1846)에는 원리 합계 2,129兩 4錢이 되었다. 이 전액을 다시 변돈(邊錢)으로 이용하여 그 이식 638兩 8錢 2分을 吏房에게 맡겨 불시에 新舊官이 교체될 경우의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가 연말에 가서 만약 그러한 사례가 없었을 때는 논을 사게 하였다. 그런데 순조 30년(1830)에 와서는 그 사이에 투입된 쇄마 운용상의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돈으로 논을 산 액수만도 3,931兩 7錢이 되었다고 한다.<sup>51)</sup>

위의 내용에 의하면 쇄마의 마련은 관아에서 하였고 그 말(馬)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지방민에게서 염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 지방민이 염출한 비용이 바닥이 나서 그들로부터 재차 염출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당시의 대구부 수령이나 뜻있는 관료가 낸 연금을 원금으로 이식을 늘려 말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결국 부쇄가의 상당한 부분이 지방관의 연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부담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실제의 형편은 매우 달랐을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大丘府事例》가 공적인 성격을 띤 자료이기 때문에 민폐가 됨직한 사항은 자료상 수식을 가하거나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각 역은 유지비조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고 있었다. 《萬機要覽》

50) 《大丘府事例》雇馬條.

51) 《大丘府事例》雇馬色條.

에 의하면 大路驛은 20結을 지급받았는데 특히 황해도의 대로역에는 25결을, 兩界의 것에는 10결을 더 지급하였다.<sup>52)</sup> 그것은 이 지방의 역이 지니고 있는 군사 또는 행정상의 기능이 중요하였거나 또는 對中國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中路驛은 15결을 지급받았는데 兩界의 경우는 7결을 더 받았다. 그리고 小路驛은 5결을 지급받았는데 양계의 경우는 3결을 더 받았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면 대구부의 4역은 모두 소로역이었으므로 5결씩의 驛位田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大丘府事例》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어느 시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구의 4역이 다음과 같은 규모의 역위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53)</sup>

凡於驛：66結 95負 4束

舌化驛：79結 42負 3束

琴川驛：55結 12負 8束

幽山驛：43結 23負 8束

이러한 규모의 역위전은 위에 말한 규정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데 대구의 4역이 실제로 그만큼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재고를 요하는 문제이다.

조선후기에 있어서 역이 통신기관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기능이나 그 수단으로서의 역마가 지니고 있었던 중요성은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매우 컸었다. 그런데 통신수단으로서의 역마의 입마에 따른 곤란은 역마의 공급에 뚜렷한 한계를 제약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국가측으로부터 기대될 수 없었던 현실속에서 역이나 지방관아는 ‘刷馬’라고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지방민이 당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피해는 당시 일반민중들이 지배층으로부터 다각도로 받아야만 했던 피해에 첨가되어 그들을 질곡에 속박하는 데 한 몫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에서 보아 온 역, 파발과 더불어 통신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다른 하나는 烽燧였다. 그런데 전자가 군사와 행정 양면의 통신을 아울러 수행하였던데 반하여 후자는 군사통신만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봉수는 국경지방의 군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함으로써

52) 《萬機要覽》軍政篇 1, 驛遞條.

53) 《大丘府事例》驛道條.

불의의 사고에 대비케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봉수망은 북변의 국경과 남방의 해안지방이 기점이 되고 京城이 중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 봉수망은 그 중요성에 따라 主烽과 間烽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주봉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봉수망이 있었다.

1. 慶興 西水羅-會寧-雲頭峰-吉州-咸興-安邊-鐵原-漢城
2. 東萊 多大浦-慶州-永川-安東-忠州-漢城
3. 江界 餘屯臺-朔州-義州-統軍亭-定州-安州-平壤-開城-漢城
4. 義州 古靜州-鎭南浦-海州-延平島-開城-漢城
5. 順天 突山島-(海岸線을 따라)-沃溝-(內陸으로)-臨陂-恩津-公州-天安-牙山-水原-南陽-仁川-江華-金浦-漢城

위의 5갈래 主烽中 1,3,4炬는 북변의 軍情을, 2,5炬는 남변의 군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주봉 이외에 주봉으로 연결되는 間烽이 있었다.

대구부에는 세개의 烽燧臺가 있었다. 《大丘府邑誌》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4)</sup>

1. 馬川山 烽燧; 府西 30리의 河北面 즉 오늘날의 達城郡 河濱面에 있었다. 남으로부터 달성군 花園邑 城山 烽燧臺의 連路에 응하며, 북쪽으로 星州郡 角山 봉수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2. 法伊山 烽燧; 府南 10리의 守東面 즉 오늘날의 대구직할시 壽城區 巴洞 國民住宅 東便山上에 있었다. 남의 淸道郡 八助嶺 봉수대의 연락에 응하며, 북쪽으로는 慶山郡 城山(花園城山이 아님)의 봉수대에 통보하였다.

3. 城山 烽燧; 府西 30리의 花園面 즉 오늘날의 달성군 화원읍 城山洞의 城山 위에 있었다. 서쪽 星州郡 德山 봉수대의 연락에 응하며, 북쪽으로 馬川山 봉수대에 통보하였다.

위에 든 대구부의 세 봉수대는 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래에서 한성으로 연결되는 주봉에는 11개의 간봉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섯번째 간봉은 加德島 天城堡를 기점으로 하여 昌原·靈山·昌寧·玄風을 거쳐 星州의 德山 봉수에 연결되었다. 거기서부터 위에 든 읍지의 기록처럼 대구부의 화원면 성산 봉수에 연결되고 거기서 다시 河北面의 馬川山 봉수에 연결되었다가 星州郡 角山 봉수에서 두번째의 간봉과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54) 《大丘府邑誌》 烽燧條.



이 간봉에는 대구부의 세개 봉수대 가운데 두개가 포함되어있던 셈이다. 나머지 法伊山 봉수는 역시 加德島 天城堡에서 初起하여 金海, 密陽, 淸道로 연결되는 여덟번째 간봉으로부터 수신하여 慶山의 城山에 통보하였는데 이 간봉은 永川 城隍堂에서 주봉에 연결되었다.

이처럼 대구부에는 전국의 5主烽, 24間烽 가운데 겨우 두개의 간봉에 연결되는 세개의 봉수대밖에 없었다. 당시 경상도 감영의 소재지였고 또 도호부의 행정조직을 지니고 있었던 대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수조직상으로 볼 때는 극히 보잘 것이 없었다. 그 까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봉수대 자체가 국경지방의 군정을 중앙에 알리는 군사통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륙지방에 있어서 외적의 침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대구였던 탓으로 봉수조직상 중요 위치를 점할 하등의 중요성이나 의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은 대구의 전국 지방행정 조직상의 비중이나 위치를 경감시키는 하등의 조건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 第4節 近代的 地方制度의 改編

### I. 地方制度의 改編과 大邱

10여년에 걸친 흥선대원군의 攝政이 끝나고 고종의 親政이 그에 대체되었던 것은 국내의 정치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원군이 고수하여 온 쇄국정책에서 문호개방에로의 정책변환을 가져 온 것이 그 가장 두드러진 예라 하겠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하여 歐美 열강과도 修好通商條約이 연달아 체결됨으로써 선진 자본주의의 세력이 세차게 조선에 밀려들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조선의 식민지화에만 전념하였던, 또 인접의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일본이 餘他諸國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본의 급속한 조선진출에 대하여 조선과 가장 오랜 외교관계에 있었던 淸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는 전쟁관계에까지 돌입하게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淸日戰爭에서의 승리를 기화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의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정책에서도 청의 간섭은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甲午改革이었다.<sup>55)</sup>

이 개혁에 앞서 일본은 金弘集을 수반으로 하여 親日派와 中立派로서 내각을 조직하는 동시에 軍國機務處라는 회의기관을 설치하여 개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갑오개혁 및 이후 수시로 단행된 개혁의 내용은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 제 부문에 걸쳐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開國紀元을 사용한 것과 일본의 효과적인 침투를 위해 중앙관제와 지방제도를 개혁한 것이 주된 것이었다. 먼저 중앙관제의 개혁을 보면 議政府와 宮内府를 구분하였고 의정부는 總理大臣을 수반으로 하여 종래의 六曹에 外務와 農商務를 더하여 內務·外務·度支·軍務·法務·學務·工務·農商務 등 8개 衙門으로 하고, 각 아문에는 局을 두어 소관사무계통과 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듬 해 1895년 3월에는 의정부를 內閣으로 고쳐, 내각 총리대신 밑에 外部·內部·度支部·法部·學部·農商工部·軍部の 7부를 두고, 그 밑에 局과 課를 두어 사무계통을 세웠다.

한편 지방제도의 개편은 고종 32년(1895) 제 2차 개혁때 단행되었는데, 전국의 8도를 폐지하고 23府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大地域主義가 小地域主義로 변모한 것을 뜻한다. 府 밑에는 종래 牧·府·郡·縣 등 병렬적으로 복잡하게 다원화되어 있던 행정단위를 郡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행정체계를 간소화하였다.

이 때의 23府는 다음과 같다.

漢城府, 仁川府, 忠州府, 洪州府, 公州府, 全州府, 南原府, 羅州府, 濟州府, 晉州府, 東萊府, 大邱府, 安東府, 江陵府, 春川府, 開城府, 海州府, 平壤府, 義州府, 江界府, 咸興府, 甲山府, 鏡城府

그러니까 종래의 慶尙道는 대구부를 위시하여 안동부, 진주부, 동래부 등 4부에 의해 분할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1개부의 관할구역이 도의 그것에 비해 많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소치라 하겠다. 그런데 대구부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大邱郡, 慶山郡, 漆谷郡, 仁同郡, 星州郡, 知禮郡, 高靈郡, 善山郡, 開寧郡, 金山郡, 義城郡, 義興郡, 軍威郡, 比安郡, 密陽郡, 清道郡, 永川郡, 慈仁郡, 新寧郡, 河陽郡, 昌寧郡, 靈山郡, 玄風郡

55) 이하 지방제도 및 군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 1983.

등 23개 郡이었으며, 대구부의 府廳 소재지는 대구에 두었다. 세조 12년(1466)이래 도호부로 존속하여 오던 대구가 이 때에 이르러 郡이 되었던 것이다.

전국의 각부에 배치된 관원은 觀察使 1人, 警務官 1人, 參書官 1人, 警務官補 1人, 主事 若干人, 總巡 2人以下였다. 관찰사는 内部大臣의 지휘감독에 속하며, 각부의 주무에 따라서 각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총리하였다. 參書官은 관찰사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서리하였으며, 警務官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사무를 掌理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였다. 警務官補 및 總巡은 관찰사의 명을 받고 경무관의 지휘에 따라서 관내의 경찰사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군에는 郡守 1인과 그 밑에서 실무에 종사할 職員이 있었다.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관내에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掌理하였다.

고종 33년(1896) 6월에는 지방제도가 다시 개정되어 일년만에 23府는 폐지되고 道制가 부활하였다. 종래의 8道에서 늘어난 당시의 13道는 濟州道를 제외한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그중 慶尙北道의 관할구역은 다음의 41郡이었다.

一等郡; 尙州·慶州

二等郡; 大邱·星州·義城·永川·安東

三等郡; 醴泉·金山·善山·淸道

四等郡; 青松·仁同·寧海·順興·漆谷·豐基·盈德·龍宮·河陽·榮州·奉化·淸河·眞寶·軍威·義興·新寧·延日·禮安·開寧·知禮·咸昌·英陽·興海·慶山·比安·玄風·高靈·長鬐·聞慶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였다. 즉 사법권은 행정기구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고종 32년(1895) 3월 공포된 ‘裁判所構成法’에 의하여 재판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재판소의 기능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漢城府裁判所, 지방에는 地方裁判所와 開港場裁判所가 제 1심 재판소로서 설치되었으며, 제 2심 재판소로서는 高等裁判所와 巡廻裁判所가, 왕족의 범죄 취급을 위해서는 特別裁判所가 각각 설치되었다.

종래 지방관의 군사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경찰권도 일원화되었다. 고종 31년(1894) 서울에는 警務廳을 두어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에는 각부 관찰사 지도하에 警務官을 두어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수의 행정과는 분리하였다.

이후 13도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906년 ‘지방구역정리건’에 의하여 하부의 행정구역에는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종래 큰 행정구역의 일부를 주위의 작은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각 군의 영역을 균등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시된 것이다. 어쨌든 이 때 전국은 13도 3335면으로 정비되었는데 경상북도는 41개군 507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정비와 함께 지방관제도 정비되었다. 도에는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경무관 1인, 주사 5인 이하, 총순 4인 이하를 두었다. 그리고 군에는 군수 1인, 주사 1인을 두었다. 또 면에는 면장을 두어 면내의 대소사를 ‘先爲處決’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가可否를 처리케 하였다. 면장은 보통 500戶에 1인을 두었는데, 처음에는 그 差定 방법이 관내 ‘有志之士’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상신하여 승인을 얻게 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자 1909년에는 面長職制를 제정하여 군수의 추천으로 이를 임명하며 군수의 감독하에 지방행정사무를 처리케 하였다.

한편 갑오경장이후 대구의 관할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후의 대구군의 관할구역은 조선후기 대구도호부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그 뒤 광무 10년(1906) 9월 공포된 ‘地方區域整理件’에 의거하여 舊豐角縣 소관의 角北, 角縣內, 角初同, 角二同 등 4個面이 청도군으로 이속함으로써 대구군의 관할구역은 원래의 34개 면에서 30개 면으로 줄어들었다. 韓日合邦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대구가 郡에서 府로 승격될 때의 관할구역은 29개 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下守西面이 上守西面에 합쳐짐으로써 일어난 결과였고, 관할면적에는 하등의 변동도 없었던 셈이다. 그 3년 후인 1914년 4월 1일 府制 실시와 더불어 대구부의 관할구역은 東上面·西上面 2개면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종래의 대구관할구역중 나머지 지역은 모두 신설된 達城郡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대구는 오늘날의 중구의 대부분에다가 칠성동이 첨가된 범위로 그 구역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이미 논급하였듯이 고종 32년(1895) 공포된 ‘裁判所構成法’에 의하여 재판의 기능은 지방 행정관으로부터 재판소로 이관되었다. 그 후 光武 8년(1904) 경상북도 재판소는 대구에 두도록 되었고, 그 관할구역은 경상북도의 전역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설치는 몇 년 지연되었다.

경찰권이 일원화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警務廳官制(1)’이 공포된 1894년 7월이었다. 그 이듬해인 1895년 4월에는 ‘警務廳官制(2)’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에는 警務署가 설치되었는데, 이 때 대구에도 경무서와 7개 지부가 설치되었다. 경무서에는 警務官이 署長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경무청 사무에 준한 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함에 있어서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 대구경무서의 관할구역은 경상북도 일원이었다. 그 뒤 광무 9년(1905) 7월에는 일본의 警察顧問部 설치에 따라 대구경무소에 警務補佐官과 補助員이 배

치되었다. 동년 8월 대구경무서는 경상북도경무서로 개칭되었으며, 이듬 해 광무 10년(1906) 1월에는 경무보좌관 사무소가 警務顧問支部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08년 8월 경무부의 설치에 따라 대구경무서는 경상북도경무서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이 때의 관할구역은 大邱·漆谷·慶山·星州·高靈·玄風·清道·慈仁·河陽·永川·新寧·軍威·比安·仁同·金山·知禮 등 16郡이었다. 그 뒤 合併直前인 1910년 6월 사법경찰사무 일체가 일본에 위임되자 그들은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憲兵警察制度를 실시하니 이것은 이후 1919년까지 계속되었다.

## II. 軍制改革과 大邱

甲午改革은 軍制面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문호개방후 일본세력의 침투에 뒤따라 別技軍이란 신식군대가 설치되어 이후 재래의 구식군대와와의 사이에 일어난 마찰은 1882년 壬午軍亂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던 것이 갑오개혁과 더불어 모든 군대는 모두 신식군대로 그 편제를 바꾼 셈인데 그 가운데서 중앙군 편제의 개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31년(1894) 8월 龍虎營을 統衛營에 합하였다가 같은 해 11월에는 扈衛副將·統衛使·壯衛使·摠禦使 등을 없애고 그 소속 將卒 및 禁軍·武藝別監·別軍官·前親軍營吏隸 가운데 待令者는 軍務衙門에 소속시켜 편제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扈衛廳·統衛營·壯衛營·摠禦營·經理廳 등 舊式軍營은 완전히 폐지된 셈이다.

그리고 이듬해 고종 32년(1895) 7월에는 訓練隊가 신설되었으나 같은 해 8월에는 훈련대가 폐지되고, ‘陸軍編制綱領’에 의하여 육군은 親衛隊와 鎮衛隊로 대별되었다. 전자는 首都防備, 후자는 地方鎮撫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광무 1년(1897) 9월에는 친위대원중 精鍊者를 뽑아내어 侍衛隊 2개 대대를 편성하였다가 이듬해 5월 이를 侍衛 第 1聯隊로 편제를 개편하였다. 광무 9년(1905) 4월에는 친위대가 폐지됨으로써 시위보병 제 1연대 편제는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고종 32년(1895)에는 工兵隊 8개 대대와 輜重兵隊 2隊가 설치되었으나 이듬해에 폐지되었다. 그 후 광무 4년(1900)에 공병대 1개 중대와 치중병대가 복설되었고 따로 砲兵 대대가 親衛步兵 1중대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또 이 해에 憲兵隊가 편성되었고 軍樂隊도 설치되었다.

한편 고종 31년(1894) 12월에는 陸軍將校 및 下士官의 계급을 정하였던 바 그 내용은 <表 1-11>과 같다.

〈表 1-11〉 陸軍將校 및 下士官의 階級

品 階		階 級		品 階		階 級	
正·從	1品	大	將	3	品	正	尉
正	2品	副	將	6	品	副	尉
從	2品	參	將	〃		參	尉
3	品	正	領	階	外	正	校
〃		副	領	〃		副	校
〃		參	領	〃		參	校

갑오개혁에 따른 중앙군제의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그 다음에는 지방군제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고종 32년(1895) 윤5월에는 각도 外營의 병졸이 해산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三道統制營·各道兵水營·鎮營·鎮堡가 각기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軍物·船隻 및 그 記錄, 帳簿 등은 軍部에 이관되었고, 建物·土地·金錢·米穀 및 그 記錄, 帳簿 등은 度支部에 귀속되었다.

그 뒤 같은 해 8월에는 ‘陸軍編制綱領’이 발표되어 國內 陸軍을 親衛·鎮衛 二種으로 나눈 다음, 親衛는 京城에 駐屯하여 王城 守衛를 專任하고 鎮衛는 府 혹은 郡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地方鎮撫와 邊境守備를 專任하도록 하였다. 이 편제강령에 의하여 같은 해 9월 平壤府·全州府 2개처에 鎮衛 각 1개 대대가 설립되었는데, 그 편제를 보면 大隊本部에 參領(大隊長) 1人, 軍司(1餉官) 1人, 副尉(副官) 1人, 參尉(武器主管) 1人을 두었고, 그 예하 中隊에 正尉(中隊長) 2人, 副·參尉(小隊長) 6人, 正校 2人, 副·參校 30人, 兵卒 400人을 두었다. 즉 1개 대대는 2개 중대,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1개 중대는 中隊長 1인, 小隊長 3인, 正校 1인, 副·參校 15인 모두 20인의 군관과 병졸 200인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1개 대대병력은 2개 중대병력 440인과 대대본부의 4인을 합하여 444인이었던 셈이다.

고종 33년(1896) 5월에는 大邱·固城·江華·淸州·公州·海州·北靑·春川·忠州·洪州·尙州·原州·江界 등 13개처에 地方隊가 설치되었는데, 그 편제를 보면 參領 1인, 正尉 1인, 副尉 1인, 參尉 2인, 正校 1인, 副校 4인, 參校 4인 등 14인과 병력 약 1,000인이었다. 그러나 그 지휘관의 편성으로 보아 이 지방대의 군사적 규모가 대대급 이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러기에 그 병력이 1,000여명이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확인키 힘들다.

광무 2년(1898) 平壤·全州에는 鎮衛大隊가, 大邱·安東·水原·淸州·公州·光州 등 14개처에는

地方大隊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 중 지방대대는 大隊本部가 大隊長(參領) 1人, 副官(副尉) 1人, 餉官(軍司) 1人, 副校 1人으로 구성되었고, 中隊는 中隊長(正尉) 1人, 小隊長(副尉) 4人, 正校 1人, 副校 5人, 參校 9人, 曲號隊副校 1人으로 편제되었다. 이로써 볼 때 고종 33년(1896) 대구에 설치되었던 지방대는 광무 2년(1898)에 가서 지방대대로 편제를 바꾸게 된 것, 그 대대는 1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그 후 광무 4년(1900) 7월에는 평양·전주의 진위대대와 대구 등 14개처의 지방대대가 각각 폐지되고 대신 鎭衛聯隊 편제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전국의 府·郡 및 중요지방에 地方鎭撫와 邊境守備의 임무를 띠고 설치되었으며, 대구에는 그 제 3연대 본부와 제 1대대 병력 약 1,000명이 駐在하였다. 그 편제는 聯隊本部에 聯隊長(正·副 領) 1人, 副官(正尉) 1人, 武器主管 1人, 旗官(副·參 尉) 1人, 附下士 3人 등으로 구성되어있었고, 그 이하 大隊에 大隊長(參領) 1人, 副官(副尉) 1人, 餉官(軍司) 1人, 中隊長(正尉) 5人, 小隊長(副·參尉) 20人, 正校 6人, 副·參校 73人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즉 1개 연대는 3개 대대, 1개 대대는 5개 중대, 1개 중대는 4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광무 9년(1905) 4월에는 진위연대가 폐지되고 그에 대신하여 鎭衛歩兵大隊가 편제되었는데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보병대대는 水原·淸州·大邱·光州·原州·黃州·平壤·北靑 등에 각기 1개 대대씩 설치되어 전국에 총 8개 대대가 있었다. 보병대대는 다음과 같은 편제를 가지고 있었다.

〈大隊本部〉

大	隊	長	參	領	1人
副		官	副	尉	1人
餉		官	一·二等	軍司	1人
醫		官	二·三等	軍醫	1人
			正	校	1人
			副	· 參校	3人
			武器	下士	1人
			喇叭	長	1人
1·2·3等	計手				1人
1·2·3等	調護長				1人
	計				10人

〈中 隊〉			
中隊長	正	尉	1人
附	副	尉	2人
	參	尉	2人
	特 務 正	校	1人
	正	校	1人
	副 · 參	校	13人
	上 等	兵	33人
	調 護	手	1人
	一 · 二 等	卒	103人
	喇 叭	手	4人
	鼓	手	2人
	縫	工	1人
	靴	工	1人
	計		156人

이로써 보면 대대병력은 4개 중대병력 624인과 대대본부의 10인을 합하여 634인이 되는 것이다.

이 편제는 이년후인 광무 11년(1907) 4월에는 侍衛步兵大隊의 편제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 대호와 위치는 제 6대대가 黃州에서 海州로 옮겨진 것 외에는 변동이 없었다. 시위보병대대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大隊本部〉					
大 隊	長 參	領			1人
副	官 副	尉			1人
大 隊	附 1 · 2 · 3 等	軍 醫			1人
		1 · 2 · 3 等 軍 司			1人
		正 校			1人
		副(參) 校			4人
		武 器 下 士			1人
		吹 飯 下 士			1人
		喇 叭 長			1人



	1・2・3等計手	1人
	1・2・3等調護長	1人
	計	11人
〈中 隊〉		
	中隊長	正 尉 1人
中隊附	副	尉 2人
	參	尉 2人
	特 務 正	校 1人
	正	校 1人
	副(參)	校 11人
	上 等	兵 25人
	調 護	手 1人
	1・2等	卒 108人
	喇 叭	手 3人
	鼓	手 2人
	縫	工 1人
	靴	工 1人
	計	151人

이로써 보면 1개 대대병력은 4개 중대의 604인과 대대본부의 11인을 합하여 615인이 되며, 그것은 종전의 진위보병대대 고유편제인 624인보다 약간 줄어든 셈이다.

한편 광무 9년(1905) 4월 최종적으로 확정된 ‘憲兵條例’에 의하면 京城의 憲兵司令部는 사령관 이하 7인의 직원을 두었으며, 지방에는 보병 각대대 주둔지에 헌병파출소를 두어 헌병사령관의 관할에 속하게 하였는데, 그 1개소의 인원은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정하여 尉官 1인으로 지휘케 하였다. 또한 헌병대는 6區隊로 편성하였는데 憲兵隊本部에는 隊長(副參領) 이하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區隊는 區隊長(參校) 이하 총 41인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헌병대의 병력은 6개 구대의 병력 246인과 본부의 11인을 합하여 257인이 되는 셈이다. 이로써 전국의 각도에는 257인의 인원을 가진 헌병대가 배치되었을 것이며, 그 본부 및 1개 구대는 도청 소재지에, 나머지 5개 구대는 5개처에 분산 주재하였을 것이다. 또한 진위보병대대가 주둔하고 있던 전국의 8개소에는 헌병파주소가 주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에는 헌병대 본부 및 1개 구대 병력과

15인 내지 20인의 인원을 가진 憲兵派駐所가 설치되어 軍事警察, 行政警察, 司法警察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개척이후 수차의 개편을 거쳐 정비되어 온 모든 중앙군 및 지방군은 광무 11년(1907) 7월 30일 일본의 강박으로 인해 내려진 조칙에 의하여 모두 해산되었는데 이에 따라 대구의 진위보병 제 3대대 및 기타 特科兵도 같은 해 8월 4일을 기해 완전히 해산하고 말았다.

이에 대신하여 일본군이 대거 진주하였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앞서 러일전쟁 이전에 이미 일본군 헌병 약간명이 철도 및 통신시설 보호의 구실아래 대구에 진주한 데서 비롯하여 광무 8년(1904) 7월에는 소대가, 같은 해 8월에는 중대가 주둔하였다. 그 뒤 隆熙 1년(1907)에는 제 12여단 사령부 및 제 14연대본부, 제 10중대본부 등 대병력이 의병 탄압의 임무를 띠고 진주하였으며, 융희 3년(1909) 7월에는 12여단의 귀환에 대체되어 임시조선과 견사령부, 동 보병 제 2연대 본부 및 제 3연대 제 3대대 본부가 진주하였고, 이어 이듬해 융희 4년(1910) 6월에는 대구헌병대 본부 및 倭館憲兵分隊 大邱分置所 등이 주둔하여 한국 침략의 군사적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第2章 社會構成의 變動과 經濟都市로의 成長

### 第1節 社會構成의 變動

#### I. 戶口의 增減 및 分布와 그 變動

戶籍에 기초한 戶口 조사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14세기 이전(고려시대)의 인구에 관한 자료가 단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조선초기 호구자료에서는 이미 道別 호구분포가 발견된다. 그리고 조선중기 이후, 특히 1639년 이후에는 거의 3년 간격으로 호구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얻어진 전국호구에 관한 數値가 《戶口總數》 및 《朝鮮王朝實錄》 등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파악의 토대가 되었던 향촌단위의 호적대장에는 당시 향촌사회내의 호구·신분직역·부녀자의 호칭·성·본관·노비소유·가족관계·통혼관계·연령 등과 그 변동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호적대장은 극히 일부 지역에만 현존하고 있으나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호적대장을 이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대구·울산 등 장적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근래에 새로이 발굴한 경상도 단성현과 언양현의 호적대장이 간행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학습원대학 등에 소재하는 19세기의 호적대장 120여책이 새로이 보고되어, 지금까지 알려진 호적대장은 대략 400여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제주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戶籍中草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 호적대장 연구가 본격화되게 되었다.<sup>1)</sup>

1) 金炫榮, 〈조선 후기 신분사 연구의 한계와 방향〉 《社會科學論評》 12, 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 1994, p. 70.  
戶籍大帳의 現況은 다음과 같다.

所 藏 處	冊 數	收 錄 地 域
奎章閣	256책	大丘 蔚山 尚州 山陰 漢城府 原州 伊川
丹城鄉校	13책	丹城
高麗大	1책	谷城
彥陽鄉校 外	9책	彥陽
日本 學習院大學	121책	昌寧14 晉州9 陝川3 泗川9 河東9 山淸5 安義14 丹城25 金海3 漆原12 鎭海18
日本 天理大學	1책	昌原
美國 하버드大學	1책	金化
濟州道		各 面別 戶籍中草

대구부의 경우에는 숙종 7년(1681)~고종 13년(1876) 간에 걸친 《大丘府戶口帳籍》 187책이 현존하고 있어<sup>2)</sup> 본고의 資料源이 된다. 이들 호구장적을 이용한 대구지역의 사회사 연구는 지금까지 四方博, 韓榮國, 金泳謨, 崔承熙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sup>3)</sup> 본고는 《대구부 호구장적》을 자료원으로 하되, 논지 전개과정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호적대장을 비롯한 조선왕조의 호구통계는 호구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의 모습, 즉 호구의 증감 및 분포와 그 변동의 양상은 대구로 하여금 도시로의 성장을 자극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대구부의 호구수는 어느 정도나 되었으며,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 현존하고 있는 《대구부호구장적》 末尾의 都合 집계에서 파악된 18~19세기 대구부의 호구수는 〈表 2-1〉과 같다.<sup>4)</sup>

〈表 2-1〉 18~19세기 大丘府의 戶口數

典 據 및 時 期	戶 數	增 減	口 數	增 減
庚子式帳籍(1720)	13,520		68,024	
庚午式帳籍(1750)	13,067	- 453	61,013	- 7,011
己酉式帳籍(1789)	13,413	+ 346	61,477	+ 464
乙酉式帳籍(1825)	13,125	- 288	56,539	- 4,938
丁卯式帳籍(1867)	13,346	+ 221	57,991	+ 1,452

2) 韓榮國, 〈朝鮮朝 戶口帳籍의 年代釐正目錄〉 《歷史學報》 55, 1972.

3) 《대구부호구장적》을 이용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論稿들이 있다.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9, 1937.

\_\_\_\_\_, 〈朝鮮に於ける大家族制と同族部落〉 《朝鮮》 270, 1937.

\_\_\_\_\_, 〈李朝人口に關ける身分階級別的觀察〉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0, 1938.

\_\_\_\_\_, 〈李朝時代の都市と農村とに關する一試論 - 大丘戶籍の觀察を基礎として - 〉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12-3·4, 1941.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 分布〉 《大邱市史》 1, 1973.

\_\_\_\_\_, 〈18·19世紀大邱地域의 社會變化に關する一試考 - 大邱府戶籍의 「新戶」を中心に - 〉 《朝鮮學報》 80, 1976.

\_\_\_\_\_, 〈朝鮮後期の 雇工 - 18·19세기 大丘戶籍으로 본 그 實態와 性格〉 《歷史學報》 81, 1979.

金泳謨, 〈朝鮮後期の 身分構造와 그 變動〉 《東方學志》 26, 1981.

崔承熙, 〈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館論叢》 1, 1989.

4) 韓榮國, 〈府의 戶口와 그 構成 分布〉. 《大邱市史》 1, 1973, 〈표 1〉 참조.

〈表 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8~19세기 대구부의 전체 戶數는 13,067~13,520호, 전체 人口數는 56,539~68,024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호구수는 1720년부터 1867까지의 그 간에 증감을 거듭하고 있어 거의 停滯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172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47년이 지난 1867에는 호수 174호와 인구수 10,033명이 감소되었다. 이처럼 18~19 세기의 대구부 호구수는 정체 내지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구부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호구를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表 2-2〉와 〈表 2-3〉에서도 18~19세기에는 대체로 정체된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表 2-2〉<sup>5)</sup>는 호수를, 〈表 2-3〉<sup>6)</sup>은 인구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표는 調査年度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調査面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면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東上面과 西上面을, 농촌지역에서는 西下下·花縣內·仁興面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지역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표 2-2〉는 東中·東下·西中·西下를, 〈표 2-3〉은 河東·河西·河南·河

〈表 2-2〉 大丘府의 都市 및 農村 地域의 戶數 分布

地域 時期	都 市 地 域		農 村 地 域		合 計	增加指數
	戶 數	增加指數	戶 數	增加指數		
1684년	856	100	2,084	100	2,940	100
1747년	2,560	299.1	2,306	110.7	4,866	165.5
1795년	3,025	353.4	2,416	115.9	5,441	185.1
1867년	3,074	359.1	2,192	105.2	5,266	179.1

註 調査年度 調査面  
 肅宗 10년(1684) : 도시지역→東上·西上  
                   농촌지역→東中·東下·西中·西下·西下下  
 肅宗 13년(1687) : 농촌지역→花縣內·仁興  
 英祖 23년(1747) : 도시지역→東上·西上  
                   농촌지역→東中·東下·西中·西下·西下下  
 英祖 20년(1744) : 농촌지역→花縣內·仁興  
 正祖 19년(1795) : 도시지역→東上·西上  
                   농촌지역→東中·西中·西下·西下下·花縣內·仁興  
 純祖 원년(1801) : 농촌지역→東下  
 高宗 4년(1867) : 도시지역→東上·西上  
                   농촌지역→東中·東下·西中·西下·西下下·花縣內·仁興

但, 숙종 13년은 숙종 10년에, 영조 20년은 영조 23년에, 순조 원년은 정조 19년에 각각 포함시켜 計數함.

5) 四方博, 〈李朝時代の都市と農村とに關する一試論〉, 앞의 책, p. 126.

6) 金泳謨, 앞의 논문, p. 109, 〈표 23〉을 참조하여 만든 표임.



18세기보다 총 호구에서 감소를 보이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호구 증감의 요인 가운데 증가 현상은 사회적·경제적 안정의 기미와 호구 조사의 강화에 기인한 것이며, 감소 현상은 전염병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飢饉과 漏戶·漏口도 주요한 요인이었다.<sup>7)</sup>

이와 같은 요인 가운데 특히 전염병은 18세기 이후 인구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영조 6년(1730)에는 京中에 紅疹이 극성하여 수만명이 사망하였음을 보고 하였고, 7년에는 癘疫이 영남과 호남에서 극히 심하였다. 이어 영조 9년(1733)에는 中部 이남 지방에서 癘疫으로 사망한 자가 13,000여명, 就賑飢民만도 20여만명에 이르렀다. 영조 18년(1742)에는 8道の 疫死者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더우기 영조 25년(1749)에는 8도의 사망자가 5~6만을 헤아렸고, 같은 왕 26년(1750)에도 40여만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결국 영조 25년과 26년 사이에 10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계된다.<sup>8)</sup> 18세기 중엽의 이러한 현상은 곧 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부의 경우도 <表 2-1>에서와 같이 영조 26년(1750)에는 영조 20년(1744)에 비해 호구의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염병과 기근, 누호·누구 등은 이 시기에 자주 일어난 현상이었고, 이는 결국 인구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호구장적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18~19세기에는 대구부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도 그 간에 있어서 호구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처럼 18~19세기 대구부의 전체 호구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띠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호구가 집중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우선 1789년도의 호구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戶口總數》에 의거하여 대구부의 面別 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表 2-4><sup>9)</sup>를 살펴보기로 하자. <表 2-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구부의 호구는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상면(戶 10.1%, 口 10.5%)과 서상면(戶 11.6%, 口 12.1%)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都心을 포용하고 있는 이들 두 面의 호구수는 전체 호구 가운데 호수 21.7%, 인구수 22.6%를 각각 점하고 있어 여타 농촌지역의 면들보다 현저하게 집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은 각종의 官衙와 場市(府內場과 新場)를 포용하고 있었던 데서 연유된 현상이겠으며, 농촌지역의 인구도 장시의 소재지인 화현내면

7) 方東仁, 〈人口의 增加〉《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참조.

8) 方東仁, 위의 논문, pp. 294~295.

9)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p. 358, <표 2> 참조.

〈表 2-4〉 大丘府의 面別 戶口 分布

面 名	戶 數	百分比	口 數	百分比	面 名	戶 數	百分比	口 數	百分比
東 上	1,357	10.1	6,473	10.5	河 東	299	2.2	1,274	2.1
東 中	370	2.8	1,887	3.1	河 北	371	2.8	1,603	2.6
東 下	315	2.3	1,549	2.5	河 西	268	2.0	1,385	2.3
解西村	356	2.7	1,536	2.5	河 南	280	2.1	1,310	2.1
解北村	528	3.9	2,560	4.2	甘勿川	290	2.2	1,096	1.8
解西部	281	2.1	1,615	2.6	祖 岩	191	1.4	794	1.3
解東村	351	2.6	1,696	2.8	月 背	294	2.2	1,468	2.4
守 北	455	3.4	2,098	3.4	仁 興	182	1.4	790	1.3
守 東	277	2.1	1,392	2.3	花縣內	531	3.9	2,673	4.3
守縣內	249	1.9	1,100	1.8	玉 浦	174	1.3	698	1.1
下守南	383	2.9	1,710	2.8	省平谷	224	1.7	888	1.4
上守南	253	1.9	1,146	1.9	法 化	240	1.8	794	1.3
上守西	245	1.8	1,036	1.7	角 北	560	4.2	2,690	4.4
下守西	224	1.7	950	1.5	角縣內	367	2.7	1,872	3.0
西 上	1,560	11.6	7,411	12.1	角 初	529	3.9	2,051	3.3
西 中	283	2.1	1,382	2.2	角 二	502	3.7	2,033	3.3
西下下	284	2.1	1,144	1.9					
城 西	340	2.5	1,373	2.2	合 計	13,413	100	61,477	100

(花園場), 해북촌면(百安場), 수북면(凡於場), 하수남면(梧桐院場), 하북면(河濱場) 등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sup>10)</sup>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과는 달리 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대구부 가운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表 2-2〉와 〈表 2-3〉을 살펴보기로 하자. 호수 증가율의 경우, 〈表 2-2〉에서와 같이 농촌지역은 1747년에 10.7%, 1795년에 15.9%, 1867년에 5.2%의 미미한 증가 현상을 보인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1747년에 199.1%, 1795년에 253.4%, 1867년에 259.1%의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수 증가율의 경우도 크게 비교가 된다. 즉 〈表 2-3〉에서와 같이 농촌지역은 영조연간에 -1.0%, 정조연간에 -3.0%, 철종연간에 -5.2%의 감소 현상을 보인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영조연간에 39.1%, 정조연간에 54.7%, 철종연간에 49.0%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인구 밀도가 km<sup>2</sup>당 약 1,000명(1705년)에서 3,780명(1825년)으로 크게 조밀해지고 있는 데 반하여 농촌지역은 89명(1690년)

10) 《大丘府邑誌》場市條 참조.



에서 59명(1825년)으로 소멸해지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양상들은 당시의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성장율이 년평균 0.4%, 인구밀도가 32명으로 각각 산출되고 있다는 점<sup>12)</sup>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시사하는 바 의미가 크다.

〈表 2-5〉 都市地域의 新戶의 構成比 % (戶數)

面 名	新 戶	1705·1708년	1786·1789년	1825년
東 上 面	既 存 戶	82.96( 706)	72.99( 981)	69.90( 908)
	新 戶	17.04( 145)	27.01( 363)	30.10( 391)
	計	100 ( 851)	100 (1,344)	100 (1,299)
西 上 面	既 存 戶	78.47( 685)	73.71(1,183)	66.65(1,181)
	新 戶	21.53( 188)	26.29( 422)	33.35( 591)
	計	100 ( 873)	100 (1,605)	100 (1,772)
合 計	既 存 戶	80.68(1,391)	73.38(2,614)	68.02(2,089)
	新 戶	19.32( 333)	26.62( 785)	31.98( 982)
	計	100 (1,724)	100 (2,949)	100 (3,071)

但 東上면의 경우에는 1705년과 1786년 호적을, 서상면의 경우에는 1708년과 1789년 호적을 각각 이용하여 조사한 것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新戶의 구성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신호는 前式年 호적에 없었거나 누락되었던 家戶가 移住, 分家, 加現, 自首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적에 入籍한 경우이겠다. 이들 신호의 구성비는 〈表 2-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상면의 경우 숙종 31년(1705)에 17.04%, 정조 10년(1786)에 27.01%, 순조 25년(1825)에 30.10%를 각각 점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상면의 경우에도 숙종 34년(1708)에 21.3%, 정조 13년(1789)에 26.9%, 순조 25년(1825)에 33.35%를 점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상면과 서상면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는 19.32%→26.62%→31.98%의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신호의 수치가 곧 농촌인구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858년 대구부의 신호가 전체 호수의 14.8%이고 농촌지역인 上守南面의 신호가 전체호수의 10.6%였던 사실<sup>13)</sup>과 비교한다면 위와 같은 도시지역 신호의 증가는 상당수가 농촌지역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11) 韓榮國, 앞의 《大邱市史》 참조.

12) 四方博, 앞의 논문 p. 131. 및 金載珍, 《韓國의 戶口와 經濟發展》, 博英社, 1967, p.144.

13) 韓榮國, 앞의 논문, 《朝鮮學報》 80, 1976, pp. 77~80.

이상과 같이 18~19세기에는 전국 및 대구부의 호구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부의 도시지역에서는 호구의 집중 분포, 호구의 현격한 증가, 新戶의 꾸준한 증가, 인구 밀도의 조밀함 등에서 농촌지역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을 흡수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가 이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흡수와 집중화는 상업을 자극하는 바 되어 17세기 이후 鄕市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 되며, 이것이 대구로 하여금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고 파악된다.

## II. 府民의 身分職役 構成과 그 變動

조선후기의 사회는 下層民에서의 신분의 상향이동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양반·중인·상민·천인으로 구성된 신분구조에도 수치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은 양반 인구의 격증, 중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 상민 인구의 감소, 노비 인구의 격감 현상이 帳籍을 통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대구부호구장적》에 나타난 각 신분지역별 인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였으며, 그 數値의 변동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후기 사회의 신분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장적이다. 장적에 기재된 戶主의 직역과 그 가족의 신분표시(妻의 號稱, 率子의 직역)와 四祖職役, 그리고 그 家系 등은 軍役의 有無, 身分世傳의 유무, 身分內婚의 유무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적의 기재는 그 자체의 신빙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는 직역과 부녀자의 호칭 등이 의도적으로 冒錄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모략되었더라도 착오가 아니라면 그 모략 자체가 중세 해체기 변동사회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각 고을의 漏籍되어 있는 戶口까지를 포함하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장적상의 기재가 모략 내지 漏戶·漏口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적은 당시 사회의 신분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함으로 이에 근거하여 신분지역별 인구의 존재양상과 그 변동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대구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府民의 신분구성과 그 변동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호적을 통한 최초의 논고는 四方博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방박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表 2-6><sup>14)</sup>과 같다. 이는 대구부의 도시지역(東上面·西上面)이

<表 2-6> 各 時期別 戶主의 身分 構成比

時 期	兩 班 戶	常 民 戶	奴 婢 戶	總 戶 數
肅 宗 朝	9.2( 290)	53.7(1,694)	37.1(1,171)	100.0(3,156)
英 祖 朝	18.7( 579)	54.6(1,689)	26.6( 824)	99.9(3,092)
正 祖 朝	37.5(1,055)	57.5(1,616)	5.0( 140)	100.0(2,810)
哲 宗 朝	70.3(2,099)	28.2( 842)	1.5( 44)	100.0(2,985)

註 調査年度 調査面  
 숙종 16년(1690) : 西下下·河東·河南·河西·河北·甘勿川·祖岩·月背·仁興·花園  
 영조 5년(1729) : 西下下·仁興·花園  
 영조 8년(1732) : 河東·河南·河西·河北·甘勿川·祖岩  
 정조 7년(1783) : 祖岩·月背·仁興·花園  
 정조 10년(1786) : 河東·河南·河西·河北  
 정조 13년(1789) : 西下下  
 철종 9년(1858) : 西下下·河東·河南·河西·河北·甘勿川·祖岩·月背·仁興·花園

제외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表 2-6>에서 확인되는 바, 숙종 16년(1690)부터 168년이 지난 철종 9년(1858)까지의 대구 부민의 신분구성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즉 양반호(9.2%→70.3%)는 18세기 말까지 급증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세기 중엽에는 더욱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상민호(53.7%→28.2%)는 18세기 말까지 조금 증가하다가 19세기 중엽에는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노비호(37.1%→1.5%)는 현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소멸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직역을 통한 신분의 파악과 이에 따라 각 신분의 구성비를 산출한 사방박의 연구성과는 오늘날에도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으나, 신분을 분류하는 기준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신분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직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中人을 제외하고 양반, 상민, 노비의 3신분으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중인층으로 분류하여야 할 대부분의 직역, 즉 諸衛屬과 業儒·業武·閑良·校生·院生·武學·軍官 등은 그들의 妻가 ‘氏’를 호칭하면 양반으로, ‘姓’과 ‘召史’ 등을 호칭하면 상민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또한 제위속과 업유·업무 등은 직역의 신분적 지위가

14)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앞의 책, pp. 387~389 참조

변동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채 通時的으로 처의 호칭에 따라 班·常을 분류하고 있다. 둘째, 부녀자의 호칭이 의미하는 신분적 지위가 ‘夫職( 남편)’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녀자의 호칭은 ‘부직’이 아니라 親家の 姓과 결합되어 ‘親父’의 신분 내지 庶孽從母의 원칙에 준하고 있었다.<sup>15)</sup> 그러므로 처가 ‘씨’를 호칭하였다고 하는 것은 ‘씨’를 호칭할 수 있는 兩班家와 혼인한 것이지, ‘夫’의 신분이 반드시 양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같이 사방박은 중인층을 기본신분으로 설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직역의 신분적 지위가 변동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채 通時的으로 처의 호칭에 따라 班·상을 분류하고, 도시지역이 제외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양반의 수적증가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양반호의 급증, 상민호의 감소, 노비호의 급감 등 신분별 구성양태를 밝힌 최초의 성과였다.

〈表 2-7〉 各 時期別 戶主의 身分 構成比

時 期	兩 班	中 人	常 民	賤 民	寡 女	其 他	合 計
肅 宗 朝	19.4( 570)	3.1( 90)	24.8( 729)	47.9(1,409)	2.9( 87)	1.9( 55)	100.0(2,940)
英 祖 朝	21.5(1,048)	12.5(610)	19.2( 933)	33.4(1,625)	10.6(518)	2.7(132)	99.9(4,866)
正 祖 朝	31.0(1,688)	13.3(723)	25.2(1,369)	17.8( 968)	9.1(494)	3.6(199)	100.0(5,441)
高 宗 朝	42.5(2,239)	16.6(875)	16.0( 842)	13.0( 686)	10.0(528)	1.8( 96)	99.9(5,266)

註. 調査年度와 調査面은 〈表 2-3〉註에 제시한 바와 같음.

다음으로 金泳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表 2-7〉<sup>16)</sup>과 같다. 이는 대구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아울러 조사한 것이다. 〈표 2-7〉에서 확인되는 바, 숙종 10년(1684)부터 183년이 지난 고종 4년(1867)까지의 대구 부민의 신분구성은 앞의 사방박의 연구 결과에 못지않게 크게 변동하고 있으나 그 신분구조와 변동양상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즉 양반호(19.4%→42.5%)와 중인호(3.1%→16.6%)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상민호(24.8%→16.0%)는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다가 19세기에 감소하고 있으며, 천민호(47.9%→13.0%)는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분별 구성비를 산출한 김영모는 특히 도시에는 중인과 賤役良人의 증가가 많고 농촌에는 幼學을 포함한 隼兩班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김영모의 연구 결과가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사방박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나

15) 李俊九,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一潮閣, 1993, pp. 18~19.

16) 金泳謨, 앞의 논문, p.66의 〈표 4〉와 p. 69의 〈표 5〉 참조.

타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하나는 중인을 신분구조상에서 하나의 기본신분으로 설정하고, 업유·업무를 雜職·衙前과 함께 중인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지역과 도시 近郊지역 및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지역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두 지역에 대한 비교를 직접 표방한 것은 크게 주목된다. 도시에서의 변동의 추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17)</sup> 도시지역에서 중인, 身良役賤人 등이 증가하면서 노비가 都·農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는 노비가 갑자기 양반·준양반의 신분을 획득한다기보다도 일단 도시로 이주하여 賤役良人 또는 중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17세기 말엽에 많던 노비가 18세기 중반 이후에 현격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양인 신분의 匠人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시 양인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였다)과 寡女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2.9%→10.0%) 등을 함께 밝히면서 이러한 새로운 추세는 “대구의 중심부에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노비의 신분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는 천민·노비·과부 등의 인간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에서는 업무·업유, 잡직(醫生·律生), 아전(戶長·人吏·貢生·書員·算員·小童·司僕·假鄉所·羅將 등) 등의 中人 외에도 準兩班인 軍官·閑良 등이 함께 다수 증가하였음이 지적되었다(아전 2.1%→13.3%, 賤軍 1.2%→8.0%, 한량 0.4%→5.5%, 군관 1.1%→3.8%, 直·使令 0.2%→3.6%). 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연구자가 그 원인을 아전은 세습으로, 군관과 한량은 민란과 외침에 대비한 强兵策으로 각각의 증가원인을 헤아린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분의 구성비를 산출한 기준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즉 그는 그의 「身分符號冊」에서 신분을 양반, 준양반, 중인, 양인, 천역양인, 천인, 노비의 7신분으로 나누고, 신분 구성비의 산출에는 제위속·교생·원생·한량·무학·출신·군관·도훈도·별무사 등과 노직납속품직자까지도 양반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않은 良신분의 驛吏·下典·使令·通引 등도 奴와 함께 천민으로 집계하는 등 그 기준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다.

이와 같이 방대한 호적대장을 분석하여 대구 부민의 신분별·시기별 호수의 변동상을 밝힌 위의 두 연구성과는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으나, 신분구성비를 산출한 기준에는 일

17) 金泳謨의 연구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李泰鎭의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 - 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pp. 188~189에서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분지역별 인구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과 지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각 개인(남자)은 원칙적으로 屬處가 있어야 했고, 이 속처를 지역으로 하였으며, 신분적 지위에 걸맞는 지역이 制度圈內에서 결정되거나 이를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지역에 따른 권리·의무상의 차등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분적 지위는 지역의 如何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소속된 지역의 신분개념이 곧 개인과 집단의 법적·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은 신분을 판정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신분지역제를 인정하면서 봉건체제를 유지해 온 조선사회의 신분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은 신분과 통시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시대 및 사회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변천한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대 및 사회의 실상에 의하여 그 영예가 떨어짐으로써 신분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지역과 신분의 역동적 관계이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라야만 지역을 통하여 신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表 2-8〉 身分別 職役의 分類 基準表

身分	類型	職	役
兩 班	A	前現職官 및 帶品職(家系 및 家族의 身分表示가 兩班身分인 者)	
	B	進士, 生員, 及第, (土族)出身	
	C	幼學, 忠義衛(18세기 중반까지), 業儒·業武(肅宗 22년 이전), 武學·기타 諸衛(17세기 초까지)	
	△	婦女子(氏)	
中 人	D	일시적인 免役 및 歇役으로 閑遊하는 者, 忠義衛(18세기 후반 이후), 武學·기타 諸衛(17세기 중반 이후), 校生, 院生, 閑良, (常漢)出身, 軍官, 旗牌官, 都訓導 등	
	E	庶孽, 許通, 業儒·業武(肅宗 22년 이후)	
	F	戶長, 記官, 貢生, 律生, 醫生	
	G	帶品職(家系 및 家族의 身分表示가 兩班으로서 瑕疵가 있는 者)	
	△	婦女子(姓)	
常 民	H	各色 下級衙前(F類 除外)	
	I	各色 軍役 및 徭役	
	J	各色 保人	
	K	各色 匠人	
	L	驛屬人	
	M	無役良人	
	△	婦女子(召史, 助是, 良女, 驛女)	
奴 婢	N	公賤	
	△	公賤婢	
	O	私賤	
	△	私賤婢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가 法典類와 年代記 및 《丹城帳籍》 등을 통해 도출해낸 「身分職役의 分類 基準表」를 제시한 바 있는데,<sup>18)</sup> 그것은 <表 2-8>과 같다. 여기에서 필자는 특히 중인층을 기본신분으로 설정하였다. 중인은 17세기 중엽의 실학자 柳馨遠이 ‘得參官序’와 ‘校生之類’를 ‘俗稱中人’ 또는 ‘閑散方外’<sup>19)</sup>라고 지적하였듯이, 종래 중앙의 고급 기술관원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이제 ‘한산방외’ 곧 지방의 閑遊者도 포함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산은 17세기 중엽에 이미 반상의 중간존재인 중인신분층으로서의 집단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18세기 전반기의 실학자 李重煥도 ‘方外閑散人’을 庶孽·將校·譯官·算員·醫官과 함께 중인층으로 분류하고 있다.<sup>20)</sup> 이들 중인층의 직역은 중앙의 고급 기술관원과, 일시적인 면역 또는 혈역으로 한유하던 반상의 중간계층 직역자 즉 <表 2-8>에서와 같은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직역은 일시적 면역 또는 혈역으로 한유하였기 때문에 有役下層民들의 避役과 아울러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인층은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상민층의 신분향상자(欲爲中人者), 즉 성취적 중인층 내지 冒屬 중인층으로서의 한유자층이 증가하면서 중인층의 범위가 더욱 두터워지고 복잡해져 갔다. 이러한 중인층을 기본신분으로 설정한 신분직역의 분류 기준이 <表 2-8>과 같은 것이며, 또 동일 직역의 신분적 지위 변동도 이 표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부민의 신분직역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表 2-10>과 같다.

<表 2-9> 身分職役別 人口 構成樣態(正祖 10년, 1786)

職 役	老	壯	弱	計	職 役	老	壯	弱	計
嘉善大夫	80	3		83	水軍	250	328		578
通政大夫	65	38		103	縫軍	107	193		300
朝散大夫	1			1	撥軍	25	19		44
折衝將軍	65	95		160	防軍		11		11
通德郎	70	52		122	各色火兵	75	120		195
僉正	33			33	軍牢	19	90		109
判官	2			2	硫黃軍	25	51	15	91
司果	19			19	燠造軍		25		25
主簿	2			2	搗砧軍		23		23
察訪	2			2	保人	55	35	25	115

18) 李俊九, 앞의 책, p. 32.

19) 柳馨遠, 《磻溪隨錄》 권 9, 教選之制 12.

20) 李重煥, 《擇里志》總論條.

職 役	老	壯	弱	計	職 役	老	壯	弱	計
參奉	5			5	禁保	85	205		290
進士	2	6		8	御保	110	150		260
出身	4	19		23	馬保	94	370	44	508
幼學	1,905	3,660	1,077	6,642	砲保	35	94		129
忠贊衛	3	2		5	藥保		13		13
忠衛	93	68		161	吏保	44	1,025	226	1,295
業儒	455	554		1,009	軍牢保		5		5
業武	1,410	1,860		3,270	繕工監保		2		2
校生	4	65		69	各色匠人	55	115		170
院生		37	7	44	扇子匠		45	38	83
閑良	28	1,350		1,378	冊匠	25	40		65
武學	162	189		351	皮匠	10	35		45
都訓導	5	38		43	石手		53		53
兼司僕		10		10	驛吏	35	257		292
巡將官		38		38	老除	440			440
旗牌官			33	33	良人	158	37		195
府軍官	212	357	305	874	寺奴	52	55	26	133
鎮軍官	52	76		128	營府奴	32	135	80	247
帶率軍官	40	46		86	院奴	21	55	14	90
守堞軍官	81	43		124	私奴	1,205	215	1,277	2,697
在家軍官	35	45		80					
選武軍官	50	240		290	合計	8,732	14,735	3,185	26,652
別武士		75		75	%	32.76	55.29	11.95	100
鎮吏		12		12					
貢生	175	325		500	貞夫人	9			9
鄉有司	11	17		28	恭人	2	3		5
使令	30	210		240	士夫女	28	355		383
倉直	35	55	18	108	婦女	1,275	3,620	1,310	6,205
陸軍	26	98		124	良女	4,110	9,445	4,383	17,938
禁軍	60	136		196	寺婢	57	145	35	237
御軍	55	111		166	校婢	30	35	5	70
馬軍	100	219		319	驛婢	25	83	20	128
城丁軍	60	87		147	私婢	2,370	5,095	2,212	9,677
旗手軍	21	35		56					
牙兵	107	145		252	合計	7,906	18,781	7,965	34,652
束伍	210	518		728	%	22.82	54.20	22.99	100

註 1) 府軍官 弱年과 旗牌官 壯年の 인구수는 호적이 腐蝕하여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式年인 正祖 13년(1789) 호적의 府軍官 弱年 305명과 旗牌官 壯年 33명을 보완한 것이다. 男丁 口數의 합계(26,652명)가 호적 末尾의 도합 총계(26,541명)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表 2-10〉 府民의 身分·職役類型別 人口 構成

身分	職役類型	比率(人口數)
兩 班	A	0.55( 147)
	B	0.03( 8)
	C	24.92( 6,642)
	計	25.50( 6,797)
中 人	D	14.30( 3,812)
	E	16.06( 4,279)
	F	2.03( 540)
	G	1.44( 385)
	計	33.82( 9,016)
常 民	H	1.31( 348)
	I	12.62( 3,364)
	J	9.82( 2,617)
	K	1.56( 416)
	L	1.10( 292)
	M	2.38( 635)
	計	28.79( 7,672)
奴	N	1.76( 470)
	O	10.12( 2,697)
	計	11.88( 3,167)
合 計		99.99(26,652)

〈表 2-10〉은 신분별·직역유형별 인구구성 양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 표는 〈表 2-9〉를 참조하여 분류한 것이다. 〈表 2-9〉는 丙午式(正祖 10년, 1786) 호구장적의 末尾에 집계되어 있는 직역별 인구수를 파악하여 만든 표이다. 우선 〈표 2-9〉를 보면, 인구수의 집계에 있어서 남자는 직역별로, 여자는 外名婦名稱·士夫女·婦女·良女·婢別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 공히 老·壯·弱으로 나누어 인구수를 집계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壯年層(55.29%)이 가장 많고, 다음이 老年層(32.76%)이고, 弱年層(11.95%)이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壯年層(54.20%)이 가장 많으나, 다음이 弱年層(22.99%)으로서 老年層(22.82)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집계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달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sup>21)</sup> 즉

고종 5년(1868)에 작성한 《牙山邑誌》에서는 남녀 10세 이하를 兒, 11세에서 15세까지를 弱, 16세에서 50세까지를 壯, 51세 이상을 老로 구분하고 있으나, 같은 해에 작성한 《禮山邑誌》에서는 5세부터 10세까지를 兒, 11세부터 14세까지를 弱, 15세부터 50세까지를 壯, 51세 이상 70~80세까지를 老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면 구분하는 나이가 조금 다를뿐이고 연령구조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대장의 末尾에 있는 도합 집계에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兒(10세 이하)의 연령층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는 《대구부호구장적》도 예외가 아닌 상례였던 것이며, 兒年層이 집계되지 않은 것은 인구 총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약년층에 있어서는 여자의 경우 22.99%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 11.95%에 불과하다. 약년층 가운데서도 私奴(1,277명)와 양반의 직역인 幼學(1,077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적은 수이지만 軍保의 직역을 가짐으로써 군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1) 方東仁, 앞의 논문, p. 285.

〈表 2-9〉의 직역들을 참조하여 신분 및 직역유형을 분류하여 만든 〈表 2-10〉을 보기로 하자. 정조 10년(1786)의 대구 부민의 남자 가운데 각 신분별 구성비를 보면, 中人(33.82%)이 가장 많고, 다음이 常民(28.79%), 兩班(25.50%), 奴(11.88%)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에 중인층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각 신분층 내의 직역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양반신분층 내에서 A類는 〈表 2-8〉의 A류와 같이 분류하여야 마땅하겠으나, 호적 말미의 집계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품직자 가족의 신분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편의상 주로 老職 및 納粟품직이 아닌 帶品職者, 즉 朝散大夫, 通德郎, 司果, 參奉을 A류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통덕랑(122명)이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는 仁祖 원년 이후 代加로 받을 수 있는 散階의 上限으로 확정됨<sup>22)</sup>에 따라 대가에 의해 취득한 품계임이 짐작된다. 이러한 A류가 0.54%를 점하고 있다. B類는 0.03%에 불과하며, C類는 24.92%를 점하고 있다.

C類는 곧 幼學(6,642명)으로서 이들이 양반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유학은 후대로 올수록 격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방박이 대구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학호는 1690년에 3.8%이던 것이 168년이 지난 1858년에는 63.1%를 나타내고 있어 그 간에 59.3%나 격증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sup>23)</sup> 김영모가 대구부의 도시 및 농촌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학호는 1684년에 4.3%이던 것이 183년이 지난 1867년에는 30.7%를 나타내고 있어 그 간에 26.4%나 격증하고 있다.<sup>24)</sup> 이처럼 후대로 올수록 격증하고 있던 유학 가운데는 양반의 유학 재생산에 의한 경우도 많겠으나 庶孽 후손의 유학 호칭과 冒錄 유학도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얼 후손의 유학 호칭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王命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즉 兪·兪무가 숙종 22년 9월에 庶孽의 文武를 지칭하는 직역으로 수용되어 庶孽職役化되면서 그 손자·증손에 이르러서는 유학 호칭을 허락받았으며,<sup>25)</sup> 숙종 34년의 왕의 傳敎에서는 자신이 서얼인 자만 兪·兪무라고 칭하고 兪·兪무의 아들이나 손자는 幼學으로 기록하여도 무방하겠다<sup>26)</sup>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왕명에 의한 법제적 조치는 자신이 서얼인 자는 유학을 호칭할 수 없지만 서얼의 자손은 유학 호칭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 장적상에도 반영되

22) 崔承熙, 〈朝鮮時代 兩班의 代加制〉《震檀學報》60, 1985, p.16.

23) 四方博, 앞의 논문, 「職役別列舉綜合表」 참조.

24) 金泳謨, 앞의 논문, 〈표 6〉 및 〈표 8〉 참조.

25) 《增補文獻備考》 권 187, 選舉考 4의 31.

26) 《新補受教輯錄》 戶典, 戶籍條.

었다. 서얼 후손의 유학 호칭이 합법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모록 유학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다. 호적이 役 부과와 기본대장이었음을 감안할 때 避役을 위한 籍吏와의 作奸이 쉽게 짐작되며, 실제 籍吏들이 戶籍事目を 악용하여 작간이 심하였다.<sup>27)</sup> 이같은 방법은 유역하층민이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피역과 신분상승을 도모한 경우이겠다. 장적상에서 확인되는 모록 유학은 유역하층민이 중인직역을 거쳐 유학으로 상승 이동하고 있었는데, 동일인의 當代 혹은 몇 世代를 거치면서 유학으로 직역을 변동시키고 있었다.<sup>28)</sup> 이같은 서얼 후손 및 모록유학의 유학 호칭은 유학이 無役 閑遊者이기 때문에 면역인구의 증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유학은 士族으로서 벼슬하지 못한 儒生을 지칭할 뿐 아니라 과거응시 및 敍用을 위한 擬望, 그리고 國役 면제 등 국가 시책과 관련하여 여타 직역과는 달리 특별한 처우를 받아 온 대표적인 양반직역이었다. 이처럼 권위있는 양반직역에 서얼 후손 및 유역하층민의 모속에 의한 유학 격증현상은 그것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역사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유학을 통해 신분이 상향 조정되면서 신분제의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세 불평등사회에서 근대 평등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의 격증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서얼 후손 및 유역하층민의 신분상승 시도와 그로 인한 신분혼효 현상은 중세 해체기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인신분층 내에서 D類는 일시적 면역 및 혈역으로 한유하던 직역들로서 14.30%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전체 남자 인구의 5.2%(1,378명)을 점하는 閑良과 5.9%(1,582명)를 점하는 각종의 軍官이 주목된다. 이들 한량과 군관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욱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즉 김영모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 도시지역인 東上·西上 두 面의 한량과 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한량의 경우, 숙종조에는 농촌지역에 1호뿐이었으나 영조조에는 57호 가운데 40호, 정조조에는 229호 가운데 112호, 고종조에는 219호 가운데 204호가 각각 도시지역에 밀집하고 있었다. 군관의 경우, 숙종조에는 32호 가운데 10호, 영조조에는 266호 가운데 117호, 정조조에는 202호 가운데 122호, 고종조에는 200호 가운데 143호가 각각 도시지역에 밀집하고 있었다.<sup>29)</sup>

이러한 한량·군관 두 직역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상공업 발달과 관련시켜 볼 만한 문제이다.<sup>30)</sup> 이의 근거는 崔承熙의 古文書 분석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慶尚道 龍宮縣의 大邱 白氏家の

27) 丁若鏞, 《牧民心書》 권 6, 戶籍條 참조.

28) 李俊九, 앞의 책, 서얼 가계사례는 〈표 7-3·4·5·6〉, 모록유학의 가계사례는 〈표 7-7·8·9·10〉 참조.

29) 金泳謨, 앞의 논문, 〈표 6〉 大邱府 面別·時期別 身分構造에 집계된 것 참조.

30) 이 문제에 대한 이하 서술은 李黍鎭의 앞의 논문에서 언급된 연구사 정리를 참고한 것이다.

고문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sup>31)</sup> 즉 이 집안은 본래 양인 신분에서 지나지 않았는데, 1789년에 台玉이 용궁현에서 醴川郡으로 이사하면서 주어진 그의 ‘업무’란 직역은 다른 자료에서는 鎭營軍官이라고 표기되기도 하였으며, 그 뒤 右撫中司把摠,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嘉善大夫龍驤衛副護軍으로 승급하였다. 그런데 1800년에 태옥 자신이 올린 所志에 의하면 그는 예천지방에서 목화를 거두어 서울 남대문의 都榮哲家에 실어가 파는 ‘興販’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筆者의 閑良 研究에 제시된 사례 가운데서도 위와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sup>32)</sup> 즉 한량 姜再良 家系에 보이는 ‘黃店匠人’이 그 좋은 예이다. 이것은 예천의 白台玉이 자신의 생업을 ‘흥판’으로 밝힌 것에 비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량 金聖業 가계에 보이는 진영군관도 1789년에 백태옥이 예천으로 이사한 직후에 ‘업무’로서 받은 差職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18세기를 거치면서 한량·군관의 직역은 위 사례의 대비로 보아 상업·수공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로 받던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추측은 호적에 기재되는 직역 중 商人을 표시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역으로 뒷받침해 준다. 상인은 실재하고 있는데도 그 생업을 직접 표시하는 직역명이 따로 없다면 한량·군관 뿐만 아니라 업무와 같은 것이 그 대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類는 庶孽들이다. 업유·업무가 숙종 22년에 庶孽職役化된 이후 장적상에서 ‘庶子’·‘許通’ 등의 표기는 사라지고 오직 ‘업유’·‘업무’로만 나타나고 있다. 업유·업무의 구성비는 16.06%(4,279명)를 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업유가 3.79%(1,009명), 업무가 12.27%(3,270)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제는 양반의 서열이 과연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전술한 바 서열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자신이 서열일 경우에만 업유·업무라고 하였고, 그 자손은 유학을 호칭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업유·업무는 재생산에 의한 수적 증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數値가 의미하는 바는 유역하층민의 모속에 의한 현상으로도 보인다. 서열의 役名이 업유·업무이며 無役閑遊者인 까닭으로 업유·업무란 직역은 유역하층민의 피역과 아울러 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모속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들의 후손은 유학을 칭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허용되었으므로 업유·업무에 모속한다는 것은 곧 양반직역의 하나인 유학으로 신분을 격상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된다. 따라서 업유·업무의 이러한 구성비는 업유·업무가 유역하층민의 피역과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다리

31) 崔承熙, 〈朝鮮後期 身分變動의 事例研究 - 龍宮縣大邱白氏家 古文書의 分析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32) 李俊九, 〈朝鮮後期の 閑良과 그 地位〉《國史館論叢》5, 1989.

기능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업유·업무는 도시지역에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19세기 중엽에는 都·農 간의 155호 가운데 도시지역에만 132호가 분포되어 있다.<sup>33)</sup> 이들 중에 업무의 상당수는 위에서 언급한 바, 한량·군관과 마찬가지로 상업으로서 생업을 꾸려나갔던 상업 인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F類는 하급아전을 제외한 상급아전들이다. 그 구성비는 2.03%(540명)를 점하고 있는데, 하급아전(1.31%, 348명)을 포함하면 3.34%(888명)가 된다. 그런데 戶長·記官 등 鄉吏는 전혀 집계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아마도 上位의 신분직역을 획득하여 신분상승을 이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김영모의 조사에 의하면, 1795년 당시 衙前은 10.6%(577호)가 집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지역인 동상면(271호)과 서상면(286호)에 557호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는 대구 도심지역이 監營을 비롯한 각종의 官衙를 많이 지녔던 데에 연유한다.

G類는 A류와 마찬가지로 품직자 가족의 신분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편의상 주로 老職 및 納粟품직이었던 嘉善大夫, 通政大夫, 折衝將軍, 僉正, 判官, 主簿, 察訪 등을 G류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구성비는 1.44%(385명)를 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은 가선대부(83명), 통정대부(103명), 절충장군(160명)이다. 경상도에 발매된 空名帖을 보면, 영조 7년에는 가선 500장, 통정 700장, 절충 700장을, 영조 38년과 39년에는 災荒으로 인하여 3,000장을, 정조 2년에는 4,000장을 각각 발매한 적이 있는 것<sup>34)</sup>을 보면 위와 같은 납속품직자의 수가 가히 짐작된다. 납속품직자들은 대개 率子의 직역이 품직취득이전의 신분직역을 세습하고 있어 양반신분이 될 수 없으나, 품직을 취득함으로써 當代에는 면역되어 閑遊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역을 부담하는 상민과 구별되므로 납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법제적 처우를 감안할 때 班·常의 중간존재로 상정되는 부류이다.

상민신분 내에서 H類는 하급아전인 바, 그 구성비는 1.31%(348)을 점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小童·羅將 등이 전혀 집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I類는 각종 군병과 요역 부담자들이다. 이들의 구성비는 12.62%(3,364명)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東伍(728명)가 가장 많은 수이고, 다음이 水軍(578명), 馬軍(319명), 烽軍(300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J類는 각종의 保人들이다. 이들의 구성비는 9.82%(2,617명)를 점하고 있다. 보인 가운데에는 吏保(1,295명)가 가장 많은 수이고, 다음이 馬保(508명), 禁保(290명), 御保

33) 金泳謨, 앞의 논문, 〈표 6〉 참조.

34) 徐漢教, 〈17·18세기 納粟策의 實施와 그 成果〉《歷史教育論集》15, 1990, 참조.

(260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K類는 각종의 匠人들이다. 이들의 구성비는 1.56%(416명)를 점하고 있다. 장인은 도시지역의 경우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의 장인의 수는 정조 19년(1795)의 호적에 서상면 140호(양장 118호, 천장 22호), 동상면 126호(양장 99호, 천장 27호) 도합 266호에 달한다. 이것은 앞선 두 시기의 규모 즉 숙종 10년(1684)의 도합 16호(서상면: 양장 2호, 천장 5호, 동상면: 양장 4호, 천장 5호), 영조 23년(1747)의 도합 130호(서상면: 양장 44호, 천장 21호, 동상면: 양장 55호, 천장 10호)에 비하면 현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또한 皮匠들의 家戶로만 구성된 집단 거주지도 형성되었다.<sup>36)</sup> 즉 1747년에는 12호가, 1789년에는 13호가, 1825년에는 23호가 각각 서상면의 踏下里를 이루고 있는데 그 호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자 내지 구매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도시적(상공업적) 요소가 갖추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L類는 驛屬人들이다. 1786년 호적 말미에는 驛吏만을 집계하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1.10%(292명)를 점하고 있다. 그들은 舌化驛이 소재하는 花縣內面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sup>37)</sup> 신분 구조상에서 역리의 신분적 지위는 常民(武田幸男·井上和枝), 身良役賤(金容燮·盧鎮英·全宇哲), 賤人(金泳謨)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역리의 가계를 분석하여 볼 때, 역리는 분명히 양인으로서 그 역(賤役)이 世傳되었으므로 身良役賤으로 파악된다.<sup>38)</sup> 이같은 역리는 그 역이 천역일지라도 그 신분이 良身分이므로 상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M類는 役名이 없는 良신분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구성비는 2.38%(635명)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老除가 440명, 良人이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奴신분 내에서 N類는 官奴·內奴·寺奴·校奴·院奴·驛奴 등 公賤들을 분류한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이들 중에 寺奴(133명), 營府奴(247명), 院奴(90명)만 집계되어 있다. 이들의 구성비는 1.76%(470명)를 점하고 있다. O類는 士庶의 奴인 私賤들이다. 私奴의 구성비는 10.12%(2,697명)를 점하고 있어 공천에 비해 매우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비호는 앞의 <표 2-5>와

35) 金泳謨, 앞의 논문, <표 6> 참조.

36) 韓榮國, 앞의 <大邱市史>, p. 406.

37) 金泳謨, 앞의 논문, <표 6> 참조.

38) 韓基範, <17세기 驛屬人의 身分의 地位 - 丹城戶籍分析을 中心으로 - > 《大田實專·中京工專論文集》 13, 1984, p. 25.

39) 李翼, 《星湖僊說》 권 4, 公賤條 “國俗 內奴寺奴驛奴校奴之類 謂之公賤 士庶之奴 謂之私賤”.

〈표 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격히 감소 내지 소멸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奴·良妻所生의 從母從良法의 실시 및 內·寺奴婢의 혁파 등 이 시기 중요한 조치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상민 이상 계층의 수적 증가를 촉진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김영모는 노비가 都·農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노비가 갑자기 양반·준양반의 신분을 획득한다기보다도 일단 도시로 이주하여 賤役良人 또는 중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17세기 말엽에 많던 노비가 18세기 중반 이후에 현격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양인 신분의 匠人이 급격히 늘어난 점과 寡女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 등을 함께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수치의 증가와 노비의 감소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양반층내에서의 유학, 중인층내에서의 한량·군관·업무 등의 구성비가 주목된다. 유학의 격증현상은 유학이 無役 閑遊者이기 때문에 면역인구의 격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사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유학의 격증현상은 그것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간에 신분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신분제의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세 불평등사회에서 근대 평등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의 격증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서얼 후손 및 유역하층민의 신분상승 시도와 그로 인한 신분혼효 현상은 중세 해체기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의 한량·군관·업무의 증가와 匠人의 증가가 크게 주목되는데, 이들의 증가가 시사하는 바는 비농업적 상공업 인구의 증가로도 이해가 가능하며, 도시지역의 상공업 발전과 관련된 경제도시로의 성장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 III. 同族部落과 特殊部落

향촌사회의 구성을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동족부락이다. 동족부락은 同姓同本の 父系 중심의 一門中이 一村을 점거하여 형성된 집단적 거주지를 말한다. 이러한 동족부락의 형성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동족부락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동성동본의 一門中이 一村을 점거하여 형성된 父系 중심의 명실상부한 동족부락은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갔다.<sup>40)</sup> 麗末 이래 土族의 移住 배경을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40) 동족부락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주로 다음을 참고함.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 出版部, 1979.

——,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9, 1987.

妻家를 따라 옮겼던 것이다. 거주지를 옮길 때 妻鄉 또는 外鄉을 택한 것은 子女均分相續制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균분상속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外孫奉祀와 親孫·外孫을 거의 같이 보았던 15세기만 하더라도 親家를 중심으로 外家와 女壻가 같은 村里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그 결과 친가·외가 또는 처가의 一門이 一村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在地土族들은 川防과 移秧法이 보급되는 16세기부터 점차 川流와 溪谷을 따라 사족집거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16세기와 17세기 전반까지도 宗法的 가족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며 자녀균분상속제와 자녀윤회봉사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촌락주민의 구성도 자연히 親族을 비롯하여 그 여서와 외손들이 共居하는 異姓雜居村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17세기 후반부터 자녀균분제의 해소와 함께 바뀌어지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동족 부락이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자녀균분제가 해소되어 나가는 17세기 후반부터는 家系 상속과 奉祀 문제가 재산상속제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바뀌어 갔으며, 자녀차등상속 내지 承重자손의 우대조치는 累代에 계승된 대지주와 宗家가 나오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동족부락의 발달을 촉진시켜 나갔다. 한편 16세기 말, 17세 초에 양란을 치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하층민들의 저항은 더욱 완강해졌다. 하층민의 저항에 사족이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완된 신분질서를 재정비 강화하고 동요된 향촌사회를 다시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족들은 경쟁적으로 族譜를 편찬하고 書院과 祠廟를 건립하여 종족적 결합을 강화하며, 鄉案과 洞案을 작성 비치하고 향약·동약·族契를 제정 실시하여 향촌사회를 재정비하려는 데서도 동족부락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재지사족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발달을 보게 된 동족부락은 곧 사회·경제적 성격에 연유한 것이며, 주로 ‘邑治’의 외곽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대구부 지역의 동족부락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2-11〉은 四方博이 善生永助가 설정한 5개 유형,<sup>41)</sup> 즉 ① 한 부락 가운데 거의 전부의 가호가 한 동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몇몇 부락에 걸쳐 동족의 호수가 집단되고 있는 경우, ③ 두 성씨 이상의 동족이 중심이 되어 부락을 이루고 있는 경우, ④ 한 부락 가운데 다수의 동족호수와 소수의 동족 외 호수가 인접하여 介在하고 있는 경우, ⑤ 한 부락 가운데 약 半數 정도나 그 이상이 他姓인 경우 등과 같은 것에 근거하여 대구지역(1690년 장적의 10개 면과 1741년 장적 4개 면) 동족부락의 분포를 抽出해 낸 것이다.<sup>42)</sup> 이는 위의 5개

41) 善生永助, 《朝鮮의聚落》後篇, 1935, p. 339.

42)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앞의 책, 第23表 참조.



〈表 2-11〉

同族部落의 面別 戶數

面名 姓氏 時期	西下 下面	河東面		河南面		河西面		河北面		甘勿 川坊	祖岩坊	月背坊	仁興坊	花園 縣內	合 計	
	I	I	II	I	II	I	II	I	II	I	I	I	I	I	I	II
金海金氏	13	9	8	22	30	17	19	46	53	20	20	49	19	52	267	110
密陽朴氏	8	10	9	14	14	4	4	43	29	9	3	17	12	48	168	56
星州李氏	3	4	7	2	10	9	9	2	4	13	29	4	16	5	87	30
慶州李氏	2	13	14	11	13	14	9	12	13	1	4	3	1	3	64	49
全義李氏		1		8	9	9	4	3	8					1	22	21
慶州崔氏	4	4	8		2	1		8	10	10	23	14	2	2	68	20
晉州姜氏		4	3	1		10	4	5	4		6	1	1	32	60	11
金海許氏			2	2	1	1	3			47	5	2			57	6
東萊鄭氏		20	19	13	17	4	8	1	3	5	2	3	2	5	55	47
大丘白氏	5					2	2	3	1	8		9	14	9	50	3
咸安趙氏	22			1		1		6			9	3		5	47	
坡平尹氏	2	1		26	22	1	1	5	5			3	2	4	44	28
八莒都氏	5	10	26	1	1				1	12	1	1	2	8	40	28
竹山宋氏										7	9		20		36	
玄風郭氏	3			17	7		1	2		3		1		10	36	8
丹陽禹氏					1			14	9		7	15			36	10
達成徐氏	2				2		1	1	2	7	15			1	26	5
密陽孫氏				1				2	1	3	1	8		2	17	1
昌寧曹氏			1				1	8		2		1	1	2	14	2
昌原黃氏			2		2	4	6		2						4	12
昌原仇氏		1	7				1	2	1		3	3			9	9

註：庚午式(1690년) 帳籍. II：辛酉式(1741년) 帳籍.

유형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한 부락안에서의 동성동본의 가호수가 차지하는 비율 및 다른 성씨의 가호수와와의 비율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준한 것이다.

이점에 대해 韓榮國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43)</sup> 즉 동성동본의 가호가 그 거주를 인접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혈연에 의한 공동의 유대를 지니는 동족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씨의 본관만을 기준으로 하여 동족부락, 또는 비동족부락으로 구분, 이해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下守南面의 성씨 가운데 동족부락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南平文氏(檢岩里 거주), 金海金氏(東邊立岩里 거주), 大丘徐氏(檢岩里

43) 이하 서술은 주로 韓榮國의 앞의 《大邱市史》를 참조함.

거주)의 경우를 들어 과연 그들이 혈연적인 유대를 지니는 동족인가 하는 것을 그들 戶主·四祖의 직역, 처의 號稱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평문씨, 대구서씨의 집단은 동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상을 다분히 들어내고 있으나, 김해김씨의 집단은 호주의 신분 및 직역이 각異함은 물론이려니와 호주들 상호간의 四祖의 직역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동성동본의 가호들의 집단적 존재양태만을 가지고 동족부락이라고 일률적으로 이해·정의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동족부락의 基幹을 이루었을 혈연적 유대의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姓族에 다음가는 일정 범위의 族集團인 宗族의 존재를 고려하였는데, 적어도 조상의 祭祀를 공통으로 하는 혈연적 유대를 지녀야 하고 또 宗會나 族契와 같은 종족단위의 조직을 갖는 정도의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방박이 추출해낸 <表 2-11>과 같은 동족부락의 분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17~19세기 대구지역에도 혈연으로 맺어진 一群의 동족부락이 적지아니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善生永助는 60여개를 열거하고 있는데,<sup>44)</sup> 그들 가운데 한 면에 100世帶 이상의 同族家戶가 존재하는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조선시대의 面名임).

達西面(西中·西下下) : 金海金氏, 金寧金氏.  
 城北面(東中·東下) : 達城徐氏.  
 壽城面(下守西·守東·守北·守縣內) : 仁川李氏.  
 公山面(解西村·解北村) : 仁川蔡氏, 慶州崔氏.  
 解顔面(解西部·解東村) : 慶州崔氏.  
 豐角面(角縣內·角二) : 平澤林氏, 密陽卞氏.

이러한 동족부락의 분포 양상을 보면 동상면·서상면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농촌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적상에 나타난 本貫別 성씨를 중심으로 파악한 김영모의 조사에 의하면, 부락호수의 1/5을 차지하는 姓氏部落을 동족부락이라고 할 경우<sup>45)</sup> 도시지역에서는 전체 27개 부락 가운데 7개가 있으며, 부락호수의 1/3 이상이라고 할 경우<sup>46)</sup> 3개 부락이 있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 星州裴氏(39.5%)가 많이 사는 茂川里와 大邱徐氏(34.

44) 善生永助, 앞의 책, p. 543.

45) 善生永助, 앞의 책, p. 203.

46) 金宅圭와 李光奎는 1/3 이상의 姓氏가 있는 경우에 동족부락이라 하였다.

金宅圭,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一潮閣, 1979.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3%)가 많이 사는 南山里, 그리고 月城李氏(33.3%)가 많이 사는 新川里가 있다.<sup>47)</sup> 이러한 조사도 역시 동성동본의 一門中이 一村을 점거하여 형성된 父系 중심의 명실상부한 동족부락, 다시 말해서 혈연에 의한 공동의 유대를 지니는 동족부락의 與否는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동성동본의 수치 파악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혈연적인 동족부락과는 달리 직업이나 직역을 같이 하는 데서 이루어진 特殊部落들도 보이고 있다. 대구부 호적에서 들어난 특수부락으로는 驛吏의 부락과 柳器匠의 부락, 그리고 皮匠의 부락이 있다.

驛吏는 직역이 지닌 특성에 따라 대개 역촌 부근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 대구부에는 4개의 驛이 있었는데, 凡於驛, 琴川驛, 舌化驛, 幽山驛이 그것이다. 범어역은 守北面 凡於里에, 금천역은 河北面 琴川里에, 설화역은 花縣內面 舌化里에, 유산역은 角北面 幽山里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역은 경상도 11개 驛道 가운데 省峴道에 소속하고 있었다.<sup>48)</sup> 역리의 집단거주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김영모의 조사를 참고로 하면, 舌化驛이 소재하고 있는 花縣內面의 경우 面의 전체 家戶 가운데 驛吏는 1687년에 38.5%(219호), 1744년에 51.6%(322호), 1795년에 47.1%(298호), 1867년에 45.9%(233호)를 각각 점하고 있어 전체 신분직역 가운데 역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 또한 조사대상으로 한 9개 面 가운데 유일하게 설화역이 소재하고 있는 화현내면의 驛吏家戶는 전체 역리가호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즉 화현내면의 역리가호는 1678년에 전체 236호 가운데 219호, 1744년에 전체 387호 가운데 322호, 1795년에 전체 382호 가운데 298호, 1867년에 전체 298호 가운데 233호를 각각 점하고 있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49)</sup> 이러한 현상은 곧 역 부근에 역리들의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柳器匠은 사방박의 조사에 따르면, 河南面 烟火里에 4가호 23인이 거주하면서 한 동리를 이루고 있었고, 또 화현내면 榆谷里에 9가호가 47가호의 일반민 가호에 입접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90년 장적).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1744년 장적에서는 화현내면의 4가호를 살필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으로 나타난다.<sup>50)</sup>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의 新戶와 匠人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 도시지역의 장인의 수가 1684년에는 10호에 불과하였던 것이 1747년에는

47) 金泳謨, 앞의 논문, p. 150.

48) 《大丘府邑誌》驛院 및 坊里條 참조.

49) 金泳謨, 위의 논문, 〈표 6〉 참조.

50) 四方 博의 조사를 인용한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06 참조.

130호, 1795년에는 266호에 달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파악도 가능하다.

皮匠은 獸皮의 제조 및 가공을 主業으로 하였던 자들로서 유기장과 마찬가지로 그 직업의 賤畧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구별, 천대되었던 자들이다. 이들 피장은 西上面 路下里에 이들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한 동리를 이루고 있었다. 즉 1747년에는 12호, 1789년에는 13호, 1825에는 23호가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다. 정조 13년(1789)과 순조 25년(1825) 호적의 경우, 각각 13가호와 23가호의 호주의 직역이 모두 ‘皮匠’이고, 그들 처의 호칭이 모두 ‘助是’였다. 이러한 피장부락의 존재양상에 대해 한영국은 이 인접지역에 그들의 생활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購買집단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상·서상면의 一隅에 형성된 도시적 양태가 유동적인 이들 인구로 하여금 그 인접지역에 유치, 정착케 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sup>51)</sup> 따라서 피장을 비롯한 도시지역 장인들의 수적 증가는 곧 비농업적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18~19세기 대구부 도심지역의 도시적(상공업적) 요소가 진전·확산되어 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第2節 經濟都市로의 成長과 財政

### I. 農業의 變化

壬辰倭亂 이후 대구에는 商業的 農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발달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상북도 지역에서의 先進인 농업기술 발달에 편승한 생산력의 증대와, 대구 주변지역에서의 場市의 발달을 통한 地域商圈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따라서 대구지방의 농업발달은 경상북도의 농업발달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조선후기의 상업적 농업은 쌀·보리·조·콩 등의 穀物에서 면화·잠사·대마 등의 衣料作物, 소채나 과실, 약재·담배·완초 등의 工藝作物과 각종 染料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부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발전지역도 농업의 선진지대였던 三南地方을 위시해서 서울근교와 황해도, 위로는 평안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었다.<sup>52)</sup>

51)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07.

52) 李潤甲, 〈慶尙北道地方의 農業變動〉《韓國史研究》54, 1986, p. 63.

당시 상업적 농업의 발전은 場市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상품은 주로 장시를 통해 유통되었고, 따라서 상업적 농업이 발전한 지역일수록 장시도 번성하기 마련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장시의 발전이 두드러졌던 지역은 충청·전라·경상·평안도였다. 이 중에서도 경상도에서 특히 많은 장시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後術하는 <표 2-17>에서 잘 알 수 있다.

그같은 장시의 발전은 이 지역에서 상업적 농업의 발전이 현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에서 상업적 농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장시의 발달 이외에도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농민의 剩餘生産物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 농업생산력 발전이다. 이 지방은 中世 全期間을 통하여 先進的인 농업기술 개발로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었다. 농업생산력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던 移秧法은 15세경에 이미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여타 지역에 앞서 논농사의 지배적인 농법으로 확립되었다.<sup>53)</sup>

또한 이 지방에서는 이앙법의 發達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수리시설의 증폭과 施肥 및 反耕法의 개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앙법은 가뭄에 쉽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점이 있다. 이앙법이 선진적인 농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水利문제의 해결이 요구되었다. 이앙법이 보급된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경상도에는 700여개의 제언이 증축되었는 바, 이는 타도보다 훨씬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아래의 <표 2-12><sup>54)</sup>에서 알 수 있다.

<表 2-12> 南部三道의 堤堰數 變遷

道	15世紀後半	1518年	1782年	19世紀初
慶尙道	721	800	1522	1666(99)
全羅道	-	900餘	913	912(24)
忠淸道	-	500餘	503	518(17)

( )안의 수는 廢堤堰數

이 지역의 堤堰數 변동 추이를 정리해보면, 전기에는 경산·선산·상주·성주 등지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후기로 내려올수록 이들 지역보다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중류 및 금호강 유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다.<sup>55)</sup> 특히, 다음의 <표 2-13><sup>56)</sup>에서 볼 수 있듯이, 水利施設인 提·泮 94개가 대구부 전역에 걸쳐 散在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구사회가

53) 金容燮, <朝鮮後期の 水稻作技術—移秧法の 普及에 대하여—>《亞細亞研究》13, 1964.

54) 宮嶋博史, <李朝後期の 농업수리 —堤堰灌漑를 중심으로—>《東洋史研究》41, 1981.

55) 宮嶋博史, 앞의 논문.

56)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p. 411~415.

일찍부터 농업사회로의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던 데서 연유된 것이라 하겠으니, 17세기 초엽과 그 이전에 마련된 시설들이 그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表 2-13〉 大丘府 水利施設

面 名	堤・洑 名	周 回	水 深	備 考
東 上 面	松 羅 堤 大 同 堤 山 大 堤 知 大 洑 新 仁 洑 介 下 洑 船 乙 洑 自 學 洑 武 夫 洑 大 里 洑	1,368尺 760尺 690尺	3尺 3寸 4尺 3尺	
東 中 面	大 佛 上 堤 小 佛 上 堤 新 揚 洑	4,295尺 660尺	5尺 3寸 3尺 4寸	
東 下 面	吉 古 堤 鼎 峰 堤 胎 怠 洑 無 巖 洑 北 谷 洑 吉 經 洑 研	475尺 660尺 560尺	3尺 5尺 5寸 10尺	判官 金魯 所築
解 北 村 面	狄 栗 堤 能 城 堤 松 亭 堤	460尺 270尺 450尺	4尺 3尺 5尺	
解 西 部 面	阿 老 谷 堤 大 明 堤 元 堂 洑 北 坪 洑 加 利 洑 太 宗 亭 洑	900尺 600尺	5尺 3尺	新增 新增 新增 新增
	赤 池 堤 羅 里 堤	487尺 1,230尺	2尺 3尺 5寸	

面 名	堤・湫 名	周 回	水 深	備 考
解 東 村 面	於 里 堤	580尺	4尺	新增 新增
	沙 月 堤	1,500尺	6尺	
	所 乙 堤	600尺	3尺	
	釜 谷 堤	1,090尺	7尺	
	樂 民 堤	1,030尺	6尺	
解 西 村 面	架 山 堤	604尺	3尺	今廢 新增 新增 新增
	大 坪 湫			
	智 妙 湫			
	植 木 湫			
	加 自 夫 里 湫			
守 北 面	松 夫 里 湫			新增
	五 谷 夫 里 湫			
	板 橋 堤	1,250尺	4尺	
	蛇 洞 堤	515尺	7尺	
	枝 界 堤	1,300尺	5尺	
守 東 面	凡 於 堤	1,780尺	5尺	新增
	注 谷 堤	400尺	3尺	
	地 藏 洞 堤	1,070尺	3尺	
	黃 青 堤	405尺	7尺	
	照 青 堤	852尺	6尺	
上 守 南 面	串 谷 堤	600尺	5尺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屯 界 堤	882尺	6尺	
	大 洞 堤	1,429尺	7尺	
	奉 堂 堤	214尺	6尺	
	蛛 洞 地			
元 亭 堤	田 地			判官 金魯 所築
	上 中 下 沙 斥 洞 藏 千			
	新 良 地 三			

面 名	堤・泚 名	周 回	水 深	備 考
下 守 南 面	地 峙 堤 抱 祀 泚 鵠 亭 梅 巖 東 下 冷 泉 泚 泚 泚 泚	497尺	7尺	今廢 今廢  新增 新增 新增
下 守 西 面	三 丁 洞 山 大 地 界 解 東 梅 作 洞 沙 坪 沙 楔 知 印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1,045尺 675尺 300尺 493尺 330尺 1,220尺	7尺 3尺 5尺 3尺 5尺 5尺	  今廢  今廢 判官 金魯 所築 今廢 新增
內 守 縣 面	柳 吐 德 泚 泚			
上 守 西 面	亭 堡 堂 山 家 前 榆 谷 河 乙 吾 坪 濟 人 塘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西 上 面	蓮 信 蓮 信 蓮 花 大 也 泚 泚 泚 泚	1,527尺 1,370尺 1,980尺	6尺 3尺 9寸 3尺	
西 中 面	沙 里 知 里 谷 舊 泉 洞 一 泚 二 淵 臨 淵 鉀 堂 金 新 貝 泚 泚 泚 泚 泚 泚 泚 泚	1,840尺 1,835尺 1,224尺 1,102尺 530尺	3尺 5尺 8尺 8尺 8尺	       新增



面 名	堤・洑 名	周 回	水 深	備 考
達 西 面 (西 下 下)	聖 堂 堤	3,290尺	7尺	
	甘 三 堤	6,410尺	9尺	
	彌 勒 堂 堤	780尺	3尺	
	新 坊 堤	790尺	3尺	
	掛 耳 坊 堤	340尺	3尺	
	聖 堂 新 堤	632尺	3尺	
城 西 面 (西 下)	柴 栗 堤	731尺	5尺	
	夫 毛 堤	1,000尺	3尺 5寸	
	水 桶 堤	715尺	6尺	
	新 堤	675尺	7尺	
		1,600尺	3尺	
河 東 面	朴 谷 堤	390尺	1尺	
	世 川 堤	1,257尺	1尺 8寸	
	防 川 堤	480尺	1尺 8寸	
河 南 面	馬 衣 谷 堤	457尺	3尺	
	京 火 堤	525尺	2尺 5寸	
河 西 面	三 禾 堤	456尺	2尺	今廢  判官 金魯 所築, 今廢
	甘 文 堤	436尺	2尺	
	道 采 堤	792尺	7尺	
	馬 川 洞 新 堤	600尺	15尺	
河 北 面	灘 堤	434尺	4尺 5寸	
	蘆 色 堤	480尺	5尺	
	鎌 洞 堤	1,038尺	2尺	
	馬 川 洞 堤	1,058尺	9尺	
甘 勿 川 面	山 大 堤	668尺	2尺 5寸	
	松 峴 堤	746尺	3尺	
	竹 林 堤	526尺	5尺	
	院 旨 堤	664尺	5尺	
	大 野 堤	444尺	4尺	
祖 岩 面	凡 三 堤	460尺	3尺	新增
月 背 面	新 于 堤	1,108尺	3尺	新增 新增
	里 里 堤	522尺	3尺	
	于 泉 堤			
	大 休 堤			

第2章 社會構成의 變動과 經濟都市로의 成長

面 名	堤・沕 名	周 回	水 深	備 考
花 園 縣 內 面	曉 星 堤 馬 耳 堤 池 三 堤 上 仇 羅 沕 大 沕	757尺 700尺 777尺	8尺 1尺 5尺	新增
省 平 谷	仁 峴 於 火 龍 堤 沕	120尺	5尺	新增
仁 興 面	馬 飛 大 谷 大 中 堤 沕	551尺	13尺	判官 金魯 所築, 今廢
玉 浦	大 坪 沕			
角 縣 內 面	聖 在 牆 北 早 栗 天 井 外 加 牢 里 楊 吐 新 夫 造 里 山	700尺	10尺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新增
角 北 面	木 坪 金 谷 羅 立 北 別 松 旨 木 坪 牛 山 堤 堤	521尺 368尺	11尺 6尺	今廢 新增 新增 新增
角 二 東 面	極 樂 巾 村 上 德 眞 亭 國 宇 柒 坪 知 堤 中	880尺 386尺	20尺 9尺	新增 新增 新增

面 名	堤・淤 名	周 回	水 深	備 考
角 初 東 面	釜 谷 堤	1,221尺	10尺	判官 金魯 所築
	沙 外 堤	510尺	8尺	判官 金魯 所築
	加 陽 堤	330尺	7尺	判官 金魯 所築
	地 境 淤			
	金 山 淤			
	牛 幕 淤			

1. 《大丘府邑誌》, (1832년 편찬)에 의거함.

2. 判官 金魯는 인조 23년(1645)~효종 즉위년(1649) 사이에 在職.

水利施設의 발달과 더불어, 이양법 보급으로 수전 二毛作이 가능하게 되면서 분비법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당시로서는 地力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反耕法의 개발로 이 과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다. 이양하는 논에서는 수차에 걸쳐 반경이 이루어졌다. 반경이란 깊이 파뒤집는 논갈이로서 객토를 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다.<sup>57)</sup> 이러한 노력으로 이 지방은 18세기 후반 이양법 보급에 따른 생산력 발전의 성과를 가장 착실히 거둘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생산력의 발전은 면작에도 현저하였다.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전라도와 더불어 이미 조선전기에 면화를 재배하고 있었고, 면작기술의 진보 또한 빨라 면작이 겨우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17세기에 이르면 《農家集成》에서 선진적인 개간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습지 개간법을 개발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한다. 이러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이 되면, 동일면적에서 타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소출을 올리는 집약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sup>58)</sup>

이같은 농업기술의 발달 이외에도 특히 대구지방의 경우 호구당 경작면적이 비교적 넉넉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大丘府邑誌》에 의하면 1831년 당시의 대구부는 총 8,103結 35負 8束의 영농면적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면적은 약 530,630石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농토인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4〉<sup>59)</sup> 와 같다.

57) 閔成基, 〈李朝犁에 대한 一考察〉下 《歷史學報》 88, 1980, pp. 78~79 참조.

58) 李潤甲, 앞의 논문, pp. 64~65.

59) 韓榮國, 앞의 《大邱市史》, p. 409.

〈表 2-14〉

大丘府 營農面積

區 分		旱 田 (밭)	水 田 (논)	合 計
量 付	稅	7,807結 23負	4,976結 54負 4束	12,783結 77負 4束
免 陣	雜 頃	214結 82負 8束	276結 81負 2束	491結 64負
時 起 實 結		3,884結 41負 8束	795結 99負 8束	4,680結 41負 6束
耕 作 實 結		3,707結 98負 4束	3,903結 73負 4束	7,611結 71負 8束
		3,922結 81負 2束	4,180結 54負 6束	8,103結 35負 8束

1. 量付：量案에 등록된 경작토지총수.
2. 陳雜：被災로 경작하지 못하는 토지.

그러나 위와 같은 營農面積의 파악은 어디까지나 收租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진잡탈의 결수에는 탈세를 위한 결수, 즉 실제로는 경작되고 있었던 농토의 면적이 크게 누락되었을 것이고, 그 밖에 경작농토를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隱結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실제의 영농면적은 量案에 등록된 면적 전체에 가까웠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영농면적은 당시의 戶口數로 보면, 1호당 58負(略 4千坪)의 농토와 1인당 9.3石(약 140斗：可食米로는 약 70斗)의 곡식이 돌아가는 비교적 여유있는 농토였다.<sup>60)</sup>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에서 상업적 농업은 쌀·보리·콩 등 穀物類에서 면화·대마·모시·잠농 등 섬유원료, 人蔘·地黃 등의 藥材, 도시근교의 소채·과수, 닳나무·완초 등의 工藝作物, 기호품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던 煙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발전하였다. 이들 상품작물들은 각각 재배에 적합한 자연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고 때로는 상반되므로 하여, 농민들은 각각 그 지역의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상품작물의 생산을 전문화해 가고 있었다.<sup>61)</sup> 그리하여 특정한 상품작물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몇 개의 상업적 농업이 지역별로 분화된다는 사실은 지역별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쌀·보리·조 등의 주식물이 농산물 중에서 가장 수요가 컸다. 이 중에서도 상품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었던 것은 쌀이었다. 농산물 중에서 쌀이 상품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하고 빈곤한 무리까지도 쌀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그런 만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보리나 조보다는 월등하였기 때문이었다.<sup>62)</sup> 더우기 여타 곡물과는 달리 쌀생산에서는 이양법의 보급으로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

60) 韓榮國, 앞의 《大邱市史》, p. 410.

61) 李潤甲, 앞의 논문, p. 68.

62) 李世永, 〈18~19世紀 穀物市場의 형성과 流通構造變動〉《韓國史論》9, 1983, p. 221.

이었다.

경상도에서 18세기 후반에 벼농사에서 상업적 농업의 발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은 대구·성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중류지역과 대구에서 영천으로 이어지는 금호강유역이었다. 이 지역은 낙동강 수운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금호강 유역 평야지대에서 沙門津(花圓縣에 위치하였음)에 이르는 육로 또한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평야지대를 관통한 평탄한 것이어서 운송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sup>63)</sup> 이에 더해 평야지대 가운데 위치한 대구 자체가 3大 商業都市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일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sup>64)</sup> 이러한 호조건 아래서 대구는 쌀 생산에서 상업적 농업이 급속히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리나 조는 하층민의 주식으로, 농촌·도시 모두에서 수요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보리나 조의 상품생산은 농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넘어 설 수 있는 생산력의 발전 및 생산의 확대 여하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水田二毛作의 발전은 이점에서 상업적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부여하였다. 보리나 조 생산에서 상업적 농업이 발전했던 지역은 그 분포가 대개 쌀 생산에서 상품생산이 발전했던 지역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콩은 부식물이나 우리 식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식료였다. 그런데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재배가 수월해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자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시장은 도회지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요가 주식인 쌀·보리에 비해 훨씬 적어 상업적 농업의 발전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대항작물인 면화가 재배되었던 지역에서는 면화의 상품생산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콩생산은 거의 자급자족적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콩생산에서 상업적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지역은 綿作이 불가능하면서 도회지에 가깝거나 水運이 편리하였던 곳에 위치한 지역 즉 경주·영일 평야의 밭농사 지대와 금호강 유역의 일부 밭농사지대였을 것이다.

棉花·綿布의 경우를 살펴보면, 면화재배에 적합한 토양조건은 여타 밭 작물에 비하여 비교적 까다롭다. 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도 예민하여 생육기간 중 降雨量이 적당해야 하고 無霜期間이 160日 이상이 되어야 했다.<sup>65)</sup> 조선 중기 이래 면작확대를 위한 조정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재배가 일부지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까다로운 재배조건 때문이었다.

63) 宮嶋博史, 앞의 논문, p. 41.

64)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354.

65) 李殷雄, 《韓國農業概論》, 1977, p. 122.

면작의 확대는 제한되었던 데 비해, 면화 및 면포의 수요는 후기로 내려올수록 급속히 증대하고 있었다. 衣料用으로는 전기까지 지배적이었던 麻布에 비해 면포가 훨씬 우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요증대에 더하여 곡물보다 운송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면화 및 면포의 상품성을 일층 높일 수 있었다. 면화는 그 자체로서 상품화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직포과정을 거쳐 면포로 유통되었다. 면포로 운송할 경우, 곡물에 비해 훨씬 수월하고 화물량에 비해 판매단가도 높아 육로를 통해서도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sup>66)</sup>

이런 까닭으로 면작재배는 오곡생산에 비해 배 이상이나 수익성 높은 상업적 농업이 될 수 있었다. 면작에 가장 적합한 사질 양토가 현풍·대구·하양·경산·자인·영천지역의 낮은 산이나 언덕, 그리고 팔공산 북방의 군위·의성·비안으로 이어지는 산지의 저위부분에 분포되어 있었다. 즉 이 지역들의 발지대가 면작에 가장 적합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면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부녀자들의 노동을 이용하여 家内副業으로 직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면화생산지와 면포생산지는 대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면포는 직포여공을 고용하는 전업적인 면포전업자에 의해 생산, 유통되기도 하였다. 전업적인 면포업자는 면작 중심지에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원료면화의 상당부분을 시장구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면작지가 넓지 못했던 까닭에 위의 면작지역들 특히 대구와 의성은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sup>67)</sup>

소채·과일은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근교에서는 그 상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근교의 소채나 과일재배는 수익성이 높았다. 대구·상주·안동·경주·의성 등이 18세기 후반에 이미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였으므로, 이 도시들 특히 대구 근교에서는 이미 상업적인 소채생산도 상당히 발전했을 것이라 기대된다. 韓末 이 지역을 조사한 일본인들은 대구·안동 근교에서 소채농사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특별히 언급하였고, 대구근교에서는 특히 미나리 밭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대구시장에서 수요가 많아 대구근교에서는 무우·배추·오이·미나리 등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였다.<sup>68)</sup> 18세기 후반이래 대구의 도시 기능이나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채생산은 18세기 후반에도 행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상업적 농업이 전개될 수

66) 李潤甲, 앞의 논문, p. 76.

67) 金容燮, 앞의 논문.

68) 釜山帝國領事館 編, 〈韓國慶尙道 大邱府의 狀況〉《通商彙纂》, 1903, p. 11.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생산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생산력의 증대였음을 살펴보았다. 그같은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戶當 耕地面積이 비교적 넉넉하였던 대구지역에서는 쌀·면화를 비롯하여 과일 및 소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농산물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증대 이외에도 교통 및 운송수단의 발달과 장시의 발달 등이 병행되어야 했다.

## II. 手工業의 發達

18~19세기 대구사회의 수공업의 면모는 工匠의 존재 양태와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工藝品을 통하여 추론하여 볼 수 있다. 大丘府戶口帳籍에서 살필 수 있었던 匠人의 종류를 그들이 생산한 제품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表 2-15><sup>69)</sup>와 같다.

<表 2-15> 大丘地方 工匠種類

區 分	大丘府戶口帳籍匠人種類	經國大典 慶尙道 外工匠 種類
木草工藝品	筆匠, 扇子匠, 笠子匠, 筵席匠, 煙竹匠, 漆匠, 弓人, 矢人(8種)	弓人, 矢人, 漆匠, 扇子匠, 席匠, 弓弦匠
金屬工藝品	冶匠, 刀子匠, 環刀匠, 鞘子匠, 水鐵匠, 鎗錫匠, 鑄錫匠, 鍊磨匠, 豆錫匠, 銀匠, 喇叭匠, 帶匠 (12種)	冶匠, 鎗匠, 磨造匠, 甲匠
土泥工藝品	瓮匠, 沙器匠, 沙玉匠, 泥匠, 土店匠人(5種)	沙器匠
製紙, 紙類加工品	紙所匠人, 冊匠, 印出匠(3種)	紙匠
製皮, 皮革加工品	皮匠, 柳器匠(2種)	皮匠
鑛物採取工	硫黃軍, 採銀軍, 搗砵軍, 堿造軍, 鉛鐵軍, 炭軍, 燒木匠, 店汗(8種)	墨匠, 箱子匠, 梳匠 木匠, 油具匠, 油省匠
其他 未詳分	木手, 刻手, 石手, 雜役匠, 樂匠(5種) 稅米匠, 米軍, 補陳匠, 貢修匠(4種)	
計	47種	19種

<表 2-15>에서와 같이 《대구부호구장적》에서 확인되는 장인의 종류(47종)는 《경국대전》에서 확인되는 장인의 종류(19종)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47種에 달하는 각종 장인들은 앞의 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후대로 올수록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양상도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수공업의 활기와 성장을

69)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16 ; 1747년과 1825년 장적조사 및 《經國大典》工典, 外工匠條 참조.

傍證해 주는 자료라 하겠다. 이는 곧 도시적(상공업적) 요소가 갖추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실제적인 생산 및 판매양상은 場市에서의 거래품명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부내장에서의 거래품명 가운데 수공업제품으로는 직물류와 함께 製紙·扇子·簾席·鑰器·鐵物·土器 등을 들고 있다.<sup>70)</sup> 비록 匠種 가운데 弓矢 등 일부수공업품은 官納에 거의 국한되기도 하였지만, 여타 물품은 조선초기와는 달리 시장생산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조선초기의 官匠制가 조선후기에 오면 붕괴된다는 점이다.

대구지역에서 특히 발전하였던 수공업은 섬유수공업이었다. 1446년부터 1810년까지 360년간에 걸친 시기 동안에, 처음 150년간의 대구 섬유수공업은 자급자족적인 목적이 중심을 이룬 織布之衣였다. 생산기반도 역시 삼베는 수성·해안지역, 무명은 해안지역, 蠶桑은 대구지역, 苧布는 대구·수성지역으로 각 취락형태의 지역특화를 이루면서 발전하였다.<sup>71)</sup> 이러한 지역 特化型 집단적 농촌섬유수공업은 150년을 경과해 오는 동안 明의 고급섬유제품이 지방으로 유입되었고, 양반 사회의 농민수탈체제와 兵制 및 貢納制度의 문란으로 올바른 섬유수공업 육성책이 수행되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貢納을 위한 물량생산증가만이 관심이 되었을 뿐, 품질의 개선이나 신제품생산기술의 개발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거의 없던 기간이었다.<sup>72)</sup>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전후복구를 위한 수요가 증대되고 대동법이 실시되는 가운데, 생산자계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증대에 적극 가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7~18세기에는 구래의 봉건적인 것과는 이질적인 제 요인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싹터서 자라기 시작한 시기이다. 농업·수공업·상업 부문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대동법 시행 이후 점차 米·太 이외에 本錢(綿布)·布錢(麻布)으로 換納이 허용되자 1643년 경에는 錢價를 면포로 정하게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무명과 삼베 등 섬유수공업이 놀랄만큼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후기 왕조가 국내섬유수공업을 육성코자 시책에 관심을 가진 것은 明의 멸망과 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보여진다. 《農家集成》(1665), 현종의 《耕蠶圖》(1670), 朝宮人衣服改善(黑衣着用, 1671), 《農家十二月圖》(1682) 등의 도움을 받아 섬유수공업의 기반이 점차 다져지기 시작하였다.<sup>73)</sup>

70) 徐有渠, 《林圀十六志》倪圭志, 貨植八域場市 大邱府域內場條.

71) 《慶尙北道地志》, 3個屬縣 貢賦條.

72) 金鍾漢, 〈朝鮮時代의 大邱纖維手工業〉《大邱纖維發達史》, 纖維技術振興院, 1990, p. 66.

73) 金鍾漢, 앞의 책, p. 68.



그리하여 무엇보다 면포의 경우, 면작은 토양조건이 까다로와 그 재배가 일부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지라도, 대구지역이 의성지역등과 더불어 면작에 대체로 적합하여 조선 후기 전국시장을 향한 면화 및 면포 생산지가 되었을 정도였다.<sup>74)</sup>

이 시기 동안 대동법의 실시(경상도 1677년) 이후 전세를 米穀에서 田價로 대납케 되면서 화폐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환을 촉진시킨 것은 對淸貿易, 官匠의 붕괴, 軍布強徵制度, 市廛育成, 농업기술의 진전, 신분체제의 붕괴와 서구문물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국역부담(官·府의 수요물품 및 經費)을 맡았던 시전 기능이 약화되자 조정은 17세기 전반에 걸쳐 그 기능회복을 위한 육성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640년을 전후하여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六矣廛이 형성되었으며, 잇따라 貢人 및 祿負商의 발생 등 초기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638년에는 商廛이 官府에 공물을 歲幣라는 형식으로 俸納한 물품의 중심은 면포·면유·저포·마포였으며, 대부분의 물품을 육의전에서 부담하였던 것이다. 공인 역시 官府에 물품을 봉납하였던 것으로 1769년경 京工人의 봉납물량을 보면 年貢納된 綿布가 123,600필, 마포가 7,400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商廛과 貢人에 대하여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에 이권을 부여함으로써 17세기에 이미 상업자본 중심의 상품, 화폐경제사회의 성립기반이 다져졌던 것이다.<sup>75)</sup>

또한 對淸貿易을 통한 무역증진의 결과 상업자본 형성은 더욱 촉진되었고, 상업자본형성과 더불어 산업부분에서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에 더해 官府中心의 수공업체제인 官匠制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使役 형태의 私貢賃用制로의 전환이 1746년을 전후하여 일어났으며, 그 결과 상품생산 중심의 私營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1789년을 전후하여 外工匠마저 붕괴됨으로써 全產業이 상품생산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사영수공업자들은 상업자본을 배경으로 한 商廛人 및 貢人들과의 마찰 또는 협력의 관계를 가지면서 산업을 성장시켜 왔던 것이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섬유부문 관장 역시 尚衣院, 繕工監, 司膳寺의 예속에서 벗어나 自營의 길을 밝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면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농촌의 離農現狀 속출, 당쟁의 심화, 空白帖 발급 등 사회제도의 문란에 따른 兩班과 常民간 신분체제의 붕괴와 노비장적 소각(1655~1801년) 등이 잇따라 일어남으로서 상품경제사회의 형성이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농촌인구의 이

74) 李潤甲, 앞의 논문, p. 65.

75) 金鍾漢, 앞의 책, p. 68.

농현상을 촉진시키고 섬유제품이 유통상의 화폐의 기능을 가졌던 이면에는 국방상 군영유지와 축성에 필요한 재정보충을 기하고자 軍布強徵 등 納軍布의 弊端蔓延, 軍布令(세금을 木棉으로만 바치게 하는 제도 : 1734년 실시), 상평통보의 발행(1678년) 등으로 유통을 촉진시키는 화폐경제사회의 기반이 조성된데 연유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가 상품경제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섬유수공업은 대구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컸고, 성장 또한 빨랐던 것이다. 대중 산업의 위치를 굳히게 된 섬유수공업은 다시 사회안정기였던 영조연간(1725~1776년)에 이르러 전성기가 되었다. 영조는 섬유수공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禁奢令을 내려 의복사치를 방지하는 동시에 의복제도를 고쳐 白衣를 금하게 하고 靑色衣를 입게 하였으며 國婚에도 綿布만 사용케하고 紬緞을 금하였고 北京으로부터의 綾羅紛緞 등 고급 전직물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산제품인 染靑木綿을 대용케 하는 등 장기간을 통해 시행한 강력한 시책 수행이 섬유수공업 기반확충에 일조가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均役法을 제정(1751년)하여 군포를 년 1필로 감하고, 고급 국산 섬유제품은 생산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鄉織하도록 독려하는 등<sup>76)</sup>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폈다.

이상과 같은 조선후기 경제사회의 변화가 대구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17~18세기의 정치, 국방제도의 개혁 및 변화가 조선전기 때 보다도 대구를 경제도시로 변모시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工業面에서는 官匠制崩壞의 영향을 받아 대구지방에서는 1790년을 전후하여 外工匠들이 독립수공업자로 자영생산체제를 갖추고 시장상인들의 주문에 따른 주문생산을 하였던 것이다.<sup>77)</sup> 또한 당시의 대구지역에서는 경상도 外工匠과 私匠 임용 형태가 병행하여 유지되었다. 비록 대구수공업이 서울지역보다 2~30년이나 늦었다 할지라도 공장제수공업의 형태가 183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때까지 대구섬유수공업은 32개면에서 촌락단위로 家内工產品을 집하하여 부내장을 통한 유통경로를 취하였던 것이다.

결국, 17~18세기에 걸쳐 대구지역산업사회는 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농가부업적인 전통적 생산체제였고, 非纖維產業 부문은 私匠生産 체제가 복합된 가운데 100년간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정치도시형태에서 경제기능 중심의 도시로 전환되고 있었다.

76) 金鍾漢 앞의 책, P. 70.

77) 金鍾漢 위의 책, pp. 73~74.

### III. 場市 및 藥令市の 發展

지금까지 농업의 상업적 생산 및 수공업의 발달을 고찰하였다. 場市の 발달은 그같은 발달을 크게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역으로 농산물 및 수공업제품의 발달은 장시의 활성화 및 그 수적 증대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대구지역 장시의 발전에는 이처럼 생산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었다는 점, 교통 및 운수의 발달에 편승한 유통경제의 발달, 지역별 농작물 및 手工業 제품의 特化,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大同法의 실시, 대구가 進上物 集結地로 화한 것 그리고 도시지역 및 장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과 상업인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대구는 世宗 1年(1419)에 縣에서 郡으로 승격하였고, 47년 후인 세조 12년(1466)에는 다시 都護府로 승격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대구의 급격한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하여 대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이 평가되고 그 결과 선조 34년(1601)에 대구에는 경상도 觀察使營이 설치되었다. 慶尙監營은 태조원년(1392)에 상주에 설치된 이후 경상도를 좌우 양도로 分治하는 문제와 뒤엎혀 경주·성주·안동 등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구는 정치적·행정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음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상도 전체를 통괄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현종 10년(1669) 6월 慶尙監司가 대구부사를 다시 겸임하게 됨으로서, 이때부터 대구가 명실상부한 경상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기반을 굳히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구부 자체의 物産이 풍부하여 감영의 경비조달에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府外地方의 물산도 대구에 집결하는데 편리하여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sup>78)</sup> 따라서 대구부는 慶尙監營이 상주에서 대구로 移轉設置(1601년)된 이후 점차 지방의 정치·경제·군사·행정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대구는 그것을 둘러싼 인근지역의 풍부한 물산이 집결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점차 상업도시로 변천을 하게 되었다. 그 주요 상업형태는 常設店鋪와 정기시인 場市 그리고 일종의 계절별 상설점포인 藥令市를 들 수 있다.

먼저 상설점포를 살펴보면, 東上·西上面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구사회의 일각에는 定期市인 府內場 및 新場과는 별도로 상설점포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邑内の 동·서부의 백성들이 塵垆조로 내는 세금을 云謂하고 있는 것, 官衙에서 필요로 하는 刑棍은 木店을

78) 李秉然, 앞의 《대구시사》, 제4편, 제1장, 제1절, II 監營의 設置 참조.

경영하는 백성이 준비하도록 운위하고 있는 것<sup>79)</sup> 그리고 《賦役實摺》에 塵人 및 店稅<sup>80)</sup>가 보이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뒤에서 기술하는 당시 藥令市의 운영도 이를 시사하고 있다. 장시의 기원은 훨씬 이전이었겠지만 상설점포의 생성시기는 17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1705년도 東上面 帳籍과 1708년도 西上面 장적에서 京商人으로 직역이 기재된 6戶의 家戶가 나타나고 있는 데서, 또 상인의 대대적인 활동을 유발시킨 대동법이 1678년에 경상도에서 실시되었던 데서, 그리고 전국의 약재상을 집산시켰던 약령시가 경상도에서 실시되었다는 데서 미루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81)</sup>

장시에서도 그러했겠지만 특히 상설점포에서는 그 물종이 보다 다양하고 그 거래범위도 광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들 장시와 상설점포와의 상관관계나 그 추이에 관해서는 미루어 볼 수 있는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다만 日帝에 의해 함방되던 1910년 당시 대구상의회의소에 가입된 客主가 18명이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다.

상설점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까지도 대구사회에서 基幹商業을 이루었던 것은 각 지역 場市였다. 이것은 당시의 《大丘府邑誌》와 《林園十六志》가 모두 장시의 존재에 큰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대구의 장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2)</sup>

邑場(府內場)：西上面, 二·七日設.

新 場：西上面 南門外, 四·七日設.

辛亥年에 民願에 따라 東上面 東門外 新洞으로 移設.

花園場：花園縣內面, 三·八日設.

河濱場：河北面, 五·十日設.

解顔場：解西部面, 五·十日設.

百安場：解北村面, 三·八日設.

豐角場：角縣內面, 一·六日設.

\* 廢場：凡於場(守北面), 梧洞院場(下守南), 無怠場(東下面). 단, 廢場의 시기는 未詳.

조선왕조 후기부터 대구장시의 성가는 크게 높아졌다. 그것은 경상도 총거래액의 절반

79) 《大丘府邑誌》, 徭役條, “刑棍 木店民當納矣”, “邑內東西部民纏堡卜”.

80)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18.

81) 위와 같음.

82) 徐有巢, 《林園十六志》 倪圭志, 貨植八城場市 大邱府域內場條 참조.

이상이 대구장을 통해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장시가 번창한 것은 우선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구 와중에서 생필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수요의 증가를 틈타 식량·소금·직물·농기구·도자기·종이 등 각종 산물이 도처에서 생산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대장장이·사기장·종이장, 등 온갖 專門匠人이 등장하였다. 상공업은 임란 이전에는 末業으로 천시당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관인들의 묵인 내지 권장 사항으로 변질되었다.<sup>83)</sup> 사회경제적인 커다란 변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慶尙監營이 이곳에 정착함으로써 대구는 사회경제적 요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특히 종래 북문 밖에 자리잡고 있던 협소한 대구장(오늘날 西門市場)도 보다 넓은 공간을 찾아서 서문 밖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경상도 감영소재지, 대구부읍성 북문 밖에 대구장이 설치되었다. 대구장은 정치·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부성 북문에 자리잡고 있던 대구장은 북문으로부터 동중면－해서면－팔공산 준령을 넘어 의흥현과 신령현으로 통하는 대로 밖에 없었으므로 얼마후 서문 밖 서상면의 넓은 곳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그 위치는 오늘날의 동산파출소 언저리로 추측된다. 거기서는 성주·칠곡·현풍·고령방면으로 직통하는 통로가 띄어져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모여드는 장꾼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번잡해지자 남문 밖에 新場을 개설하였다. 거기서 시외로 통하는 교통이 불편하여 동문밖으로 옮겨갔다.<sup>84)</sup> 거기서는 경산현, 하양현과는 물론이고 청도군이나 신령현으로 통하는 직통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여러 장시의 번창을 가져온 대구지역의 특수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양란후 경상 左·右道가 통합되어 감영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落東江을 경계선으로 삼아 좌·우도가 분리되었을 때에는 우도의 財貨가 나루를 건너려면 좌도 나루에서 방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좌·우도 사람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일쑤였고,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다가 마침내 나루가 폐쇄되곤 하였다. 그러나 좌·우도가 통합되어 같은 관찰사의 휘하에 있게 되자, 양쪽 나루에는 사람과 재화가 빈번하게 오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한창 번창한 대구 주변의 나루는 達川津(성서 금호강), 沙門津(화원유원지), 茂溪津(고령서안), 東岸津(성주대교) 등 5개이다.<sup>85)</sup>

83) 尹一弘 外, 〈西門市場商權의 歷史的 變遷過程〉《西門市場活性化方案研究》, 嶺南大學校產業經濟研究所, 1986, pp. 89~91 참조.

84) 權丙卓, 《正統大邱藥令市》, 聖岩出版社, 1992, p. 141.

85) 尹一弘 外, 위의 논문, p. 94.

둘째, 아래의 <표 2-16><sup>86)</sup>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수의 나루들이 번창하여 대구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表 2-16> 落東江沿岸 主要나루(1711~1735년)

郡 縣	나 루 이 름	비 고
安 東	大項津	沙門津은 花園縣에 있었음
龍 宮	河豐津 (일명 三江)	
尚 州	回村津, 飛鸞津, 竹岩津, 洛東津	
善 山	余次尼津	
仁 同	漆津	
星 州	東岸津, 茂溪津	
龍 宮	三江津	
大 邱	沙門津, 達川津	
玄 風	畚谷津, 馬丁津	
草 溪	甘勿倉津	
昌 寧	牛山津, 蔚津, 馬首院津, 朴只谷津	岸上에 倭使商船을 위한 小館이 있었음
靈 山	買浦津, 零浦津, 松津(本邑捧)	
宜 寧	鼎岩津, 朴津, 우叱津	
密 陽	守山津, 龍津	
昌 寧	主勿淵津	
梁 山	東院津, 九法津	
金 海	江倉浦, 磊津, 佛岩津, 東院津, 大山津	
計	36 個 所	

당시 流通經濟의 발달은 水運의 편부와 직결되어 있었다. 말이나 소는 사람의 2~3배에 해당하는 짐을 나르지만 배는 약 1,000배의 짐을 운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강의 수심은 최소한 1.4미터 이상이 되어야 화물을 실은 돛단배가 다닐 수 있었다. 내륙 깊숙히까지 그 정도의 수심을 유지하는 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내륙 깊숙히까지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은 鴨綠江과 落東江이며, 삼남지방에서는 낙동강이 유일하다. 鮮初와는 달리 이제는 연안 나루의 번창과 함께 남해안에서 실려온 소금·미역·김·어물, 기타 온갖 해산물이 돛단배에 실려서 올라왔다. 대구 주변 나루에 기착한 배는 대량의 해산물을 하역하였다. 이들 해산물은 대구장에 등장하였다. 더 나아가 하구에서 각종 해산물과 倭物을 실은 帆船이 북상하여 대구의 沙門津을 거쳐 상주의 낙동진, 용궁의 삼강진, 안동의 대항진에 이르러 마지막 荷物을 떨어하였다.<sup>87)</sup> 특기할 일은 사문나루와

86) 《輿地圖書》各 郡縣 山川條.

87) 李潤甲, 앞의 논문 p.68 참조.

창녕군의 主勿湍나루이다. 전자는 대구장의 關門이었고, 후자는 倭使商船을 위한 작은 왜관이 있었다. 일본은 우리의 서적·도자기·쌀·무명·약재 등을 갈망하고 있었다. 주물연 나루에서는 그들이 가져온 구리·관목·소목 등과 교역하였는데, 교역이운은 10배에 달하였다.<sup>88)</sup> 이와 더불어 경상도 북부에서 생산되는 穀物·織物·藥材를 적재하여 남하하는 등 물량의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연안에 자리잡은 각 나루에서는 帆船寄港을 전후하여 생산자와 수요자가 모여들어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sup>89)</sup> 대구장에서 거래된 쌀·무명·숨·삼베·약초, 그 밖의 온갖 육지 산물이 나룻가에 쌓였다. 배는 대구주변의 나루에서 되돌아서지 않고, 더욱 북상하여 상주목 낙동나루, 용궁현 삼강나루, 안동부 대항나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다시 輿地 산물을 싣고 歸航하였던 것이다.<sup>90)</sup>

세째, 낙동강 유역과 오지에 있는 각 군현으로 통하는 육로교통이 활발해졌다. 구래의 교통 시설로는 驛과 院이 있었는데, 원래 그것은 나루와 함께 관인들의 교통·통신·숙박 등을 위한 장치였다. 18세기 중엽 경상도지방에는 11개의 본역에 察訪이 상주하면서 각각 관할 소역을 맡고 있었다. 본역은 일반적으로 변방에 위치하면서도 守令留營邑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대구부 읍성주변에는 4개의 驛과 8개의 院이 있었다. 4개의 역은 범어역(부동 9리)·금천역(부서 30리)·설화역(부서남 70리)·유산역(부남 70리)이었는데, 이들 역은 경상도 11개 驛道 가운데 省峴道에 소속되어 있었다. 8개의 院은 낙중원(부남 3리)·대로원(부서 6리)·사구원(부서 10리)·관방원(부서 20리)·마천원(하빈현남 4리)·남천원(하빈현서 1리)·박곡원(부서 26리)·오원원(부남 30리)이었다.<sup>91)</sup> 이러한 역들의 원래 목적은 의당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기 이래 監營이 대구에 정착하고 대동법이 실시된 것을 계기로 교환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역은 종래의 公營的 성격을 넘어서서, 일반백성과 物貨가 이동하는 본거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나루의 변질이 낙동강 유역을 따라서 남북으로 人的·物的 교류를 촉진시킨 데 비해, 驛과 院은 輿地와 平野, 지역과 지역 사이의 사람 및 물자유통을 촉진시키기에 족하였다. 왜냐하면 역과 그 주변에는 일반백성이나 상인 등 여행자를 위한 주막집 등 각종 시설이 잇달아 섰기 때문이다.<sup>92)</sup> 이러한 역과 원의 활성화에 힘입어 장시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88) 尹一弘 外, 앞의 논문, p. 94.

89) 權丙卓, 앞의 책, p. 135.

90) 尹一弘 外, 위의 논문, p. 94.

91) 《大丘府邑誌》驛院條.

92) 權丙卓, 위의 책 pp. 137~139.

이러한 낙동강과 역을 통한 運送의 활성화 이외에도, 교역을 촉진시킨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지역별로 각종 상품작물 및 수공업제품을 特化生産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상품작물들은 각각 재배에 적합한 자연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고 때로는 상반되므로 하여, 농민들은 각각 그 지역의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상품작물의 생산을 전문화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의성·예천·안동·상주·선산·개령·자인 등 주요 면직물 생산지에는 가내부업적인 생산자 이외에도 연간 40필에서 100여필까지 생산하는 전국적인 생산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의성 지방은 의성목생산으로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綿手工業 다음으로 크게 발전하였던 것은 청도의 운문산 치술령, 토함산 일대의 鐵手工業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鎔鉄業과 鎔鑛業을 중심으로 한 鐵手工業이 발전하였는데, 주요 생산품은 각종 농기구와 술 등 일용철제품이었다. 특히 술 생산의 경우는 영남일대의 술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대규모 술생산단지인 이른바 술계가 청도군 운문면 방음동 일대에 형성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舊韓末까지 총 220개의 도지를 형성했던 문경의 陶器業, 경주의 유기업·제지업 등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다.<sup>93)</sup> 煙草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초가 전래된 것은 17세기 초였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남여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이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수요가 확대되어, 대도시에서는 아침에 산같이 쌓아 놓아도 저녁이면 다 팔릴 정도였고, 심지어 賑穀을 받는 빈민들조차 이를 팔아 연초를 사기도 하였다. 연초생산의 중심지는 사질 양토가 많은 대구·의성·청송·신령·안동·예안·예천·상주·지례·금산·성주 등지와 경주지방으로 추정된다. 또한 藥材재배에서 상업적 농업이 행하여졌다는 것은 대구에 藥令市가 개설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林圀十六志》에는 藥材가 거래되었던 지역으로 대구와 성주 두 곳이 기록되어 있다. 약재 중에서도 인삼은 특히 수익성이 높았는데, 18세기 후반에는 家蓼生産이 개시된다. 주요 생산지는 문경·영주·풍기·봉화·상주·예천·안동·의성·영덕 등이었지만, 이 중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영주·풍기 지방 정도였다. 과일 중에는 감·대추 등이 많이 생산되었으며, 상주·함창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상주·함창 등지에서 생산된 과일 등은 대구나 경상도 주요 시장, 그리고 멀리서 경기·충청도 등지로 팔려나가고 있었다.<sup>94)</sup> 이처럼 지역별로 주요 상품들이 특화생산되었기 때문에, 지역들 상호간의 상품교류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그 요충지에 위치한 대구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93) 李潤甲, 앞의 논문, p. 65 참조.

94) 李潤甲, 위의 논문, pp. 78~79 참조.



지역별로 特化生産된 상품의 교류를 더욱 촉진시킨 것이 大同法의 실시이다. 대동법이란 종래 일반백성들이 정부에 바치던 현물인 貢物을 一括폐지하고 쌀 또는 布로 수납하게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일반백성들은 변질되기 쉬운 채소나 과일이라든지, 구하기 힘든 범가죽·웅담 등 일체의 現물을 수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토지면적에 따라 일정량의 쌀이나 천을 바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정부로 수납되던 現물이 시장으로 모여들어 거기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대동법은 1608년부터 1679년 사이에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 순으로 실시되었는데, 경상도에서는 他道보다 뒤진 속종 3년(1677)에 실시되었다. 米와 布를 바탕으로 하는 실물화폐경제는 당대의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재정 및 경제발전 등 두 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재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實田 1結의 稅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米 12말 또는 布 12필을 수납하는 固定稅制가 실시됨으로써 정부는 量入制出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반백성이 농·공·상업부문에서 富를 축적함에 있어서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는 세금감면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재정 지출에 따른 교환경제의 발달이다. 각종 공물과 요역에 대하여 실전 1결을 표준으로 쌀 12말로 고정시킨 대동법은 防納의 폐단을 一掃함으로써 그 부담을 10분의 1로 감소시켰고, 대동세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인들의 활동은 공물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였다.<sup>95)</sup>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일련의 변질에 힘입어 경상도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시장효과는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즉, 공물로서 수납되던 골짜 골짜의 現물들이 장시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의 요충지에는 작은 장시가 雨後竹筍처럼 생겨났다. 조선전기에 66개에 불과하던 장시가, 〈表 2-17〉<sup>96)</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세기에는 무려 270여개로 늘어났다. 조선전기에 것처럼 시장을 억제하던 官邊側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세를 거두면서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sup>97)</sup>

95) 權丙卓, 앞의 책, p. 125.

96) 李宰夏·洪淳完, 《한국의 場市》, 민음사, 1992, p. 73 참조.

韓相權, 〈18世紀末~19世紀初 市場發達에 대한 基礎研究〉《韓國史論》7, 1981, p. 196.

97) 尹一洪 外, 앞의 논문, p. 96.

〈表 2-17〉

道別 場市數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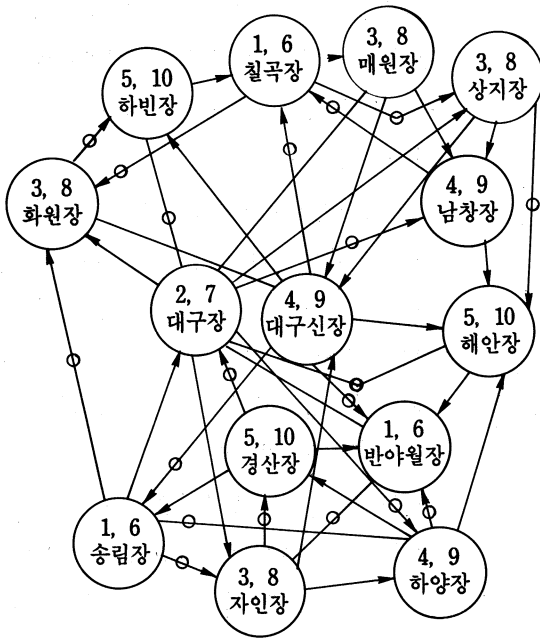
道 名	東國文獻備考 (1770년)	萬機要覽 (1808년)	林圀十六志 (1830년대)	慶尙道邑誌 (1832년)	嶺誌要選 (1876년)
平 安 道	134	134	145		
咸 鏡 道	28	28	42		
黃 海 道	82	82	109		
江 原 道	68	68	51		
京 畿 道	101	102	93		
忠 清 道	157	157	158		
全 羅 道	216	214	188		
慶 尙 道	278	276	268	272	237
計	1064	1061	1052		

이에 더해 지역 手工業의 工場制手工業으로의 전환과 지역간 공산품 및 특산물이 集散地化됨으로써 대구는 경제도시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되었다. 특히 1831년 이후 서울 왕실로 보내지는 경상도의 모든 進上物들이 대구감영의 점검 및 검사를 거쳐 진상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경상도 각 府·牧·縣의 指定 進上品目인 특산물이 대구로 집결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진상품을 대구부 場내에서 구입조달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대구는 자연히 산물의 집산지 기능과 工匠에 의한 공산물공급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숙박·운수·창고업 부문에까지 성장을 촉진케 된 것이다.<sup>98)</sup>

위의 제 요인들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들수 있는 것은, 앞의 〈社會構成的變動〉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대구부에서 인구가 도시지역 및 각 장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더우기 인구변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 볼 때, 도시지역에서 중인층 가운데 閑良·軍官·業武가 수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들의 상당수가 상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들 중인층의 상당수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避役과 身分上昇을 꾀한 자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도시지역에서 대체로 상공업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자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부의 이같은 인구변동은 소비자로서의 비농업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나아가 상인층의 증가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의 인구이동 및 변동 내역은 장시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제 계기에 의해 유통경제에 참여가 불가피해지고 확대되면서 大丘府에는 34面내에서

98) 金鍾漢, 앞의 책, p. 83.



보 기 ○ 내의 숫자는 개시일  
→ 는 상인과 상품의 이동  
- ○ → 는 격일(1박후) 이동

〈圖 2-1〉 향사·대구권의 상인·상품순환도

대구신장에는 단지 府民用品만을 거래한 것이 아니고, 도매업을 결들이면서, 지방 鄉市와 더불어 커다란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위의 〈圖 2-1〉<sup>99)</sup>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매 2일과 7일에 열리는 대구장과 매 4일과 9일에 열리는 신장을 중심으로 하여 화살표를 따라 商人과 物品 그리고 일반백성이 이동하고 있다. 순환도에서 알 수 있듯이 2일과 7일에 대구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매 3일과 8일에는 회원장·매원장·상지장·자인장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4일과 9일에 신장에 나갔던 상인은 5일과 10일에 하빈장·해안장·경산장을 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매 1일과 6일에 송림장·반야월장·칠곡장을 갈 수가 있을 정도로 모두 일일 徒步圈으로 되어 있었다.

府內場·新場·解顔場·百安場·凡於場·梧洞院場·無怠場·花園場·河濱場·豐角場 등 10개 장시가 시장의 유통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들 시장의 商圈域은 인구 4~8천 규모가 일일생활권으로 하는 범위내에서의 농촌형 5일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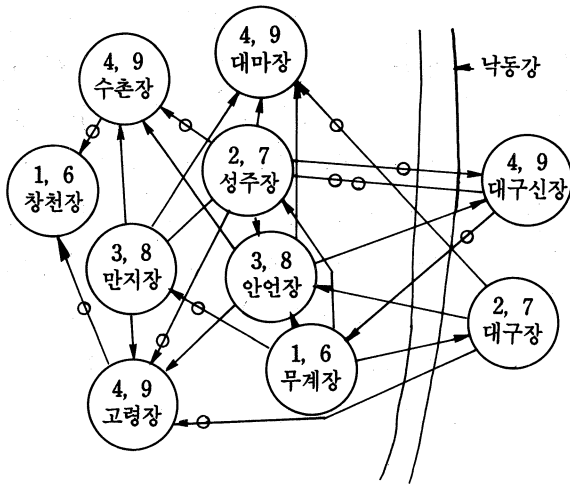
당시 부내장에 거래되었던 상품으로는 공산품인 織物類(綿布·紫紬·苧苧·白苧·麻布·絲帶 등), 紙地·扇子·簞席·鍮器·鐵物·土器 등과 農畜產物類인 棉花·饒米穀·魚鹽·棗栗·煙草·鷄豚·牛犢<sup>99)</sup> 등이었다.

이처럼 발전하기에 알맞은 대구장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였다. 18세기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따르면, 大丘府 내에는 서문시장과 대구신장(달성군청 : 오늘날의 대구백화점)이 있었다.

전자는 매 2일과 7일에, 후자는 매 4일과 7일에 개설되었다. 서문시장과

99) 徐有渠, 《林園十六志》倪圭志, 貨植八域場市 大邱府域內場條 참조.

100) 權丙卓, 〈大邱藥令市研究(Ⅳ)〉《社會科學研究》5, 嶺南大, 1985, p. 116.



보 기 ○ 안의 숫자는 개시일  
→ 는 상인과 상품의 이동  
- ○ → 는 도중 1박  
- ○ ○ → 는 2박을 표시함.

〈圖 2-2〉 향시·대구-성주권 상인·상품순환도

鄉市大丘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접한 고을과도 연계된다. 이를테면, 대구-성주권, 대구-영천권, 대구-현풍권, 대구-청도권이 그것이다. 그 보기를 대구-성주권에서 찾아본다면, 위의 〈圖 2-2〉<sup>101)</sup>에서와 같다. 이 순환도에 따르면, 매 2일과 7일에 열리는 성주장 상인들은 매 3일과 8일에 열리는 안언장과 만지장에 가고 매 4일과 9일에는 수춘장·대마장에 가거나 대구신장으로 간다. 한편 매 2일과 7일에 열리는 성주장을 포기한 상인은 대구장에 갔다가 매 3일과 8일에는 안언장과 만지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1박하고 4일과 9일의 고령장, 대마장 또는 수춘장 나들이를 하면서 시장권을 형성한 것이다. 보다 원거리에 있는 상주·안동·경주 鄉市圈은 裸負商들에 의해 대구상권을 더욱 번창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圈

外商品을 공급한 이는 물론 裸負商人이지만, 그 수요자와 圈域商品 공급자는 일반백성이었다.

상업 및 수공업 발전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는 도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159개 장시는 몇 개의 局地的 市場圈을 형성하면서도 여타 지역의 장시와도 연결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멀리 봉산 은파장, 광주 송파장, 개성, 서울, 동해 쪽으로는 원산을 거쳐 함경도 깊숙히까지 유통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경상도를 넘어서는 소비시장 확대도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농업의 발전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다.<sup>102)</sup>

이와 같은 대구 鄉市圈의 발전에는 한편 대구 藥令市의 역할도 컸다. 약령시는 효종 9년(1658)에 慶尙監營안 客舍 주변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그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번창하였다. 당시 대구 약령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약재시장으로서, 약재가 한창 생산되던 봄과

101) 權丙卓, 앞의 논문, p. 117.

102) 金錫亨 外, 〈朝鮮에 있어서 資本主義的 關係의 發生〉《朝鮮學術通報》, 1972 참조.

가을에 열렸다. 약령시에는 대구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약재 생산자와 수요자들이 모였으며, 약재는 국산 뿐만 아니고 중국산 唐材도 대량으로 등장하였다. 봄에 열리는 것은 춘령시, 가을에 열리는 것은 추령시였다. 令은 계절을 뜻하는 것으로서 營市가 곧 令市로 바뀐 것이다.<sup>103)</sup> 약령시는 봄·가을로 대량의 물자와 사람들을 대구지방으로 불러들여 대구장을 더욱 번창하게 하였고, 관련산업들의 번창을 초래였다.

그러면 각 鄕市圈에서는 어떤 약재가 생산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경상도의 심장부인 大邱府城안에 자리잡은 令市를 중심으로 집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적인 귀결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약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供給 측면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약재<sup>104)</sup>와 가장 많은 수의 약재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심지에 위치한 대구에 藥令市가 생기게 된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落東江을 중심으로 한 교통과 운수의 편리함에 힘입어 鄕市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구지역은 약령시가 발생하기에 유리한 교통 및 운수조건을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이에 비해 수요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점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 견해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그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需要 創出要因이었는가를 밝히는데 치중하기로 한다.

먼저 대구 藥令市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조공 및 왕실진상을 위한 국가에 의한 命令說, 일본의 朝鮮韓藥材 수요에 의한 발생설, 대동법에 의한 발생설, 大市(messe)설, 지리적 특성에 의한 자연발생설 등 다섯 가지<sup>105)</sup>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이중에서 命令說과 大市說은 오늘날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명령설은 일본인들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조선왕조가 중국에 바칠 朝貢用藥材와 王室用藥材를 수집하기 위하여 孝宗 9년(1658년)에 국왕의 命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藥令市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丙子胡亂 이후 중국이 우리 나라에 약재조공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다.

103) 尹一弘 外, 앞의 책, p. 96.

104) 權丙卓, 〈大邱藥令市가 勃興, 繁昌한 背景〉《大邱藥令市論》영남대출판부, 1986, p. 222. 당시 세종 연간에 각도에서 생산, 진상된 약재는 총 317종에 이르며, 그중 경상도가 56.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5) 金昌東 外, 《大邱藥令市》, 大邱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 1984, pp. 54~56 참조.

그러나 중국에 약재를 조공으로 바쳤다는 어떠한 기록도 발견할 수 없다.<sup>106)</sup> 오히려 중국산 약재를 唐材라는 이름으로 수입하였을 뿐이다<sup>107)</sup>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朝貢用 創市命令說은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令市 창설기로 알려진 효종연간에 2년 동안(1657년 6월~1659년 5월) 왕실의 실제 需要藥材를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전량을 조사한 바, 왕실 5인 가족이 연평균 214근을 복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상도에서 진상한 약재 1337.7근의 18.5%에 불과하였다.<sup>108)</sup> 따라서 극히 일부분의 王室藥材需要를 충당하기 위해 창시를 명령했다는 설은 설득력이 없다. 이어서 大市說을 살펴보면, 이는 일본인 黑正巖이 주장한 것이다. 대시란 도시경제적 상업도시에서 국민경제적 상업도시로의 과도적 형태로서의 도시를 말한다. 그렇지만 최윤성기의 중세 서양도시와 대구부가 판이하게 다른 경제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大市說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sup>109)</sup> 따라서 나머지 3가지 견해를 토대로 약재의 수요라는 측면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朝鮮韓藥材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본은 일찍부터 조선약재를 갈망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한 때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光海君 元年(1609)에 乙酉條約이 체결된 이래로 그들은 대량의 약재를 조선정부에 求請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對馬島主를 통하여 우리 약재를 구청하였던 것인데,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량의 극히 일부만을 수출하는데 그쳤을 정도로 일본측의 수요는 엄청났던 것이다.

첫째, 인조 18년(1640년) 4월 통신사 洪喜勇이 “德天家康이 요구하기를 조선산 약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계속 입송하라고 간청하다. 그는 일본 곳곳에다 약국을 개설하고 活民之道를 펴고 있다”<sup>110)</sup>라고 보고하였다. 둘째, 일본은 對馬島主를 통하여 1640년 9월 白朮·蒼朮·白芍藥 등 26종, 22,900斤을 求請하였다. 그러나 그 요구량의 1.8%에 불과한 418斤만을 수출하였을 뿐이었다.<sup>111)</sup>

그 이후로도 일본측의 朝鮮藥材需要는 급증하였다. 위의 실례는 求請貿易으로서 양국간의 公貿易에 속하였지만, 대일무역량에 있어서 공무역보다 私貿易이, 사무역보다 密貿易이 훨씬

106) 權丙卓, 〈藥令市研究 I : 경제사 분과주제〉《제28회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文》, 1985, p. 182 對清朝貢物種表를 참조.

107) 權丙卓, 〈藥令市研究 II〉《嶺南大 民族文化》6, 1985, p. 171.

108) 金漢圭 外, 《大邱藥令市活性化 方案研究》, 영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5, p. 17 참조.

109) 金昌東 外, 《大邱藥令市》, 大邱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 1984, pp. 60~62 참조.

110) 東萊府, 《接倭狀啓謄錄》, 仁祖 18년 4월 15일.

111) 金漢圭 外, 위의 책, p. 23.

성행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무역 및 밀무역은 막대하였을 것이다. 수출형태야 어찌되었든 이러한 조선한약재의 국제수요는 약재의 생산·수합을 크게 자극하여 약재값을 상승시키고 그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더해 대동법의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역대의 防納之幣를 지양하고 財政調達을 원활히 하고자 대동법을 실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교환경제를 발달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藥令市도 개설되기에 이르렀다.<sup>112)</sup> 사실 대동법의 실시로 종래의 收納用公物은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편에서는 정부 需要物資를 조달하는 공인들에게 더욱 우수한 상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 일반 民需用 각종 상품이 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sup>113)</sup> 물론 각종 약재도 시장에 몰려들면서 약령시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상도의 모든 진상물이 대구에 있는 감영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서 상납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막대한 진상물은 일단 대구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진상은 원래 특산물을 국왕에게 선보이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나, 15세기 말엽부터 이들 진상과 공물은 날로 그 종류와 수량을 더하여 갔고, 그러는 가운데 민간의 부담으로 바뀌면서 그 종류와 수량이 규정화되어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물품의 집산이 대구사회에 있어서 물자의 거래와 이에 따른 창고업·숙박업 및 운수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sup>114)</sup> 앞에서 대구의 각종 장시가 발생한 요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동강 수운과 각 驛 및 院을 이용하는 교역이 활성화되는 가운데서 대구가 그 요충지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특성도 약령시의 형성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sup>115)</sup>

이같은 각종 藥材需要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약재상인을 살펴보면, 그 하나는 왕실 등 중앙에 약재를 공급하는 특권적인 貢人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민수용 약재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仲介商이다. 이들 중개상은 평소 각지를 돌면서 약재를 수집하다가 봄·가을

112) 李仁榮, 〈大邱藥令市起源〉《史學會報》13, 1937, p. 14.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 것은 일본인 三木榮으로 그는 명령실의 타당성을 전제로 하면서 藥材는 다른 朝貢物과는 달리 採取, 保存 이외에도 眞僞與否의 식별에도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募集, 貢納, 去來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물론 관의 편리에 의한 편익정책이기는 하나 大同法 실시가 약재의 수요를 대거 창출하여 약령시의 개설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13) 權丙卓, 〈藥令市研究(V)〉《社會科學研究》5, 嶺南大, 1985, p. 7.

114)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약령시가 민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 발생하였다는 견해를 주장한 자는 嶺南大 權丙卓 教授이다.

115) 金昌東 外, 앞의 책, p. 57 참조.

약령시 개설시기를 맞아 令市가 열리면 약재를 운반하기도 하고 중개를 하여 거래이윤을 취하였던 것이다.<sup>116)</sup> 이 약령시는 먼저 감영에 의한 약재의 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이 약령시의 성장과 전국적인 시장권의 형성은 곧 객주·여각과 같은 숙박·창고·중개·금융업을 아울러 하는 상인층을 낳았고, 그리하여 약재는 점차 이들 상인에 의하여 주로 거래되는 양상을 가져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약전 골목은 이러한 추이 속에서 점차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령시가 형성·성장하여 약재 이외의 각종 특산물과 고귀품의 거래도 수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감영이 약령시를 통하여 구입한 약재의 일부는 進上物로서 서울에 상납되고 또 일부는 동래부로 下送되어 일본인에게까지 교역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인이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화원현내에까지 이르러서 직접 교역·수령하기도 하였다.<sup>117)</sup> 이때에는 대구와 대구에 모였던 상인들이 화원으로 치달아 일인과의 사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 요인으로 인해 약재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약재의 생산 내지 공급은 누가 담당하였으며, 어떠한 약재가 생산되었는가는 문제가 제기된다.

생산자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구시대의 採藥夫와 혈연적 지연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겠지만, 일반백성들 중 일부도 가담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국내 및 일본의 약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약재값이 등귀하여 약재생산자에게 커다란 이윤을 남겨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18세기 이래 이양법이 보급됨에 따라, 특히 영남지방에서는 벼·보리 二毛作이 실시됨에 따라 경작지규모를 확대하는 이른바 廣作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농민층분해 현상이 현저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sup>118)</sup> 종래의 採藥夫와 더불어 몰락농민 중 일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채약을 전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각 읍지를 기초 자료로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의 <表 2-18><sup>119)</sup>을 통해 지역별로 생산된 약재의 종류와 평소 어떠한 유통경로를 취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116) 權丙卓, 앞의 책, 1992, p. 148.

117)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21.

118) 權丙卓, 앞의 책, 1993, p. 148.

119) 權丙卓, 위의 책, p. 144.



〈表 2-18〉

鄉市·大邱圈, 大邱·星州圈

○：開市日, 單位：開市場數

商權	郡縣	場市名	開 時 日						논밭(結)	當該地域 生産藥材名(種)
			1·6	2·7	3·8	4·9	5·10	計		
大邱圈	大邱	府內新河濱花園解顔百安		○		○			4,428 4,248	白朮, 白芍藥, 甘菊, 赤茯苓, 柴胡, 人蔘, 蒲黃, 栝子仁, 枸杞子, 蓮子, 續髓子, 連翹, 苡蓼仁, 木果, 茅香(15)
		漆梅園南倉上枝	○			○			1,396 840	白朮, 桔梗, 白芍藥, 鱉甲, 紫草茸, 黃芩, 人蔘, 白茯苓, 赤茯苓, 茯神, 川芎, 枸杞子, 木果, 柴胡, 連翹, 苡蓼仁(16)
	慶山	邑內礪野	○				○		1,063 1,203	人蔘, 白朮, 枸杞子, 柴胡, 白芍藥, 甘菊, 苡蓼仁, 連翹, 赤茯苓, 蓮子(10)
		慈仁松林	○		○				1,074 960	人蔘, 山藥, 白芍藥, 蒲黃, 天南星, 赤茯苓(6)
	河陽	邑內				○			571 772	白朮, 白芍藥, 白茯苓, 人蔘, 甘菊, 柴胡, 山藥(7)
		계	3	1	4	4	3	15		(54)
	大邱—星州圈	邑內大馬樹村安彦茂溪泉倉蔓旨		○		○			4,617 3,484 1,184 822	人蔘, 紫草茸, 松茸, 漆, 蜂蜜, 安息香(6)
		高靈				○				赤芍藥, 白芍藥, 茯神, 蟬退, 山藥, 木果, 白茯苓, 枸杞子, 甘菊, 苡蓼仁, 人蔘, 連翹(12)
		계	2	1	2	3		8		(18)

資料：《輿地圖書》，慶尚道 각 州, 郡, 縣 場市, 土地 및 物産供物條.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人蔘·白朮·芍藥·茯苓 등 고귀한 약재가 대구권에서는 54種, 성주권에서는 18種이나 생산되었다. 이러한 약재도 종래처럼 경상감사의 책임 아래 三醫司에 進獻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에서는 大同米·布를 수납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지정된 공인들이 價米를 지불하고 調達上納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약재도 전술한 바와 같이 장시의 활성화에 힘입어 자연히 수요자를 찾아 장시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특히 大邱圈·大邱星州圈의 15개 장시의 유통경로를 따라 약재의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점은 약령시의 활성화에 당연히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감영이 약령시를 통하여 구입한 약재의 일부는 進上物로서 서울에 상납되고 또 일부는 동래부로 하송되어 일본인에게까지 교역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인이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화원현내에까지 이르러서 직접 교역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대구와 대구에 모였던 상인들이 화원으로 치달아 일인과의 사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sup>120)</sup> 이리하여 약령시는 18~19세기에 그 자체가 대규모의 시장조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상설점포의 형성과 對外交易의 수행을 증진시켜 약령시가 곧 대구를 상징할 정도로 대구사회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 IV. 財政과 府民의 負擔<sup>121)</sup>

##### 1. 官衙의 經費와 收入

조선왕조에서는 각 地方官衙의 경비를 해당 관아에 지급된 각종의 土地<sup>122)</sup>와 그 관할구역 안의 민간으로부터 징수하는 雇捧 및 요役<sup>123)</sup>으로써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것은 田稅와 進上·貢物 및 국역으로서 중앙의 재정을 충당하였던 財政構造의 바로 축소판과 같은 제도였다. 따라서 중앙에서 爲政者들이 거의 그들의 의사에 따라 收取의 加減을 조절하였듯이 지방에서도 담당 守令에 따라 官內 민간에 대한 수취의 가감이 결정되었다. 더욱이 대구부의

120) 韓榮國, 앞의 《대구시사》, p. 421 참조.

121) 본 項인 ‘財政과 府民의 負擔’에 대한 논술은 韓榮國이 앞의 《大邱市史》에서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를 인용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씩 가필하였음을 밝혀 둔다.

122) 大丘府의 경우는 官屯田 16結, 衙祿田 90結(본래는 50결이었는데 判官의 설치로 40결이 가급되었음), 公須田 25결(본래는 15결인데 大路에 위치한 지역이라 하여 10결이 가급되었음)로 모두 131結을 지급받았다. 이 토지는 白米 약 2,000석의 생산이 가능한 면적이다(《經國大典》戶曹 諸田條).

123) 《經國大典》戶典, 徭賦條.

경우는 監營과 鎭營을 지니고 있었다. 감영과 진영에는 애당초 토지의 지급조차 없었다. 감영과 진영은 관내 수령들과 주재지역의 민간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適宜 課收하여 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감영이 대구에 설치되면서 대구부의 府域이 크게 확장되어진 것도 이 까닭에서 였다.

이와 같은 지방장관의 恣意的인 收取에 기초한 지방재정제도는 대구부의 경우 숙종 3년(1677)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 1608년에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이 1677년에야 경상도에도 실시되었다. 대동법의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예산제도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며, 지방재정에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대동법 이전에는 州·府·縣에 토지(官屯田·衙祿田·公須田)를 지급하여 그 수입으로 수령의 봉급, 兵器의 조달, 使客支持 및 기타 공공경비에 쓰게 하였다. 대동법을 시행할 때 종래에 州·府·縣에서 자의적으로 수세하던 각종의 課外雜稅를 폐지하고, 부족한 경비를 費目別로 계산·취합한 장기예산을 편성하고, 한편 수입면에서는 토지수입을 비롯한 세법에 따른 정규수입을 計上한 다음, 부족한 경비는 費目別로 留置米에 계급하여 총세입·세출의 균형을 확보하고 또한 留置米에 예비비(餘米)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 대구부의 장기예산이 각도 大同事目에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대동사목에 책정된 장기예산을 토대로하여 ‘磨准收組’라는 년도별 예산을 편성하여 留置米에 계급하였다.<sup>124)</sup> 이상과 같은 上納米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 貢案이라 불리우는 官需品(貢物) 需給예산과 留置米의 지급에 수반하여 편성하는 대구부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대동법에 의한 이같은 예산제도는 결국 지방재정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동법은 중앙은 물론 지방의 財政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통제하도록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 地方財政을 규제한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25)</sup>

- 가. 모든 進上·貢物과 이에 따르는 각종 役價를 제외한 대동미는 각 도에 留置하여 도내의 모든 官衙 경비로 사용한다.
- 나. 각 府·牧·郡·縣에는 그 소유 전결수의 다소와 교통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定額의 官需米 및 油淸紙 地價와 使客支供米를 지급하고 監營을 비롯한 각 영에도 정액의 官需·油淸紙地·使客支供米를 지급한다. 따라서 각 官衙에 지급되었던 각종의 토지는 官屯田을 제외하고는 모두 革罷하되 衙祿·公須位田에서의 田稅·三手米는 해당 관아에 지급한다.

124)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Ⅲ, 一潮閣, 1988, p. 367.

125) 《嶺南大同事目》에 의거함.

다. 이들 官需·油淸紙地·使客支供米는 각기 월별로 나누어 그 한도내에서 쓴다. 관아의 경비를 위한 課外的 對民收取는 일체 불허한다.

라. 각 지방관내에서 소요되는 모든 徭役——軍備나 刷馬를 막론한 일체의 役——은 留置米에서 적의 산정·구분하여 그 범위안에서 수행하되, 민간을 동원할 경우에는 그 役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1678년부터는 경상도내의 각 官衙가 정액의 예산하에 경비를 지출하는 체제를 지니게 되었으며, 대구부와 府内の 각 관아의 지출경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26)</sup>

大丘都護府 本官

需米：390석, 使客支供米：95석, 衙祿位米：20석, 公須位米：9석 3두.

慶尙道 監營

需米：700석, 藥材·紙地·駕驕毛物價米：600석.

大丘鎮營 營將

需米：84석, 稚鷄·價米：12석.

그러나 이러한 재정의 통제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오랜 惰性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中央에서의 경비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초 83,000석 정도를 이루었던 留置米가 68,000석 정도로 한정되는 규정이 첨가된 이후 매년 중앙의 지시에 따라 上納量(上納米)이 결정되는 규정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sup>127)</sup> 그리하여 각 地方官衙의 경비는 점차 축소되어 갔고 그 결과 다시금 민간에서 收取·補用하는 양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大同法이 실시된지 불과 1세기만인 1794년에 편찬된 《賦役實摠》에서 대구의 각 관아의 수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일단을 말해주고 있다. 즉 각 邑(府·牧·郡·縣)에의 分定·改用이 再開되고 있고 민간으로부터의 약간의 收取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大丘都護府 本官

需米 390石

使客支供米 95石

都事需米 50石

魚果雜種價 錢 1,000兩(人吏廳例納)

硫黃軍錢 50兩

守堞軍官錢 760兩(以上 軍器修補)

126) 《嶺南廳事例》外方會減條 및 《大丘府邑誌》俸廩條.

127) 《嶺南廳事例》外方會減條 및 《嶺南大同事目》

衙祿位米 24石 12斗

粘米 25石(有本錢取殖需用)

屯稅 租 68石 13斗

牟 9石 4斗 5升

官基稅 錢 13兩 5錢 3分

火稅 錢 13兩 1錢

巫稅 錢 10兩 5錢

紅花 2斗

場稅 錢 288兩

傳關米 167石 12斗 1升(每式年民戶收捧)

燒木 每夫 6円式春秋分捧

藁草 每夫 100斤式秋等收捧

雉鷄 代錢 293兩 7錢 6分

炭代 錢 27兩 6錢

紙本 錢 4,305兩

水丁 錢 1,300兩(以上 存本取殖需用)

馬草 2,084円(有本錢取殖需用)

藁草 代租 185石 12斗 6升 2合 6勺

烟後 價租 137石 9斗

牟 90石 6斗(以上 烟役除減面 例納)

監營

需米 1,000石(50石都事料米移送 大邱

府 950石各邑輸納)

豹皮價米 20石

衙祿位米 21石

軍需軍米 66石 10斗

隨率軍米 8石 3斗

各庫還耗 米 1,512石 9升 4合

太360石 9斗 8升

租982石 9斗

屯租 作米 30石 10斗 6升 5合

租 119石 3升 7合 5勺

常烟竹 20箇

柳器 48部

節子 12部

正鐵 60斤

馬鐵 60部(以上 各該匠手例納)

松板 24立

南草 90斤

黃蜜 42斤(以上 各塵人稅納)

芝草 2斗

甕稅錢 4兩

大小鼎 6坐

各色沙器 30竹(以上 各店稅納)

草席 204立(各堤堰稅納)

籠 48部

箱子 24部

麻鞋 6竹

草鞋 18竹

條所 360沙里

細繩 480沙里

五味子 10斗(以上 各寺例納)

防債給代 錢26,986兩 5錢 9分

蕩債代加分耗 作錢 10,306兩

年分紙價 錢2,273兩 3錢 5分

募軍錢 666兩

柴炭錢 400兩

物膳軍錢 1,494兩

屯租代錢 2,286兩 2錢 4分

各色軍保 木215同 9疋(以上各樣支放及排朔需用)

各邑分定

粘米 24石

眞荏 90石

木米 6石

菉豆 18石 12斗 5升

皮薏苡 4石

小豆 33石

清 14石

乾柿子 650貼

生栗 5石

皮栗 6石

黃栗 13石

皮柏子 15石

胡桃 6石

大棗 7石

柚子 800箇

生梨 30貼

銀口魚 150級

藥古 53斤 3兩

石茸 60斤

黃蜜 600斤

正鐵 900斤

全茶 2斗

鹿皮 8令

獐皮 40令

馬皮 20令

草席 900立

條所 700巨里

白紋席 150立

花紋席 90立

箋文紙 12張

眞墨 180同

松墨 105同

水荏 60石

眞麥 20石

大貼 5竹

甫兒 4竹

貼匙 10竹

宗子 2竹

節扇竹 2萬柄

各色紙 565束 4張

每茶 5斗 7升 8合

豆錫 53斤 12兩

丹木 50斤

黑角 2桶

礪石 30塊

生麻 81斤(以上 別會穀換買春秋捧用)

油杉紙 13束

笠帽紙 22束 10張

男梳貼紙 6束 10級

女梳貼紙 6束 10張

油芭紙 14束

先文紙 1束(以上 給價浮取於營下都大同)

年分紙 1,673束 7張 各邑捧用

啓本紙 50束

大厚紙 1,500束

皮紙 400束(以上 春秋分定各邑 給價捧用)

木果 100塊

松烟 30斤 10兩

挾板 870部

印朱 10斗

鯨鬚 56片

鳥竹 220箇

箭竹 229浮

頭匣竹 229箇(以上 所產各邑例納)

籠 57部  
 箱子 122部  
 細繩 335同  
 楸板 7立  
 假板 10立  
 漆盤 30立  
 平盤 4立  
 白沙鉢 3竹  
 梅實 13兩  
 生木果 130箇  
 蓮子 5斤  
 黃梔 14斤  
 五味子 5斗  
 大棗 1斗 5升  
 瓜子 5斤  
 柚子 60箇  
 半夏 6斤  
 白茯苓 8斤 4兩  
 前胡 3斤 10兩  
 赤茯苓 3斤  
 白芍藥 5斤 11兩  
 茯神 1斤 5兩  
 柴胡 9斤  
 山藥 8斤  
 羌活 4斤  
 獨活 1斤 2兩  
 石榴根皮  
 大黃 2斤  
 香薷 5斤  
 牡丹皮 5斤 8兩  
 澤瀉 4斤 8兩  
 枳實 4斤  
 山查肉 3斤 10兩

麥門冬 9斤 8兩  
 白朮 14斤  
 天門冬 6斤 11兩  
 黃芩 8斤  
 當歸 14斤 2兩  
 藁本 1斤  
 厚朴 10斤  
 芫藸根 1斤 6兩  
 木賊 1斤  
 乾葛 4斤  
 何首烏 5斤  
 草龍膳 1斤 8兩  
 白扁豆 1斤 12兩  
 桑白皮 2斤  
 益母草 6級  
 漏蘆 1斤  
 地骨皮 2斤  
 五加皮 11兩  
 木通 1斤  
 細辛 2斤  
 兔絲子 7斤  
 蛇床子 10兩  
 藍蒨 11斤  
 荊芥 1斤  
 桃仁 4斤 10兩  
 沙蔘 1斤  
 虎杖根 1斤  
 白芷 1斤 7兩  
 鹿角 8箇  
 山茱萸 7斤  
 防風 6斤  
 川椒 1斗  
 升麻 3斤

蘇葉 4斤	鄉黃連 2斤
郁李仁 4兩	天麻 2斤
牛膝 3斤 4兩	竹茹 1斤
杏仁 10兩	烏梅 5斤
松脂 1斤 7兩	蟬退 10兩
苦蕒 4斤	蔓荊子 2斤
天南星 1斤 10兩	榧子 1斗
車前子 1斤	紫草茸 7兩
枸杞子 4斤 4兩	山茱萸 6斗
甘菊 1斤 10兩	龜板 34箇
麻黃 4斤 5兩	芡仁 1斤
倉朮 10斤	燈心 7兩
黃栢 3斤	鱉甲 10箇
皂角刺 2兩 (以上 春秋分定各邑例納)	

中軍營

料米 48石(自營門上下)	隨率軍錢 129兩(以上 12朔饋價 添補防債
還耗米 2石 4斗 4升 6合 5勺	給代 錢 900兩)
租 20石 11斗 5升 9合(以上各樣公用)	募軍錢 200兩(以上軍校朔射施賞及12排朔)
標下軍錢 50兩	

이와 같은 分定과 收取의 再開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官紀가 문란해지면서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32년에 편찬된 《大丘府邑誌》 徭役條 에 雉鷄, 營·府所用炭, 營·府·鎭營所用柴, 氷丁, 青草, 藁草, 式年戶籍費, 倭料太, 京·營主人役價租, 刑棍, 京内各站官隸支供 등등의 민간부담이 역대 관찰사 및 판관의 捐金에 의해 存本殖利의 형태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뜻하기도 한다.

한편 각 지방관아에서는 앞서 《賦役實摺》의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조세에서 移付되는 수입이 있었고, 또 환곡의 운영을 통한 스스로의 수입과 그 代行을 통한 手數料의 수입이 있었다. 조세로부터 移付되었던 것은 火田·蘆田의 新起墾地稅와 市場稅·工匠稅·軍官除番錢 등과 數種의 吏·軍保들의 役價布들이었고, 환곡사무의 업무는 戶曹·均役廳·常賑廳·宣惠廳·軍資倉의 分留米 등이었다.



대구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입들이 있었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기록된 바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이른바 三政의 문란을 야기시킨 환곡의 자체운영은 지방관의 私經濟的 기업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수입상에 있어서의 그 비중은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 2. 進上和 貢物

각 관찰사와 수령은 위와 같은 자신의 관아의 경비를 스스로가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왕실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경비와 물자도 지시에 따라 책임지고 조달하여야 할 의무를 졌었다. 田稅·三手米·大同米와 均稅·軍布 등등을 收納·上送하는 것과, 進上物 및 貢物을 備納하는 것이 바로 그 大要였다.

대동법이 실시되자 慶尙道도 다른 道와 마찬가지로 각 官 공물의 대부분을 京貢으로 전환하여 宣惠嶺南廳 상납미로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貢人이 비납하기 어려운 일부의 土產物은 產地官에서 유치미로 購入·上納하였는데, 이것이 大同法하의 土貢이다. 경상도 각 관에서는 簞竹·席子·白土를 土貢으로서 비납하였으나, 이밖에 몇 가지 진상물도 유치미로 비납하였다.<sup>128)</sup>

그런데 이들 가운데 進上和 貢物은 다른 稅目과는 달리 당초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관이 민간과는 관계없이 마련하여 상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進上의 경우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국왕에게 선보이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말엽에 이르면서부터 이들 진상과 공물은 날로 그 종류와 수량을 더하여 갔다. 그런 가운데 민간의 부담으로 바뀌면서 그 물종과 수량이 규정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진상에서는 薦新·朔膳·三名日方物(正朝·冬至·誕生日)·端午方物·陣賀方物·藥材進上 등의 명목별 종류가 확립되어졌고, 공물에서는 常定貢物·別卜定貢物·田稅條貢物 등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物種과 수량의 多樣·多量化에 따른 貢納請負制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파생되어 갔다.<sup>129)</sup>

그렇지만 대구부에서 비납한 물종과 수량을 현재로서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위의 기록이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공물과 進上物이 상납미로 대체된 이후 잔존하였던 진상물의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1831년도 상납미량이 木綿으로 95同(白米 약 1,540 석)<sup>130)</sup>에 달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그 대강을 추적하여 보는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대부분을

128) 《嶺南廳事例》外方會減條.

129)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참조.

130) 《大邱府邑誌》田賦條.

차지하였던 進上의 경우 약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경상도의 진상물의 대부분이 監營의 검사를 거쳐서 상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막대한 진상물<sup>131)</sup>이 일단은 대구에 집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구에서 구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물품의 집산이 대구사회에 있어서의 물자의 거래와 이에 따른 倉庫·宿泊業·運輸業 등의 성장에 적지 않은 자극을 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 3. 府民의 負擔

위에서 살핀 바 있듯이 지방 관아의 모든 경비와 지방관이 책임하고 상납했던 진상물 및 공물은 모두 管下 府民의 부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시 府民이 부담했던 납세량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大丘府邑誌》에 기록된 1831년도 양상을 들어 그 대개를 살피는 수 밖에 없다. 이제 邑誌에 기록된 바를 田稅·三手米·大同米·位米太·均稅·軍布·雜稅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田 稅：米 1,182石 12斗 3升 6合 6勺

太 971石 2斗 4合 8勺

三手米：米 651石 7升 5合 5勺

大同米：木 106同 14疋 1尺 2寸

錢 9,500兩

位米·太：米 4石 4斗 2升

太 256石 10斗 2升

均 稅：結作：錢 4,186兩 8錢 5分

船稅：6兩 8錢 2分

選武布：木 5同 41疋

軍 布：아래의 〈표 2-19〉와 같음.

雜 稅：火田稅：木 16疋 26尺

巫女稅：木 13疋

이들 각종 세납을 총합하면

131) 慶尙道 전체의 진상물품과 그 수량은 《進上別單騰錄》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 奎章閣 圖書 (奎12680)에 있음.

米 1,738石 2斗 3升 2合 1勺  
 太 1,227石 12斗 2升 4合 8勺  
 木 139同 3疋 27尺  
 錢 14,313兩 9錢 7分

〈表 2-19〉 大丘府民 負擔 納稅量

收納官廳	役 名	人 數	納 付 額	備 考
御營廳	御營保	434	(木) 8同 34疋	10月納
兵曹	禁楸直	50	(木) 1同	10月納
兵曹	補充隊餘丁	1	(木) 1疋	10月納
兵曹	京步兵	82	(木) 1同 32疋	3月納
兵曹	騎 兵	46	(木) 46疋	3月納
兵曹	忠翊衛	2	(木) 2疋	12月納 順128名除
兵曹	忠贊衛	119	(錢) 238兩	9月納, 243名内 兒弱雜
兵曹	忠順衛	95	(錢) 190兩	9月納, 233名内 兒弱雜 順138名除
守禦廳	義僧軍	8	(錢) 176兩	10月納, 僧軍當納 66兩, 110兩以常賑耗作錢納
禁衛營	禁衛保	460	(木) 5同 10疋	10月納
禁衛營	別破陣保	1	(木) 1疋	10月納
校書館	刻手保	42	(木) 42疋	10月納
訓練都監	砲保	228	(木) 4同 28疋	10月納
掌樂院	樂工保	13	(木) 13疋	10月納
掌樂院	樂生保	4	(木) 4疋	10月納
掌樂院	樂工奴日用保	3	(錢) 6兩	10月納
尚衣院	針線婢美蟾保	2	(錢) 4兩	10月納
中學	屯稅		(錢) 6兩 3錢	8月納
?	寺奴	151	(木) 3同 1疋	辛酉(1801)焚券·停減
?	寺奴	5	(木) 5疋	辛酉(1801)焚券·停減

이 된다. 대략 白米로 환산해서 7,500石정도<sup>132)</sup>가 되는 부담이었던 것이나 府民 1인당 2두꼴의 부담량이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앞서 살핀 府民 1인당 70斗 꼴의 농업생산량으로 보면 매우 가벼운 부담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겠다. 하지만 위의 세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132) 白米 1석당 錢은 5兩으로 木은 3疋로, 太는 약 25斗로 각기 換算·合計한 것이다. (《度支志》권 6, 版籍司田制部 4 租稅條 참조).

良民層의 부담이 또한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겠다. 즉 그 첫째는 附加稅로서

加升：1石當 3升

二價：1石當 7合 5勺

斛上：1石當 3升

人情：1石當 2升

船價：1石當 約 4升

戶曹作紙價：1石當 7合 5勺

役價：1石當 6升

貢人役價：1石當 6升

看色米：1石當 約 1升

落庭米：1石當 約 4升

打石米：1石當 約 1升

등이 수납액 未詳의 空石價와 아울러 收稅시에 첨부되었다는 것이고 그 둘째는 《賦役實摠》에 民間負擔으로서

傳關米：167석 12두 1승(民戶부담)

場稅錢：288량(民戶부담)

常烟竹：12개 (匠人부담)

篩子：12부 (匠人부담)

正鐵：60근 (匠人부담)

馬鐵：60부 (匠人부담)

松板：24립 (塵人부담)

南草：90근 (塵人부담)

黃密：42근 (塵人부담)

芝草：2두 (店人부담)

甕稅錢：4량 (店人부담)

大·小鼎：6좌 (店人부담)

各色沙器：30죽 (店人부담)

草席：204립 (堤堰이용 民戶부담)

등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부담과 아울러 수확량의 대부분이 지배계층에 편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면 《大丘府邑誌》에 나타나는 1人當 2斗씩의 부담량은 그리 가벼운 것이었다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은 각종 徭役들이 관찰사나 判官의 捐金으로 存本取息함으로써 代充되고 있는데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府民의 부담 가운데 軍布는 1871년에 戶布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가 뒤이어 1896년에 戶錢法으로 흡수되었고, 기타의 稅目은 대체로 1910년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에 실시된 대동법은, 숙종 9년에 課稅 形평을 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부과액을 타도와 같이 結當 12斗로 감하였고, 山郡에 대해서는 大同米 7斗, 綿布(麻布 포함) 1疋로 折價하여 면포 또는 마포를 세물로 삼았다. 경상도의 大同收稅額은 약 14~5만석에 달하여, 이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8~9만여석이 宣惠嶺南廳으로 상납되고, 잔액이 상납 운임, 營·邑경비 및 倭供 관계비에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 약 7~8만석에 이르는 對日通交 貿易費 가운데서 公貿易費 4만여석을 상주 이남의 경상도 각 官 田稅로, 또 약 1만석에 달하는 接倭費(一部公買價 포함)를 경상도 大同稅로 지변하였다. 그러나, 田의 作木과 公木의 還作米에 있어 불공평한 換價率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公木을 納稅하는 대구부를 비롯한 각 官 農民이 과중한 稅外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게다가 접대비의 지변에 기인하는 留置米의 부족은 환작미의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여, 경상도 각 관의 농민에게 고된 勞役과 縮米의 稅外부담을 안겨 주었다.<sup>133)</sup> 이같은 부담은 대구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부에서는 대동법의 실시로 총세입 및 세출의 균형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지닌 지방재정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같은 재정제도의 주요 목적이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통제였고, 그 성과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18세기 말이 되면 대동사목에 책정된 장기예산을 토대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일환으로 官需品需給 예산안인 貢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관수품 생산자들은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나서 관수품을 조달할 수가 있었다.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예산제도의 확립에 더해 대구가 물산 집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는 측면도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大同法과

133) 金玉根, 앞의 책, p. 230.

均役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구부를 비롯한 경상도의 백성들은 일시적인 세율 경감이라는 혜택을 보기도 하였으나, 조선조 말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그 부담이 加重되었다. 그렇지만 각종 進上物이나 貢物이 대구를 거쳐서 상납되었고 그리하여 대구가 각종 물산의 집산지가 된 덕분에 대구지역의 각종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부의 藥材負擔量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령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은 조선조 말기에 들어오면서 대구부의 都心지역이 더욱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傍證하는 것이다.

## 第3章 文化의 새 氣運과 文化都市로의 發展

### 第1節 大邱地域 儒學界의 動向

#### I. 大邱地域 士林의 中央政界 進出

조선왕조 중기 이래 전개된 사림간의 대립은 학문적·지역적 연관을 강하게 띠면서 심각해졌는데, 영남출신 사림의 대부분은 李滉·曹植의 문하로서 嶺南學派로 발전하여 갔다. 그중 曹植 문하의 北人들이 仁祖反正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되고(1623), 이후 李滉 문인들로 구성된 南人 만이 집권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李珥·成渾 등의 문인으로 구성된 西人과 중앙에서 대립을 빚어면서 간혹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7세기 전반이래 100여년 동안 영남 출신으로 宰相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전혀 없었고, 判書 지위에 오른 인물이 2명, 亞卿인 參判지위에 오른 인물이 4~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조차 官品이 높은 자는 불과 3품에 지나지 않았고, 대개가 지방관에 전전하는 정도였다고 한다.<sup>1)</sup>

이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들이 그들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남인의 등용을 적극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곧 서인들은 “崇用士林”이라는 朋黨政治의 슬로건을 내세운 이면에는 吏曹參判 이하의 직에는 남인의 참여를 허락하였으나, 그 이상의 상위직인 3公 6卿 등에는 남인의 참여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로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남인들은 堂下官의 清要職인 3司와 吏曹郎官·吏曹參議·吏曹參判 등의 관직에는 서인과 더불어 임용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으로의 직위에는 승진이 불가능 하였다.<sup>2)</sup>

이처럼 제한된 남인 등용 정책 속에서도 숙종대(1674~1720)의 戚臣세력과 타협한 일부 남인이 일시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으나, 庚申大黜陟(1680)·己巳換局(1689)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그 결과 숙종·경종대(1720~1724) 경상도 출신 문과 급제자가 80여명에 달하였지만, 관직에 있는 자는 守令·察訪 등의 하급 지방관에 임명된 몇 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sup>3)</sup> 그후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李麟佐의 난에 이 지역의

1) 《택리지》 팔도총론 경상도.

2) 위의 책, 卜居總論 人心.

3) 《숙종실록》 권 50, 37년 9월 신묘.

인물들이 이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난이 평정된 후 대구지역에서 40여명이 처형되었음을 보아 상당수의 인물이 이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老論 정권에 의해 영남지역은 ‘逆鄉’으로 취급되기도 하여서, 慶尙右道 출신은 거의 정계 진출이 어려웠고, 慶尙左道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출한 예는 있었으나, 과거와 같이 현달한 예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조선왕조 후기는 노론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어 영남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간혹 조정에서 “嶺南은 人材의 府庫”라 하여 그 등용책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sup>4)</sup>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 조선 후기의 경상도 各郡 邑誌에 등재된 인물들의 대개가 하위 관직에 머물고 있고, 간혹 고위의 관직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이 없는 閑職일 뿐이었다. 그 결과 영남 사림은 중앙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향촌사회에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 계층으로서 공고한 경제적 기반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 채 在地土族으로 舊韓末 까지 내려 왔다.

이제 대구지역의 사림들의 중앙정계 진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조선후기 영남지역의 사림들은 당파적으로 대개 남인에 속해 중앙정계 진출이 거의 봉쇄되어 이후 거의 300여년 동안 재야세력으로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사림들은 李滉과 曹植의 學統을 지켜 行儉과 文學을 숭상하였으며, 白衣가 嶺을 넘어 서울에 가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한다. 이러한 영남지역 남인의 형편을 정권을 독점하고 있던 老論일파는 “畿湖에 있는 南人仕宦家は 太半이나 投降을 하였고, 나머지는 四方에 流落困窮하여 氣力이 없어졌으나 오직 영남만은 儒風을 世傳하고 인물이 뚝뚝하고 역세어 黨論을 굽히지 아니하니 强敵이다”<sup>5)</sup> 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이는 영남 지역의 남인이 기호지방의 남인에 비해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강하게 지니고서 그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영남지역의 사림들이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앙정계의 변화에 따라 관료로서 사환하는 경우도 많았고, 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는 인물도 많았다. 또 18세기 이후에는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을 통해 宋時烈을 위시한 畿湖學派의 영향을 받아 학문적으로 이에 혼도되는 사람들도 많았다.

조선후기 대구지역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료로 진출한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表 3-1>과 같다.

4) 위와 같음.

5) 成樂熏, <韓國黨爭史> 《한국문화사대계》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p. 386.



〈表 3-1〉

朝鮮後期 大邱地域 文科 及第者 名單

及第者名	時 期	榜 名	及第種類	本 貫	最終歷官	典據
都 慎 修	仁祖 4(1626)	別試	丙科	八莒	府使 <sup>6)</sup>	1, 2
都 慎 修	仁祖 5(1627)	式年試	乙科	八莒	府使	1, 2
徐 朴	仁祖 11(1633)	式年試	甲科	達城	郡守	1, 2
石 之 珩	仁祖 12(1634)	別試	乙科	花園	曹佐郎 <sup>7)</sup>	1, 2
鄭 承 明	仁祖 24(1646) <sup>8)</sup>	式年試	甲科	延日	司憲府持平	1, 2
孫 處 慎	仁祖 24(1646)	式年試	丙科	一直	縣監 <sup>9)</sup>	1, 2
都 慎 興	孝宗 2(1651)	式年試	丙科	八斗	成均司藝	1, 2
崔 鎮 南	孝宗 5(1654)	式年試	丙科	慶州	府使 <sup>10)</sup>	1, 2
郭 後 昌	孝宗 8(1657)	式年試	乙科	玄風	縣監	1, 2
李 碩 蕃	顯宗 4(1663)	式年試	乙科	永川	正郎	1, 2
趙 時 瑗	顯宗 4(1663)	式年試	丙科	咸安	司憲府持平	1, 2
李 球	顯宗				縣監	1
孫 湍	顯宗 1(1660)	式年試	乙科	一直	司憲府監察 <sup>11)</sup>	1, 2
李 汝 柱	顯宗				縣監	1
崔 慶 湜	肅宗 25(1699)	式年試	乙科	慶州	司憲府掌令 <sup>12)</sup>	1, 2
鄭 以 奎 <sup>13)</sup>	肅宗 28(1702)	式年試	丙科	溫陽	縣監	1, 2
禹 洪 迪	英祖 5(1729)	式年試	丙科	丹陽	正郎	1, 2
趙 景 觀	英祖 21(1745)	廷 試	丙科	咸安	佐郎	1, 2
閔 在 汶	英祖 26(1750)	式年試	丙科	驪興	成均直講	1, 2
南 碩 老	英祖 30(1754)	增廣試	丙科	英陽	縣令	1, 2
李 若 采	英祖 37(1761)	廷 試	丙科	仁川	司憲府持平	1, 2
具 性 玉	英祖 42(1766)	廷 試	丙科	綾城	縣監	1, 2
朴 基 正	正祖 8(1784)	廷 試	丙科	順天	參判	1, 2
朴 光 陽	正祖 19(1795)	春塘臺試	丙科	順天		2
朴 文 鉉	憲宗 14(1848)	增廣試	丙科	順天		2
郭 泰 魯	憲宗 15(1849)	式年試	丙科	玄風		2
朴 海 哲	哲宗 9(1858)	式年試	丙科	順天		2
金 永 薰	高宗 5(1868)	別 試	丙科	金海		2
都 錫 堧	高宗 6(1869)	別 試	甲科	星州		2
朴 海 淳	高宗 11(1874)	增廣試	乙科	順天		2
朴 宗 鉉	高宗 13(1876)	食年試	甲科	順天		2
金 鎮 永	高宗 30(1893)	別 試	丙科	金寧		2

\* 典據의 1은 《대구읍지》, 2는 《국조방목》임.

- 6) 읍지에는 縣監으로 되어 있음.  
 7) 읍지에는 承政院 承旨로 되어 있음.  
 8) 읍지에는 孝宗代로 되어 있음.  
 9) 읍지에는 正郎으로 되어 있음.  
 10) 읍지에는 牧使로 되어 있음.  
 11) 읍지에는 正郎으로 되어 있음.  
 12) 읍지에는 司諫院 正言으로 되어 있음.  
 13) 《국조방목》에는 鄭以規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대구 지역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32인이 찾아지는데, 이 지역 출신의 급제자 명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읍지에 수록된 인물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정조대(1776~1800) 이후의 사실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조방목》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本貫만을 기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중 英祖 말년 이후에는 본관과 출신지를 함께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명단은 대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옳을 것이다.

어쨌든 <표 3-1>에 의하면 비교적 재위 기간이 긴 光海君 및 純祖 연간에는 급제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읍지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李球와 李汝柱 2인은 《국조방목》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고려왕조 이래 대구 지역의 土姓으로 이 지역의 지배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白氏·夏氏·裴氏·徐氏·李氏 등이 조선전기 이래 그리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조선후기에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지 徐氏가 《국조방목》에 達城人·大丘人의 이름으로 매우 빈번하게 급제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서울을 위시한 경기지방에 출신 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조선후기 대구지역 급제자들은 대개 인근 지역에서 이주해온 여러 성씨들이 2~3명의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중 朴彭年의 후손들로 구성된 河濱지역의 順天 朴氏들이 정조대 이후에 6명이나 급제자를 배출하였던 점이 돋보인다. 끝으로 급제자의 최종 역관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縣令·縣監을 위시하여 중앙정부의 하위직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론 일당의 벌열정치에 희생된 결과이다.

이처럼 대구지역 인물들의 중앙정계에서의 현달이 부진한 형편하에서도 이곳의 사람들과 관찰사를 위시한 지방관들은 인재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먼저 이곳의 유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숙종 12년(1686) 사람들이 대구 남쪽 仁興里에 東溪齋를 건립하여 생도를 모아 講學케 하였는데, 이는 영조 30년(1754) 進士 禹洪龜에 의해 더욱 확장되기도 하였고, 영조 46년(1770)에 향교 부근에 같은 목적으로 司馬齋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영조 6년(1730)경에 경상도 관찰사 趙顯命(1730~1732 재직)이 대구부 남문밖에 樂育齋를 건립하여 인재를 선발하여 勉學케 하였고, 같은 왕 42년(1766) 대구판관 金魯가 향교의 동쪽에 같은 목적으로 養士齋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종 書齋의 건립은 18세기 이후 士林政治의 파탄으로 인해 조선중기 이래 지방의 인재 교육을 담당해왔던 서원의 교육적 활동이 위축된데다가, 그 보다 먼저 쇠퇴해진 향교의 형편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전기 이래 국가의 향교진흥책 및 사람의

서원 건립운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비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官·民의 협력하에 학문 진흥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 II. 嶺南學派의 發展과 大邱地域

대구지역은 경상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낙동강변에 인접해 있어, 유사 이래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국가 형성기에 있어서는 가야문화권 및 신라문화권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 양 문화의 성격을 함께 띠기도 하였고, 후삼국 시대에는 정치·군사적으로 후백제 및 고려의 양대 세력의 각축장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중기에 일시적으로 경상도 지역이 낙동강을 경계로 좌·우도로 분치될 때는 그 중간 경계선에 위치하기도 하였고, 임난이후 경상도가 합치될 때는 중심지로서 監營이 설치되어 경상도 지역의 治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문화적인 측면도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발전상에 있어서 대구지역의 위치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당시 정계의 움직임 및 유학계의 동향을 결부지어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東西分黨이라는 士林간의 대립·분열도 기본적으로 15세기 이래 중앙정계에 진출해 있던 사림과 가운데 李滉·曹植의 門人과 李珥·成渾 계통의 인물들의 대립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있어서 이황과 조식은 경상도지역을 대표하는 영남학파의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은 을사사화(1545) 이후에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어 사림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16세기 후반에 학덕을 겸비한 당대 사림의 영수로서 학맥과 지연을 초월하여 조야에 걸쳐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각기 학문적인 특징과 처세술에 차이가 있어, 이황은 평생 학문에 침잠하면서도 중앙정계에 나가 내외관직을 역임하면서 京鄕을 왕래하였으므로 그의 문인은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조식은 간혹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출사하지 않고 시종 산림처사로 일생을 마친데다가 그의 활동 영역도 경상우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 자연히 그의 문인은 퇴계학파에 비해 지역적 기반이 약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황과 조식은 각기 경상좌도와 우도를 대표하여 영남학파의 두 큰 줄기를 형성하였는데, 처음에는 그 형세가 비슷하여 양쪽을 넘나드는 문인이 많았다. 그렇지만 정권을 잡은 사림간의 학문적 입장, 재지적 처지 그리고 시세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들은 점차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선조 8년(1575) 동서분당 때에는 유성룡·김성일·우성전·정구·김우옹 등의 이황 문인과 정인홍·곽재우·최영경 등 조식 문인이 함께 동인편에 있으나, 동인이 다시 남·북인으로 분당될 때에는 전자가 주로 남인, 후자가 북인편에 서게 되면서부터 양학파는 서로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여 반목·대립을 하는 관계로 전개되었다.<sup>14)</sup>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식의 수제자였던 정인홍이 그 자신의 학문적인 명성과 임난왜란시의 의병 항쟁을 통한 전공으로 선조 후반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는 남인의 영수 유성룡과는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자기 스승인 조식만을 받드는 동시에 남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언적과 이황을 편취했기 때문에 퇴계학파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퇴계학파는 인조반정때 서인과 함께 정인홍을 처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이다. 정인홍의 실각후 남명학파는 거의 와해되고 퇴계학파가 영남학파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후 영남지방의 사림은 중앙정계에서 공고한 기반을 가지며 배타적 성향을 띤 서인정권의 확립에 따라 전일처럼 중앙에 활발히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을 봐서 간혹 출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곧 퇴계학파에 속하는 정경세·이준·김륵·장현광·김용·김봉조·이원정·김방걸·이현일 등과 같은 이황·유성룡·김성일·정구 등의 후광을 업은 사람들이 때로는 서인 내지 노론정권과 타협하면서 남인의 전통을 지켜나갔다.

이와 같은 영남학파의 발전과정에서 대구지역의 사람들도 큰 기여를 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15세기 이래의 영남사림과 형성기에 대구지역의 사람도 참여한 바 있어, 金宗直의 제자인 朴漢柱(1459~1504) 같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기의 영남학파 발전기에 있어서도 대구지역 사람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는데, 이는 李滉에게서 직접 학문을 전수받은 李賢輔의 아들 李叔樑(1519~1592)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와 후진들의 양성에 힘쓴 결과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대구지역의 학계는 큰 발전을 보았는데, 이는 대구와 접경지역인 星州출신의 鄭述와 仁同출신의 張顯光이 대구지역 유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郭再謙과 같이 曹植의 학문과 연관을 가진 인물도 이곳으로 이주해오기도 하였다.

鄭述(1543~1620)는 金宏弼의 외증손으로 曹植·李滉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성리학을 비롯하여 算數·兵陣·醫藥·風水 등에 이르기 까지 정통했으며, 특히 禮學에 뛰어나 이 분야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그의 문하로는 徐思遠·孫處訥·蔡夢硯·鄭師哲·蔡應麟·郭再謙·李

14) 嶺南의 2大學派인 李滉과 曹植의 對比는 李樹健, 〈朝鮮朝 嶺南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한국의 철학》21, 1993에 잘 정리되어 있다.

주·都聖俞·都汝俞·徐思選·孫處約·李休運·朴宗祐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인동·선산지역의 盧景倫·崔暉 등과 함께 寒岡學派를 형성하였다. 張顯光(1554~1637)은 퇴계의 학풍을 영향받기도 했지만, 독학으로 독특한 철학체계를 세워 理氣一本說을 정립하여 主理·主氣의 양학을 절충하려 하여, 조선조 유학의 인식체계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였다. 그의 문인으로는 孫述·徐思選·孫處約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善山·仁同 지역 출신의 金慶長·張慶遇·張應一·金寧·盧景任·尹弘宣 등과 함께 旅軒學派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이 지역의 사람들은 鄭述·張顯光의 학문을 전수받아 寒江學派·旅軒學派로 나뉘어져 학문의 방법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많은 인물들이 양인의 문하를 동시에 출입하는 경우도 있어, 양자를 절충하는 예도 많았다. 이들 대구지역 사람들은 스스로의 문하에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니, 徐思選의 문하에는 都汝俞·孫處約이, 孫處訥의 문하에는 柳時藩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이 지역 사람들의 대부분이 퇴계학과로 통합되어 갔다. 18세기에 들어서서 上京從仕하는 가운데 宋時烈의 문하에 들어가 기호학파의 전통은 이은 인물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全有章·禹錫珪·全克泰 등을 들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형편하에서 대구지역 사람들은 대구부의 외곽지대에 同族部落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家門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구 향교에 출입했던 24개의 門中 곧 玉山 全氏·達城 徐氏·仁川 蔡氏·丹陽 禹氏·慶州 崔氏·順天 朴氏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조선후기에 이 지역을 대표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했던 가문으로는 崔興遠을 名祖로 한 慶州 崔氏(解顔·安心일대에 거주)와 朴彭年의 후손들로 구성된 順天 朴氏(河濱일대에 거주)를 들 수 있다.<sup>16)</sup> 이들 사람들은 재야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집권당의 회유·분렬과 같은 책략에도 불구하고 공고하게 단결하여, 중앙정부에서 중대사가 야기될 때마다 집단을 형성하여 상소를 올려 그들의 입장을 중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그들이 향촌 사회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고한 族黨세력과 경제적 기반위에, 향청·향교·서원·문중 등을 중심으로 한 世誼·혼인·師友관계 등으로 맺어진 同類意識을 바탕으로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와 같은 대구지역 사람들 중 대표적 인물의 인적 계보와 학문상의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여

15) 장동익, <영남학파의 발전과 구미·선산지역> 《구미·선산의 역사문화》, 안동대학교 연구총서, 6, 1993.

16) 이수진, <朝鮮後期 嶺南儒疏에 대하여> 《이병도구술기념논총》, 1987.

17) 위와 같음.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李 軾 ; 생몰년은 미상이고 조선중기의 학자로서 의병장이다. 자는 景任이고, 호는 六休堂 또는 苔巖이다. 본관은 仁川이며 和의 8대손으로 鄭述의 문인이다. 당대 명유 鄭經世 등과 교유하고 성리학을 연구했으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徐思遠과 함께 의병을 모집, 군량을 조달하고, 招諭使 金誠一의 召募官으로 활약하였다. 뒤에 體察使 李德馨의 추천으로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에 묻혀 학문에 전심했다. 또 그는 李叔樑과 함께 研經書院의 건립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郭再謙 ; 명종 2년(1547)~광해군 7년(1615). 조선중기의 학자이며, 임진왜란때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玄風이고, 자는 益輔, 호는 槐軒이다. 아버지는 宣務郎 超이며, 임진 의병장 再祐의 사촌형이다. 삼촌 越에게 글을 배우다가 全慶昌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으나, 사환에는 뜻을 두지 않고 향리에서 학문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鄭述·張顯光·徐思遠 등과 교유하면서 후진의 양성에 노력하였다. 선조 6년(1573) 金字顯의 추천을 받아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招諭使 金誠一을 도와 募兵·募糧 등에 힘썼고, 왜구소탕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徐思遠과 협력하여 직접 의병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는 從弟 再祐와 함께 의병을 이끌고 昌寧의 火旺山城 전투에 참전하여, 왜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 副護軍에 임명되었다. 난이 끝난 후 향리에서 후진양성에 더욱 노력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柳湖書院에 제향되었다.

徐思遠 ; 명종 5년(1550)~광해군 7년(1615). 조선중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달성이다. 자는 行甫이고, 호는 彌樂齋 또는 樂齋이다. 典敎 治의 아들로, 큰아버지 형에게 입양되었다. 정구의 문인으로 주자학 및 이황의 문집을 깊이 연구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사환하지 않고 학문의 연구에 힘썼다. 선조 때 學行으로 천거되어 察訪에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의병을 규합하여 鄉兵大將이 되어 왜적과 투쟁하면서 팔공산에 들어가 항쟁을 계속하기도 하였다.<sup>19)</sup> 또 쌀과 콩 300석을 모아 淸道の 五禮山城으로 보내기도 하는 등 타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선조 28년(1595) 淸安縣監에 부임하여 학문의 진흥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 뒤 1597년에 玉果縣監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이듬해 사직하였다. 1602년에도 燕岐縣監에 임명되

18) 이들 인물의 정리 순서는 학문상의 계열과는 관계없이 생몰년대를 감안하여 그들이 활약했던 시대순에 의했다. 이의 서술은 李秉休, 〈朝鮮時代의 人物〉《팔공산》속집, 대구직할시, 1991에 의거하였다.

19) 《大邱鄉兵立約十條》

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형조정랑, 호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모두 응하지 않았다. 伊江書院 및 淸安의 龜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樂齋集》이 있다.

孫處訥; 명종 8년(1553)~인조 12년(1634). 조선 후기의 유학자로 본관은 一直이다. 자는 幾道이고, 호는 慕堂이며, 縣監 致雲의 손자이다. 정구의 문인으로 장현광·서사원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왜군에 투쟁하려다가 친상을 연이어 당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난 후 대구향교의 재건에 앞장서서 후진양성에 노력하였고, 정인홍의 李滉 배척에 대항하여 斥邪扶正의 글을 지어 道內 士林을 규합하기도 하였다. 淸湖書院에 제향되었다.

孫 邁; 명종 21년(1566)~인조 6년(1628).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의병장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季進, 호는 聞灘이며, 德雲의 아들이다. 김우옹과 정구의 문인으로 장현광·정경세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다. 선조 33년(1600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160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광해군 3년(1611) 이언적과 이황의 文廟從祠를 둘러싸고 大北정권의 영수인 정인홍이 이를 배척하자, 조카인 處訥과 함께 부정척사문을 만들어 이를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정인홍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오랫동안 벼슬길이 막히었다. 1615년에 安東敎授가 되었고, 그 3년 후에 예문관 봉교를 거쳐 1623년 인조반정 뒤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에 발탁된 후 병조좌랑, 당성현감 등을 지냈는데 자못 치적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인조 5년(1627년) 정묘호란 때 정경세의 추천을 받아 의병장이 되었고, 난후 향리로 돌아와 벼슬하지 않았다. 정경세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어 벼슬길에 나갈 것을 권하였지만 끝내 따르지 않고 장현광·김상응 등과 교유하며 지냈다. 그의 문집에 실려있는 시는 강직한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鳳巖祠에 제향되었다.

都聖俞; 생몰년 미상의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성주. 자는 廷言이고, 호는 養眞堂으로 한성부윤 元結의 아들이다. 정구·서사원의 문인으로서 문장과 행실이 당대에 출중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사원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군량을 조달하였다. 광해군 3년(1611) 정인홍이 이언적·이황을 비난하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분하여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면서 학문의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五經體用合一圖》와 《體用各分圖》를 만들었다. 저서로는 《性理正學集》이 있으며, 龍湖書院에 제향되었다.

禹拜善; 선조 2년(1569)~광해군 13년(1621).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의병장이다. 본관은 丹陽이고, 자는 師聖, 호는 月谷이다. 고려후기의·성리학자 禹倬, 여말선초의 재상 禹玄寶의

후예이며, 현감 鳳의 손자로서 어려서부터 학문에 종사하였으나, 仕宦에는 뜻이 없이 향리에서 학문에만 종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4세의 나이에 鄉里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는 가재를 털어 의병을 모집, 花園·達城 등지에서 왜군과 싸워 연전연승하여 그 위용을 떨쳤다. 이러한 전공으로 인해 金誠一의 천거를 받아 예빈시 참봉에 기용되었다. 그후에도 계속 왜군과 싸워 많은 전공을 세워 군기시 판관이 되었으며, 이어서 합천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그후 1600년에 금산군수, 1603년에 낙안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604년에는 임진왜란시의 전공으로 인해 宣武原從功臣 1等到 책봉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杜門不仕하고 易學 연구에 전념하였다. 德洞書院에 제향되었다. 최근에 그의 의병항쟁의 업적을 기려, 그의 향리 인근 국민학교를 月谷國民學校, 인근 도로를 月谷路로 각각 命名하였다.

朴壽春; 선조 5년(1572)~효종 3년(1652).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밀양이다. 자는 景老, 호는 菊潭이고, 아버지는 童蒙敎官 愼이다. 家學을 이어 받았으며 小學을 항상 애독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昌寧의 火旺山城에서 광재우와 함께 싸웠다. 광해군 10년(1618) 仁穆大妃의 廢位문제에 대하여 春秋大義로써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소를 지어 올렸다. 병자호란 때 倡義 檄文을 돌려 의병을 일으켰으나, 和議 성립의 소식을 듣고 산중에 들어가 崇禎處士를 자처하며 학문을 연구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구·장현광 등과 이기설을 토론하는 등 성리학의 연구에 힘썼다. 현종 13년(1672)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숙종 20년(1694) 南崗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菊潭文集》·《讀書指南》·《學問類解》·《東方學問淵源錄》·《疑禮見問解》 등이 있다.

朴宗祐; 선조 20년(1587)~효종 5년(1654).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順天이다. 자는 君錫, 호는 陶谷 또는 河濱釣叟이다. 아버지는 濟用監 主簿 忠胤이며, 어머니는 光州 李氏로 僉正 光復의 딸이다. 서사원·정구의 문인이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싸움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90세 된 양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청군을 물리칠 열가지 대책을 경상도관찰사 沈演에게 진술하였다. 다음 해에 仁祖가 굴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향통곡하면서 평생동안 지어 모은 글들을 태워버렸다고 한다. 이후 崇禎處士를 칭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達城 10賢 중의 한 사람이며 門蔭으로 副司果가 되었고, 司憲府 持平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陶谷文集》 3권과 編著인 《丙子錄》 1책이 있다.

都慶俞; 선조 29년(1596)~인조 14(1636).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이다. 자는



來甫, 호는 洛陰으로 정구·서사원·손처눌의 문인이다. 인조 2년(1624) 司馬試에 합격했고, 다음 해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湖南으로 世子를 호종하였으며 난이 끝난 뒤 금부도사, 평양서운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도관찰사 沈演의 從事官이 되어 雙嶺 전투에서 右營에 쌓아놓은 火藥의 폭발사고로 패전하였다. 그 죄로 유배가던 도중에 죽었다. 뒤에 이 화약폭발사고가 일찌기, 그에 의해 참수된 바 있던 裨將 朴忠謙의 아들이 화풀이로 한 소행임이 밝혀져 승지로 추증되었다. 屏巖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洛陰集》 6권 2책이 있다.

禹錫珪; 인조 26년(1648)~숙종 39년(1713).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丹陽이다. 자는 伯玉, 호는 知足堂이다. 여말선초의 재상 玄寶의 후손이며, 郡守 拜善의 증손으로, 宋時烈的 문인이다. 1675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숙종 8년(1682년) 昌陵參奉으로 기용되어 奉事, 直長 등을 거쳐 山陰縣監이 되었으나 1689년에 己巳換局으로 파직당하였다. 숙종 36년(1710) 이조참판 李晩成의 천거로 鎭川縣監에 다시 기용되었으나 이듬해에 사직하고 향리인 대구로 돌아왔다.

崔興遠; 숙종 31년(1705)~정조 10년(1786).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경주이다. 자는 太初 또는 汝浩, 호는 百弗庵이다. 일찌기 李象靖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닦았는데, 정조 2년(1778년) 學行으로 천거되어 參教官이 되었고, 1782년 掌樂院 主簿를 거쳐 정조 8년(1784) 世子翊衛司 左翊贊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침식을 잇을 정도로 학문 연구에 열중하여 후에 漆溪先生이라 일컬어졌다. 籃田鄉約에 의거하여 규약을 세워 백성들에게 講學과 勤儉으로 저축에 힘쓰게 하고 先公庫·恤貧庫 등을 두어 생활 안정을 얻게 하였다. 이것이 당시에 유명한 〈夫仁洞規〉였다. 정조 13년(1789년) 그의 효행을 기려 旌門이 내려졌고, 이듬해에 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百弗庵集》이 있다.

이외에도 유학자로 이름이 높은 인물로는 정구의 문인인 蔡夢硯(본관은 仁川, 호는 投巖)과 그의 아들 蔡楸(호는 栢浦), 蔡應麟(호는 松潭)·李休運(호는 石屏), 서사원의 문인인 都汝俞(호는 鋤齋)·孫處約(본관은 一直, 호는 五梅亭), 朴宗祐의 아들 朴崇章, 손처눌의 문인인 柳時藩(호는 沙月堂) 등이 있었다.

이처럼 대구 지역의 사람들은 영남학파의 형성과 발전에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 조선왕조 후기 유학사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많았다. 이와 함께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서기도 하였는데, 임진왜란시에 徐思遠이 鄭師哲·崔誠·孫處訥·蔡光修·李宗文·蔡夢硯·崔認·郭再謙·朴忠後·李軾·柳堯臣·孫處約·崔東輔·徐再謙·朴忠胤·洪幹·鄭汝康 등의 사람과 함께

팔공산에 들어가 倡義한 것이나,<sup>20)</sup> 禹拜善이 散將逋卒 및 家僮을 거느리고 창의를 하여 수 많은 전공을 수립케 한 것<sup>21)</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의병을 이끌고 각지에서 왜적을 소탕하여 큰 성과를 올렸는데,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항전한 수많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둘 것은 조선후기에 일어난 새 學風 즉 實學과 대구지역의 유학자층과의 관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대개 治者階層에 속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정계에서 배제당한 南人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남인이었다고 해서 모두 실학자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당시의 대부분의 실학자는 畿湖지방 특히 近畿지방의 남인들이었다. 남인의 집주지라 할 수 있는 대구지역을 위시한 영남지방의 남인 가운데서는 거의 한 사람의 실학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인 가운데서 실학자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정권에서 소외되어 지배층의 핵심에서 쫓겨난 데 대한 불만이 과거의 전통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로써 실학이 생성되는 내적 요인의 하나를 이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호지방은 당시 집권세력인 老論의 아성이었고 그 틈에 끼여있던 남인의 현실에 대한 욕구불만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반하여 영남지방은 남인의 집주지였으나, 그들이 정계에서 물러나 있기는 하였지만 기호의 남인과는 달리 정권에서의 소외감이나 현실에 대한 욕구불만이 이처럼 클 까닭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층이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서 현실적인 권력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것은 거의 구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론의 세력이 극성하던 영조·정조 이후에 있어서도 그들은 영남지방에 까지 그들의 세력을 심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 다소간의 노력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남지방의 남인은 형식상 실세는 하였으되 실질적으로는 의연히 지배층 즉 치자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 까닭에 대구지역에서는 실학자나 실학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따라서 대구지역은 실학과는 거의 무관한 지역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 이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大邱鄉兵立約十條》 및 앞의 제4편 제4장 및 《경북의병사》 pp. 249~250, 경상북도, 1990을 참조할 것.

21) 禹拜善의 의병 활동상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李樹健,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 《민족문화논총》 13, 1993 ; 《月谷禹拜善先生の 生涯와 義兵活動》 1994.

張東翼, 〈月谷 禹拜善의 壬辰義兵活動〉, 위의 책, 1994.

## 第2節 官學의 衰退와 私學의 發展

### I. 鄉校의 衰退

조선시대 지방 郡縣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중앙의 교육 기관인 成均館, 四部學堂에 대응하여 각군현이 관할하는 官學인 鄉校, 私塾인 書堂, 그리고 16세기 이후 크게 발흥한 書院 등이 있었다. 국가에서 건립한 유교 중등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는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신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지방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갖추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태조(1392~1398)는 즉위 초에 각도 按廉使에게 명하여 학교, 즉 향교의 興廢로서 守令의 治績評價의 기준을 삼겠다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흥에 주력하여, 같은 해 반도의 남쪽 끝인 제주도에 향교를 설립한 이래 북쪽의 兩界邊方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지방 가운데 향교가 없는 곳은 거의 없게 하였다.

이처럼 향교는 조선초기 이래 전국 군현에의 설치라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또 이전까지 지방관아에서 제공하는 미곡으로 경비를 마련하였던 데서 나오는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태종 13년(1413)에 각 군현 향교에 일제히 學田(鄉校田)을 지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興學政策과 함께 향교에 文廟를 설치하고 釋奠을 거행케 함으로써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뿐만아니라 유교의 중심지적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에서의 유학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향교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쇠퇴의 기미가 나타나게 되었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在地土族들은 향교보다는 書齋와 같은 私學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고, 관리로 仕宦하기 위해서 향교에서 수학하던 유생들은 世祖(1455~1468)이래 忠順衛에의 入屬이 허락되자 향교를 떠나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訓導를 비롯한 敎授官이 閑職으로 여겨지면서 교수관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는 등의 몇가지가 그 원인이 되었다. 물론 在地土族이나 士林派 인물들이 향교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지방관학의 쇠퇴현상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쇠퇴 추세는 성종조(1469~1494)에 이미 징조가 보였지만, 그 직접적인 한 계기는 연산군(1494~1506)의 유학 억압책 곧 성균관의 飲樂遊宴 場所化, 宮內所藏 書冊의 撤毀, 그리고 四部學堂의 하나인 東學의 폐지 등에도 관련이 있기도 하였다.<sup>22)</sup> 그보다는 국가의

22) 《연산군일기》 권 1, 1년 2월 병진.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고, 당시에 이른바 ‘學德之士’에 의해 개설된 書齋·書堂 등의 사학이 크게 발흥하고, 사림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서원이 각지에 설립되면서 향교의 부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중종조(1506~1544) 이후 관학의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의 시책이 강구되기도 하였다. 중종조 전반기에 정국을 주도한 기묘사림과 인물가운데 金安國은 향촌교화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어,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道 전역의 향교를 순회하면서 유생들에게 권학하였던 것을 그 현저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왕조 초기 이후 계속 존재하여온 書齋·書堂과 같은 私學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위에, 이들이 교육 수준 향상 도모와 함께 교학적 기능을 강하게 띤 서원으로 부상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향교의 기능은 더욱 회복되기 어려웠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더욱 황폐화하였다. 전란기 및 이후의 국가 경제의 궁핍은 향교의 부흥을 불가능케 하였으며, 향교는 새로이 성장하는 세력들의 신분상승이나 경제적 부담을 면하기 위한 피난처로 이용되어 양반층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지게 되었다.<sup>23)</sup>

그 결과 16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립 중등 유학 교육기관격인 서원이 활발히 발전하게 되자, 지방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의 주도적 역할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儒家理念의 상징으로서 鄉祠의 기능과 鄉班士族의 집결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sup>24)</sup>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도 향교는 한동안 향촌사회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봉건 지배층의 근거지라는 역기능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오는 상황이 도래하자 향교는 의병전쟁의 연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되어 민족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의연히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향교는 행정 구역에 따라 국가로 부터 경제적 기반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23) 《중종실록》 권 29, 12년 8월 을축.

24) 조선 후기 향교에 대한 기왕의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이 있다.

宋贊植, 〈朝鮮後期 校院生考〉《국민대논문집》 11, 1976.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한국사학》 5, 1983.

韓東一, 〈16세기 이후의 鄉校教育制度〉《대동문화연구》 17, 1983.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研究》, 일조각, 1990.

경상북도, 《慶北鄉校誌》, 1991.

《續大典》戶典 諸田條에 의하면 州·府의 향교는 7結, 郡·縣의 향교는 5結의 學田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중으로부터 法制外的으로 비용을 징수하거나 儒林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경비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진·병자 양란을 통한 국가 경제의 궁핍이 향교의 경제적 기반 확보를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향교 교육을 위한 敎官으로는 종6품의 敎授와 종9품의 訓導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州·府에는 일반적으로 교수가 있었고, 郡·縣에는 訓導가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없는 곳도 있었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經國大典》에 의하면 慶尙道에는 敎授 12인과 訓導 55인이 파견되어 있었는데,<sup>25)</sup> 대구지역에는 경주·안동·상주·성주·진주 등의 대도호부 설치 지역과 함께 교수가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에 파견되는 교관에 문과 급제자의 부임 기피현상이 점차 농후해지자, 지역에 따라서는 生員·進士 또는 幼學을 敎導, 學長의 이름으로 교관에 임명하여 생도의 교육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교관의 자질이 생도보다 못하거나 비록 생원·진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격 미달자도 있었다.<sup>26)</sup> 이처럼 향교의 교수관은 한직으로 여겨져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에 의한 여러 차례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향교에 교수관이 파견되지 않게 되었고, 《속대전》에는 향교의 교수관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게 되었다. 이는 향교가 더 이상 지방의 교육기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서 향교는 在地土族의 子弟를 향교로 끌어들이 수 없었으니, 자연히 쇠퇴할 수 밖에 없었다.

향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교생은 세종때에 유수관 50명, 목·도호부 40명, 군 30명, 현 15명으로 정하였으나,<sup>27)</sup> 그 수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었다. 성종 16년(1458년) 《경국대전》반포시에는 학생의 수를 대도호부·목에는 각 90명, 도호부에는 70명, 군에는 50명, 현에는 30명으로 정하였는데,<sup>28)</sup> 당시 대구는 도호부였기에 대구 향교의 학생수는 70명 정도였을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교생의 수가 군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구 향교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舊韓末에 만들어진 《대구읍지》의 〈大邱府事例〉에 의하면 校生이 90명이었고 그중 童蒙이 20인이었다고 한다. 이들 교생의 신분에 대해서는 법제적인

25) 《經國大典》권 1, 吏典 外官職.

26) 《연산군일기》권 5, 1년 5월 경술, 권 49, 9년 3월 경진.

27) 《세종실록지리지》권 148, 경기도 광주목.

28) 《경국대전》권 3, 예전 생도.

16세 이하의 생도는 이 인원수에서 제외되었고, 그 지역의 학생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문규정을 찾을 없으나, 천민을 제외한 양인 신분층 모두에게 향교가 개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교를 국가적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로서는 이러한 선언적 규정을 내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세종대에 新白丁에게 향교 입학을 허락하거나 농민에게 향교교육을 권장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사회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을 것이다. 16세기의 기록에서 “군역 담당자인 농민이 교생이 되어 면역의 혜택을 받고자 하니 이를 금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요컨대 양반 신분층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교 교생의 대부분은 양반층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급 신분층의 향교 입학의 요구는 집요하여 이들이 교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양반층은 東齋와 西齋의 구분, 額內校生과 額外校生 등의 구분을 통해 그들의 특권을 드러내려 하였다.

교생이 될 수 있는 연령은 조선 초기 이래 10세로 정해 있었지만, 정식으로 액내교생이 되기 위해서는 17세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입교후 居齋할 수 있는 상한 선은 40세였고, 교생이 가지는 특권은 군역이 면제되는 면역의 특권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는 赴舉의 특권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것 처럼 향교의 피폐로 인해 조선왕조 후기에는 지방 사족의 자제들의 입학 보다는 새로이 성장하는 세력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목적과 면역의 특권을 이용하려는 부류들만이 이에 입학하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향촌의 일반 민중이 입학하였다.

그래서 17세기 인조(1623~1649)시에는 영남이외 지역에서는 재지 사족의 자제들이 입학을 꺼리게 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sup>29)</sup> 재지 사족의 자제들은 향교에 입학하기 보다는 당시 널리 존재하고 있던 서원에 입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교 생도의 신분적 구성은 대구지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官學인 향교보다 私學인 서원에 재지 사족의 자제들이 몰리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결과 《경국대전》의 생도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校任은 향교의 교육과 운영에서 敎官을 돕도록 校生 가운데 선발된 대표를 말한다. 16세기 말 李珥의 〈學校模範〉에 의하면 黨長·掌議·有司라는 校任이 보이는데, 이는 成均館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향교의 위상이 낮아지고 향교교육이 피폐해지는 조선후기 이후에는 교관이 파견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향교의 운영은 유생대표인 校任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29) 《인조실록》 권 14, 4년 11월 경인, 4년 12월 을묘.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校任은 향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牧民心書》에 보이듯이 대체로 校長(都有司)·掌議·色掌(有司)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都有司는 1인으로 교임가운데 首任格이었으며, 掌議는 보통 2명으로 東齋와 西齋를 나누어 맡았으며, 담당 역할에 따라 靑衿掌議·錢穀掌議·學庫掌議 등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有司(色掌)는 향교의 실무를 맡은 존재로 2명이 두어졌고, 역시 직임에 따라 別庫有司·祭器有司·書冊有司·齋中有司 등의 이름을 갖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향교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교임의 임무와 신분, 지위 등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도유사는 향교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향교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였으므로 儒林중에 地閥이 있고 德行이 뛰어난 자가 선출되었으며, 향교내의 경제적 문제를 감독하고 교임과 교생에 대한 임명·감독·처벌권을 행사하였고, 春秋로 거행되는 釋奠祭와 초하루, 보름에 행하는 朔望焚香 등의 제례를 주관하였다. 장의는 향교의 관리자로서 도유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유사가 처리하는 향교의 어떤 일도 장의와 상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도 있었다. 유사는 향교운영의 실무자로서, 文廟수직과 제향에 필요한 품목의 관리, 건물의 수리, 도서의 보관, 출입 선비에 대한 供饋 등 실질적 임무를 담당하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교임은 일반적으로 士族이 맡아왔으나, 19세기 이후에 이르면 새로 성장한 신분층의 도전으로 교임의 선출을 둘러싸고 많은 사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향교의 교육 내용은 小學·四書·五經이 기본 교과목이었으며 때로는 《近思錄》과 여타 중국의 史書도 지도하였다. 따라서 향교의 교육 목표는 성리학의 哲學的教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儒家的 도덕 규범이나 지배층의 지배 윤리 등 양반 신분으로서 체득해야 할 최소한의 교양 교육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왕조 정부의 의도와 과거제와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유교적 소양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와 내용이 경전·의례·윤리·제사·문학서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소학》이 가장 주된 교과서가 되었는데, 이는 소학이 성리학의 기본 이론서라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향교의 추세는 대구의 향교 실태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대구 향교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대구 향교의 변천사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않아 그 분명한 모습을 더듬을 수 없다. 단지 《대구읍지》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는 大丘府의 東門外의 古城에 위치해 있다가 선조 32년

(1599)에 達城으로 일시 옮겨다가 6년후인 선조 38년(1605) 다시 府治에서 2리 떨어진 현재의 校洞으로 옮겨지고, 인조 2년(1624) 明倫堂이 새로 건립되어져 한말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sup>30)</sup> 건물은 太學制度에 의거하여 文廟, 明倫堂, 東西兩齋를 중심으로 여러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외 이 지역의 士風의 振作을 위해 養士齋, 司馬齋의 두 書齋가 향교 부근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전자는 영조 42년(1766) 大丘判官 金魯(1765~1769 재직)가 향교의 東神門 밖에 건물을 짓고 公田 약간 結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해마다 이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여 입숙케 하여 학업에 힘쓰게 하였다고 한다. 후자는 영조 46년(1770) 이 지역의 유림들이 역시 사풍의 진작을 위해 향교 부근에 건립하였는데, 순조 27년(1827) 判官 趙鍾淳(1824~1827 재직)이 증진하였다고 한다. 이들 두 서재는 기본적으로 향교가 지방 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향교내의 신분질서의 변화에 따른 名分の 확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다.<sup>31)</sup>

현재의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는 일제 시대인 1937년에 교동 지역이 민가 및 상업지역의 확충으로 인해 번잡해져 學問 陶冶의 장소로 적합하지 않게 되자, 이 지역의 유림들의 모금에 의해 文廟, 명륜당, 동서 양재등이 옮겨 졌다고 한다.<sup>32)</sup> 또 최근에는 養士齋와 樂育齋도 새로이 건립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대구 향교를 꾸려간 인물들에 대해서는 서원관계의 문서인 儒案·靑衿錄·校任案·校生案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 수 없다. 단지 고려시대 이래 대구지역을 이끌어 왔던 姓氏集團인 白氏·夏氏·裴氏·徐氏·李氏 등의 族團이 이의 운영에 참여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조선후기 이래 이들 성씨 집단의 향배는 분명치 않으나, 16세기 후반 이래 徐思遠·全慶昌·禹拜善·李叔樸 등의 인물이 이 지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을 보아, 이들 및 이들의 후예들에 의해 향교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3)</sup>

그리고 정조 3년(1779)이후 부터 1908년 까지, 130여년간 春秋 享祀를 담당했던 사실의

30) 《大邱鄕校齋錄》沿革

경상북도, 《경북향교지》, 1991.

金容晚, 〈大邱鄕校 小考〉《향교문화》7, 1992.

현재 校洞 26번지에 大成殿이 위치해 있었고, 大成殿의 뒷쪽에 明倫堂이 있었다고 한다.

31) 尹熙勉, 〈朝鮮後期 養士齋〉《이원순화갑기념논총》, 1986.

32) 《大邱鄕校齋錄》沿革

33) 《大邱鄕校略史》에 의하면 향교를 창건한 24개의 門中이 있었다고 하며, 그중 玉山全氏·達城徐氏·仁川蔡氏·丹陽禹氏 등의 15개 문중이 나타나고, 나머지 9개 문중은 알 수 없다고 한다.



기록인 《大邱鄉校齋錄》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에 都有司와 掌議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가 향교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그 일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徐氏·李氏·禹氏·崔氏·具氏·朴氏·全氏 등의 門中을 중심으로 향교가 운영되고 있다.<sup>34)</sup> 또 경제적 기반은 분명치 않으나, 《大邱鄉校略史》에 의하면 융희 3년(1909)에는 畓 100石 3斗 5升落只·田 23石 落只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진 3-1〉

大邱 鄉校의 全景

그리고 최근에 대구지역에 편입된漆谷지역의 경우漆谷都護府의 府治가 있었던 지역이기에,漆谷鄉校가 있다. 이는漆谷都護府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加山山城의 중요성으로 인해 인조 18년(1640)에 신설되게 됨에 따라, 향교도 새로히 설치되었던 것 같다. 이의 구체적인 설치과정을 알 수 없으나, 邑誌에 의하면 府治의 북쪽 1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며 文廟, 明倫堂, 東西兩齋를 중심으로 여러 부속 건물들은 太學制度에 의거하였다고 한다. 또 생도는 교생 70명중 成人이 55명, 童蒙이 15명 이었다고 한다. 현재 칠곡 향교는 북구 邑内洞의

34) 김용만, 앞의 논문, pp. 24~27.

漆谷中學校 교정에 위치하고 있는데, 正面 3칸, 側面 3칸의 大成殿을 위시하여 明倫堂·東西兩廡·內三門 등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 II. 書院·祠宇와 鄉村書堂의 發展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7세기 이후의 사회는 朋黨간의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 봉당은 사림세력의 집권 이후 그들간의 정권장악을 위한 투쟁, 정권의 독점적 추구라는 정치행위의 진행과정에서 분화된 정치집단으로, 그들간의 지방별 이해관계, 학문상의 견해, 時勢觀 등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하므로서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대립은 당쟁이라고 불려졌는데, 이의 궁극 목표는 정권을 장악하는데 있었다. 정권을 잡기위해 상호간에 벌린 논쟁은 날로 모순이 노정되기 시작하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대개 名分에 사로잡힌 정치이념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禮訟이라고 불리는 服制問題를 두고 3年服과 暮年服을 중심으로 다툰 것이 그것이고, 이것은 당시 동요되고 있던 사회개혁에는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명분에만 치우친 대립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淸華要職을 지냈거나 道學的으로 이름난 祖上을 내세워 자신들의 門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양반들이 향촌에 군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간의 유대관계가 깊어야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중에서 현달한 사람을 모시는 서원·사우를 중시하여 갔으며 이 서원·사우를 중심으로 하여 가문의 성세를 과시함과 동시에 일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宗族 사이의 친목과 宗族意識을 다짐으로써 상호 결속과 유대를 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후손들에 의해 서원·사우가 설립된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도 설립 주체는 여러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수는 아니나 국가나 지방관에 의해 설립된 경우도 있었으며, 사람이라는 이름하에 門人이나 鄉人에 의해 설립된 경우도 많았다. 특히 門人에 의해 설립된 서원·사우는 도학적 정통 여부가 집권의 명분을 제공하고 사림의 公論이 政論의 시비를 좌우하던 朋黨정치 아래서 師說을 견지하고 이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곧 자기학과 즉 자기 당파의 학문적 정통성 및 입조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學派의 先師나 黨人을 현양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반 사림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명목이 서원·사우 건립의 주된 요인이었다. 한편 인적 학적 관계가 별로 없는 단순히 향인에 의해 설립된 서원·사우도 있었으니 이것은 門閥家의 高官을 祭享하고 이를 통해 門閥家와 긴밀한 유대를 맺어 그 세력을 배경으로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7세기 서원·사우가 증설되게 된 배경을 양반 상호간의 결속이 당쟁에서 중요하였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서원 기능의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그 기능면에서 긍정적인 면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서원의 주 기능이 인재의 양성에 있는 만큼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많은 典籍을 비치하여 향촌에 있어서 도서관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典籍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35)</sup> 또 양반 사회의 동요하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질서체제가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배층은 이런 제반의 모순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양반층의 우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書院·祠宇의 설립은 후자의 입장에 근거를 둔 지배층의 움직임으로 볼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까지 서원의 숫적 증가는 현저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병폐가 조정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인조·현종년간의 服制논쟁에서 보이듯이 논쟁의 초점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고 있어 서원은 그 논리적 토대의 심화와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장소로서 기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장생·김집·송시열·송준길 등이나, 정경세·허목·윤휴 등의 각 봉당의 영수급 인물들도 서원을 중심으로 왕성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여 학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였다.

이 시기는 이상과 같은 서원의 양적인 측면의 발전외에도 기능의 확대라는 면에서 발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곧 이 시기에 이르면 서원은 단순한 사림의 교학기구이자 선현제향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강학 활동을 매개로 향촌 사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聚會所로서의 구실과 향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향촌운영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란과 호란의 시기에는 향촌방어를 위한 의병활동의 발의와 조직에 거점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향풍 문란자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사설 교육 기관 내지 敎化 기관으로는 書院·書齋·精舍·鄉賢祠·鄉祠·祠·里祠·影堂·別廟·世德祠·遺愛祠·生祠堂 등이 있었고 그것들은 흔히 書院·祠宇로 통칭되고 있었다. 원래 서원은 설립 목적이 인재의 양성에 있었고 부차적으로 祠賢의 기능을 지니고

35) 정조 20년(1796)에 徐有渠가 편찬한 鍾板考에 따르면 전국의 서원·사우에서 총 167종의 각종 서적을 刻板 印出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文集이 107종, 傳記類 26종, 儒教類 16종, 經書類가 15종으로 文集類가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특히 경상도에 속한 서원·사우에서 출판된 서적이 전체 167종 가운데 123종으로 간행하여 타 서원을 훨씬 상회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李春熙, 〈朝鮮朝의 敎育文庫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논문).

있었다. 이에 비해 祠宇는 祠賢과 風化만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었다.<sup>36)</sup> 그러나 17·8세기를 지나면서 그 기능면에서의 차이점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 원인은 첫째, 서원·사우에 奉祠하는 인물에 구별이 없었다는 점, 둘째, 서원의 기능이 점차 변화하여 교육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祠賢爲主로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37)</sup>

조선시대에 설립된 전국의 서원·사우는 대체로 17세기 이전 건립이 113개소이고, 광해군(1608~1623)에서 정조(1776~1800)까지의 17·8세기에 건립된 수는 724개소(전체의 약 82%)에 이르며 賜額된 곳은 242개소(전체의 약 90%)에 이른다. 그리고 19세기 순조(1800~1834) 이후는 4개소(賜額 3개소)만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17·8세기에 서원·사우의 대부분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8세기에 건립된 724개소의 서원 사우 가운데 도별 분포는 경상도 257개소(35%), 전라도 142개소(20%), 충청도 101개소(14%)의 순이다. 한편 賜額書院과 사우에 있어서도 전체 242개소 가운데 경상도 55개소(23%), 경기도 42개소(17%), 충청도 39개소(16%), 전라도 38개소(1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一邑에 7·8개소의 서원·사우가 설립되어 있었던 셈인데, 대구지역에 속한 서원·사우는 24개에 달했다(孤山지역 1개 포함). 영조 33년(1757)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대구지역에는 研慶·洛濱·伊江·龜巖·南崗·淸湖·孤山 등의 7개 서원과 表忠·尚德·百源·德洞 등의 4개 사우가 있었다. 그후 백원·덕동 등의 사우가 서원으로 개편 발전하는 동시에 并巖·琴巖·柳湖·鹿洞·玉溪·西山·西溪 등의 많은 서원이 차례로 설립되게 되었는데, 이들 서원과 사우에는 제향하는 인물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를 조선왕조 말기에 편찬된 《경상도읍지》를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表 3-2>와 같다.<sup>38)</sup>

<表 3-2> 朝鮮後期 大邱地域 書院과 祠宇

書院·祠宇名	建立年代	配享人物	賜額年代	備 考
研慶書院	1563년 (명종18)	李 滉 鄭 述 鄭 經世	1660년 (현종1)	道學의 正統 人物 및 名宦을 제향
孤山書院	1573년 (선조5)	李 滉 鄭 經世		道學의 正統 人物 및 名宦을 제향

36) 鄭萬祚,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한국사론》 2, p. 215.

37) 鄭萬祚, 위의 논문, p. 220.

38) 이들은 조선후기에 대구부의 관할내에 있었지만, 현재 달성군 청도군에 위치하는 것도 있다. 또 孤山書院은 조선후기에는 慶山縣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최근 고산지역이 대구시 관할내에 편입되었다.

書院・祠宇名	建立年代	配享人物	賜額年代	備 考
伊江書院	1639년 (인조17)	徐 思 遠		대구지역 출신 인물을 제향
龜巖書院	1675년 (숙종1)	徐 沈 徐 居 正 徐 嶸 徐 渚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洛濱書院	1679년 (숙종5)	朴 彭 年 成 三 問 河 緯 之 李 埴 堉 柳 誠 源 俞 應 孚	1694년 (숙종20)	朴彭年の 연고에 따른 死六臣을 제향 (현재 달성군 위치)
百源書院	1692년 (숙종18)	徐 時 立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淸湖書院	1694년 (숙종20)	孫 處 訥 柳 時 藩 鄭 好 仁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南崗書院	1694년 (숙종20)	朴 漢 柱 朴 壽 春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현재 청도군 위치)
龍崗書院	1696년 (숙종22)	許 得 良 許 復 良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淸白書院	1701년 (숙종27)	李 榮 鄭 守 忠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德洞書院	1708년 (숙종34)	禹 玄 寶 禹 拜 善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龍湖書院	1708년 (숙종34)	都 星 俞 都 汝 俞 都 愼 修		대구지역 출신의 인물을 제향 (현재 달성군 위치)
梧川書院	1744년 (영조20)	楊 熙 止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屏巖書院	1764년 (영조40)	都 應 俞 都 慶 俞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書院·祠宇名	建立年代	配享人物	賜額年代	備 考
琴巖書院	1764년 (영조40)	鄭 師 哲 鄭 光 天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현재 달성군 위치)
柳湖書院	1784년 (정조8)	郭 再 謙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鹿洞書院	1791년 (정조15)	金 忠 善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현재 달성군 위치)
玉溪書院	1798년 (정조22)	徐 均 衡 徐 忭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西山書院	1824년 (순조24)	蔡 貴 河 蔡 先 修 등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西溪書院	시기불명	李 文 和 李 軾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表 忠 祠	1670년 (현종11)	申 崇 謙 金 樂 申 吉 元		대구지역에서 戰功이 있는 인물 및 그의 후예를 제향
尚 德 祠	1682년 (숙종8)	李 翺 俞 拓 基		대구지역의 名宦을 제향
平 川 祠	1777년 (정조1)	崔 認 崔 誠 등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鳳 巖 祠	1799년 (정조23)	孫 邁		대구지역의 출신 인물을 제향

〈表 3-2〉에서 나타난 인물들 중 研慶, 孤山 등의 서원에 제향된 李滉·鄭述·鄭經世 등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서원·사우에 제향되었던 인물로서 모두 당시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다. 그외의 인물은 대부분이 대구지역과 지연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련이 깊은 사람이고, 명환으로 이름이 높은 경우는 1개소 이다. 舊韓末에 만들어진 《대구읍지》의 〈大邱府事例〉에 의하면, 이들 서원 중 賜額을 받았던 서원은 研經·表忠·洛濱 등의 3서원이었다고 한 점을 보아,<sup>39)</sup> 대구지역에 설립된 서원과 사우의 경우는 조선후기에 남설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39) 이중 表忠祠는 조선왕조 후기의 어느 시기에 서원으로 전환하였던 것 같은데, 이들 賜額書院은 院生이 20명, 下典이 10명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서원·사우의 濫設·濫享은 당쟁의 격화에 기인된 바 컸다. 더 이상 서원과 사우는 학연의 확대를 위한 장소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정쟁에 희생된 자기당파 인물에 대한 신원의 뜻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또한 붕당정치의 상호공존원리가 붕괴하게 되자, 당파의 외면적인 확대를 위해 서원조직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서원·사우의 남설과 사액의 남발이 더욱 촉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서원·사우 남설의 요인으로서 17세기 이래 점차 강화되어 온 동족 내지가문의식의 팽배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후손에 의한 조상제향 내지 족적 기반의 중심지로서 서원·사우가 남설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원·사우의 남설과 사회적 폐단의 초래는 서원·사우 무용론을 대두시켰고, 나아가 이들의 훼손을 가져오게 하였다. 17세기 중엽 이래 간헐적으로 제기된 서원·사우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sup>40)</sup> 적극적인 통제로까지 발전하였다. 18세기 초에는 서원·사우의 설립을 금하는 금령이 내려지기도 하였고, 숙종 38년(1712)에는 남설을 엄금하는 한편 사액이 내리지 않을 것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는 17년(1741)에 서원 철폐를 단행하였다. 탕평책의 실시를 내세우면서 19개의 서원을 비롯한 173개의 사우를 훼손하였던 것이다. 세도정치기에도 한두차례의 서원 훼손의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고종 1년(1864) 흥선대원군은 민폐문제를 명분으로 전국에 47개소의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리를 단행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온 서원·사우를 훼손하였다. 당시 잔존한 서원을 도별로 보면 경상도가 1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12, 충청·평안도가 각각 5, 황해도 4, 전라·강원도가 각각 3, 함경도가 1곳이었다. 이때 대구지역의 서원과 사우들은 모두 철폐되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대한 방침이 후퇴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復設되었다.

한편 서원의 書堂的 機能의 退化에 대신하여 17세기경부터는 鄉村書堂이 활발하게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향촌에 개설된 이 書堂이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난것은 아니고 이미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私設 교육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등장하게 된 것은 16세기 이래의 일이었다. 곧 이 시기 이래 향촌 사회에 근거를 둔 사족과 백성들이 말단 향촌 사회인 面·洞·里를 기본 단위로하여, 초중등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서당을 광범위하게 설립하였다. 사림파적 성향을 지닌 사족들은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정착시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對鄉村施策을 마련하였다.

40) 인조 22년(1644) 8월의 慶尙監使 林潭의 書院禁設에 대한 狀啓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仁祖實錄》 권 45, 22년 8월 기미).



〈사진 3-2〉

龜巖書院의 全景

향약보급운동은 그 가운데 현저한 예가 되거니와 이러한 사림파의 대향촌시책 가운데 서당의 설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향촌민들의 일체감을 이끌어 내고 성리학적 질서를 보다 쉽게 정착시킬 목적으로 각지에 서당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서당을 통해 사림파는 官權 및 외부 사림파의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향촌민을 대상으로 講會를 열고 賞罰을 시행하기도 하여 향촌 기반 구축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유력 재지사족들은 향촌에 서당을 설립하고 서당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당은 고급 性理書를 위주로 교육하거나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高第의 書堂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18세기 이래의 전형적인 서당교육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7세기의 서당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士族만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서당의 성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특징적 현상들은 非士族 중심의 서당경영·서당교재의 출현·殘班層의 書堂 訓長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또 하나의 현저한 양상으로 同族部落이 서당의 설립과 운영에 주도 세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족부락은 서당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花樹會를 이용하거나 書堂守護節目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동족부락의 관심과 후원하에 서당은 전국 각지의 말단 향촌단위에 설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룬 평민층도 書堂契등을 통해 서당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당은 조선 후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중적인 사설교육기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당은 19세기 말 이래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맞았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전통 서당에 대신하는 개량 서당이 등장되기도 하였지만, 민족 운동의 근거지로 지목되어 1918년에 발표된 〈書堂規則〉에 의해 거의 소멸되고 해방에 이르기 까지 잔명을 유지하는데 불과한 수준으로 되고 말았다.

서당은 사립의 초등기관으로서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제약이 없었고, 커다란 경제적 기반을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존폐가 자유로워 뜻있는 사람은 누구나 서당을 설립경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따를 때, 서당의 종류는 대략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sup>41)</sup>

1) 私塾 혹은 讀書堂 類型; 이는 대개 有力者가 그들의 子弟 교육을 위하여 訓長을 초빙하고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초빙된 훈장들은 대개 退官 官僚나 불우한 落榜居士로서 지식 정도나 경륜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私塾 형태의 서당에는 一門의 자제들이 “동냥공부”를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2) 洞契書堂의 類型; 이는 양반계층이나 有力 資產家の 門中에서 學契 혹은 學田을 조직·운영하면서 마을에다 서당을 짓고 그들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유형이다. 여기에서 學事를 담당하는 有司가 선출되어 훈장의 급여를 포함하는 경제적 관리를 맡았다. 이러한 洞契書堂은 때로는 문중의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며, 鄉風을 규찰하는 기구로서의 기능도 행사하였다. 훈장은 유량적 지식인이나 마을의 유식한 村老가 초빙 또는 선택되었으며, 대우는 양식과 쌀감, 의복 정도가 지급되는 수준이 보통이었다. 學田이나 學資에서 경제적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學童들은 별도의 학자금이 필요치 않았다.

3) 訓長의 自營書堂 類型; 이는 훈장 자신이 집에서 생계유지나 소일을 위하여 개설한 서당이다. 이는 高官이나 學者가 만년을 보내기 위해 개설하는 精舍와 같은 교육기관과는

41) 丁淳睦, 〈書堂〉《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세기 書堂研究》, 1985.

이에 비해 韓基彥은 향촌서당의 조직 형태에 따라 訓長自營書堂, 有志獨營書堂, 有志組合書堂, 村組合書堂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한국교육사》 pp. 146~147).

외형상 구별되기 어렵지만, 초보적 교육만을 맡은 초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4) 門中聯立書堂 類型; 이는 洞契書堂의 확대된 유형으로 지체가 비슷한 마을내지 문중이 연합하여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개설하는 고급 서당이다. 通婚圈에 있는 가문끼리 유대를 두텁게 하고 師門의 학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으며, 장소로는 書院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이 문중연립서당은 서당교육과 서원교육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원에 입학하기 전에 수학하는 양반사회 진출을 위한 예비학교적 성격을 지녔다.

서당의 인적 구성은 訓長·接長·學徒로 이루어 진다. 훈장은 몰락 양반층이거나 또는 신분적으로 상승한 신흥인텔리층이었을 것인데, 그 자격이 천차만별이었으며, 학식의 정도도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經史子集에 두루 통하는 수준은 드물었고,<sup>42)</sup>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처지는 상당히 열악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訓長想은 여러 자료에 보이듯이 멸시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接長은 대체로 助教와 같은 성격을 지닌 補助教師였다. 接이란 흔히 同級의 學徒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 바, 接長制度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당에서 학도 가운데 나이가 많고 경륜이 높은 자를 뽑아 다른 학도를 지도하도록 한데서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접장은 훈장에게서 교육을 받는 한편 하급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學徒는 연령상으로 대개 7,8세부터 15,16세 즉 향교 입학전의 아동이 보통이었으며, 30세를 넘는 만학자도 간혹 있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講讀, 製述, 習字의 세가지였다. 강독의 교재는 기초적인 童蒙教材인 《천자문》·《동몽선습》·《통감》·《사략》·《소학》·《사기》·《사서삼경》·《唐宋文》·《唐律》등이었다. 대체로 보아 교육수준은 위에 말한 고차적 서당을 제외하고는 初發 基礎的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위의 교과서 가운데 종래 일상생활의 규범만을 강요하는 형의 《소학》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저작된 朴世茂의 《동몽선습》이 채택된 것은 일대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몽선습》은 종래 中國史만을 주내용으로 하던 교과에 비하여 소략하나마 東亞史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싣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큰 것이다. 그 밖에도 조선후기에 이르면 丁若鏞의 저서인 《類合》·《兒學論》과 같은 책이 교재로 채택되어 종래의 《천자문》이 지니고 있던 난해성을, 《사략》이 지니고 있던 황당무계함과

42) 간혹 經史나 諸子百家書에 달통한 뛰어난 名儒가 지도하는 서당도 존재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서당과는 구별되는 高次的 교육기관으로서 그 대상 생도들도 범계급적이 아닌 지방별, 문벌별, 당색별로 폐쇄되어 있었다(李成茂, 〈朝鮮近世教育史研究書評〉 《한국사연구》 4).

가치판단의 혼란을, 《통감》이 지니고 있던 지리하고 양이 많아 흥미를 상실케 하던 점을 극복하는데 공헌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특히 《동몽선습》은 민족사의 학습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日帝強占期에 서당의 교과서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製述로는 5·7言絶句, 4律과 古風 18句詩의 作文이 주내용이었고, 習字는 楷書와 草書가 주내용이었다.

서당의 교수방법은 講이 주된 것인데, 講이란 배운 글을 소리높이 읽고 그 뜻을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背講과 面講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일률적이 아닌 학도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른 개별지도를 지향하였다. 곧 학도들의 재질에 맞도록 진도와 정도를 택하여 숙독하여 뜻을 알도록 하였으며, 쉽게 설명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예절의 습득과 같은 또 다른 교육을 위해 學規를 정하는 서당도 있었다.

여하튼 서당은 조선후기에 있어서 왕조 전체의 초등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교육기관이었으며, 서당의 훈장은 당시 농촌사회에 있어서 정신적 지도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서당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향촌의 저항세력을 영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서당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抵抗的 副次領域的 書堂’으로 그 성격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이 향촌서당이 당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적 의기의 함양을 주교육목표로 삼는 신교육기관의 모태가 되었거나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은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구한말에 있어서 향촌서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그 수가 25,000에 달하였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17세기 이후 향촌서당의 일반적 추세로 보아 부락마다 하나씩의 서당은 있었을 것이다.<sup>43)</sup> 그렇지만 대구지역의 서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그 명칭, 운영의 실태 등 서당교육과 관련된 실상을 알 수 없다. 다만 조선후기에 성행했던 서당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高弟的 書堂 혹은 兩班의 개인적 講學所였던 精舍로 여겨지는 것들이 소수로 남아 있다. 이들을 통해 대구지역 서당교육의 편린이나 마짐작해 보기 위하여, 몇 예를 소개하기로 한다.

①孤山書堂; 이는 수성구 고산 1동에 현존하고 있다. 이는 선조 5년(1573)에 창건된 것으로 李滉·鄭經世 등 道學에 정통한 인물 및 이 지역의 名宦을 제향한 서원이었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시에 훼손되었다. 고종 16년(1879) 이 지역의 유림들이 講堂을 새로 건립하여 孤

43) 渡部 學, 《近世朝鮮教育史研究》, 1969, p. 185.

山書堂으로 이름을 바꾸어 후진들의 양성소로 삼았다.

②盛才書堂；東區 美垆洞 169번지에 현존하고 있다. 이는 鄭述의 門人 蔡明甫(1574~1644)가 인조 5년(1627)경에 중앙에서의 仕宦을 마치고 향리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인재양성에 힘쓰기 위해 盛才亭이라는 精舍를 지은 것에 출발하였다. 이 精舍는 18세기 후반에 그의 후손인 蔡鎭國·榮國 형제에 의해 書堂으로 변모하였는데, 현재 正面4칸, 側面 2칸의 書堂과 부속 건물로 남아 있다.<sup>44)</sup>

③獨巖書堂；東區 鳳舞洞 223~3번지에 현존하고 있다. 이는 鳳舞洞일대에 世居하고 있는 慶州崔氏의 門中에서 고종 2년(1865)에 문중의 자제 및 인근 지역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하였다. 서당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 12호로 지정되어 있다.<sup>45)</sup>

④瞻栢堂；東區 坪廣洞 979번지에 현존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던 丹陽禹氏 門中에서 고종 33년(1896) 자제교육을 위해 설립하였다. 서당의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비교적 큰 건물로서, 현재 대구직할시 문화재자료 13호로 지정되어 있다.<sup>46)</sup>



〈사진 3-3〉

고산서당

44) 대구직할시, 《八公山》, 1987, pp. 427~432.

45) 위의 책, pp. 433~436.

46) 위의 책, pp. 452~457.

### 第3節 文藝의 새 傾向

#### I. 中人 및 庶民 文化의 發展

17·18세기에 크게 융성했던 실학의 비판적 조류는 문학에서도 새로운 형태로서 나타났다. 朴趾源의 《熱河日記》 속에 실린 〈許生傳〉·〈虎叱〉 등이나 《放謫閣外傳》이란 소설집에 실린 〈兩班傳〉·〈閔翁傳〉 등이 그 대표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일하지 않는 양반 유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문장도 종래의 꾸밈이 많은 문체를 벗어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시기에는 民間에서 傳承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漢文으로 옮겨 놓은 短篇小說들이 많이 나타난 것도 주목된다. 이들 소설은 下級身分層의 話題를 옮겨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 표현이 소박한 것이 특색이었다. 이들 소설 속에는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廣作農民·都賈商人 등의 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분 문제나, 혹은 애정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동요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소설집으로는 《東稗洛誦》·《靑邱野談》 등이 있다. 이와 함께 庶孽·中人·胥吏 신분 출신의 文人들이 나와서 詩社를 조직하고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의 시를 모아 시집을 편찬한 사실이 또한 주목된다.

또 이 시기의 문학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한글로 된 문학작품이 쏟아져나 온 사실이다. 용어가 한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도 소설이나 사설시조와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作家도 兩班으로부터 胥吏와 같은 下級身分 출신으로 변하였다. 이같은 변화는 요컨대 이들 문학작품이 양반이 아닌 새로운 독자층을 위한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한글 소설은 그 내용이 다양하였는데, 광해군 때에 許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洪吉童傳》은 庶孽差待를 비롯하여 貧富差別 등 사회적 모순을 통렬히 비판한 사회소설이었고, 《장화홍련전》·《심청전》·《흥부전》 등은 勸善懲惡의 소설이었다. 또, 《임진록》이나 《임경업전》 같은 군담 소설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읽혀진 것은 《옥루몽》·《숙향전》·《춘향전》 등의 애정소설이었다. 이러한 소설들의 내용에는 유교도덕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작가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 소설은 하급신분층의 숨김없는 감정이나 사회적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많았다. 당시의 소설 중에서 최고봉으로 불리는 《춘향전》은 상민이나 천민도 양반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설에서의 이러한 점들은 시조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전기의 시조는 短歌의

형식을 취하고 유교도덕이나 도피사상이나 武人의 호기를 읊은 양반문학이었으나, 조선후기의 그것은 하급신분층의 것이 되기도 하였다. 하층 신분층들은 단순한 감상적 기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조에 담고자 하여, 그 형식이 長詩로 변하고, 묘사는 사실성을 띠게 되었다. 素材도 변하여서 남녀간의 애정, 가정생활의 고민, 때로는 노골적으로 음란한 것까지가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조의 작가로는 영조 때의 金天澤·金壽長 등 胥吏 출신의 인물들 비롯하여, 몰락한 양반이나 妓女와 같은 하급신분 출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는 때로 작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과거의 인습의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17·18세기 실학의 전통을 이어서 19세기에는 새로운 학문적 발전이 이룩되었다. 이 시기의 학문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실학자들이 강조했던 당시의 현실이 직면한 문제들을 역사적 연구의 성과에 비추어서 해결해 보려는 바탕위에 이들의 종합적 정리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몰락한 兩班이나 中人 출신의 학자들이 크게 진출하여 그들의 사회적 처지를 반영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몰락한 양반출신인 崔漢綺는 철종 11년(1860)에 완성된 그의 저술인 《人政》속에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인재를 옳게 등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士·農·工·商의 구별 없이 인재를 뽑아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중인 출신의 崔瑄煥은 《顧問備略》에서 행정적인 실무를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여, 良人에 대한 강제 노력 동원인 力役을 임금제로 고친다든가, 혹은 税金을 金納化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都市 商工業者나 행정실무 담당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庶孽 출신들은 조선 후기에 嫡子和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許通運動을 전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영조 48년(1772) 경상도의 庶孽 儒生 金聖天 등 3,000 여명이 연명하여 靑衿錄에 올려줄 것을 건의한 것을 들 수 있다.<sup>47)</sup> 이와 함께 철종 9년(1858) 대구지역의 인사들이 達西精舍에서 모여 庶孽의 역사인 《葵史》를 편찬하여 서열에 대한 차별 대우의 철폐를 주장하였다(철종 10년, 1859). 또 鄉吏 출신의 李震興은 향리의 역사인 《掾曹龜鑑》을 편찬하여 향리가 양반과 그 혈통을 같이하며, 따라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헌종 12년, 1846). 또 중인 출신으로 流配되었던 趙熙龍의 《壺山外記》, 胥吏 출신인 劉在建의 《里鄉見聞錄》, 中人 출신인 李慶民의 《熙朝軼事》 등과 같은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正史에 오르지 못했지만 技藝나 德行이 뛰어난 인물들의 傳記가 많이 편찬되었다.

47) 《영조실록》 권 119, 48년 12월 무자.

이러한 전통적인 신분 사회를 극복하려고 한 서얼·중인들의 주장은 당시 사회의 새로운 변화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은 한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서얼·중인·서리들의 문학이 크게 대두되었다. 철종 8년(1857)에 劉在建 등에 의해서 《風謠三選》이 편집되었는데, 여기에는 종래의 양반지배체제 사회에서 도외시되어왔던 僧侶나 婦女子의 詩도 採集되어 있어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작가가 305명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류신분층의 문학자가 배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 18세기 이래 서울지역의 중인층에 의해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문학운동을 흔히 중인문학 혹은 위항문학이라고 부른다. 중인들은 여러 詩社를 맺고서 중인문학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風謠續選》을 편찬한 譯官 출신인 千壽慶 등의 玉溪詩社(松石園詩社)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존재이다.<sup>48)</sup> 이는 종래의 주자주의를 핵심으로 한 봉건적 여러 이념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서, 양반들이 독점하던 문화적 활동을 이제 중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인 문학 작가들은 대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생활 기반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상공업 발전과정에서 상업자본을 형성한 자들과 여기에 기생하여 중간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한 층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중인 문학이었기 때문에, 이는 기존 체제의 유지에 영합하는 면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면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sup>49)</sup>

또 국문학에 있어서도 판소리가 유행하여 크게 주목되는데, 이는 廣大가 聽衆을 상대로 長篇의 줄거리를 唱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판소리가 발생한 것은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에 크게 성하여, 宋興祿·牟興甲 등의 名唱이 등장하여 이의 전성시대를 연출하였다. 판소리의 사설은 고소설들을 창곡화하여 만들었으며, 이후 12마당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이 판소리 사설의 정리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申在孝인데, 그는 말귀를 실감이 나도록 고쳐서 독자적인 창의를 나타냈다. 이 판소리 사설에는 兩班에 대한 諷刺가 들어 있어서, 唱하는 廣大나 듣는 常民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에 대한 울분을 토로케 하였다. 그외 平民大衆을 상대로 하는 연예로서는 탈춤(假面劇)이 있었다. 춤과 노래와 사설이

48) 鄭玉子, 〈詩社를 통해 본 朝鮮末期 中人層〉《한우근정년기념논총》, 1981.

49)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90.

——, 〈중인문학〉《역사비평》 23, 1993.

섞여 진행되는 탈춤은 鄉吏 집단의 주도 하에 邑의 祭儀를 배경으로 발전한 것이다.<sup>50)</sup> 그러나 그 청중은 평민대중이었으므로 이것은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극중의 사설에는 대개 양반을 희롱하고 풍자하는 대목들이 끼어 있었다. 탈춤이 평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이러한 풍자 때문이었을 것이다. 탈춤은 대개 비직업적인 연예자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南寺黨牌라는 직업적인 유랑연예인들에 의해 전승되기도 하였다. 남사당패는 탈춤 이외에 농악·꼭두각시놀음·줄타기·땅재주·대접돌리기 등의 놀음을 하기도 하였다.<sup>51)</sup>

이상과 같은 조선 후기의 중인 및 서민 문화의 발전속에서 대구지역에서도 이 분야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지만 일정하게나마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앞에서 약간 언급되었는 철종 9년(1858) 達西精舍에서 역대 庶孽에 관계되는 사실을 모아 편찬된 《葵史》는 이 지역 서얼층의 활발한 진출을 단적으로 나타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권 2책의 활자본의 책으로, 책이름의 ‘葵’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데는 본가지나 곁가지가 다름이 없는 것 처럼, 庶孽의 충성도 嫡子와 다를 바 없다”는 뜻으로 庶孽層의 형편을 상승시키려는 뜻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의 내용은 서얼 관계의 사실을 왕조순으로 서술하여, 서얼 禁錮, 서얼의 仕路 문제, 七庶의 獄과 관련된 庶類의 動向, 服制 문제, 庶孽疏通節目, 서얼과 관련된 上訴, 서얼출신으로 이름이 높은 65명의 傳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민 문화로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서민들의 민속활동으로는 孤山農樂, 날피북춤, 서촌 상여소리가 있었다. 먼저 孤山農樂은 수성구 내환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악(매구, 풍물)으로, 이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上堂, 中堂, 下堂에서 洞祭를 지내왔는데, 이 洞祭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이의 특징은 自然村인 里의 주민만으로 구성되어, 고유의 전통적 美를 잃지 않고 농악본연의 소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큰 고깔 모양이나, 乞粒 형태 등이 특징적이며, 이의 演行(놀이) 가운데 〈닭쫓기〉는 다른 지역 농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다. 樂器의 편성은 쇠2, 징 4, 북 8, 법고 12로 구성되어 있고, 쇠가락은 소박하지만 다양한데, 연행 과정은 길매구, 정적궁이(덩덕궁이), 들석(진굿), 춤굿, 닭쫓기, 방석말이(오방굿), 모내기굿, 법고놀이, 뒷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sup>52)</sup>

50)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1990.

\_\_\_\_\_, 〈탈춤〉 《역사비평》 23, 1993.

51) 심우성, 〈남사당패〉 《역사비평》 23, 1993.

52) 대구직할시, 《문화재도록》, 1987, p. 98.



날피북춤은 서구 비산동의 원고개 일대에서 飛山農樂과 함께 유행했던 것으로, 북숨씨가 두드리진 춤이다. 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원고개는 조선조이래 守畝들의 行次 通路였는데, 守畝의 행차가 이곳에 도착하면 이를 환영하기 위해 날피북춤을 演行하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과거 어느 시기에 이 지역에 크게 惠政을 베풀었던 守畝가 殉職하자, 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봄·가을로 祭享을 하면서 북을 울리고 춤을 춤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이 날피 춤사위는 경상도 특유의 덩배기 가락이 기본이 되어 있으며, 악기의 편성은 북 12, 장고 1, 징 1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 연행 순서는 정적궁이, 반직굿(자반드기), 옆어빠기굿, 다드레기굿, 허허굿(강강술래굿), 모듬굿, 살풀이굿, 덧배기굿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다.<sup>53)</sup>

서촌 상여소리는 동구 공산동의 서촌 일대 12개의 자연촌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행상소리이다. 서촌 일대의 자연촌은 지역적으로 파계사의 남쪽에 위치한 寺下村으로, 농업을 주산업으로 영위해 오고 있었다. 서촌상여소리는 서촌의 상포계에서 모인 32명의 상두꾼들이 出喪, 下棺, 封墳 등의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로서, 각 과정에 따라 가락과 사설이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sup>54)</sup>



〈사진 3-4〉

고산농악

53) 위의 책, p. 100.

대구직할시, 《팔공산》 속집, pp. 490~495.

54)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직할시, 〈대구서촌상여소리〉(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3을 참조할 것.

## II. 美術의 새로운 樣相

조선후기 미술의 발전은 건축, 도자기, 목칠과 금속공예, 불교미술, 민예나 민속미술 등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회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주목되는 점은 직접 조선의 산천과 생활상을 대상으로 한 진경산수화나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아울러서 사실묘사를 중시한 초상화와 동물화, 생활장식 그림인 민화, 중국 도상을 소화한 남종산수화와 도석, 고사인물화, 그리고 불교회화까지 민족회화로서 조선적 형식을 다져낸 것이다.

眞景山水畫는 종래와 같이 中國에서 만들어진 《고씨역대명인화보》·《개자원화전》 등과 같은 畫譜를 바탕으로 하여 理想郷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조선의 산천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眞景山水畫를 개척한 畫家は 18세기의 인물인 鄭敼이었다. 그는 진경산수화를 그림에 따라서 독자적인 구도를 모색하였고, 또 바위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강렬한 墨色으로 塊量感 있게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 작품으로는 〈仁王霽色圖〉·〈金剛全圖〉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같은 진경산수화라도 鄭敼과 같은 시기의 인물인 金弘道는 산수화·풍속화·고사인물도·도석인물화·화조·영모화·사군자 등을 두루 섭렵하였고, 타고난 예술가 자질과 자유자재의 표현력을 구사하여 조선후기 회화를 집약한 인물이다. 그는 나무·산·물 등을 筆線으로 線美感 있게 그려서 鄭敼과는 대조적인 특색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叢石亭圖〉가 있다.

이 시대 회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俗畫의 유행이었다. 市井의 日常生活을 주로 그린 俗畫의 대가로는 김홍도와 申潤福이 가장 대표적이다. 김홍도는 山水·神仙·花卉 등도 잘 그렸으나, 俗畫로 보다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風俗畫帖〉에는 발가는 광경, 추수하는 모양, 대장간의 풍경 등 노동하는 사람들의 日常風俗이 주로 畫題가 되었는데, 특히 〈舞樂〉과 〈씨름〉이 유명하다. 신윤복은 같은 俗畫라도 婦女子와 妓房風俗을 중심으로 한 人物俗畫를 주로 그렸는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女人圖〉와 〈風俗畫帖〉이다. 이들 화첩 속에는 그네뛰는 아낙네, 빨래하는 부인들, 술파는 여자, 희롱하는 난봉장이 등 色情的인 場面들이 화사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이같은 속화의 유행은 양반의 유교주의에 대한 예술면에서의 항의였고 인간주의의 표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55)</sup>

공예면에서는 먼저 磁器 제작에 있어서 靑華白磁가 발달한 것이 주목된다. 조선초기에는

55) 이태호, 〈회화〉 《역사비평》 23, 1993.

회회靑이라는 靑色顔料를 중국에서 수입해왔기에 靑華白磁는 매우 귀하였고, 민간에서는 이의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顔料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청화백자가 크게 발달하여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푸른 색만을 써서 山水·花鳥·草木 등을 붓으로 그려서 구운 이 청화백자에는 한국적인 소박한 詩的 感覺이 깃들여 있다.

또 木工藝도 조선후기에 크게 발전하였는데, 당시에 만들어진 장롱·궤·경대·문갑·탁자·책상·소반 등의 여러 가지 家具는 나무의 무늬를 살려서 소박하고 아담한 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竹工藝品·華角工藝品·螺鈿漆器 등도 종래의 그것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미술의 새로운 양상속에서 대구지역의 형편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정리된 것이 없어 앞으로의 연구가 요청된다. 단지 그중에서 불교회화에 관한 내용이 극히 부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후기의 불화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되어 갔는데, 이는 전란을 통해 대부분의 사찰이 불타면서 불화도 불타거나 약탈된 결과 새로이 제작되어, 당시의 시대적 풍조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불화의 제작은 주로 18세기 이후의 사원의 중창·중수 등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화풍은 構圖·형태·선·색 등에 있어서 앞 시기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중 구도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2단 구도와는 달리 단일 구도가 완전히 정착을 보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桐華寺 極樂殿 後佛 幀畵인 阿彌陀極樂會上圖(숙종 25, 1699년 제작, 현재 동화사에 소장)·金堂의 阿彌陀極樂會上圖(숙종 29, 1703년 제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阿彌陀極樂會上圖(고종 24, 1887년 제작, 현재 동화사에 소장)를 들 수 있다. 이중 極樂殿 後佛 幀畵는 本尊佛을 중심으로 菩薩무리(菩薩衆)와 聲聞무리(聲聞衆)·弟子·다른 세계의 여러 부처(他方佛)들이 둘러싸고 이들의 앞뒤나 왼쪽과 오른쪽에 제석·범천·사천왕·팔부중 같은 천부중들이 호위하고 있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 조선 후기 불화 구도의 전형적인 예로 유명하다.<sup>56)</sup>

56) 문명대, 《한국의 불화》, 1976.

한국정신문화원, 《조선조 불화의 연구》, 1985.

## 第4節 宗教界의 變化

### I. 佛敎界의 變化

조선시대 佛敎敎團은 儒學至上主義의 국가체제하에서 생존의 차원에서 지배세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국가권력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다. 이는 崇儒抑佛政策에 의한 것으로 불교사원의 경제적 기반의 박탈, 사원과 승려수의 삭감, 불교의식의 폐지 등의 조치로 인해 불교계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57)</sup> 이러한 형편하에 불교계의 변천은 국초에서 성종대까지의 公認된 종교였던 시기의 제1단계, 공인된 종교는 아니지만 敎法이 쇠퇴하지 않고 高僧·大德이 배출된 연산군 대에서 인조대까지의 제2단계, 그리고 敎勢가 크게 쇠퇴하고 사회계급제도가 엄하게 되어 승려가 경멸시되어 寺刹은 있지만 佛法이 융성하지 못한 효종대 이후의 제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8)</sup> 이처럼 조선시대의 불교는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었고, 그중 조선후기는 쇠퇴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쇠퇴적인 분위기만으로 불교가 지니는 祈福的인 종교적 생명력이 말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고려시대 이래 불교는 민중의 정신과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서민대중의 비호가 여전하였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 비록 많은 수의 사찰이 廢寺가 되기도 하였지만, 1911년 조선총독부의 <寺刹令>에 나타난 것처럼 30本寺 및 그 이하의 수 많은 末寺로 전국적인 분포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불교종파는 국초에 10여개의 宗派가 있었으나 그후 7宗 224寺로, 다시 禪敎 兩宗 36寺로 정리되었다가 마침내는 宗名이나 宗旨가 없는 通佛敎的인 敎團으로 되어 버렸다. 이것은 종단자체 내의 사상적 변천에 의한 종파수의 변천이 아니라 排佛政策의 일환인 사원경제의 축소책으로 官權에 의한 통합이었으므로 교단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사상적 다양성도 단순화되고 말았다. 法脈上으로는 禪宗의 성격이 강하였던 데 반하여 실제의 활동면으로 보면 敎宗의 성격이 농후한 범불교적 교단으로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승려는 그 사회적인 대우에 있어서 대체로 賤人視되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사회의 냉대는

57) 權延雄, <世祖代의 佛敎政策> 《진단학보》 75, 1993.

58) 이하 불교사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高橋 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金煥泰, <한국불교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0.

張東翼, <불교의 쇠퇴와 신흥종교의 대두> 《경상북도사》, 1983.

더욱 심해갔다. 顯宗 1년(1660)에는 양민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였고, 영조 25년(1749)에는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正祖는 불교를 옹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祈福의 신앙이었을 뿐이다. 승려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연히 더욱 은둔적 체념적인 길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주위에 실리적으로 대처하여 이익을 보려는 방향을 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參禪·念佛·看經 등 학구적이고 수련적인 자세를 갖는 승려(理判僧)와 그와는 달리 사찰의 현실적인 업무면에 열중하는 승려(事判僧)으로 나뉘기도 했으나, 학문·사상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별로 없었다.

僧職은 국가에 의해 초기에 禪敎 兩宗의 判事를 둔 일이 있었으나 곧 폐지되었고, 임진왜란시의 義僧大將이었던 西山大師 休靜을 都摠攝에 임명하여 築城 및 守城을 담당하게 하면서 부터 都摠攝제도가 생겼다. 그후 도총섭은 6명으로 늘어났고, 그외에 實錄의 守護를 위한 摠攝을 위시한 8인 이상의 摠攝이 생겨났다. 그리고 僧風을 바로 잡기 위한 僧風糾正所가 주요 사찰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불교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갑오경장과 더불어 여러 방면의 개혁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승려들의 入城禁止令이 해제되는 고종 32년(1895) 부터이다. 光武 3년(1899)에는 서울에 元興寺를 창건하여 전국의 首寺刹로 삼고 각도에도 首寺를 두어 국가에서 불교교단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그 관리 임무를 담당하던 국가기관은 宮内部소속의 管理署였는데 寺刹管理細則 36조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首寺刹인 원흥사에는 左敎正·右敎正 등을, 전국 16개의 首寺에는 道敎正·副敎正 등을, 각 지역의 사찰에는 佳職·監院·書記·知賓 등의 僧職을 두었다. 그 5년후인 광무 8년(1904)에는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교교단과 사찰의 관리사무는 궁 내부에서 内部官房으로, 다시 内部地方局으로 이양되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교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자, 승려들이 스스로 교단의 중흥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일본제국주의 침입이 모든 부분에 걸쳐 있었는데, 불교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에 편승한 日本僧들이 元興寺를 빌려 그들의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였다.<sup>59)</sup>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승 寶玉이 건너와 각 사찰의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승 玄某가 이에 동조하기도 하였다.<sup>60)</sup> 또 이 시기에 일본이 각 사찰의 주지를 일본승으로 임명하여 각종 사무를 감독한다는 설이 유포되기도 하여 불교계의 동요가 심하게 일어나기도

59)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4일 잡보.

60) 위의 자료, 1906년 10월 30일 잡보.

하였다.<sup>61)</sup> 이러한 추세하에서 일부 승려들이 일본의 曹洞宗과의 聯合條約을 체결함으로써 민족불교를 말살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韓龍雲·朴漢永 등은 松廣寺를 중심으로 臨濟宗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11년 6월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반포된 寺刹令 7條와 施行細則 8條에 의해 우리의 불교교단 전체가 조선총독부의 지배하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대구지역 불교계의 변화도 위와 같은 불교계의 일반적인 실태하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대구지역내에 어떤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기록이 없고, 단지 읍지를 통해 그 대체적인 형편을 엿볼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桐華寺; 대구 府治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팔공산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초 이래의 건물은 대부분이 없어지고, 조선후기에는 僧堂·藥師殿·觀音殿·斗月寮·水月堂·濯浴室·西別堂 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또 《동화사사적기》에 의하면, 선조 40년(1606)에 松雲大師 惟政(1544~1610)이 임진왜란시에 불탄 건물을 重修한 이래, 숙종 3년(1677) 尙彔에 의한 중수, 영조 1년(1725) 碩德에 의한 중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는 대구 仁興村(현재의 花園) 출신으로 桐華寺龍淵寺 등에 주로 머물면서 禪風을 크게 떨쳤던 仁嶽大師 義沾(1746~1796)의 塔碑가 순조 8년(1808)에 건립되기도 하였다.<sup>62)</sup> 그리고 고종 17년(1880) 10월에는 정부가 이 사찰이 翼宗의 香炭 및 造泡寺라는 명목으로 건물의 전반적인 重修를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해 空名帖 500張을 발행하기도 하였다.<sup>63)</sup>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 광무 3년(1899)의 사원제도 개편때에는 동화사가 경상도의 首寺刹로 되었던 점을 보아, 이는 대구부와 가까워 유력한 지주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寺勢가 비교적 좋았으리라 추측된다. 한편 영조 29년(1753)에는 이곳에서 부처가 祇園精舍에서 弟子·菩薩·大衆 등에게 阿彌陀佛의 功德과 그가 이룬 極樂세계의 莊嚴을 설법하고 往生을 위하여 열심히 수도할 것을 내용으로 한 《佛說阿彌陀經》이 간행되기도 하였다.<sup>64)</sup>

龍淵寺; 府治에서 남쪽으로 50리에 떨어진 琵琶山麓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로는 含虛堂·流堂 등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초 이래 웅장했던 건물이 임진왜란시에 불타버리자 松雲大師 惟政이

61) 앞의 자료, 1907년 10월 2일 잡보.

62) 《조선금석총람》하, pp. 1263~1264 〈桐華寺仁嶽大師碑〉.

63) 《고종실록》 권 17, 17년 10월 10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정부는 釋王寺·回龍寺·新院寺 등의 重修를 위해 자주 空名帖을 발행하였다.

64) 崔銀圭, 〈阿彌陀經諺解題〉《서지학보》 10, 1993.

이를 20여채의 건물로 복원하였으나, 효종 1년(1650)에 다시 불타버렸다. 이에 默哲·昭雨 등의 승려가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의 富裕層의 募捐과 貧民層의 노동력 제공을 바탕으로 寶殿·兩廡·食堂·鐘閣·觀音殿·冥府殿 등을 차례로 건립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重修碑를 경종 2년(1722)에 건립하였다.<sup>65)</sup> 또 현종 14년(1673)에는 廣憲·廣倫 등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浮屠를 건립하고, 그 3년후인 숙종 2년(1676)에는 浮屠塔碑를 건립하기도 하였다.<sup>66)</sup>

湧泉寺; 府治에서 남쪽으로 50리에 떨어진 琵琶山麓에 위치해 있으며, 玉泉寺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초 이래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水月寮 한채만 있었다.

雲興寺; 府治에서 남쪽으로 30리에 떨어진 最頂山에 위치해 있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다.

夫仁寺; 府治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팔공산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초 이래의 건물은 대부분이 없어지고, 조선후기에는 桐華寺에 예속된 암자였다.

把溪寺; 府治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팔공산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후기 왕실의 願堂으로서 寺勢가 비교적 융성하였다. 숙종·영조·정조 등의 御筆이 御筆閣에 보존되어 있었고, 說禪堂(인조 1, 1623년 건립)·寂默堂·彌陀殿(인조 4년 건립)·白花樓(현종 6, 1667년 건립) 등의 건물이 있었다. 또 이 사찰에는 영조 16년(1740)경 영조가 입었던 道袍가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대구 중요민속자료 220호로 지정되어 있다.

南地藏寺; 府治에서 남쪽으로 30리에 떨어진 最頂山에 위치해 있었으나, 僧堂만이 있었다.

北地藏寺; 府治에서 북쪽으로 50리 떨어진 팔공산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초 이래의 건물은 대부분이 없어지고, 조선후기에는 암자로서 桐華寺에 예속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多包樣式의 대웅전은 인조 1년(1623), 현종 6년(1665)의 2차례에 걸쳐 重修되었다고 한다.

그외에 臺山寺·隱迹庵·鞭羊庵 등의 사찰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구한말의 상황은 1911년에 반포된 사찰령에 의해 인가된 경상북도내에 위치한 桐華寺(대구)·銀海寺(영천)·孤雲寺(의성)·金龍寺(문경)·祇林寺(경주) 등의 5大本寺와 末寺의 상황을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대구지역의 여러 사찰은 桐華寺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동화사 자체의 山内末寺에는 金堂庵·浮圖庵·内院庵·養眞庵·念佛庵 등의 암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동화사에 인근한 팔공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외 山外末寺로는 오늘날 대구지역내에 편입되어 있는 北地藏寺·夫仁寺·林休寺·安逸庵·隱跡庵·雲興寺·觀香庵(당시

65) 《조선금석총람》 하, pp. 1097~1099 〈龍淵寺重修碑〉

66) 위의 책, pp. 948~949 〈龍淵寺釋迦如來浮屠碑〉

달성군내에 위치) 등이 있었고, 인근지역인 칠곡군·김천군·군위군·의성군·경산군·청도군·성주군 등에 위치한 사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모의 불교교단의 유지는 오직 유력한 신도의 후원에 의해 지탱되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각 사원에 얼마나 많은 승려와 신도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1920년도에는 신도수가 21,068명이 있었던 것을<sup>67)</sup> 참조하면 대체적인 형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물론 양반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中人이하의 계층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양반의 경우는 대개 부녀자가 아니면 新興兩班 곧 庶民層으로부터 신분상승한 부류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던 만큼 그들이 신도일 경우 교단에 대한 기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전조된지 오랜 사찰의 고건물들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重修되었다는 사실에서 짐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신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을 것이다.

## II. 天主教의 傳來와 定着

天主教가 西學의 이름으로 들어온 곳은 우리나라의 使臣團들이 明에 와 있던 宣教師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터이다. 광해군때 李수光이 그의 저서 《芝峯類說》에서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天主實義》를 소개한 바 있고, 그후 淸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청을 통해 서양 문물 및 천주교에 대한 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 곧 인조 9년(1631) 鄭斗源이 선교사로부터 火砲·千里鏡·時計 등 과학기계와 서적을 받아 가지고 귀국하였고, 昭顯世子도 아담살과 교류하면서 數學 天主教의 書籍·救世主像을 가지고 귀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천주교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을 뿐,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비판적인 關異論이 강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말엽에 이르러 李蘊·權日身·李家煥·丁若鍾·丁若鏞 등과 같은 南人學者들에 의해 하나의 종교적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여러차례의 講學會와 典禮儀式을 통하여 천주교를 학문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 정조 7년(1783) 李承薰은 사신으로 淸에 파견된 아버지를 수행하여 北京에 갔을 때, 자주 천주교 신부를 찾아 敎理를 배우다가 예수회(Society of Jesus) 신부 梁棟材(de Grammont)에게서 洗禮를 받은 다음 聖書·聖像·聖牌 등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천주교는 새로운 발전을

67) 慶尙北道 警察部編, 《高等警察要史》 p. 335, 1934.



보게 되었으니, 서울의 金範禹 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信者가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신자들은 양반, 중인 그리고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장벽이 없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중인층을 위시한 부녀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평등한 天主의 子女라는 데에서 계급적·사회적 이질성을 사상적으로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천주교 신자들은 선교사들의 전도에 의해서 보다는 청으로 부터 수용된 《天學初函》등의 서적을 읽고서 자발적으로 신앙심을 높여 갔다. 그것은 老論 소수 家門에 의한 閥閥政治하에서 정치적·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길을 西學을 통해 모색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本性이 선하다고 하는 性理學과는 달리 서학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다는 人間原罪說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악한 자를 억누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는 閥閥들이나 富農·都賈들의 불법 자행으로 빚어진 사회의 모순속에서, 이에 비판적인 在野學者 및 지배층의 압박속에서 살아온 中人層 이하의 신분층에게는 서학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또 현실 정계에서 배제된 南人學者들은 종교적 신앙을 통해 地上의 天國을 건설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학이 유행한다는 것은 벌열 중심의 양반사회, 성리학 지상주의의 사상적 질곡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이러한 초기 서학 신봉자들의 사상적 일면은 李蘊에 의해 잘 대표되고 있다.<sup>68)</sup>

이처럼 천주교가 계급·성별을 초월하여 유행한다는 사실은 조선봉건사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다. 정조 9년(1785) 천주교에 대한 금령과 더불어 천주교 서적 수입의 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쉽게 근절되지는 않았다. 정조 15년(1791) 전라도 珍山에서 尹持忠이 母親喪을 당하였을 때 유교적 祭禮를 무시하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 葬禮를 치른 사건이 발생하였다.<sup>69)</sup> 이로 인해 尹持忠은 참형에 처해졌고, 이러한 典禮 문제를 계기로 서학은 점차 박해를 받게 되어, ‘信西派 南人’으로 불리운 지배층들이 천주교신앙을 포기하고 유교적 질서로 복귀하였다. 그렇지만 1780년대 후반기 이래 대대적으로 人敎한 常人·賤人 등 이른바 ‘서민세력’이 부상하여 신앙을 지키고 있던 丁若鍾 등 일부지배층과 崔昌顯 등 中人勢力의 주도하에 신앙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이로 인해 천주교는 더욱 유포되어 정조 18년(1794)경에는 전국에 4천여 신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듬해에 淸의 신부 周文護가 入國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교세는 더욱 떨치게 되어 1801년경에는 신도수가 1만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천주교도들은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교리학습, 傳敎, 典禮 등의

68) 金玉姬, 《曠菴 李蘊의 西學思想》, 1979.

69) 《정조실록》 권 33, 15년 1월 무인.

여러 활동과 이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후 순조가 즉위한 후부터는 정권을 장악한 老論僻派는 南人時派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천주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 때 周文謨를 비롯하여 李承薰·李家煥·丁若鍾 등 南人勢力 100여명이 극형에 처해졌고, 丁若銓·丁若鏞·李致薰 등 4백여명이 유배를 당하였다. 이때 黃嗣永은 북경에 있는 천주교 신부에게 천주교박해의 사실을 보고하여 프랑스 함대의 위협에 의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송부하려다 발각되었다.<sup>70)</sup>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었고, 그 결과 강원도, 경상도 등으로 박해가 확대되어 갔다. 당시 경상도는 儒學이 강하게 잔존했던 관계로 천주교세가 뻗이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으나, 순조 15년(1815) 박해의 여파가 경상도에까지 미치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충청도 및 전라도 등지의 신도들이 경상도로 이주하여 청송·영양·진보 같은 심산벽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의 지방관의 恣意와 일부 백성의 탐욕에 의해 검거되어 安東이나 大邱로 압송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6월 경상도 지역에서 천주교인 崔奉漢 등 300여명이 체포되었고, 다음 해 11월에 金宗漢·金若古 등 29명이 순교하였다. 그 10년 후인 순조 27년(1827) 6월에도 교인 金世傳 등이 체포되어 처벌받았다.<sup>71)</sup>

이러한 수난과 박해 속에서도 천주교는 점차로 전파되어가 현종 4년(1838)에는 신도수가 9,000여명에 달할 정도였다.<sup>72)</sup> 그러나 다음 해에 다시 천주교에 대한 대탄압이 내려졌는데 3인의 프랑스 신부를 비롯하여 100여명의 신도가 희생되기도 하였다. 거듭된 박해속에도 천주교의 교세 확장 및 민중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만 가서 현종 11년(1845)에는 金大建이 중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신부가 되어 上海에서 제주도를 거쳐 충청도로 입국하여 전도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신도수가 늘어나 철종 12년(1861)에는 18,000여명, 고종 2년(1865)에는 23,000여명이나 되었을 뿐 아니라,<sup>73)</sup> 敎區의 設定과 천주교 서적의 인쇄 및 출판배포도 이루어져서 천주교는 內的으로도 충실해져 갔다.

이러한 교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거듭되었다. 곧 고종의 즉위 이후 집권자인 대원군은 서양 열강의 진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쇄국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천주교에 대탄압을 가하였다(고종 3, 1866). 이것은 대원군의 천주교 교리에 대한 몰이해나 반감보다도 제정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프랑스의

70) 崔爽祐, 〈天主教의 儒敎社會에의 挑戰〉《한국사》15,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71) 《순조실록》 권 18, 15년 6월 임신, 권 19, 16년 11월 계축, 권 28, 27년 6월 경인.

72) 위와 같음.

73) 柳洪烈, 〈大院君의 天主教迫害와 리델神父의 朝鮮脫出〉《한국사회상사논고》, 1980.

힘을 빌어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여 여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처럼 전후 6년간에 걸친 대교란이 지속되다가 대원군이 하야하면서부터 박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것은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외세의 동향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지만, 일부 유생들과 관리들은 끝까지 천주교를 반대하고 서양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천주교도들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876년 이래 문호개방이 이루어 지면서, 고종 23년(1886) 朝佛條約의 체결을 계기로 외형상으로는 천주교의 자유로운 포교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는 조선교회 창설 103년, 조선교구 설정 57년, 프랑스 선교사 입국 52년 후의 일로서, 천주교 전래된 1세기를 경과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은 후에 얻어진 결과였다.

경상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18세기 실학자들의 서학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신앙이 경상도로 전파된 것은 확실하다. 원래 경상도는 지리적으로 반도의 동남부에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전통적인 구가세족들이 많았던 관계로, 이 지역은 전통적인 토착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古代 이래 새로운 사상이나 기풍이 잘 수용·정착되지 못하였음이 역사상에서 자주 보였고,<sup>74)</sup> 조선시대에도 異質文化의 수용을 허용치 않는 正學의 지방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에도 마찬가지여서 천주교의 수용시에 기호지방의 남인들은 크게 호응하였지만, 영남지역의 남인들은 천주교에 물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천주교의 박해가 시작될 초기에는 아예 박해의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으로 천주교도들의 은거지·피난지가 되었다. 따라서 서울, 황해도, 강원도 등지의 박해에서 피하여 경상도 북부의 산간지역으로 들어와<sup>75)</sup> 신도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상주·영양·청송·진보·순흥 등지에 信仰村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의 경상도에도 순조 15년(1815)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다. 靑松의 노래산에서 부활절을 맞아 각지에서 모인 많은 신도들이 체포되었는데, 그중의 일부는 곧 방면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慶州로 압송되어 처벌 받았다. 또 일부는 대구감영으로 압송되어 指導者 6~7명은 이곳에서 殉教하였다. 같은 시기에 眞寶의 머루산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체포되어 그중 일부는 안동 및 대구감영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이러한 박해는 순조 27년(1827)에도 일어났는데, 이는 전라도 곡성에서 신도들이 대량으로 검거되면서 그 여파가 상주와 순흥에 까지 밀려온

74) 그 대표적인 예로 신라시대의 불교 수용시에 나타난 심각한 거부반응, 13세기 후반 普熙國師 知訥이 八公山 銀海寺에서 結社運動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75) 그 한 예로 1798년 홍주인 황일광이 천주교의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 그의 아우와 함께 영남지방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車基眞, 〈조선 후기 천주교의 영남 전파와 그 성격〉 《교회사연구》 6).

결과이다. 이때 朴景華·朴思儀·金君心·安君心·金思健 등이 대구감영으로 압송되어 처벌되었다. 그후 대원군에 의해 다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는데, 이는 1865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6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수색과 체포가 이어졌다. 이때 예천·상주·문경·밀양·경주·통영·울산·언양 등 각지에서 五家作統法에 의한 수색 검거가 자행되었다. 이 시기에 대구에서는 이윤일(요한, 1812~1867)<sup>76)</sup> 등이 觀德亭 앞에서 처형되기도 하였다.<sup>77)</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까지는 천주교가 지하에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당시에는 교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산간벽지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 결과 벽촌에는 교도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대구 인근지역에는 당시 신앙촌으로서 천주교회사상 이름을 남기는 곳으로는 칠곡군의 신나무골과 한티를 들 수 있다. 신나무골은 현재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있는 속칭 솔치고개 부근에 있다. 이곳은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도 깊어 피신처로는 매우 적당하였기에 대구의 초대 신부 바오로도 부임 초기에 이곳에서 포교하였고 그 후에도 많은 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던 보금자리였다. 한티는 현재 칠곡군 동명면 득명동 산촌으로 천주교 박해시 전국에서 많은 신도들이 집주하였던 곳으로 유서깊은 신앙촌이었다. 또 새방골은 현재 대구시 죽전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몇몇 천주교 신도들이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곳이기도 하고 1881년에 金保祿(로베르)신부가 신나무골에서 이 곳으로 옮겨와 은신하여 전교한 곳이기도 하다.

대구지역에서 천주교가 비교적 활기를 띠게 된 것은 고종 23년(1886)의 朝佛條約 체결 이후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조약을 계기로 이 땅에 공적으로 포교가 허용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1886년에 천주교 한국교구 제 7대 교구장 백주교에 의해 대구에 대구본당이 신설되었고 초대 본당주임으로 김보록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포교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도들은 비밀리에 접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고종 28년(1891) 경상도 관찰사가 천주교 금압령을 내리자 김보록(로베르) 신부가 判官을 만나 이의 철회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河濱으로 추방되었고 이와 관련된 5명이 유배되었다. 이에 김신부는 프랑스 공사에 구원을 요청하여 금압령을 철회시켰고, 이를 계기로 대구본당이 새방골에서 대구 시내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鄭圭鉦(바오로)이 자기 집을 임시 성당으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7년간 대구본당이 이 곳에 있었다. 1897년에 대구본당을 계산동의 초가집으로 옮겨 임시 성

76) 이윤일은 1867년 1월 21일에 관덕정 앞에서 처형되었는데, 1968년 로마 성베드로 성당에서 福者位에 올랐고, 1984년 聖人의 반열에 올랐다.

77) 이상 경상도 지역에서의 천주교도 박해에 대해서는 金九鼎, 《嶺南殉敎史》, 1966에 크게 의존하였다.

당으로 사용하면서 성당 건립에 착수하였다. 이때 정규복(바오로) 이 계산동성당 건립 및 공소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2년 후에 韓國式 木造十字形 聖堂을 신축하였으나 1901년 2월에 불이 나 전소되고 말았다. 2년 후에 다시 성당을 건립하였고 1908년, 1910년에는 남녀학교를 성당내에 설치하고 전교와 함께 신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sup>78)</sup>

### III. 東學의 成立과 發展

東學은 19세기 후반 경주출신의 崔濟愚(1824~1864)에 의해 창시되었다. 최제우는 비록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불안한 국내외정세와 불우한 환경에서 유교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佛教·天主教에도 몰두해 보았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救道를 위해의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고향인 경주 柯亭의 龍潭亭 옛집에서 수련을 계속하여 철종 11년(1860) 4월에 〈人乃天〉의 天道를 크게 깨달았다.

그는 18세기 이래의 소수 가문에 의한 閥閥政治, 일당 독재의 勢道政治하에서 빚어진 정치사회적 비리와 西勢東漸의 情勢하에서 광범히 유포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 이를 개창하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사회의 정치적·사상적 불안과 동요 속에서 새로운 상을 모색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민중을 자각시켜 “새것을 찾되, 남에게 구하지 않고 내게서 구하며 西에서 구하지 않고 東에서 구하고자”하는 고뇌였다. 또 전통 사회의 질곡에 예속되어 오랫동안 신음하던 농촌 민중을 등에 업고 “吾道는 天道이나 學은 즉 東學이다”고 하면서 동학을 주창하되 儒·佛·仙 3敎의 合一임을 강조하여 “天道는 儒·佛·仙이 아니로되 儒·佛·仙은 天道의 한 부분이니라”고 하였다.

그는 〈인내천〉, 곧 사람은 하늘이라 하여 이 둘을 한 가지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人心은 곧 天心이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 또 이는 對人關係에 “事人如天”으로 나타나며, 그 人에는 일체의 차별 즉 班常·嫡庶·奴主·男女·老少·貧富의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다.<sup>79)</sup> 이러한 사상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한 모든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은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일반 민중들에게 환영을 받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동학이 농민을 위시한 일반민중들에게 환영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呪文을 외우고 山祭를 지내는 등 농민들의 전통적인 巫覡信仰과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78) 이상은 《대구시사》, 1973, 〈제4장 제2절 새 종교의 전파와 구래종교의 쇠퇴〉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79) 金龍德, 〈東學思想의 獨自性과 世界性〉 《한국사시민강좌》 4, 1989, p. 71.

게다가 동학이 단순한 종교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사회운동을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최제우는 포교의 방법으로 그의 뛰어난 文章 能力과 쉬운 國文體의 歌辭를 함께 구사하여 민중들에게 쉽사리 파고 들게 하였다. 예를 들면 〈敎訓歌〉는 억조창생이 반드시 同歸一體가 된다는 것을, 〈安心歌〉에서는 男尊女卑의 묵은 인습 타파를, 〈龍潭歌〉에서는 千年古都 慶州에 깃들인 신라문화를 연상하기에 충분하였다. 그의 포교는 경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경상·충청·전라·경기지방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경상도 지역은 유사 이래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데다가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새로운 사상의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라도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南原의 隱跡庵에 머물면서 〈道修歌〉·〈論學文〉·〈勸學歌〉 등을 저술하는 한편 포교에 열중하였다. 철종 13년(1862) 3월 다시 경상도로 돌아온 그는 〈修德文〉·〈夢中歌〉를 짓기도 하였는데, 이후 그가 민중속에 파고들며 포덕을 시작한지 불과 3~4년인 철종14년(1863)에는 교도가 3천여명을 넘어 섰다. 이들을 교화하고 조직하기 위해 경주·영덕·영해·청하·연일·안동·단양·영양·신령·고성·울산·장기·대구·청도 등의 각지에 接所를 설치하고 接主를 임명하였다. 이때 대구·청도 지역의 接主로는 金周瑞가 임명되었다.<sup>80)</sup>

한편 이러한 동학의 교세확장에 대해서 斥邪衛正에 앞장섰던 경상도의 在野儒林勢力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다. 곧 철종 14년(1863) 9월 商州 愚山書院院長 洪殷標는 齋任·會員 16명과 함께 道内の 道南書院·玉成書院 등을 위시한 각 서원에 通文을 돌려 東學排斥의 여론을 조성하였다.<sup>81)</sup> 이 통문은 유학의 本旨를 설명하고 동학이 서학에 못지않게 폐단이 큼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림세력의 동학에 대한 반대운동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1863년 11월에 최제우와 그의 제자 25명이 체포되어 대구감영에 투옥되었다. 이어서 이듬 해 3월 10일에 최제우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동학은 서학의 명목을 이은 것이라 했고 黃巾賊이나 白蓮教 같은 큰 우환이 될 지도 알 수 없다는 우려에서 최제우를 “惑世誣民”, “平時思亂 暗地聚黨”의 죄를 씌워 극형에 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학교도들은 산속으로 숨어 그 교세가 일시에 약화되었다.

동학의 교세를 회복하는데 크게 활약한 인물은 崔時亨(1827~1898) 이다. 그는 교조인 최제우와 같은 경주 출신으로 철종 12년(1861)에 동학에 입문하였고, 최제우의 순교전에

80) 진단학회, 《한국사》 최근세편, 1961, pp. 132~133.

81) 崔承熙, 〈書院勢力的 東學排斥運動小考〉 《한우근정년기념논총》, 1981.

李離和, 〈東學農民戰爭에 나타난 儒林의 對應〉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교단의 유지를 위해 道統을 전해받았다. 그는 최제우의 순교 이후 정부의 혹심한 탄압과 추격속에서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중으로 피신하면서 전국에 동학의 보급을 주력하여 1883년경부터 그 포교활동이 점차 활발하여졌다. 그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구술하여 재현시킨 동시에 고종 17년(1880) 이후 이들을 간행하여 널리 유포시켰다. 또 그는 동학의 세력이 각처로 확산되어 가자 교단조직을 체계 지워 갔다. 곧 동학의 교단은 교도 한 무리를 包로 하여 이를 통솔하는 接主를 임명하고, 각 포의 통솔자를 都接主, 동학교단 전체의 통솔자를 道主로 하는 통솔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어서 1885년에는 교단을 총괄하는 중심 기관으로 충청도 보은에 동학의 본거를 두어 각지에 포 조직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이리하여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1894년경의 동학조직은 지방적 한계를 벗어난 일반적 성격의 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동학의 발전은 상층계급에 대한 위협이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최제우의 신원이 없는 한 지방관의 박해는 합법적인 것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던 동학 교도간에는 “敎祖伸冤”에 의한 동학포교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동을 취하자는 기운이 높아갔다. 1871년 敎祖伸冤運動은 李弼濟가 영해·영덕 등지의 교인을 모아 무력적인 시위로 신원운동을 한 이래, 1892년에는 徐仁周·徐丙鶴 등이 재차 교조의 신원과 관리의 탐학으로부터 교인의 보호를 정부에 상소할 것을 주창하여, 전라도 參禮에 모여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893년에는 朴光浩를 疏首로 하고 孫秉熙 등 10여인이 광화문 앞에 까지 나아가 상소하게 되었다. 이에 국왕은 해산을 종용하여 해산시켰으나, 이 복합상소의 결과도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한 셈이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4월의 보은집회에서는 參禮集會 및 伏閣上訴에서의 교조신원의 종교적 슬로건은 자취를 감추고 〈斥倭攘倡義〉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 집회는 마침내 중앙정부를 동요시키고 충청·전라 양도의 관찰사를 경질시킴으로서 20일만에 해산되었다.

이와 같이 동학운동은 경상도 慶州에서 발상되었으나 교조 최제우의 순교와 더불어 교세가 위축되어 태백산, 소백산으로 교도들이 숨어들게 되었다. 최시형의 교세 회복운동은 이 소백산맥을 넘어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 같다. 그것은 교조신원운동의 중심이 公州·삼례·보은 등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동학의 都所도 보은이었다는 사실은 교단의 중심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그 중심이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全瑬準의 古阜起包로 시작된 갑오 동학혁명이 전개되면서 동학은 사회개혁운동으로 변용되어 그 활동은 호남지방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듯 동학의 발생과 성립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으로 추이와 더불어 지역적

중심지도 경상도→충청도→전라도로 그 중심무대가 바뀌어져 갔다. 이것은 동학이 사회 개혁사상으로 변용되면서 위와 같은 각지역의 특성에 좀 더 심화 적용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평야지대가 많은 호남·호서지방의 민중은 탐관오리의 발호를 비교적 더 받았기 때문에 동학의 사회 개혁사상으로서 전환되기에 더 용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동학군의 9월 再起包의 중심지가 모두 호남·호서지방에 집중 분포되고 있다는 것에서 뒷받침될 것이다.

동학의 기포는 전라도 뿐만 아니라 영남·경기·강원·황해도까지 항일전쟁을 위한 봉기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星州로부터 河東·晉州에 걸친 영남의 일부는 호남·호서지방에 못지 않게 치열하였다. 1894년 10월초에 국왕이 반포한 전교를 보면

星州 河東의 양읍이 특히 동학소요의 혹심한 화를 입어 星州는 民家 600여호가 소실되고 河東은 거의 전역이 소탕되었다.

고 하였다. 대체로 경북지방은 星州 지방만이 동학 기포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으로,<sup>82)</sup> 동학 발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동학 농민 봉기 등의 사회개혁운동은 없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구지역을 위시한 경북지방이 보수성이 강했던 것과 초기 최제우의 순교후 초기 교단이 더 이상 교단세력을 부식하지 못하고, 호남·호서에 그 중심지를 넘겨 주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대구지역은 대규모의 평야지대가 없어 농민들에 대한 관리들의 탐학이 호남 호서지방보다 덜 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1894년 가을의 동학혁명시에는 안동·상주를 위시한 경상도 지역의 양반 유생들은 이른바 義旅(儒會軍)을 조직하여 동학농민군의 진압에 참여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sup>83)</sup>

82) 그 이외의 지역으로는 예천·상주·금산 등지에서 소규모의 농민 봉기가 있었다.

83) 그 대표적인 존재로 상주지역의 鄭宜默·金奭中 등이 조직한 義旅를 들 수 있다(金奭中, 〈討匪大略〉《한국민중운동사대계》1).

申榮祐, 〈1894年 嶺南 醴泉의 農民軍과 保守執綱所〉《동방학지》44, 1984.

——, 〈1894년 嶺南 商州의 農民軍과 召募營〉《동방학지》51·52합, 1986.



## 第4章 外勢의 侵略과 地域民의 抵抗

### 第1節 近代社會로의 移行과 大邱地域

#### I. 日帝의 侵略과 大邱地域

고종 12년(1875)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마수를 한반도에 빼쳐 雲揚號사건을 야기시켜, 이를 기회로 다음해에 제국주의자들의 통상적인 수법인 불평등조약을 체결시켰다. 이 강화도조약의 핵심의 하나는 조선을 開港시키는 것이며, 開港場인 仁川과 元山에 租借地를 만들어 일본인의 治外法權을 인정하게 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九州 福岡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조선에의 침략을 확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후 고종 19년(1882)의 임오군란, 21년(1884)의 갑신정변 등과 같은 조선내에서의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더욱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중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다른 어느 열강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여 조선의 농촌경제를 심하게 쪼먹어 들어 갔다. 당시 일본의 商館은 인천·부산·원산의 각 開港場에 허다하게 설치되었는데, 대구지역은 부산의 商館에 영향을 받았다. 또 조선에 들어온 商船의 수에 있어서도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무역의 액수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액은 조선의 전 수출액의 90%이상, 수입액의 50% 이상이었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일본상인들이 開港場을 바탕으로 점차 내륙으로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조선의 전통적인 상업활동의 근간이었던 客主·旅閣·樵負商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sup>1)</sup> 또 양국의 교역속에서 일본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뢰배나 浪人 출신의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농민을 상대로 폭리를 남기는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였다.<sup>2)</sup>

일본 상인들은 조선 농민들을 상대로 면제품·술·납비·농기구·석유·염료·소금 등 각종 수입품을 사들이기 위하여 쌀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상업적 약탈이윤을 위하여 모든 사기와 기만 그리고 공공연한 조약위반과 폭력행위까지

1) 나애자, 〈개항후 외국상인의 침투와 조선상인의 대응〉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1991.

2) 河元鎬, 〈開港後 帝國主義의 侵奪과 經濟構造의 變動〉 《박영석화갑기념논총》, 1992.

거침없이 저질렀다. 그 한 예로 조선의 농민 생활이 곤궁하다는 약점을 노려서 미리 금전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그들의 수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하여 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것은 고리대금의 방법으로 가난한 농민들로부터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상행위였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대책으로 곡물의 수출을 금하는 防穀令이 내려 지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리하여 조선의 농민은 더욱 헐벗어 가고 농민들의 일본상인에 대한 적개심도 더욱 커져 갔다. 이러한 농민들의 적개심이 고종 31년(1894)의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야기시킨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 농민항쟁은 조선 정부의 기만책과 외세의존적 자세에 의해 실패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만을 더욱 확대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곧 일본의 동학농민군진압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들이 갑신정변 이후 청과의 교섭에 의해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한 정치적 형편을 회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일본상인들의 약탈적인 무역에서 얻은 폭리를 계속적으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조선을 제압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의 관철이 청일전쟁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예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청의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었다. 그후 갑오경장 및 을미사변을 계기로 민심은 더욱 흥흥해지고, 계속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분격하여 각지에서 義兵抗爭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일제의武力에 의해 대부분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일제의 침략은 날로 심해져 갔고, 광무 8년(1904)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명목하에 불법적으로 조선을 그들의 보호지로서 압제할 수 있게 되었다(1905).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자주국가로서 운신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인들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 대구지역민들은 개항의 초기에는 여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斥邪衛正運動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척사위정운동은 성리학에 근본을 두고 그밖의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배척한 운동으로서, 그 주된 대상의 하나가 일본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많은 유림이 이에 참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崔益鉉과 교유하고 있던 徐贊奎(1825~1905)를 들 수 있다. 이후 일본인의 침략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로는 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과 학문적인 계몽단체의 설립,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한 인재양성, 신종교의 전파를 통한 애국운동의 전개, 산업의 발달과 같은 점진적인 대응 등이 있었다. 이들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점진적인 대응중 학문적인 계몽단체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20세기초 이래 일제의 강압이 거세어 정치적으로 혼란상이 심하여 학문적인 연구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국민의 계몽을 위한 여러가지의 방도가 강구되었는데, 그 하나가 애국적인 입장에서 독립정신을 불어일으키고 새로운 지식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학문적인 계몽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西北學會·畿湖興學會·湖南學會·關東學會·嶠南教育會 등과 같은 지방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학회였다. 이들 여러 학회는 대개 學報를 발간하여 민중들에게 지식열을 북돋우어 주었다. 그중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 嶠南教育會인데, 이는 융희 2년(1908) 3월에 서울의 普光學校에서 朴晶東·尚灝 등을 비롯한 145인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였다. 이는 大韓自強會의 趣旨에 따라 영남지역에 애국계몽운동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그 기초는 광무 10년(1906)의 대구지역 有志들이 大邱府의 樂育齋에 모여 신학문의 보급을 위한 결의를 했던 것과 다음해의 在京 嶺南人의 모임인 嶺友會의 결성 등이었다. 교남교육회의 활동은 기관지 《嶠南教育會雜誌》의 발간을 통한 민중 계몽,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서 가장 낙후해 있던 영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마다의 학교설립운동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대구지역의 탈보수화를 통한 애국계몽운동에의 참여를 추진한 실천단체로서의 교남교육회의 의의를 엿볼 수 있다.<sup>3)</sup>

교남교육회가 在京 嶺南出身 人士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비해, 대구지역에서는 達城親睦會가 결성되었다. 이는 1908년 9월에 李根雨·金容璇 등이 중심이 되어 大邱府 壽町에서 창립된 것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각지의 청년을 규합하여 청년의 교육, 실업의 장려 등을 표방하였다. 이 단체는 점차 청년들을 단결시켜, 비밀히 排日思想을 고취시켰으며, 國權의 상실 이후에는 抗日을 위한 秘密結社團體로 전환해갔다.<sup>4)</sup>

한편 이 시기에 대구지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는 다음이 있다.<sup>5)</sup>

徐贊奎; 순조 25년(1825)~1905. 조선 말기의 학자. 본관은 달성. 자는 景襄, 호는 臨齋로, 아버지는 洪烈이다. 헌종 12년(1846)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仕宦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향리에 은거하면서 守東齋라는 서재를 지어 이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3) 嶠南教育會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鄭 灌, 〈嶠南教育會에 대하여〉《역사교육논집》10, 1987을 참조할 것.

4) 權大雄, 〈韓末 達城親睦會에 관한 研究〉,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발표초록, 1993.

5) 이의 서술은 張東翼, 〈最近世의 人物〉《팔공산》속집, 대구직할시, 1991에 의거하였다.

노력하였다. 그후 추천을 받아 고종 20년(1883) 義禁府 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趙秉德 崔益鉉 등과 교유하면서 經典에 대한 질의와 당시의 사회 정치적 事變으로 인한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상도일원의 요새지에 성을 수축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理氣說에 있어서는 理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氣속에 존재하여 氣의 주가된다고 전제하여, 理氣一元論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臨齋集》이 있다.

具然海; 현종 2년(1836)~고종 32년(1895). 조선 말기의 학자. 본관은 綾城. 자는 文協, 호는 江樵로, 아버지는 景魯이며, 어머니는 達成 徐氏로 睿烈의 딸이다. 徐贊奎의 문인으로,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났다고 하며, 청년 시기에는 동료들과 함께 八公山 桐華寺에 들어가 詩書를 읽기도 했고 性理書에 潛心하여 위기의 실체를 터득하기도 하였다. 철종 6년(1855)에는 鄉約의 시행을 통해 풍속의 순화에 노력하였고, 저서로 《演易說》과 《江樵遺稿》가 있다.

徐相敦; 철종 2년(1851)~1913. 민족 독립 운동가. 그의 선대는 천주교도로서 탄압을 피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북부 등지를 전전하다가, 철종 10년(1859) 대구에 정착하였다. 그는 고종 3년(1866) 병인박해 때에는 신앙문제로 문중에서 쫓겨난 이후, 1871년부터 대구에서 紙物 行商 및 布木商을 시작하였다. 1886년경에는 상당한 재벌로 부상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특명으로 경상도 視察官에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Robert, A, J(金保祿) 神父를 도와 교회발전에 힘썼으며, 시찰관에서 퇴임한 뒤에는 실업계의 중진으로 대구의 경제권을 좌우할 만큼의 갑부 대열에 들었다. 그뒤 대구교구가 설립되자 이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성직자 돕기와 수녀보호에 솔선수범하였다. 한편 외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이의 수호에 앞장선 독립협회의 주요 주도회원으로서 활약하였는데, 독립협회 제4기 민중투쟁기에는 재무부과장 및 부장급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2월 16일 大邱 廣文社를 중심으로 담배를 끊어 당시의 國債 1,300萬圓을 보상할 것을 제의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徐丙五; 철종 13년(1862)~1935. 서화가. 본관은 달성, 호는 石齋로, 일찌기 仕宦하여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郡守에 이르렀다. 1901년을 전후하여 중국 상해로 가서 그때 그곳에 망명중이던 閔泳翊과 친밀히 교류하면서 그의 소개로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중국인 書畫家 蒲華·吳昌碩 등과 교유하여 영향을 받았다. 1909년도 상해와 일본을 여행하였고,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특히 蒲華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의 文人畫法의 영향을 받은 文氣질은 墨竹 등 四君子를 그리게 되었다. 글씨는 매우 격조 있는 行書를 남겼는데,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 서화가로 이름 높았다.

## II. 近代的 教育機關의 擡頭

고종 32년(1895) 教育立國의 詔書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近代的 教育機關으로는 民衆들에 의해 건립된 元山學校, 政府에 의해 건립된 同文學·育英公院, 서양 宣教師들에 의해 건립된 培材·梨花·貞信·敎新 등의 學校를 들 수 있다. 특히 元山學校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를 우리손으로 세웠다는 것이고, 정부의 개화정책에 선행하여 민중들이 설립 자금을 각출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외국세력과 직접 부딪히는 開港場에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외국의 근대 학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널리 존재하고 있던 鄉村書堂을 改良書堂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근대 학교로 발전시켰다는 점, 민중과 정부가 협력하여 설립하였다는 것 등이 이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리고 고종 13년(1876) 병자수호조약의 체결 이래 우리나라는 西歐列強과 계속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외국과의 교섭관계상에서 절실히 요청된 것은 외국어의 습득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동문학·육영공원은 이와 같은 당시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육영공원은 고종 23년(1886)부터 같은 왕 31년(1894)까지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주로 지배층의 子弟들이었고, 학습 내용은 英語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어교육을 위하여 정부는 미국인 길모어(G.W. Gilmore, 吉模), 벅커(P.A. Bunker, 房巨), 헐버트(Rev. H.G. Hulburt)등 세 사람을 초빙하였다. 그러나 1894년 3인의 敎師가 모두 이 학교를 떠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육영공원은 국가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유교적 구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의 과도기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에 그 설립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격의 육영공원 설립 직전에 培材學堂이 고종 22년(1885)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Rev. H.G. Appenzeller)에 의해 설립되었다. 배재학당이 우리나라 근대적 교육기관의 선구적 존재였다는 점, 외국인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은 基督教의 宣敎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였다. 교육의 정도는 중학교 수준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리고 梨花學堂은 고종 23년(1886) 미국 북감리교회 여선교부에서 세운 중학교 과정의

6) 愼鏞夏, 〈開化政策〉《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4.

학교로서 교육의 목적은 배재학당과 같았는데, 이는 男尊女卑의 사회규범이 강했던 당시 사회에 최초로 여성 교육, 그것도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私學에 자극되어 정부는 고종 31년(1894) 漢城師範學校를 위시하여 小學校·中學校·師範學校·外國語學校 등 많은 관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고종 32년(1895)에는 敎育立國의 詔書를 반포하여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전하는 근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였다.<sup>7)</sup> 그렇지만 이 시기에 설립된 官立學校는 관리의 양성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어 高官의 子弟가 주로 입학하였으므로 당시의 민족적 욕구에 부응하기도 어려웠고 민족 교육에 기여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민족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은 관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갑오경장 이후 뜻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각종의 수 많은 敎育團體의 조직과 함께 설립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 전개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민족의 교육을 진흥시킴으로써 자주독립을 이룩해 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학교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가하여 1909년 경에는 5,000여 학교에 달하였는데,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못한 약 700개교를 감안하면 거의 6,000여 학교에 이르렀다.<sup>8)</sup> 이들 사립학교들의 建學理念은 첫째, 윤리면에서 新道德觀의 확립·因習 및 迷信의 타파·계급주의와 봉건적 舊習의 혁신 등을 추구하였고, 둘째, 사상면에서 신학문·신교육·신문화 등을 수용하여 국가를 富強·開化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고, 셋째, 교육면에서 신교육 사업과 제도·방법의 수용을 통해 國家生存을 위한 民族保全과 愛國思想의 고취에 그 목적을 두었다.<sup>9)</sup> 이처럼 사립학교들은 민족적 자아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한 결과 민족주권의 침략과정에서 혹은 일제 통치하 36년간에 있어서 끈질긴 저항력을 생성시켰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곧 조국광복의 내적 요인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대구지역에서도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형편이었다. 이는 대구지역이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인식정도가 타지역보다 강했던 결과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 곧 官立學校 설립의 물결을 타고 대구지역에도

7) 《증보문헌비고》 권 209, 學校考8, 名學校.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p. 359.

9)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연구》, 1980, p. 218.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그 처음은 이곳에 살고 있던 일본인 거류자의 자녀를 위한 達城學校였다(광무 3년, 1899 설립). 이 학교는 그 뒤 鄉校를 기반으로 건립된 協成學校와 병합되었다가 광무 9년(1905) 설립된 大邱公立尋常小學校에 통합되었다. 이 大邱公立尋常小學校가 구한말에 설립된 대구에서는 유일한 관립의 초등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達城學校가 설립된 이듬해 광무 4년(1900) 大邱喜道尋常小學校가 私立學校로서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대구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처음이었다. 그외에 1906년의 德山尋常小學校, 1908년의 海星尋常小學校 등이 건립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수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의 설립 및 개교의 시기·성격·설립자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기재된 대구지역의 각종 사립학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表 4-1〉과 같다.

〈表 4-1〉 舊韓末 大邱地域의 各種 私立學校

時 期	學校名	設立者	設立者 性分	運營基盤	備 考
1906. 3	師範學校	申泰休 등 有志 20인	觀察使를 위시한 이 지역의 儒林	有志出捐	校舎는 官廳인 觀德堂을 이용
1906. 6 1907. 10	養成學校 壽昌學校	金漢鼎 徐興均 등 有志 6인	郡守 前職 官僚를 포 함한 儒林		校舎는 鄉校의 東西齋를 이용하고, 新舊學으로 나누어 新學은 15세 이하, 舊學은 15세 이상을 입학 시킴
1907. 11	協成學校	李忠九	觀察使	有志出捐	校舎는 鄉校의 樂育·養士 齋를 이용
1907. 12	養成女學校	李忠九	觀察使	李忠九	후일 大邱女子學校로 개편, 학생은 50여명
1908. 9	勞働學校	玄擎運			夜間學校로 학생은 7,80여 명이고, 교수과목은 歷史, 地誌, 算術, 體操이고 國 文 으로 강의함
1909. 2	達明學校	朴在英 등 2인			

이 표에 나타난 각종 학교는 당시에 설립된 학교로서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설립시기도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sup>10)</sup> 이들 각 학교의 설립은 1906년 이래 慶北觀察使로 부임한 李根昊·申泰休·李忠九 등의 적극적인 학교설립 추진에 힘입은 바 많다. 申泰休는 이들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의 간행을 위해 廣文社와 연결하여 教科書의 인쇄배포에 노력하였고, 대구지역을 위시한 경북지역의 有志들에게 학교 설립에 힘써 줄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에 그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 조사케 하는 등 교육활동에 열성을 다하였다.<sup>11)</sup>

당시 각종 학교의 교육수준은 여러가지이지만 修學期間은 보통 3년 정도였고, 教師는 주로 新學問에 능하고 日本語를 아는 자가 서울에서 초빙되어 왔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크게 부족하였는데, 金光濟 등이 廣文社를 설립하고 교과서로 적합한 동서양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sup>12)</sup> 그렇지만 이들 학교는 경비의 부족으로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가 처음 설립된 때는 有志의 出捐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없었다. 그 결과 폐지된 書院·祠宇·鄕校·司馬所 등의 토지를 그 재원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이 경우도 완고한 유림들의 반대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그 후 1908년 9월에 〈私立學校令〉이 반포되면서 각 학교는 학교의 기본금 3천원 마련에 크게 고심하게 되었고, 수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말았다.<sup>13)</sup>

한편 대구지역에 있어서 중등학교의 처음은 광무 10년(1906)에 개교한 啓星中等學校였다. 이 학교는 선교사 아담스(James. E. Adams)에 의해 설립되었었는데 최초로 모집된 생도는 27명이었다. 교직원으로는 아담스 자신을 포함하여 4·5명으로 생도를 지도하여 오다가 1910년 9월 부터 6명으로 증가되었다. 교과목은 성경·한문·물리·화학·지식·상업·어학·수학·역사·

10) 《大邱府史》, 1943 및 《大邱市史》, 1973 p.446에 의하면, 1910년 10월 경에 대구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15개의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 )안은 公·私立, 設立認可時期임.

大邱普通(公, 1905. 9), 基督大南(私, 1909. 4), 達南(私, 1909. 4),  
新明女(私, 1909. 4), 繼聖小(私, 1909. 4), 壽昌普通(私, 1910. 5),  
日新(私, 1909. 8), 仁壽(私, 1909. 8), 速成日語(私, 1909. 8),  
桂南(私, 1909. 8), 興化小(私, 1909. 9), 聖立(私, 1909. 9),  
達西女(私, 1909. 9), 協成(私, 1910. 3), 明新女(私, 1909. 8).

11) 그 결과 그의 재임동안에 경북 41개군에 설립된 학교가 370여개이고 생도가 4,5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1일, 22일, 5월 29일, 6월 3일 雜報).

12)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14일, 5월 24일, 6월 22일, 8월 28일 雜報.

13) 私立學校令 이후의 교육기관의 형편은 다음의 논문이 참조될 수 있다.

柳漢喆, 〈韓末 私立學校令 以後 日帝의 私學彈壓과 그 特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생물·박물·경제·지리·교육·음악 등 근대적 교육의 거의 전영역에 걸쳐 있었다.<sup>14)</sup> 계성중학교가 설립된 다음해에 선교사 마르다 브루엔(Mrs. Marda Bruen)에 의해 新明女子中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의 교육내용은 계성학교와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교란 특수성에 의해 家事·針工·手藝 등이 추가되었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 본 대구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초창기에는 신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내지 전통적 교육과의 갈등, 학교유지를 위한 경비조달의 어려움, 설립된 학교의 교사진과 시설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부 학교는 도태되어 버렸고, 여타의 학교는 民族教育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갔다.<sup>16)</sup>

### III. 基督教의 傳來와 定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천주교가 집권층으로부터 박해당하고 있었기에 같은 서학인 기독교도 역시 선교활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다가 1882년(고종 19) 韓美條約의 체결 이후 서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어 외국선교사들도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32년 충청도 洪州에서 네델란드 선교사 귀즈라프(Carl. F.A. Gutzlaff)의 선교활동, 1865년 스코틀랜드의 토마스(R.J. Thomas)의 입국·선교 등을 통해서 였다. 이들은 선교본부의 지시, 지원이나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선교라기 보다 비공식적, 산발적, 개인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1884년(고종 21) 6월경 미국 監理敎 소속의 매클레이(Robert S. Maclay)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 監理敎會가 한국에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어서 같은 해 9월에 미국인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입국하여 선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그를 이어 1885년(고종 22)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가 일본을 거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와

14) 《계성팔십년사》, 1988 참조.

15) 《신명오십년사》 참조.

16) 이상 대구 지역의 근대적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업적에 많이 의존하였다.

이병휴, 《대구시사》 제4편 조선후기 제3장 문화도시로의 성장.

장동익, 《경상북도사》 제3장 3. 근대적 교육기관의 대두.

함께 인천을 통하여 서울에 들어와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sup>17)</sup> 이들 양인은 교육사업, 의료사업, 선교 활동 내지 교회 창립 등에서 한국교회사상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아펜젤러에 의해서 培材學堂이 세워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대교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1830년경에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1882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수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포교를 전개하게 되자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는 언어의 장벽, 조선 정부의 비협조 내지는 금압 등과 같은 많은 장애가 있었다. 이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네비어스(John L. Nevius)는 선교에 있어서 네비어스 방법이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는 自傳(Self-Propagation), 自治(Self-Government), 自立(Self-Support)의 기본 방침하에 선교대상을 中人·常民·賤民·婦女子 등을 위시하여 下層 勞動者 階級으로 정하고, 선교 방법론으로는 교육 및 의료활동을 통한 선교를 천명한 것이다. 그중 교육이나 의료사업을 통하여 선교한다는 것은 민중에게 서양종교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하여 줌으로써 宣敎上 그리고 우리의 新敎育上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sup>18)</sup>

이렇게 하여 기독교는 급속히 조선 민중들에게 전파되어갔는데, 敎人數로 보면 1887년에 세례교인이 25명, 1895년에 286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897년경에는 전국의 교인수가 7,000여명, 1907년경에는 7만여명으로 급증하여 갔다. 또 1907년에는 최초의 韓國老會가 평양에서 조직되었으니, 이 시기에 교회수만도 980여개소로 성장해 갔다.<sup>19)</sup>

이처럼 서양 선교사들은 전도의 한 수단으로 醫療와 같은 사회사업을 경영하여 사회적으로 이바지한 바도 컸거니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를 고취하여 민족의식을 양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당시 지배층중 보수계에 속한 閔泳翽도 선교사의 입국에 찬성하였고, 개화파에 속한 朴泳孝·金玉均·俞吉濬 등도 기독교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保守·開化 양파 인물들이 기독교에 친근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독교는 천주교와 같은 크나큰 수난을 겪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신교 계통의 徐載弼·李商在·尹致昊 등이 구한말 구국운동의 중심기구였던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을 일반 민중에게까지 전파하기도 하였다.<sup>20)</sup>

17) 李萬烈, 〈世界基督教史上의 韓國基督教〉 《한국사시민강좌》 4, 1989.

18) 朱明埧, 〈韓國長老敎 組織의 確立過程〉 《한국사연구》 2, 1968.

19) 민경배, 〈基督教思想〉 《한국현대문화사대계》 3, 고려대출판부, 1981.

20) 위와 같음.

이와 함께 기독교의 영향하에 건립된 사립학교는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기관과 같은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광무 7년(1903)에 설립된 皇城基督教青年會와 같은 기독교 단체가 정치적·사회적으로 활발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자극되어 많은 청년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선교 과정에서 비단 정치나 교육뿐 아니라, 한글의 보급·근대 문명의 소개·금주·단연·미신탈파·남녀평등·일부일처·생활간소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새로운 풍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sup>21)</sup>

기독교는 주로 새로히 등장한 신흥 지식층이나 상공업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는데, 특히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되었다.<sup>22)</sup> 이러한 기독교는 광무 9년(1905)경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반성을 하여 신앙심을 복돋우는 查經會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융희 3년(1909)에는 100만명의 신자를 확보하려는 百萬救靈運動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같이 기독교가 비단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교육·문화의 각 방면에서 크게 환영을 받은 것은 그것의 신앙이 민족의 죄악을 속죄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서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전국적인 추세하에서 대구지역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William M. Baird, 裴緯良)가 1893년(고종 30) 부산을 거쳐 대구에 도착하여 전교를 시작한 때부터 였다. 이 당시에 대구에는 천주교가 이미 전래되어 있었고 구미열국과도 정부가 수교를 하고 있었던 터이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탄압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아니었기에, 민중들의 관심도 냉담하였다. 따라서 베어드의 선교사업은 이렇다할 결실도 맺지 못해, 그는 대구를 떠나 평양으로 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1897년(광무 1)에 아담스(James E. Adamds, 安義窩)가 대구에 왔는데, 그는 사실상 대구지역 선교사업의 개척자로서 대구 지역 교회의 창설자였다. 아담스가 1898년(광무 2)에 남성로의 그의 자택에서 김재수·鄭完植 등 5명과 함께 敎會를 조직하였으니, 이것이 대구제일교회로서 이 지역에서의 최초의 기독교회였다.

아담스는 교회가 설립된 이듬해인 1899년(광무 3) 부터 교회 조직을 확대하여 가면서, 自力傳道·自治制度·自立運營을 동시에 적용하여 의료사업·교육사업·선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갔다. 곧 의료 선교사인 존슨(Johnson, 張仁車)을 중심으로 1899년에 현재의 계명대학교 부설 東山基督病院의 전신인 濟衆院을 설립하였고, 1902년에 교회내에 소학교를 설립하기도

21) 李萬烈, 〈改新敎의 宣敎活動과 民族意識〉 《사학연구》 36, 1983.

22) 李光麟, 《韓國의 近代化와 基督教》, 송전대, 1983.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교사 브루엔(Bruen)이 신명여자소학교를, 1906년 (광무 10)에는 아담스가 계성중학교를, 브루엔(Bruen)은 신명여자중학교를 각각 설립하여 대구지역의 근대교육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sup>23)</sup>

이상에서 살펴 보아 온 것처럼 기독교는 천주교보다는 50여년 뒤늦게 대구에서부터 전래·정착하기 시작하여 경상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의료, 교육사업은 민중에게 친근감을 심어 주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 인식한 민중들은 기독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점차로 기독교에의 접근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기독교의 전래·정착의 결과로 서양 의학이 수입되었고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신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회에 속한 복음기관을 통한 교육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이 향상되었고 또한 민족문화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했음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 IV. 日本居留民團의 實態

고종 13년(1876)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이어 구미열강과도 잇달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조선은 열강들과 通商이 행하여진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조선내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sup>24)</sup> 일반적으로 居留地는 개방된 일정 지역중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상업과 같은 경제적인 활동만을 주로 영위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그것은 일정한 開放地중 條約을 체결한 국민의 居留地域이 형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조약에 의하지 않고 전쟁중 강점된 지역이 居留地化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한말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개방된 거류지는 專管居留地, 雜居地, 開港場, 開港地 등이 있었는데, 그중 專管居留地는 조약에 의하여 특정국에만 개방하는 거류지로서 그 대상은 일본과 청국이었으며, 인천·원산·부산 등이 이에 속하였다. 雜居地는 법령에 의하여 개방된 곳으로서 그 개방지의 내외국인의 거주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곳을 말한다. 開港場은 沿岸 港口중에서 선택하여 조약에 따라 외국 선박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경흥·경원 등의 국경지역을 개방하여 居留民이 거주하지 않고

23) 이상 대구 지역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업적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상근, 《경북노회100회사》, 1977.

이병휴, 《대구시사》 제4편 조선후기 제3장 문화도시로의 성장.

24) 이하 대구지역의 日本居留民團의 實態는 《大邱市史》의 〈日本人 居留民團의 置廢와 規模〉에 크게 의존하였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었다.<sup>25)</sup>

이상의 여러 지역중에서 외국이 차지했던 것은 일본과 청국이 절대적이었는데, 그중 청일전쟁 이후에 있어서서는 일본이 거의 단독으로 이들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그렇지만 대구지역은 조선, 일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법령에 의하여 거류지가 만들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대구지역에 최초로 來住한 일본인은 고종 30년(1893) 醫藥 및 雜貨店을 개설한 히자쓰기(膝付)·무로(室) 등 2인이었다고 한다. 다음해의 청일전쟁의 발발에 따라 대구가 일본군의 병참기지화되자 약 10여호가 軍需지원의 군사적 배경하에 來住하게 되었다. 그들중 대부분은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귀국하였고 3호만이 잔류하였다. 그 뒤 광무 4년(1900)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이 대구가 상업상 입지조건이 좋다는 이점을 들어 일본인들의 이주를 권하여, 일인들의 진출이 현저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大邱日本人會가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곧 日本人 居留民團의 母胎가 되었다.

광무 7년(1903)에 이르러 경부선 철도부설공사가 시작되자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하여 음식점 등을 개설하고 驛 부근의 토지를 매점하는 자도 있었다. 일본인의 이러한 이주 증가현상에 대하여 당시 慶尙北道 觀察使 李允用은 그들의 이주를 억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는 釜山郵便局의 受取所가 설립되어 소포, 우편환 업무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경부철도의 請願巡查 1인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다음해에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경부철도공사는 촉진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주하는 일본인의 수도 급증하여 南門(지금의 염매시장 남쪽)에서부터 達城公園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변은 일본인의 상점으로 메워졌다. 즉 같은 해 2월말 현재 200여인에 불과하였던 일본인이 4월말에는 700인 내지 800인, 6월말에는 1,000인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인의 진출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해 6월초에 회원 120여인을 가진 大邱日本同胞會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곧 大邱大日本居留民會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일본인들은 大邱大日本居留民會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 도로개수, 시가측량, 위생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고, 단지 그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할 경우에 대비한 항구적 居留條件의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그들에 의한 소학교의 설립과 校舍의 신축은 대구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한국에서의 실권을 장악한 일제에 의해 광무 9년(1905)에 居留民團法이

25) 李鉉宗, 〈舊韓末 外國人 居留地의 種別과 性格〉《진단학보》31, 1967.

실시되어 일본인들의 대구거류민단은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들의 거류구역은 大邱城内·城外一帶·琴湖江·晩村·黃靑·東掛津·唐洞·上里 등의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 居留한 일본인의 戶口數는 다음 〈表 4-2〉와 같이 시대적으로 증가되어 갔다.

〈表 4-2〉 大邱地域 日本人 戶口의 增加<sup>26)</sup>

時 期	戶 數	人 口		
		男	女	計
1906년	697	1,252	900	2,152
1907년	740	1,344	1,124	2,468
1908년	1,068	1,826	1,742	3,568
1909년	1,352	---	---	4,863
1910년	1,978	---	---	7,392

이처럼 대구지역에 일본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 지역이 경상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정치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경제·군사·교통 등 여러면에서 중추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경향이었는데, 당시 전국에 설치되어 있었던 12개소의 거류민단 중에서 부산·인천·경성·원산·평양·진남포·마산·목포 다음의 9위에 해당한다.

대구지역에 진출했던 일본인들은 여타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생업이 없는 무뢰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상인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을 보면, 雜業·商業·無職·産業·藝娼妓·酌婦·勞動者들이었다. 이러한 일본인 거류민의 성분을 통해 볼 때, 그들은 대구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악영향이 이 지역민에게 물심양면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비행은 자연 지역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金錢貸借·土地所有·損害賠償 등 여러면에서 紛爭을 유발하였고, 대개의 경우, 그것은 訴訟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당시 법원의 재판에서 土地所有權確認의 事件 件數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이 代金의 擔保로 저당잡은 한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兩國人間에는 날카로운 민족적 감정의 대립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러한 감정의 대립은 刑事事件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구에는 종래의 定期場市로서 東門 및 西門에 각기 陰曆 4·9일 및 2·7일에 개설되는 場市가 있었고, 春秋 2회에 걸쳐 개설되는 藥令市가 있어서 상업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상인들이 이주하면서부터 많은 常設店舖가 생겨났다. 일용품을 주로 공급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상점과 군인·관리 등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던 상점이 있었다. 거래 화폐로서 우리 화폐 대신에 제일은행 발행의 일본화폐가 유통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각은행의 지점과 지방금융조합이 속속 설립되어 상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6) 이 표는 《대구시사》 p.485의 〈大邱 日本人 戶口의 増加〉에 의해 만들었다.

당시 일본으로 유출된 상품은 쌀·보리·콩·잡곡·소가죽·소뺨·소 등이었고, 유입된 상품은 면포·석유·燐·紡績絲·소금·설탕·술·밀가루·일용잡화 등 이었다. 일본 상인의 일방적 무역행위에 의한 輸出入 收支에 있어서 한국인이 일방적 손해를 입고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수출품을 형편없는 싼 값으로 수탈하여 갔고, 일본의 상품을 들여와서는 비싼 값으로 강매하였다. 특히 농촌에 침투하여 담보의 저당에 의한 외상거래를 조장하여 한국인의 농토를 탈취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파괴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 소유의 토지면적이 줄어든 데 반하여 일본인의 소유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점을 보아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한편 산업 기반 시설로서는 大邱蠶業傳習所·韓國農商工部·大邱樹苗養成所·勸業模範場大邱支場 등이 설립되기도 하였고, 大邱衛生會·大邱同仁醫院 등과 같은 일련의 醫療衛生施設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은 한국민에게도 약간의 혜택을 주었으리라 짐작되지만, 그 본래의 설치목적은 어디까지나 거류민을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설립도 거류민의 활동상황을 조속히 보도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감으로써 일본의 한국지배를 보다 순조롭게 달성하여 보고자 한 것이었다. 또 그들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역시 거류민의 자제를 위한 것이었고, 간혹 한국인 상대의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비롯한 일본관계의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위한 내용자의 양성을 꾀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국민만으로써 충당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육기관 설립이 지역민에게 준 혜택이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단지 그것에 자극되어 우리의 힘에 의해 사립학교를 건립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정도였다.

## 第2節 抗日運動과 地域民의 活動

### I. 義兵運動과 그 實相

구한말 일제의 식민지 침략이 강화되어 갈 때, 한국민의 국권 수호를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직접 무력 투쟁으로서 승부를 기대했던 의병운동과 점진적인 실력양성이란 방법에 의존했던 계몽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 근대민족 운동의 주된 흐름으로서 또 한국

근대 민족주의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 크게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韓末 義兵運動과 그 실상을 甲午·乙未義兵(전기의병), 甲辰·乙巳義兵(중기 義兵), 丁未義兵(후기 의병)으로 시기 및 성격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1894~1896년 甲午·乙未義兵運動의 展開

고종 31년(1894)의 갑오의병 운동은 김홍집·김윤식 등 일부 개화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혁정책과 일본군의 경복궁 강제 점령(1894년 7월 甲午變亂)에 대한 유생 및 보수 관료들의 강경한 반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점은 당시 儒生들의 上疏文이나 義兵檄文을 보면 잘 나타난다. 곧 개화정부가 채택한 신제도는 ‘祖宗成憲’을 폐기시키고 민심을 미혹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무조건 구제도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金基鴻은 “甲午八奸이 祖聖의 營號와 官衙를 모두 바꾸고 신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sup>27)</sup> 라고 비판하였으며, 申箕善은 “한갓 관제를 바꾸고衙號를 바꾸어 외국을 본받는 것을 開化라고 할 수 있느냐”<sup>28)</sup> 라 하였고, 李南珪도 “안으로는 閣部로부터 밖으로는 府郡에 이르기까지 무릇 조치하는 바는 한결같이 모두 凶逆輩가 변경시킨 법이며 이때문에 국가의 古制는 폐해졌다”<sup>29)</sup> 라고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에 의한 야만적인 궁성점령과 개화정부의 典章改革은 양반 유생들의 忠君勤王的인 거센 반항을 불러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는 안동의 서상렬, 지평의 안승우, 정산의 안창식, 상원의 김원교 등의 거위가 그것이다. 갑오의병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생 徐相轍이 안동에서 제일 먼저 일으켰다. 그는 1894년 7월에 격문을 각지에 발송하고 항쟁을 위해 안동으로 와서 李晚燾 등과 만나 안동부 향교에서 舉義하려 했으나 安東府의 제지로 일단 실패하였다. 그러나 다시 8월 초에 안동유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安東義陣을 구성한 후 상주·함창·태봉 등지의 일본군 병참부대를 공격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 때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은 안동부에 정찰대를 파견하였으나, 오히려 의병에게 격파되고 말았다. 다음달에 600여 명의 부대 규모로 태봉을 공격하는 등 소백산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수차에 걸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제천·청풍 전투에서 관군과 합세한 일군에게 패배하였고, 이어서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전투에서 거듭 패배함으로써 경상도에서의 갑오의병은 일단락되었다. 이무렵 평안도 상원에서 金元喬가 ‘평안도 창의사’란 이름 아래 유생과 동학농민,

27) 《日本外交文書》 제27권 제1책, p. 458.

28) 《申箕善全集》 권 3, 辭議員召命疏.

29) 李南珪, 《修堂集》 권 2, 辭安東觀察使疏.



포수들이 참가한 의병부대를 이끌고 활동하기도 하였고, 지평·정산에서도 의병 활동을 위한 준비가 있었으며, 또 長潭에서는 李恒老의 문인 5,6백 명이 모여 柳麟錫을 중심으로 舉義討倭를 목적으로 의병 봉기를 논의한 바도 있다.

고종 32년(1895)의 을미의병 운동은 국모 살해 사건과 복식 개혁·단발령 강행등과 같은 민족 자존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청일전쟁·갑오농민투쟁·갑오개혁·갑오의병 등으로 인한 혼란의 여파가 잔존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일본공사 三浦梧樓는 친일 내각을 통한 침략 정책을 펴던 중 이에 방해가 되던 민비를 살해하였다(을미사변). 이 을미사변과 함께 양반 유생들의 가장 큰 반발을 초래한 것은 복식 개혁과 단발령의 단행이었다. 유생들은 먼저 전통 복제의 개정에 대해 4천년 華夏一脈과 2천년 孔孟程朱의 道理의 상징물일 뿐 아니라 현재 조선을 夷狄와 구분해 주는 척도라는 의식하에서, 그것은 양반을 상민·천민과 구분하는 징표로 여겼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안 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을미의병의거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유인석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 상투와 원메(圓袂: 넓은 소매)를 보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華夷·人獸의 判·不判과 綱常·大道의 保·不保가 달려 있으니 상투를 다버리고 원메를 다 찢어버리면 어찌하겠는가”<sup>30)</sup> 라고 하였다. 신기선은 “의제를 차츰 간소하게 개정하는 것은 참으로 고금과 시의에 맞는 일이나 어찌 구태여 넓은 소매를 전부 제거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는 유복이 없게 하는가.”<sup>31)</sup> 라 하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 유생들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此頭可斷 此髮不可斷”이라고 주장하거나 유교경전에 실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를 들먹이면서 완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四大門에서 삭발관이 버티고 서서 삭발을 단행할 때, 이에 잘린상투를 쥐고 憤漏를 삼키며 낙향하는 유생이 속출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漢城으로 통하는 京道가 소연하기 까지 하였다고 한다.<sup>32)</sup> 단발령의 실시에 대해 學部大臣 李道宰 및 보수와 원로대신 김병시를 위시한 중앙의 관료들도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당시 江陵 의병장 閔龍鎬는 ‘오늘날의 가장 급한 대의로서 말한다면, 첫째가 장발하여 가관하는 것이요, 둘째는 명분을 바로 잡는 것이요, 셋째는 소매를 넓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의 관제는 모두 변경되어 왜인의 칭호를 본받으니 이는 중화로서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데 전하께옵서는 분발하시고 친히 결단을 내리시어 직접

30) 《昭義新編》，贈言金仲一還國

31) 《申箕善全集》권 3, 辭議員召命疏

32) 《梅泉野錄》권 2, p. 1107.

전하의 몸에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시고 만조백관은 일체 구관제로서 일을 보게 하십시오’<sup>33)</sup> 라고 하여 조정 관제 일체의 복구를 주장하였다. 제천 의병장 柳麟錫은 “官制之變 州郡之革 猶夫前也”라고 하면서 구제도로의 전면 복구를 주장하고 있었다.<sup>34)</sup>

이와 같은 일제에 의한 국모 살해 사건과 전통 질서 파괴 행위는 적개심으로 격노한 전통 양반·유생들을 적극적으로 의병 대열에 참여시킴으로써 의병 항쟁을 격화시켰다. 특히 폐비조칙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여 이진창·홍승헌·정원하·이남규 등의 ‘국모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지고,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전국 각처에서 일제 침략을 알리는 방과 擧義檄文이 나붙기 시작하였다.

전국의 주요 의병 항쟁을 개괄하면, 10월 충청도 儒城의 文錫鳳의 거의를 비롯하여, 11월의 경기도 이천의 金河洛, 12월의 강릉의 閔龍鎬, 안동의 權世淵, 홍주의 金福漢·李楔·安炳瓚, 춘천의 李昭應·柳洪錫 등이 거병하였다. 이어서 지평에서 거의한 李春永·安承禹 등이 제천으로 와서 영월에 있던 柳麟錫을 받들고 거의하였으며, 선산에서는 許薦, 진주에서는 盧應奎, 문경에서 李康季, 장성에서 奇宇萬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 저명한 위정척사론적 유생들로서 당시 유림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들을 추종한 의병의 기본 세력은 농민들이었으며, 뒤이어 산포수, 갑오농민군에 참여했던 자들도 가담하였다.

경상도에서의 을미의병은 〈嶺南萬人疏〉의 중심지인 안동 지방에서 먼저 일어났다. 안동과 그 인근 지방의 유생들은 단발령 직후 유생 郭鍾錫, 都事 金道和, 持平 金興洛 등 223명이 통문을 돌려 창의를 외치며 국모 복수를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1896년에는 의병진이 편성되어 안동부를 점령하고 參奉 權世淵을 대장에 추대하여 한 때 그 수가 4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sup>35)</sup> 그렇지만 이 안동의병은 몹시 허약하여 관찰사 金錫中이 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다시 안동부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의병은 흩어지고 말았다.

경상도에서 안동의진 다음으로 큰 의병은 崔益鉉의 문인으로 安義의 선비인 盧應奎 등에 의하여 봉기된 진주의병이었다. 노응규는 徐再起·정도현·박준필·임경희·성경장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진주성을 점령하고, 순검들을 붙들어 처단하고 무기고를 접수하였다. 이와 전후하여 진주의 鄭漢鎔은 지방 의병을 모집하여 입성하니 더욱 병력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다시 吳鍾根·權鳳熙·鄭載圭 등이 합세하여 진주 일대는 의병 세력으로 뒤덮혔고 그 수는

33) 《復齋集》 권 1, 請還宮長髮復官制及衣制疏

34) 《毅菴集》 권 4, 西行時在旌善上疏

35) 李正奎, 《倡義見聞錄》 및 《續陰晴史》 권 8, 建陽 원년 1월 31일.

1만 명으로 알려졌다. 이때 달아났던 진주관찰사 趙秉弼이 대구부의 관군과 함께 반격해 왔다. 의병진에서는 대오를 정비하고 기습하여 참서관 吳顯益 등 10여 명의 관리를 처단하였다. 이 진주와 그 밖에 사천 및 고성에서 봉기한 의병진은 그 후 관군 및 일본군의 공격을 몇 차례 받으면서 진주성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 해 4월경에는 증원된 일본군과 내부에서 배신한 정한용 때문에 진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패전하고 말았다.<sup>36)</sup>

大邱府는 당시에 경상도 감영의 소재지였고 官軍이 주둔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의병의 봉기는 없었던 것 같으며, 오히려 인근 의병 부대의 공격 목표기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구직할시 행정 구역에 당시의 칠곡군, 달성군, 경산군 지역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 인근 지역의 金山義陣과 같은 의병 부대는 대구와도 관련이 없지 않을 터인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대구부에서 가까운 尚州·金山·知禮·星州 등지에서 일어난 許薦·李起燦·李殷贊·趙東鎬·李起夏·李相禹 등 명망있던 유생들이 金山에서 의병진을 편성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 金山義兵陣은 그 후 金陵·金山 등을 차례로 점거하고 대구부를 공략하려 하였으나 대구와 공주의 관군으로부터 반격을 받아 대구 공격 계획이 중단되고 얼마 후 해산되고 말았다. 이 금산의진의 의병대에는 지리적 여건상 대구의 인근 지역 의진이어서 대구 출신 인물들도 소수나마 참여하였으리라 믿어지나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전기 의병 항쟁은 1896년 10월경에 종결되었다. 종결 양상을 보면 진주성의 경우처럼 내부 반란에 의하여 와해된 것이 있고, 허위·김도현처럼 힘의 한계에 부딪쳐 해산하고 후일을 위하여 잠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안동의 김도화, 금산의 이기찬처럼 정부의 선유에 직접 간접 영향을 받아 진영을 해산하였다. 해산 의병의 일부는 그 후 火賊·英學黨·南學黨·東學黨 등으로 새롭게 곳곳에서 일어났고 1901년부터는 活貧黨으로 개편되었다가 중기 의병으로 합류되어갔다.<sup>38)</sup>

## 2. 1904~1907년 甲辰·乙巳義兵運動의 再起

갑오·을미의병이 종결된 후에 유생 의병장들은 해산하여 돌아가고 의병대열에 참가했던 농민들은 그들 나름의 또 다른 투쟁으로 형태를 전환해 갔으니 이른바 광무농민운동이다.

36) 《獨立運動史》 권 1, pp. 204~244.

37) 李起燦, 《止山先生遺稿》 권 3, 日記

呂中龍, 《甲午·丙申日記》

38) 권영배, 〈1896~1906년 무장농민운동집단의 활동과 성격〉 《역사교육논집》 6, 1984.

黃玟에 의하면 ‘이때 의병 해산자가 土匪로 바뀌어 경보가 그치지 않으므로 지방에 設兵의 논의가 일어 났다.’<sup>39)</sup> 라고 한 것처럼 해산된 농민 대중들은 그 때의 조건에 따라 화적·폭도·동비여당·활빈당 등으로 형태를 전환하면서 각처에서 투쟁을 계속했다. 이들은 친일 관료, 지주, 일본 상인, 일인 거류민 등을 공격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인 전선, 교량 등을 파괴하면서 일제 침략에 항쟁하였다.

甲辰義兵은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韓日議定書〉, 〈제1차 韓日協約〉 등을 통하여 한국을 거대한 군사 감옥으로 만들자, 국권수호의 기치아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재기한 의병은 1905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5월에 ‘경기·강원·충청도 및 경북 일대에 의병이 일어 났는데 모두 討倭를 주장하였다.’<sup>40)</sup> 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의병으로는 강원도 원주의 元容八, 경기도 砥平의 李文鎬, 廣州의 具萬書 등의 거병이 그것이다. 이들 의병은 강원도 의병장 元容八의 영향에 미쳐 강원도에 연결된 산맥을 따라 충청, 경상, 경기도로 파급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종래 소위 ‘화적’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그들이 의병으로 합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이러한 상황속에서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사실상 식민지화를 기도하자 한국 민중의 분노는 분화구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황성신문》에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과 같은 언론 투쟁을 비롯하여 유생 및 전직 보수관료들의 상소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유생과 전직 관료들은 일본의 군사적 폭력 앞에서 상소 운동과 같은 소극적 방법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국권회복의 차원에서 격문을 뿌리며 의병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켜 일제에 항쟁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乙巳義兵이다. 대표적인 의병 부대로는 전 참판 閔宗植의 洪州義陣, 신돌석의 寧海義陣, 영천의 山南義陣 등이다.

신돌석 의병진은 1906년 4월 경북 寧海郡 福坪里에서 재기한 후 곧 영해읍에 입성하여 관군의 무기를 접수하고, 평해를 거쳐 울진으로 진군하면서 의병을 증보하여 그 수가 3,000에 달하게 되었다. 그 후 경상도와 강원도의 동해안을 따라 왕래하면서 기민한 활동으로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 해 11월 경부터는 일월산·백암산·대둔산·동대산 사이로 행군하면서 진위대와 일본 군경대에 대해 유격전을 펴 많은 전과를 올려, 중기 의병의 한 상징으로 지칭되었다.<sup>42)</sup>

39) 《매천야록》 권 2, 建陽 원년 5월.

40) 위의 책, 光武 9년 을사.

41) 韓國內部警務局, 《韓國顧問警察小誌》, p. 112.

42) 《獨立運動史資料集》 3, pp. 411~417 〈申將軍實記〉

山南義陣은 영천에서 1906년 3월 대장 鄭鏞基를 중심으로 李韓久·孫永珏·鄭純基 등이 경상도 전역을 망라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山南倡義陣이라 이름하였는데,<sup>43)</sup> 이는 4월에 신돌석 의진과 연락하면서 청하읍을 제 1차 공격 목표로 두고 진군하였다. 그러나 도중 경주 진위대의 간계에 속아 대장 정용기가 체포되어 대구 감옥에 수감되면서 크게 사기가 손상되었다. 그 후 중군장 이한구가 대신 의진을 통솔하며, 청하와 경주를 점령하고자 작전을 펴기도 하였으며, 또한 청송·진보 등지로 행군하면서 항쟁을 계속하였지만 정부의 진위대와 일군경대의 추격에 불리하여 그 해 7월 하순 청송부에서 후일을 기약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산남의진은 1907년 4월에 재기하여 다시 항쟁에 들어 갔다. 이때 정용기는 그의 부친 鄭煥直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부산·대구 방면에서 김현극·유화실, 동해안 지방에서 임중호, 의성 지방에서 박태종, 경주 지방에서 홍규섭, 신녕 지방에서 권규섭 등이 가담하여 각기 의병을 거느리고 합세하였다. 이후 산남의진은 후기 의병으로 연결되면서 경상도 각지에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갑진·을사 의병 항쟁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그 성격상 의병 운동이 한층 민중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이다. 정용기처럼 유럽 자체내에서도 민중성의 확대를 볼 수 있지만 신돌석 의병처럼 평민 의병이 독자적으로 봉기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고종황제 자신이 전기 의병 때와는 달리 의병 봉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종황제는 특사를 통하여 열강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안으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 세력을 축출할 것에 기대를 걸고 시종관 등 측근자에게 그 뜻을 전하면서 의병 봉기를 더욱 촉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대구지역은 경상도 監營의 소재지일 뿐 아니라 의병 진압에 동원되는 관군과 일본군경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병 봉기는 없었지만, 간혹 의병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 1904년 8월 19일에 의병 200여명이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건설되던 京釜線 鐵道工事의 請負會社를 공격하다가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의병 3명이 체포된 채 후퇴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sup>44)</sup>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의병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기 이후의 의병 활동이 산악 지대를 무대로 유격전 방식으로 변전해 갔던 것과도 관계가 있겠다. 그러나 대구 인근 지역의 山南義陣에는 대구 지역 인물도 다소 참여하고

43) 《山南義陣遺史》, 제3편 제10장 제2절

權寧培, 〈山南義陣의 組織과 活動〉《역사교육논집》 16, 1991.

44) 《時事新報》 1904년 8월 20일자.

있었는데, 이점은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 3. 1907~1910년 丁未義兵戰爭과 義兵의 退潮

중기 의병 항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인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자 고종황제는 이 기회에 李儁, 李相高, 李瑋鍾을 특사로 삼아 국권회복을 열강에 호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3인의 특사는 한국이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가를 거부당하고 겨우 기자협회에서 일제의 불법침략성을 폭로하여 각국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서 그쳤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용 개화 정부와 부왜 단체를 앞세워서 고종황제의 퇴위를 강요하고 내정 간섭 강화를 위한 새 협약까지를 강요하였다.

7월의 고종 퇴위를 전후하여 이에 반대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의 봉기가 잇달아 일어나고 일본 군경과 곧곧에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어서 일제는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뒤이어 8월에는 한국군을 해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강한 반발이 야기되었고, 시위대의 봉기가 대일 무력 항쟁으로 전개되었으며, 해산병들은 지방으로 탈출하여, 각지의 의병 부대와 합류하였다. 지방 진위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들 진위대의 병력을 흡수한 이후의 의병 항쟁은 본격적인 대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大邱鎮衛隊는 8월 4일에 解散式을 거행하였는데, 일부의 軍人들이 이에 반발하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抗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단지 이들 중 일부가 대구의 인근 지역인 河陽·慶山·慈仁·軍威·義城 지역으로 진출하여 타 義兵組織에 의탁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그들에 의해 대구부근의 電信線이 절단되어 通信이 두절되기도 하였다고 한다.<sup>45)</sup>

이 시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의병 부대들의 활동은 기우러져 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 민족의 처절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전국적인 의병항쟁 중 경상도의 경우는 申堧石과 鄭煥直의 의병 부대가 대표적이었는데, 그중 대구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은 鄭煥直의 山南義陣이었다. 을사의병 때부터 항전해 온 山南義陣의 鄭鏞基는 그의 아버지와 연락하여 1907년 4월 제 2차 山南義陣을 결성하여 동해안 일군 수비대가 주둔한 청하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의 활동이 있을 때, 때마침 군대 해산이 있어 禹在龍의 지휘하에 해산 군인이 합류함으로써 산남의진은 후기 의병으로 나서게 되었다. 위세가 드높아진 산남의진은 永川·慶州·清河·青松 등을 본부 부대나 혹은 禹在龍·林龍相 등의 지대로 공략하며 당초 關東지역으로 북상하려던

45) 河井朝雄, 《大邱物語》, 1930, pp. 239~243.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일로 진군하였다. 그리고 영일군 竹長面 梅峴里와 立岩里 일대에 진을 쳤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대격전이 벌어졌는데 의병 진영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정용기·이한구·손영각·권규섭 등의 지휘탑 의병장을 비롯하여 많은 의병이 전사하였다.

정용기의 전사로 그의 아버지 鄭煥直이 산남의진의 2대 대장으로 취임하고 의진을 재편성하였다. 그리하여 청송 보현산과 영일 북동대산을 거점으로 당초 강릉으로 북진하려던 계획을 버리고 경상도지역의 일본군을 격파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해 9월 이후 영덕·청송·영일·영천 일대에서 일본군의 격퇴와 부일배의 처단을 병행하면서 여러 곳의 헌병 분견대도 격파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 때 13도연합의병이 서울 진격을 계획하자, 정환직은 12월에 휘하 의병부대를 관동으로 집결토록 하는 도중에 일본군에 체포되어 영천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그후 崔世允이 남은 의병을 지휘하였다.

대구지역의 의병 항전으로는 산남의진 支隊의 팔공산 활동이 주목되어 진다. 산남의진에서 1907년 12월 정환직 대장의 순절로 제 3대 대장으로 최세윤이 취임한 이후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 支隊別 유격전이 본격적으로 구사되었다. 이 때 禹在龍부대가 팔공산 지역을 담당하여 桐華寺에 근거를 두고 남동대산의 본대와 연락하며 2년 동안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일본군 대부대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고, 지대장 우재룡이 대구에서 부하들과 군자금 1,600냥으로 염총 50정을 구입하려다가 피체되어, 팔공산 지역의 의병 활동도 종결되고 말았다.<sup>46)</sup>

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산남의진에 속한 孫亮允은 대구·현풍 지방의 소모 책임자였다가 후에 팔공산에서 활동 도중 체포당하였고, 하양에서 활약했던 鄭春一은 울산군인 출신이나 입진하여 하양·경산 지방을 책임지고 소모하며 활약하던 도중 체포되어 대구에서 복역하였고, 金道彦도 대구·현풍 지방을 책임맡아 소모하였고 그 후 도총장으로 활약하다가 피체되어 대구에서 복역하던 중 옥사하였다. 그리고 漆谷郡 架山 출신 張俊灝는 1906년 8월 동지 10여명과 함께 자진 의병에 투신하여 영덕에서 활약하던 林中虎(林龍相) 의병장의 참모장으로 활약하다가 산남의진 본대에 와서는 上營執事로 활동하면서, 팔공산으로 이동하던 도중 체포되었고, 대구인 孫善一은 1907년 9월에 하양·경산을 맡아 소모하면서, 팔공산에서 양식 무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sup>47)</sup>

46) 《山南義陣遺史》 제5편 列傳, 禹在龍

우재룡은 복역 후 1910년 경술 7월에 석방, 이후 대구에서 광복회 활동으로 전환하여 구국 활동을 계속하였다.

47) 위와 같음.

그리고 이 시기에 활약한 대구출신인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은 예가 찾아진다. 李春花는 1907년 11월 의병장 崔成執의 부하로서 화약 운반 및 수비대의 활동과 아울러 일본 경찰의 동정을 정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고,<sup>48)</sup> 朴華俊은 1907년 7월 경 의병장 신돌석과 의논하여 부하 수백 명을 이끌고 삼척군 원덕면 장호동의 일본인을 습격하여 일본인 1명을 사살하고, 1909년 7월에는 울진군 원남면 일본 경찰 토벌대 앞잡이 高濟昇 집을 습격 사살하는 등 약 3년 동안 삼척·울진·영양 등지에서 활약하였다고 한다.<sup>49)</sup>

이처럼 대구지역에서는 산남의진 지대가 팔공산을 거점으로 전투를 하였고, 대구 인물로서는 山南義陣, 영해의진 등의 의병에 참여 의병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정미의병 전쟁 때에 대구 지역에서는 팔공산이 산남의진 지대의 활동지였고 또한 산남의진의 의병 대열에서 대구 출신 인물이 입진 활동했던 것이 소수나마 확인되었다. 의병 대열에의 참여는 산남의진 이외에서도 찾아지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점은 현실적으로 대구에서의 의병 봉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의기있는 인물은 다른 지역의 의병대를 찾아 입진하여 활동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에서의 의병 항쟁이 격렬하지 못했던 것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丁未義兵이 산악 지대를 근거로 하는 유격전이었던 것과, 일본군의 무력 방어가 철저했던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II. 國債報償運動과 그 實相

구한말 조선정부는 18세기 이래의 재정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개항에 따른 각종 경비의 증대로 심각한 재정 빈곤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은 채, 惡貨의 發行과 외국에의 借款에만 의존하여 많은 문제를 파생하였다. 또 근대화의 추진을 위해 많은 外貨가 필요하였으나, 상품이나 금의 수출을 통한 外貨流入은 대부분 외국상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외화는 關稅金이 전부였다. 그러나 관세 수입도 무관세, 低率協定關稅 등으로 인하여 그 소득이 크게 적었고, 그 운영권마저도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이권을 담보로 외국의 차관을 얻기도 하였으나, 열국은 차관제공을 그들의 정치적 진출의 지렛대로

48)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1, pp. 434~435.

49) 위의 책, pp. 544~546.



사용하여 조선정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sup>50)</sup>

그러다가 러일전쟁이후에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화된 가운데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지배 기반의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곧 1904년 2월 한국 정부는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과 〈韓日議定書〉를 체결하고, 이어서 〈한일 외국인 고문傭聘에 관한 협정서〉(제1차 韓日協約)를 체결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顧問政治 실시를 통한 한국 침략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탁지부 고문으로 來韓한 메가다(目賀田種太郎)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경제권까지 장악하였다. 그 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1905년 11월 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사실상의 植民統治를 실시하면서 차관공세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施政改善을 구실삼아 일본으로부터 들어 온 이 차관이 이른바 國債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통감부의 정치·경제적 침략에 직면한 한국민은 경제적 민족 운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國債報償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다.<sup>51)</sup>

국채란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가 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한제국 정부에 억지로 떠넘긴 借款 負債 1,300萬圓을 말한다. 1904년 8월 〈한일 외국인 고문傭聘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 한국에 온 재정고문 일본인 目賀田은 식민지 기초 작업의 제일보로서 한국내 財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 정리 사업에 착수하였다. 1905년 1월 貨幣整理債 명목으로 關稅收入을 담보로 년 6푼 이자, 6개년 거치 5개년 상환으로 300만원을 차입해 들였다. 또 6월에는 舊債 상환 및 歲計不足補充費를 구실로 국고금 수입을 담보로 200만원의 국고증권채를 발행하고 이를 일본정부의 지불 보증으로 일본 국내에서 모집해 들여 왔다. 이 국고증권채는 연 7푼의 이자로, 3개년 거치 5개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화폐정리채는 한국의 화폐개혁 실시 비용에 충당되었고, 국고증권채는 식민지 작업의 일단인 행정기구의 개편을 위한 재정 지출에 충당되었다.<sup>52)</sup>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이후 施政改善費 명목으로 즉, 교육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확장 정리, 도로 항만시설의 개수, 宮房田의 정리, 일인 관리 고용 등의 명목으로 고이올 국채가 급증하여 갔다. 통감 伊藤博文은 시정개선 및 기업 자금이란 명목으로 관세 수입을 담보로 이자 연 6푼 5리에 5개년 거치 5개년 상환으로 1,000만원을 차입 조치하였다. 이

50) 吳斗煥, 〈韓末 借款의 展開過程〉《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1993.

51) 이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다.

대구문화방송·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1993.

52) 조항래, 〈국채보상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p. 635.

때 1천만원 중 口文錢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을 1,000만원 조로 차입하였다. 이러한 차관 공세로 한국 정부는 원금 1,65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1907년 2월 新債로 舊債 약 35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결국 1,300만원의 채무가 남았던 셈이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예산규모는 1906년의 경우 歲入 총계가 1,318萬 9,336圓, 歲出 총계가 1,395萬 023圓이었기 때문에, 1,300만원의 外債는 정부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이었기에 정부 국고금으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었다.<sup>53)</sup>

이러한 차관은 대한제국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정책과 그 정지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차관을 주어 억지로 떠넘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차관이 비록 화폐 정리, 토지 조사, 도로, 항만 구축 등과 같은 경제 사업에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식민지화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화폐 개혁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던 일본인은 가치가 높은 양화를 수집하고 악화를 내 놓음으로써 신화와와의 교환에서 폭리를 취하였는 데 비해, 다수의 한국인은 減價한 악화를 소유 교환함으로써 경제적 영락을 피할 수가 없었던 점 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일본은 통감부의 비호를 받는 일본인 및 일본 상인과 일본계 은행들을 앞세워 한국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강화해 나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그들의 한반도 침략 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있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막자면 한국이 먼저 경제적 예측에서 자주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 진 빚을 갚는 것이 급선무임을 자각하고 이른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일제 침략에 따른 직접 무력 항쟁인 의병운동과는 달리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의 한 형태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채 1,300만원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의한 경제적 예측화가 촉진되고 있을 때, 이를 자각한 지식인을 위시한 각계 각층의 우국지사들은 국채 상환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 東萊의 商人層 사이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들 동래 상인층과 상거래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대구의 상인층에서도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1907년 2월 16일(음력 前年 12월 16일) 대구에서 廣文社의 廣文社 文會의 회명을 大東廣文會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廣文社의 부사장인 徐相敦이 일제의 국채를 갚아버리는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을

53) 申載洪, 〈主權守護運動〉《한국사》19, pp. 257~259.

신용하,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國債報償運動〉《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1993.

동의하였다. 서상돈의 동의의 내용은 국채 1,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토지를 주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정부의 국고금으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리 2천만 국민이 담배를 3개월간 끊고 그 대금을 매월 1명당 20錢씩 수합하여 국채를 갚아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동의를 하면서 자신부터 이를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800圓을 내어 놓았다. 이에 참석한 회원들이 만장 일치로 이 동의를 가결시켰다.

이어서 廣文社 사장이던 金光濟 등의 공동 명의로 된 〈國債 1,300만원 報償趣旨書〉<sup>54)</sup>란 취지서를 발표함으로써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취지서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忠義를 강조하면서

지금 국채 1,300만원은 우리 韓帝國의 존립에 직결된 것이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지금 나라의 국고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형편이다. 이것을 나라에서 갚기를 기다린다면 삼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 나라나 우리 민족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고 하여 국채 보상에 대한 문제를 국가 존망의 위기 문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채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국채를 갚는 방법의 하나로 크게 노고하지 않고 또 자기 재산의 손해봄이 없이 크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2천만 동포들이 3개월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원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액수가 모자랄 때는 그때 1원, 10원, 백원, 천원의 특별 모금을 해도 될 것이다.

즉 국채 보상을 위해서 전국민이 3개월 동안 금연을 하고 그 대금으로 성금을 모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금을 특별 모금 형식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취지서에는 더 이상 무능한 정부에게 국가의 존망을 맡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분발하여 일어서서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 운동의 발기인은 광문사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 大東廣文會 회장 朴海齡·회원 金允蘭·張相轍 등 10여 명으로서 2월 21일 그들은 大邱民議所(斷煙會)를 설립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民議所 창립 회합 장소 즉석에서만도 500원이란 성금이 모아졌다고

54)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1일, 雜報.

한다. 이어서 민의소는 北後亭(현재의 대구 시민회관 부근)에서 국채 보상 모금을 위한 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3월 9일 대구 서문 밖 壽昌社에 國債志願金收合事務所를 설치하였다. 이 때 국민 대회가 일본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고 연설자가 체포되기도 하였다.<sup>55)</sup>

이와 같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제창되자 대구 지역에서 영세상인, 짚신장수, 선비, 유지, 일반인, 결인, 부녀자 등 각계 각층에서 의금을 收錢所에 바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월 23일에는 대구의 여성들이 南一洞에서 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글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나라사랑에 어찌 男女가 다르겠는가” 하면서 이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sup>56)</sup> 이러한 여성들의 참여는 더욱 확산되어 國債報償脫環會·南山國債報償婦人會 등이 이어서 조직되자,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를 본받아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이 결성 되었다.

이리하여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언론들 가운데서도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황성신문》, 《만세보》, 《제국신문》 등이 이를 즉각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즉 고종황제도 금연을 결심했고, 전 참정대신 金聲根이 100원을 내고, 아산군에 사는 한 부인은 거액 20원을 제국신문사에 보내어 국채보상운동에 써 달라고 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학생, 학교단체, 노동자, 일반시민, 여성 단체 등 각계 각층과 교포, 외국인까지도 참여하여 적극 후원하였다.<sup>57)</sup>

이리하여 2월 22일에는 급기야 국채보상운동을 총괄하고 기탁된 성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채보상기성회가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金成喜·劉文相·吳營根 등이 중심이 된 이 기성회는 취지문을 통해서 여러가지의 실천 사항을 발표하였다.<sup>58)</sup> 이와 함께 의금 접수를 위해서 국채보상기성회에서는 의연금 收錢所로 夜雷報館임시사무소·廣學書舖·桃洞 건재약국·대한매일신보사·尚洞 청년학원 사무소·大廣橋書 등에 收合所를 마련했고, 國債報償中央義務社가 徐丙炎등에 의해 설립, 그 수합소가 황성신문사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속속 결성되게 되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보상소 설립 수는 경상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청, 전라, 평안도가 비슷하며, 함경, 황해, 경기, 강원도 지역의 순서로 설립되었다. 특히 이들 보상소 중에 함경도 端川郡국채보상소의 발기인 李炳德 등은 〈國

55)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 잡보.

56)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8일자 잡보, 경고아부인동포아

57) 《매천야록》 권 5, 光武 11년, 丁未.

58) 《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27일, 잡보.

債報償歌》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07년 2월 대구에서 선도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 아래 범국민운동으로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남자들이 단연, 절주의 방법으로 의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데 비해 여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節米, 폐물, 헌납 등으로 적극 동참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여성 단체를 결성하여 대국민 의연을 호소하기도 하였다.<sup>59)</sup> 또한 언론 기관에서도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하여 《황성신문》도 2월 25일자에 〈斷煙報國債〉란 논설을 실어 크게 환영을 표하였고, 《제국신문》, 《만세보》 등도 크게 관심을 보였다.

당시 최고의 발생 부수를 지니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사는 처음에는 이 운동의 취지와 국민들의 애국심에는 찬동하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의연금을 모아 국채를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에 걸쳐 열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애국운동을 방관할 수 만 없어 태도를 바꾸었고, 이후 다른 언론 기관에 비해 이 운동에 주도적 기관이 되었다. 이 신문사는 전국의 많은 국민이 보내 오는 성금을 중앙에서 총괄할 필요성에서 같은 해 4월 초 신문사내에 〈國債報償支援金總合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후 국채보상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 하였는데, 적게는 5전에서 많게는 백원 이상이, 술집 기녀에서부터 군인, 노동자, 유생, 전직고관에 이르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은 3년 3개월 중 초기 약 4개월 동안이 가장 활발하여, 7·8월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9월 이후에는 성금의 모금이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제의 방해 공작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발단된지 1년 3개월을 경과한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모금된 의연금 총 액수는 14만 3천 5백 42원 33전이었으며,<sup>60)</sup> 이어서 3개월이 더 지난 7월 27일 현재 주한일본헌병대가 집계한 자료(일본헌병대 기밀 407호)를 보면 전국에서의 의연금 총 액수가 18만 7천 8백 42원 78전 5리에 달하였다.<sup>61)</sup> 그러나 이 운동이 전개된지 3년 3개월 만인 1910년 4월 17일 현재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조사한 各處所貯金額 총계는 15만 9천 2백 53원 99전 9리로 그 액수가 줄어 들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sup>62)</sup> 보상금 수금액을 전체적으로 볼 때 총액은 짐작컨데 16만원 내지 19만원 정도였을 것

59)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3일, 15일, 잡보.

60) 《日韓外交資料集成》 8, 巖南堂書店, 1964, p. 50.

61) 崔垓,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 《백산학보》 3, p. 541.

62) 《매천야록》 권 6, 隆熙 4년 庚戌.

이다.<sup>63)</sup>

이 액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채 총액이 1천 3백만 원이나 되었고 그 후 부채가 계속 늘어 1910년 8월 경에는 국채가 4천5백만여 원에 달하고 있었으니, 이에 비해 볼 때 의연금의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었던가 하는 점은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단결력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는 한국인의 금연 운동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가볍게 생각했으나 한국민들의 지지와 열기가 고조되어 가자 이 운동의 금지, 탄압을 책동하였다. 통감부는 附倭人과 부왜단체인 일진회, 부왜언론기관인 《國民新報》 등을 총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을 극력 비난, 저지하는 동시에 〈신문지법〉, 〈보안법〉 등의 악법을 제정하여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활동을 탄압하고 이에 항거하는 언론인들을 구속하기까지 이르렀다.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인 영국인 배텔(Bethell-裴設)의 추방을 영국 총영사에게 요구했으며, 1908년 7월에는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을 국채 보상금 횡령혐의로 구속시켰다. 양기탁은 사내의 國債報償總合所에서 모금되는 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燧安金鑛의 株를 사고, 개인 사업가에 대여하는 등 의연금의 증액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바 일제는 이를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하여 구속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곧 석방되었다. 이와 같은 통감부의 〈배텔추방공작〉이나 〈國債報償金費消事件〉 즉 양기탁 구속 사건<sup>64)</sup> 등은 일제가 국채보상운동을 항일 민족 운동으로 단정한 나머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탄압의 방법이었음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감부의 외압적인 요인과는 달리 이 운동의 내부적인 한계점이나 취약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곧 이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어 갔던 또다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시 전국적인 이 운동의 구심체로 부상되었던 國債報償支援金總合所와 國債報償聯合所는 내적으로 강력한 전국적 지도부로서 통일적 지도 체계를 갖지 못하여 그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했다. 이 두 보상소에는 폭넓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63)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64) 양기탁의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鄭晉錫, 〈국채보상 의연금에 관한 양기탁 재판〉 《일제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을 참조할 것.

임원 구성상 일제 침략의 추종적 성격을 지닌 인사들이 다수포함되어 있어 일제 탄압의 강도에 따라 애매하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와 입장을 달리하는 적극적인 인사들과 통일된 지도 체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점이다.

둘째,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서 고무하던 단체와 언론기관의 보조가 일치하지 않던 점이다. 즉 국채 1,3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목적은 같았으나 의연금을 모우는 방법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중앙수합소로 자처하여온 國債報償基成會가 전국의 의연금을 취합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때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대한매일신보사가 선뜻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셋째, 이 운동 주체측의 일관성 없는 지도 원리도 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으로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발단부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발기된 것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그들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넷째, 보상금 수전소의 분립 운영에서 파생되는 의금의 관리증식 방법상에서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었다. 국민의 성금으로 각출된 이 성금의 행방이 결국 묘연해져버린 것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1910년 8월에 이르러서는 결국 13도 대표로 구성된 국채보상 처리회를 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나 통감부의 방해로 이것마저 좌절되어 감으로써 범국민운동으로서의 국채보상운동은 끝내 민족 운동으로서 진전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애국정신을 크게 고양시켰고, 둘째,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참여한 애국운동이었고, 셋째, 여성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을 크게 감동시킨 애국운동이었고, 네째, 국민들의 애국정신과 애국운동을 경제·재정 등 실제적 측면과 결합시켜 일제의 경제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을 크게 고양시켰고, 다섯째, 구한말 및 그 이후의 國權回復力量, 民族獨立力量의 〈實力〉을 크게 증강시켰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광범한 국민들의 결집된 힘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으로 크게 양양된 민족 의식과 독립 사상이 계몽운동단체의 구국운동이나 의병전쟁의 국권회복운동과 함께 민족적 독립운동의 저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발상지가 대구였다는 점은 대구시민들의 자존이요 긍지인 것으로서 길이 유산으로 물려져야 될 것이다.

65) 신용하, 앞의 논문.

